

2009 체육백서

2009 Sports White Pap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발간사

오늘날 스포츠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포츠가 엘리트선수의 전유물 또는 오락의 한 방편으로 여겨졌던 데 비해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 유지, 여가 활용의 수단임은 물론 친교 및 소비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개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대내적으로는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국민 결속을 가져다주고 올림픽·FIFA 월드컵과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스포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하계 올림픽, WBC, FIFA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은 세계인의 마음에 “스포츠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면서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의 국민 통합 효과는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포츠 관련 영역의 지속적 확대, 다방면에 걸친 스포츠의 영향력 강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포츠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생활공감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시·군·구 단위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그동안 다소 소홀히 여겨졌던 학교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을 내실화하였으며 축구 종목

부터 주말리그를 도입하여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말리그를 아이스하키 등 다른 종목에도 확대하고 대학농구 등 대학스포츠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해 우수선수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대표 훈련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프로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2 FIFA 월드컵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 유치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9 체육백서』는 2009년 체육 각 분야의 현황과 지난 한 해 동안 체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제도적 기반을 비롯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체육정보화 등 체육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책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09 체육백서』에서는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장(章)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2009 체육백서』가 체육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체육 관계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미래 한국 체육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필진 및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목 차

제1장 체육의 정의와 정책 범위	01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26
제1절 체육의 정의	02	1. 중앙정부 체육조직	26
1. 체육의 학문적 정의	02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31
2. 체육의 법적 정의	02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6
3. 체육의 개념적 한계	03	4. 체육단체	49
제2절 체육의 유사 개념	04	제3절 체육진흥자원	65
1. 놀이, 게임, 스포츠	04	1. 개 관	65
2.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06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66
3. 운동, 운동경기	07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67
제3절 체육의 분류	08	4. 국민체육진흥기금	78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08	제4절 체육관련법제	85
2.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10	1. 개 관	85
제4절 체육정책의 범위	12	2. 체육관계법 현황	86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15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95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16	제1절 개 관	96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16	제2절 국민의여가활동	97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17	1. 여가시간	97
3. 국민의 정부(1998~2003)	20	2. 여가활동 유형	98
4. 참여 정부(2003~2008)	22	3. 레저스포츠 활동	100
5. 이명박 정부(2008~현재)	24		

제3절 생활체육 직접 참여 실태	102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141
1. 생활체육 참여유형	102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41
2. 운동 참가 및 불참 이유	108	2.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활동지원	142
3. 희망 운동 종목	110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43
제4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12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143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112	2.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144
2. 운동경기 관람유형	113	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4
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116	4.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145
제4장 생활체육	119	제7절 생활체육 홍보	147
제1절 개 관	120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147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24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151
1. 시·도 생활체육교실	124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152
2. 생활체육광장	124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153
3.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125	1. 배 경	153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29	2.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153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129	3. 학교체육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협력 및 홍보 강화	154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30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156
3. 동호인 리그	133	1. 개최배경	156
제4절 직장체육활동 지원	139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56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139	3. 개최현황	157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140	제10절 과제 및 발전 방안	158
		1.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158
		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전문화	158

3. 직장체육 환경구축과 내실화	159
4.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강화	160
5.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의 선진화	161
6.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161

제5장 학교 체육 163

제1절 개 관 164

제2절 체육교육과정 166

제3절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169

1. 중학교 체육교원현황	169
2. 고등학교 체육교원현황	170

제4절 학생체력 172

1. 학생신체능력검사의 개요	172
2.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172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실시	174

제5절 정과체육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176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176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	177

제6절 학원스포츠 지원사업 180

1. 학원스포츠 현황	180
2. 학원스포츠 지원사업	183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	186

제7절 과제 및 발전 방안 190

제6장 전문 체육 193

제1절 개 관 194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195

1. 꿈나무 선수 육성	195
2. 후보선수의 효율적 관리	200

제3절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205

1.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205
2.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확충	212

제4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220

1. 전국체육대회 운영	220
2.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222
3.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224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226

1. 종목별 프로단체 현황	226
----------------	-----

제6절 과제 및 발전 방안 231

1. 전문체육 운영시스템의 개선	231
2.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	232
3. 프로스포츠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정상화 노력	232

제7장 장애인체육 235

제1절 개 관 236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238

-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238
- 2. 대한장애인체육회 240
-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242
-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49
- 5. 재 정 250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251

- 1. 생활체육부문 251
- 2. 전문체육 255
- 3. 국제교류 263
-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71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273

제8장 체육시설 275

제1절 개 관 276

- 1. 체육시설의 개념 276
- 2. 체육시설의 종류 277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281

-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281
-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 282
- 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283
-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284
- 5. 생활공감형 공공체육시설 건립 285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286

- 1. 전문체육시설 287
- 2. 생활체육시설 294
- 3.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303
- 4.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 현황 306

제4절 태권도공원 조성 308

-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308
-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309
- 3. 태권도공원 향후 사업추진 일정 313

제5절 과제 및 발전 방안 314

- 1. 조성정책의 평가 314
- 2.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과제 315

제9장 스포츠 산업 317

제1절 개 관 318

-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318
- 2. 스포츠산업 환경 325

제2절 스포츠소비현황 330

- 1. 스포츠소비 정의 330
- 2. 스포츠소비 특성 330
- 3. 스포츠소비 지출 331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334

- 1.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현황 334
- 2. 스포츠용품업 336
- 3. 스포츠시설업 337
- 4. 스포츠서비스업 340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346

-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346
-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352
-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369
-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378
-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381

제5절 과제 및 발전 방안 382

- 1. 스포츠산업 성장의 과제 382
- 2.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382

제10장 체육 전문 인력 385

제1절 개 관 386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387

- 1. 선수·코치 387
- 2. 심 판 395
- 3. 체육계 대학(원) 398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407

-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407
-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412
-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14
-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417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422

제11장 체육 정보 화 425

제1절 개 관 426

제2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428

- 1. 체육정보화 정책 428
- 2. 체육정보화 기반 구축 430
- 3.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440

제3절 과제 및 발전방안	452
1. 포털사이트 재구축 및 실용적 콘텐츠 구축	452
2. 체육정보화 기반 확대	453
3. 체육정보의 표준화	453
4. 스포츠산업 정보 확장 및 개발	454

제12장 국제체육 455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456
1. 국제체육기구 현황	456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462
3. 스포츠의 상업화	469

제2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471
1. 스포츠외교 정책과 조직	471
2. 체육교류협정 체결	475
3.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477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480

제3절 국제교류 현황	482
1. 국제종합경기대회	482
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	506

제13장 남북체육교류 511

제1절 개관	512
1.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의의	512
2.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기능	516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518
1. 법제도적 기반	518
2. 교류 자원	519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522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522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523
3. 2001년~2009년	526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539
-----------------------	------------

표 목 차

제1장 체육의 정의와 정책 범위

01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05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07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09
[표 1-4]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특성 비교	11
[표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관장 업무	14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15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19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20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21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23
[표 2-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25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29
[표 2-7]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33
[표 2-7-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35
[표 2-8]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47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47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48
[표 2-11]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49
[표 2-12]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51
[표 2-13]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52
[표 2-14] 시·도 체육회 현황	53
[표 2-15]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53
[표 2-16]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56

[표 2-17]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58
[표 2-18]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58
[표 2-19] 시·도생활체육회 현황	62
[표 2-20]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62
[표 2-21] 연도별 예산 현황	64
[표 2-22]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64
[표 2-23]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65
[표 2-24] 분야별 국고 예산 현황	66
[표 2-25]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67
[표 2-26]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68
[표 2-27]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69
[표 2-28]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70
[표 2-28-1]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71
[표 2-29]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및 보급률 변화	80
[표 2-30] 체육활동참여의 우선조건	80
[표 2-31] 기금조성 내역	82
[표 2-32] 기금지원 실적	82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95

[표 3-1] 여가시간 분포	97
[표 3-2] 성인(20세 이상)의 생활시간구조	98
[표 3-3] 여가활동 연도별 비교	99
[표 3-4] 월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빈도 연도별 비교	103
[표 3-5]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104
[표 3-6] 운동시간 분포도	105
[표 3-7] 운동시간대 분포도	105

[표 3-8]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106
[표 3-9]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	107
[표 3-10] 운동경비 분포도	108
[표 3-11]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110
[표 3-12] 희망 운동 종목	111
[표 3-13] 희망 운동 종목의 연도별 비교	111
[표 3-14]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112
[표 3-15] 프로스포츠 관람율 연도별 비교	114
[표 3-16]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114
[표 3-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116
[표 3-1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117

제4장 생활 체육

119

[표 4-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121
[표 4-2]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121
[표 4-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122
[표 4-4] 시·도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생활체육교실 수)	124
[표 4-5]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25
[표 4-6] 2009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27
[표 4-7]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사업추진 실적	128
[표 4-8]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사업추진 실적	130
[표 4-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131
[표 4-10]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현황	132
[표 4-11] 전통종목 전국대회 현황	133
[표 4-12]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134
[표 4-13]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사업추진 실적	134

[표 4-14]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135
[표 4-15]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135
[표 4-16]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36
[표 4-16]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37
[표 4-17] 2009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140
[표 4-18]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	142
[표 4-19]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43
[표 4-20]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145
[표 4-21]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146
[표 4-22]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149
[표 4-23]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150
[표 4-24]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50
[표 4-25]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151
[표 4-26]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151
[표 4-27]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예산현황	152
[표 4-28]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주요 내용	154
[표 4-29]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 운영 현황	155
[표 4-30] 학교 내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계획	155
[표 4-31]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157
[표 4-32]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157
[표 4-33] 직장체육 육성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법	160

제5장 학교 체육

163

[표 5-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165
[표 5-2] 7차 교육과정 내 체육시간 배당	166
[표 5-3]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의 명칭 및 배당수업시수의 변천	167

[표 5-4] 계열별 고등학교2,3학년 체육교과 선택현황	168
[표 5-5]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69
[표 5-6] 중학교 체육교원 현황	169
[표 5-7] 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71
[표 5-8] 학생신체능력검사의 급수별 기준점수	172
[표 5-9]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종목별 점수 및 연도별 비교	172
[표5-10]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의 연도별 추이	173
[표 5-11] 학생건강체력평가와 학생신체능력검사의 비교	174
[표 5-12] 2008년·2009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비교	176
[표 5-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예산	177
[표 5-14]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178
[표 5-15]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 (2007년~2012년)	178
[표 5-16] 학교스포츠클럽 현황	179
[표 5-17] 학교운동부 현황	181
[표 5-18]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현황(특수학교 제외)	181
[표 5-19]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182
[표 5-20]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183
[표 5-21] 2009년도 학교운동부 지원내역	184
[표 5-22]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185
[표 5-23] 종목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규정	188
[표 5-24]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규정 변화 과정	189

제6장 전문체육

193

[표 6-1]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196
[표 6-2] 2009년도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197
[표 6-3]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198

[표 6-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199
[표 6-5]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200
[표 6-6]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	201
[표 6-7] 2009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202
[표 6-8] 2009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203
[표 6-9]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204
[표 6-10] 2009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205
[표 6-11]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206
[표 6-12] 2009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207
[표 6-13] 2009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208
[표 6-14]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209
[표 6-15]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210
[표 6-16]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210
[표 6-17]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212
[표 6-18]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215
[표 6-19] 2009년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개·보수 현황	216
[표 6-20]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216
[표 6-21]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217
[표 6-22]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219
[표 6-23]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현황	222
[표 6-24]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223
[표 6-25]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	225
[표 6-26] 프로단체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226
[표 6-27] 프로축구 연도별 관중수 변화추이	228
[표 6-28] 프로야구 관중 입장수	229
[표 6-29] 남자 프로농구 관중수	229
[표 6-30] 여자 프로농구 관중수	230
[표 6-31] 프로배구 관중 입장수	230

제7장 장애인체육

235

[표 7-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237
[표 7-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239
[표 7-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임무(기능)	240
[표 7-4]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	242
[표 7-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243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245
[표 7-7] 장애유형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248
[표 7-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249
[표 7-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250
[표 7-10] 2009년 및 2010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250
[표 7-11]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	252
[표 7-12]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253
[표 7-13] 2009년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	255
[표 7-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256
[표 7-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257
[표 7-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258
[표 7-17] 2009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259
[표 7-18] 2009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259
[표 7-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260
[표 7-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261
[표 7-21]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	261
[표 7-22]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262
[표 7-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 (14개 종목 활용)	262

[표 7-24]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현황	263
[표 7-25] 하계 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265
[표 7-26] 동계 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266
[표 7-27] 역대 아·태장애인경기대회(향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	267
[표 7-28] 2009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268
[표 7-29]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현황	270
[표 7-30] 2009 스포츠외교인재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사업 현황	271
[표 7-31] 2009년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271
[표 7-32] 2009년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272
[표 7-33] 2009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272

제8장 체육시설

275

[표 8-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277
[표 8-2]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78
[표 8-3]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280
[표 8-4]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286
[표 8-5] 전국체전시설 지원실적	287
[표 8-6] 지역별 운동장·체육관 확보 현황	288
[표 8-7] 2009년 운동장·체육관 지원실적	290
[표 8-8] 2009년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지원실적	291
[표 8-9] 2009년 지역별 리모델링 지원실적	293
[표 8-1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295
[표 8-11] 생활체육공원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297
[표 8-12]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298
[표 8-13]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299

[표 8-14]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301
[표 8-15] 노인건강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301
[표 8-16]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302
[표 8-17]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 수	303
[표 8-18] 월드컵경기장별 운영수지 현황	306
[표 8-19] 월드컵경기장 임대 및 매장 구성 현황	307
[표 8-20]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및 의견수렴 결과	311
[표 8-21]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311
[표 8-22] 사업추진 일정	313

제9장 스포츠 산업

317

[표 9-1] 스포츠산업 분류항목	321
[표 9-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326
[표 9-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329
[표 9-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333
[표 9-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333
[표 9-6] 한국·미국·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334
[표 9-7] 연도별 스포츠산업 하위시장 시장규모	335
[표 9-8] 2009년도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 종사자수	336
[표 9-9] 주요 리조트형 시설 현황	338
[표 9-1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339
[표 9-11] 연도별 주요 신고·등록 체육시설현황	340
[표 9-12] 2001~2008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수	341
[표 9-13]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341
[표 9-14]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342
[표 9-15]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342

[표 9-16]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343
[표 9-17]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현황	344
[표 9-18]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345
[표 9-19]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조직구조의 변화	351
[표 9-20]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354
[표 9-21]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현황	354
[표 9-22] 2009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357
[표 9-23] 국가별 전시참가업체 현황	357
[표 9-24] 품목별 참가비율	357
[표 9-25] 해외바이어 참가현황	357
[표 9-26] 상담 및 계약실적	358
[표 9-27]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현황	360
[표 9-28]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364
[표 9-2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 사업개요	367
[표 9-30]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용자현황	368
[표 9-31]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기준	370
[표 9-32]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현황	371
[표 9-33]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374
[표 9-34] 스포츠서비스업체 기금용자기준	375
[표 9-35]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현황	376
[표 9-36]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378
[표 9-37]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380

제10장 체 육 전 문 인 력

384

[표 10-1] 종목별 등록선수수	388
[표 10-2]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	390
[표 10-3] 꿈나무 선수 육성 현황	391
[표 10-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392
[표 10-5] 종목별 후보선수수	393
[표 10-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수	394
[표 10-7] 종목별 심판	396
[표 10-8]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전문대학)	398
[표 10-9] 체육계학과 교수수(전문대학)	400
[표 10-10]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대학교)	401
[표 10-11] 체육계학과 교수수(대학교)	404
[표 10-12] 체육계학과 학생수(대학원)	405
[표 10-13] 경기지도자 자격 요건	407
[표 10-14]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408
[표 10-15]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410
[표 10-16] 경기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411
[표 10-17]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411
[표 10-18]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412
[표 10-19]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413
[표 10-20]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15
[표 10-21]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16
[표 10-22]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418
[표 10-23]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419
[표 10-24] 2009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	420
[표 10-25] 2009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421
[표 10-26] 2009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421

제11장 체 육 정 보 화

425

[표 11-1] 근거리통신망 현황	431
[표 11-2] 초고속통신망 현황	431
[표 11-3] 전산장비 현황	432
[표 11-4]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434
[표 11-5]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435
[표 11-6] 체육정보화 콘텐츠 구축내역	436
[표 11-7] 체육정보망 주요 구축내용	441
[표 11-8] 스포츠산업 정보 주요내용 및 DB구축	444
[표 11-9]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444
[표 11-10]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내용	446
[표 11-11] 국민체육진흥 정보 및 내용	447
[표 11-12] 생활체육 정보 및 내용	448
[표 11-13] 전문체육 정보 및 내용	450
[표 11-14]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 및 내용	451

제12장 국 제 체 육

455

[표 12-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457
[표 12-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457
[표 12-3]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국적	458
[표 12-4]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460
[표 12-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461
[표 12-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수	462
[표 12-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464
[표 12-8] WADA 금지약물 목록	465

[표 12-9]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시료 현황	467
[표 12-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 년도별 양성 건수	468
[표 12-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470
[표 12-1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체육외교 정책	471
[표 12-13] 문화비전(2008~2012)	472
[표 12-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473
[표 12-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 업무	474
[표 12-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476
[표 12-17]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체육외교 전문요원 양성 방안	477
[표 12-18] 스포츠외교인력 강화 방안	478
[표 12-19] 스포츠외교인력 운영 실적	478
[표 12-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하고 있는 위원 현황	480
[표 12-21]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480
[표 12-22] 국제경기연맹·임원 진출 현황	481
[표 12-23] 2009년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482
[표 12-24]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483
[표 12-25] 제 24회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소	484
[표 12-26]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485
[표 12-27]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486
[표 12-28]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487
[표 12-29] 베오글라드 하계 U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488
[표 12-30]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종합순위 및 메달획득 분포	490
[표 12-31]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세부 종목수 및 파견 임원현황	491
[표 12-32]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492
[표 12-33]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	492
[표 12-34] 한국 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선수수와 세부종목	493
[표 12-35] 한국 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선수수와 세부종목	494
[표 12-36] 제 1회 아시아무도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단 참가종목별 경기 성적	496

[표 12-37]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의 각 종목별 경기일정	497
[표 12-38]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참가한 한국 선수단 구성	498
[표 12-39]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각 종목별 대회장소 및 특성	498
[표 12-40] 한국 대표 팀의 경기 종목별 경기성적	499
[표 12-41] 실내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500
[표 12-42] 실내 아시아경기대회 각 국가별 종합순위 및 메달획득 분포	502
[표 12-43]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한 종목별 한국 선수단 규모	503
[표 12-44]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경기장	504
[표 12-45] 각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504
[표 12-46] 각 국가별/종목별 금메달획득 현황	505
[표 12-47] 역대 동아시아대회 개최지 및 한국팀 메달획득 현황	506
[표 12-48] 2009년도 국내 개최 세계선수권대회	506
[표 12-49] 2009년도 국내 개최 올림픽 제패기념대회	506
[표 12-50] 2009년도 국내 개최 종목별 국제대회	507
[표 12-51]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단 해외파견 현황	508
[표 12-52] 2009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현황	509
[표 12-53] 국제기구 회의 파견	510

제13장 남북체육교류

511

[표 13-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522
[표 13-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523
[표 13-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524
[표 13-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525
[표 13-5] 2000년~2009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주요 사항)	530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년~2009년)	532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년 8월~2009년 1월)	533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534

그림 목차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15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29
[그림 2-2] 국내·외 체육기구	54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 (2009년 12월말 기준)	54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60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1실 4부	61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95

[그림 3-1] 여가활동 유형(%)	99
[그림 3-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102
[그림 3-3]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103
[그림 3-4] 운동실시 장소 분포(%)	106
[그림 3-5] 운동 참여 이유(%)	109
[그림 3-6] 운동 불참 이유(%)	109
[그림 3-7] 관람 종목 분포(%)	113
[그림 3-8]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115
[그림 3-9]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116

제5장 학교 체육

163

[그림 5-1] 2010년 학교체육 중점 추진 과제	165
------------------------------	-----

제6장 전문 체육

193

[그림 6-1] 꿈나무선수 선발 절차	197
[그림 6-2]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조감도	218
[그림 6-3]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	218

제7장 장애인 체육

235

[그림 7-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241
-----------------------	-----

제8장 체육 시설

275

[그림 8-1] Sports Future 21 비전 체계도	284
[그림 8-2]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조성방향	315

제9장 스포츠 산업

317

[그림 9-1] 국내 스포츠산업 분류	322
[그림 9-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350
[그림 9-3] 인증제도 사업 구성도	353
[그림 9-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품 생산업체 지정 절차	360
[그림 9-5] 기금융자 시행절차	367
[그림 9-6] 지정과제(중·장기)과제 선정 절차	378
[그림 9-7]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378

제10장 체 육 전 문 인 력 385

[그림 10-1]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409

제11장 체 육 정 보 화 425

[그림 11-1] 체육기관별 정보화 구성도 430

[그림 11-2] 체육종합정보망 구성도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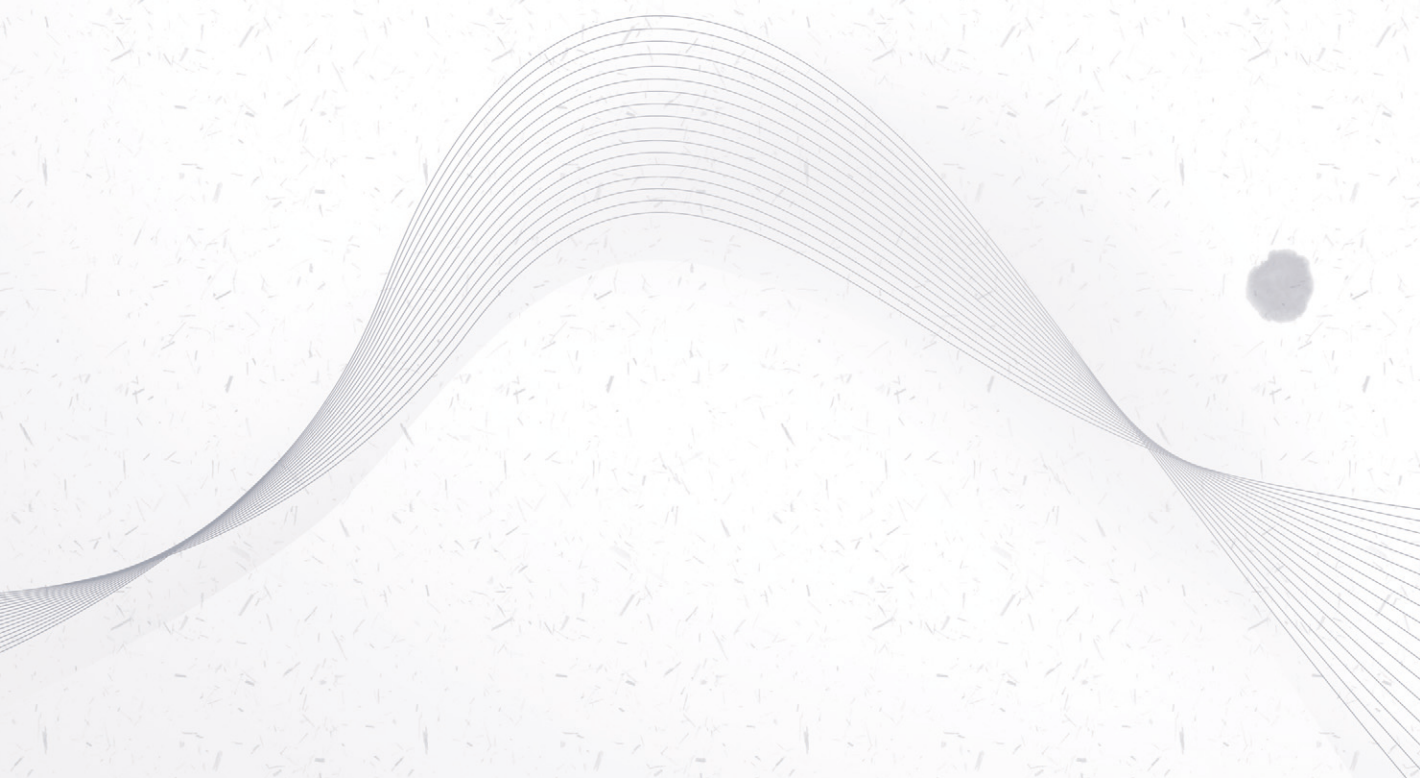
제12장 국 제 체 육 455

[그림 12-1]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461

[그림 12-2] 동·하계 올림픽 합산 마케팅수입 469

[그림 12-3] 하계 올림픽 TV중계권료 470

[그림 12-4]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 (음영 부분) 475





01

제1장

체육의 정의와 정책 범위

제1 절 체육의 정의

제2 절 체육의 유사 개념

제3 절 체육의 분류

제4 절 체육정책의 범위



제 1 장 _ 체육의 정의와 정책 범위

제 1 절 체육의 정의

1. 체육의 학문적 정의

체육의 과학적 연구는 18~19세기 초부터 체조(Gymnastics)의 개념으로 근대체육의 기초를 쌓은 몇몇 체조가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체육에 대한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델사르트(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 용어는 1840년대 신체와 교육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으로 일반화되었다.

20세기 초 체육이 신체 그 자체를 교육(education of physical)하는 것이냐 혹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교육(education through physical)적 활동이냐라는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의 한 분야”라는 주장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전인교육론적 정의는 체육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신체 운동 자체에 대한 기본개념, 방향, 운동지각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인간행동 측면에서의 운동현상 연구로 확대되면서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인간운동(human movement)”, “운동학(kinesiology)”, “인간운동학(human kinetics)”,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스포츠연구(sport studies)” 또는 “스포츠과학(sport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체육에 대한 정의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체육(體育)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제운동을 탐구하는 과학과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육의 법적 정의

체육의 법적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한 체육의 범위를 넓게 확장한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체활동의 다양한 현상과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체육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으로서의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의 유사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3. 체육의 개념적 한계

그러나 체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해서 ‘체육’이라는 용어와 현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신체·정신활동, 인간의 생활문화로서의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간의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이라는 용어는 개념적인 혼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체육 현상 역시 커다란 변화와 확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학교체육의 현상이 모든 체육현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용어가 적합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문체육, 즉 엘리트스포츠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체육 현상은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체육이라는 용어의 부적합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스포츠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체육활동이 급증하면서부터 교육의 영역이 아닌 상업스포츠(프로스포츠), 여가스포츠, 학교에서 육성되지 않는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이 크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스포츠산업’이란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어 기존 ‘체육’의 개념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학계에서는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화로서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 일체의 신체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현상을 포함하는 개념 정립을 위한 체육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체육의 법적, 행정적 용어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백서에서는 체육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을 위에서 설명한 스포츠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제2절 체육의 유사 개념

1. 놀이, 게임, 스포츠

체육은 수많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들이 놀이(play), 게임(game), 스포츠(sports) 등의 활동이다. 상황에 따라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의 활동들은 체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느 경우에는 이들 개념이 체육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체육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면 체육은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생계를 위하여 하는 활동을 제외한 움직임을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고 한다. 일을 위한 움직임과 신체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일에서는 신체 활동이 일의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신체 활동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신체 활동은 체육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만 이들 신체 활동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체계화되는 단계에 따라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다.

놀이는 신체 활동 중에서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활동의 체계이다. 놀이의 허구성이란 현실 생활을 벗어나 일어나는 활동이다. 비생산성이란 활동의 결과로 아무런 상품, 재화, 또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쟁은 존재할 수 있으며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민속놀이나 어린이들의 놀이 등이 전형적 보기라 할 수 있다.

게임은 놀이로 인정되는 신체 활동 중에서 경쟁성에 바탕을 두고 승부를 내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규칙을 정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확률, 전술 및 신체의 기능을 통하여 승부의 결과를 결정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경쟁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사이에 승리를 위한 패권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분리성이란 사전에 미리 규정되고 정해진 공간과 시간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규칙성이란 일상적인 규범의 적용이 일시 정지된다는 합의하에 활동이 성립하며, 활동의 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이루고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성이란 활동의 전개 과정이나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의 결정이 운(chance)이나 전술(strategy), 그리고 신체의 운동기능(motor ability)에 의존함을 뜻한다.

스포츠는 게임 중에서 결과의 결정에서 격렬한 대근 활동을 중심으로 신체적 기량이 강조되고 활

동의 가치, 규범, 기술 등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아 그 활동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며, 이 조직을 통하여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는 특성을 지닌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하나의 체육 활동이 사회에서 스포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놀이와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신체적 기량이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활동 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 활동의 체계에서 스포츠는 게임에 바탕을 두고, 게임은 놀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스포츠 또한 놀이의 허구성과 비생산성은 물론 게임의 경쟁성, 분리성, 불확실성, 규칙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프로스포츠에서와 같이 스포츠에서 비생산성과 허구성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스포츠의 형태를 띠지만 일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표 1-1] 놀이, 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

놀이	게임	스포츠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허구성 비생산성
-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분리성 규칙성 불확실성 경쟁성 확률, 전술, 신체기능에 의한 결과의 결정
-	-	신체적 기량 가치, 규범, 기술의 제도화

참고로 체육과 스포츠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되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지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교육의 한 영역인 체육보다는 오히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경쟁스포츠는 물론 비경쟁적스포츠, 생활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여가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정의된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생존을 위한 시간과 생계를 위한 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이 생존의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생계의 영역이다. 따라서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남았을 경우 자유시간, 즉 여가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도 여유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시간은 필수적이고도 구속적인 반면에 여가 시간은 선택적이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가는 여유로운 시간의 개념을 토대로 그 자유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은 물론, 여가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만족과 즐거움의 심리상태와 체험까지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여가가 체육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체육과 유사 개념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여가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활동 중에서 체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가는 체육 활동 중 여가스포츠 또는 레저스포츠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의 한 부분으로서 여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비하여 활동의 다양성이 적으며,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여가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은 자유롭게 개인 내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유시간에만 실천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레크리에이션은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에너지 재충전이나 재생의 의미를 강조하여 실천되기 때문에 자유시간외에도 조직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은 일반적으로 뒤쪽에 강세를 주어 [리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에너지의 재생 또는 재창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앞쪽에 강세를 주어 [레크리에이션]으로 발음하면 휴양, 기분전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이 재생과 재창조의 의미에서, 기분전환 또는 휴양의 의미로 전환되어 여가의 의미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레저스포츠는 '레저(leisure)'가 여가를 나타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가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데 적합한 골프, 서핑, 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래프팅 등의 종목들은 흔히 레저스포츠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여가시간에 행해지면 여가스포츠이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종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표 1-2]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

구 분	여 가	레크리에이션
범 주	포괄적 활동	한정적 활동
조직정도	비조직적, 조직적	조직적
목 적	개인적 목적우세 / 자유, 내적만족 강조	사회적 목적 우세 / 재생, 사회편익 강조
시 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준 자유시간내

3. 운동, 운동경기

운동(exercise)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에 활용되는 체육활동은 인간의 어떤 움직임이든 가능하다. 즉, 신체활동이든, 놀이활동이든, 게임 및 스포츠활동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실천하는 체육활동은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경기(athletics)에서 겨루는 운동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정규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은 종목들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기를 통하여 기량을 겨루기 위해서는 승부의 결과를 정하기 위한 규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 다른 경기의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활동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승부를 가리지 않는 신체 활동, 즉,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맨손 체조도 할 수 있으며, 줄넘기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않지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신체 활동 게임을 통하여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한번에 쉬지 않고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으며, 5분 동안에 줄넘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를 겨룰 수도 있다. 줄넘기의 신체 활동을 겨루는 방법은 겨루는 사람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 활동의 경쟁을 스포츠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줄넘기를 하면서 신체적 기량을 겨루는 방법이 스포츠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줄넘기의 경쟁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겨루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조건은 다음 시기에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줄넘기도 스포츠로 인정될 수 있다. 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줄넘기의 경쟁 조건과 줄넘기의 기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줄넘기로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넘기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줄넘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춘 것이다. 그러나 줄넘기가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규 스포츠 종목의 명분이 되는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줄넘기협회의 회원수의 확보나 미래에 국내종합체육대회는 물론 세계종합체육대회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정식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절차와 같이 국제줄넘기협회를 구성하여 회원국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종합스포츠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종합스포츠기구에 국제줄넘기협회가 정식 가맹단체로 가입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가맹국과 각 가맹국에서의 일정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줄넘기의 예를 보면 스포츠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줄넘기 활동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줄넘기로 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놀이로 하던, 게임으로 하던, 스포츠로 하던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줄넘기를 스포츠 활동 방법으로 운동을 하려면 줄넘기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술과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줄넘기를 겨루고, 협회가 규정하는 규칙들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인심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줄넘기는 운동(exercise)에서 운동경기(athletics)가 되는 것이다.

제3절 체육의 분류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활동목적에 따라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서구에서 등장한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사람이 성, 연령, 계층, 인종, 종교에 구애됨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

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활체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실천 영역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분류된다.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참가자의 연령수준이나 생애주기별로는 유아체육, 아동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장년체육, 노인체육 등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참가자의 대상에서 특수한 대상을 지칭하는 분류에는 여성체육, 장애인체육, 군인체육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으로,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을 제공하는 단체나 재원의 종류에 따라 공공체육, 민간단체체육, 상업체육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평생체육은 1965년 미국에서 전개된 것으로 평생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육이 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활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Sport for All은 성, 연령, 출신계층, 사회경제적 지위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운동 캠페인이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Sport for All이라는 용어는 1975년 유럽의 스포츠 관계장관회의에서 Sport for All 현장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이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스포츠 활동이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참가기회보장과 대중적인 체육활동, 그리고 질 높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생활체육운동은 유럽의 Sport for All과 같이 사회체육진흥의 운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캠페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Sport for All이나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운동과 같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미 국	Physical Fitness Movement	호 주	Life Be In It
구소련	The Further Development of Mass Sport1 + 2 Movement	노르웨이	Trimming
구서독	Trimming 130	일 본	체력육성운동(體力育成運動)
캐나다	ParticipAction	중 국	전민건설운동(全民健身運動)
체 코	Spartakiad	한 국	생활체육운동

2.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여가를 위하여 전개되는 반면, 학교체육은 체육활동이 교육을 위하여 전개된다. 또한 전문체육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을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아마추어선수들이 행하는 엘리트스포츠와 프로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선수들이 행하는 프로스포츠가 해당된다.

학교체육에서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200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지침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의 성격을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와 증진, 정서의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체육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기초를 두고 신체활동과 놀이를 바탕으로 한 체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간이게임과 정식게임으로 체육활동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이르면 정식 스포츠종목의 경기능력을 배양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간의 움직임, 신체활동,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활동의 체계가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면서 체육교육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체육의 목표에서도 운동의 기능과 체력 증진에만 한정되지 않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의 활용 능력,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태도를 기르는 정서적 영역에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체육이 단지 체육의 외면적 활동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움직이는 인지적인 원리와 정서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은 여가를 위해 실천하는 체육활동으로 활동주체나 목적, 장소 등에서 엘리트스포츠와 학교체육과 구분되며 특히 엘리트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생활체육은 여가스포츠활동으로서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과 여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대상의 측면에서 학교체육은 학생을, 전문체육은 운동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 범위의 사람만이 가능하지만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다. 학생들도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 체육을 한다면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이 의무적인데 반하여 생활체육은 자발적이다. 활동의 내용도 학교체육은 게임과 체력 운동, 무용, 스포츠 등을 주로 다루며, 전문체육에서는 공식적인 스포츠만을 포함하는데 비하여 생활체육에서는 다양한 여가스포츠는 물론이고 스포츠화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형태의 놀이 및 게임 활동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생활체육은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비하여 자유롭다. 활동의 목적에서도 학교체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전문체육은 승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며 생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은 여가를 선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1-4]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특성 비교

구 분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대 상	모든 사람	학생	청년(최적 연령기)
활용 방법, 내용	자발적, 즐거움	의무적	의무적
내 용	놀이,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 등	정규 스포츠
시 간	시간자유시간	수업 시간	훈련과 시험
장 소	모든 시설	학교체육 시설	정규 체육 시설
의도성	약	강	강
목 적	여가, 욕구충족	교육	승리, 직업영역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구조에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은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부문간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체육참여자의 운동기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운동경기를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있다. 또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도 낮아 이들이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문체육이 가능한 통로는 몇몇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운동부에 제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육성되는 운동부의 운동선수들은 학교체육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부는 학교체육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엘리트스포츠라는 영역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체육정책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에 관한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육정책 및 행정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체육,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체육활동·신체활동과 관련된 산업적 활동, 장애인을 위한 생활·엘리트체육 등이 모두 체육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체육정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업무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여가산업 및 국제체육교류 진흥, 체육시설의 확충, 체육정보화, 체육과학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생활체육종목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체육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전통 민속경기의 진흥,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1-5 참조). 2009년에는 경륜·경정사업에 더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의 육성 강화차원에서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레크리에이션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는 국가의 체육용구·기자재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 의무와 체육용구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용자 등을 정하고 있다. 학교체육 업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약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건립, 스포츠강사 배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육·신체활동과 연관된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면서 체육정책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체육용품, 체육시설업 이외에 스포츠마케팅, 에이전트 등 서비스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체육 수요가 점점 다양화, 고도화하면서 래프팅·패러글라이딩, X-게임 등 신종 레저스포츠가 급증하고 있어 「레저스포츠진흥법」 제정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육성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는 전통무예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체육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스포츠분야에서의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지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부간 자문그룹 회의

(IICGADS)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국내 선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약물 복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국제교류활동 등의 업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설립되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07년 국가반도핑기구(NADO)에 가입하였고, 2009년도에는 ANADO, IF 등의 도핑검사 일부를 대행하였다.

나아가 체육콘텐츠가 관광, 게임·방송 등 다른 산업의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체육정책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다른 영역과 중첩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의 영역은 체육 자체뿐만 아니라 체육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 영역과의 상호관계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에 체육정책의 영역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관장업무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5.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생활체육종목 및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9. 체육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10. 프로운동경기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1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16.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9.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20.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2.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3.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 보급에 관한 사항
24.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27.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2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30.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33.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34.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35.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관련된 업무



02

제2장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1 절 체육정책의 변천

제2 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제3 절 체육진흥지원

제4 절 체육관련법제



제 2 장 _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 1 절 체육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주도로 체육행정의 전반이 이루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중앙교육행정이 문화행정·체육행정을 포함하여 문교부에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문화국 체육과)에서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년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년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년 12월 준공) 뿐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력 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정부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선수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체육행정기능은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여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력과시를 위한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어 체육 분야별 균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체육정책의 특징은 문교부에 의하여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이처럼 제3공화국이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에서는 체육입국을 표방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5공화국의 체육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 된다. 체육부 신설로 국민체육 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982년 3월 20일에 이루어진 체육부의 발족은 한국 체육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다. 비록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자 체육부가 신설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행정이 가장 주목받던 시기이고,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이 체육에 투입된 시기였다. 따라서 체육행정력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엘리트스포츠에 집중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체육을 담당하던 국가 수준의 조직이 전격적으로 중앙부처 수준으로 승격됨으로써, 체육행정의 위상이 제고되고 체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4위라는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또한, 1986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후 체육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 체육교류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국과의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체육계 유력 인사와의 유대강화, 순회홍보 실시, 제3세계 저개발국 스포츠 지원, 그리고 각종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우리나라 지위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우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988 서울 올림픽은 역대올림픽 사상 최다 국가인 160개 국가에서 1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체육외교의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으나, 양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제6공화국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 하여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1991년 2월 6일)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돌이 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6공화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대하여 적합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국민 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1989년 이후 3년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 진흥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진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표 2-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시 설	프 로 그 램	지 도 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 국·공립학교(초등학교내 테니스장 설치 -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 레포츠공원 조성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올림픽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 -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 1990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1990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이러한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한편으로는 민간체육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동안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체육정책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으로 집약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도모,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활체육 중점 진흥을 통해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모든 종목의 기본인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단위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사업기간 동안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표 2-2)와 같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당초 계획에 의한 투자 규모는 총 1조6,669억 원이었으나 4조1,293억 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48%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지역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34개소)·체육관(32개소)과 동네 체육시설(1,456개소)등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처음으로 양성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19,314명을 양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1994년 동계 올림픽과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등 세계 상위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했으며,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에 481명에게 경기력향상 연금 1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9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1993년에는 19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을, 1996년에는 2002 FIFA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제체육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체육지

도자 상호교류 등 단계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계획하였으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2-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정책 과제	추진 내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건강여가 기회의 확대
엘리트스포츠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체육과학분야에서는 1995년 12월 과학적인 국민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위해 국민체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3. 국민의 정부(1998~2003)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체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권화·민간주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는 정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기금 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 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등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체육정책 방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IMF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용기구 등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21세기는 체육·여가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여가활동 기회 확대 등 건강한 체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두 축이 상호연계 발전되도록 체육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 계획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002 FIFA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기장 시설 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표 2-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내 역할 강화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경기운영, 개회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체육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산업의 연구 개발 ○ 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융자 지원 ○ 민간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체육서비스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 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기능 증대 ○ 국민체력 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 강화 ○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 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

[표 2-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 스포츠외교 전문 인력 양성 ○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4. 참여 정부(2003~2008)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을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정보화, 체육행정·재정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이명박 정부(2008~현재)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준비하여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정책은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체육에서는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 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 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육성 보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제고, 전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등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 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양성,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2-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대회경기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n-스포츠사회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민간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엘리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런던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 과학화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 종목 활성화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선진형 체육법·제도 정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제 2 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 체육조직의 변천

가.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은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6년 3월 29일 문교부 교화국내에 체육과를 설치하고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고, 인원 및 예산도 20명,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961년 10월 2일).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였다.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학교급식과가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나. 1980년대의 체육조직

1981년 9월 30일 독일(당시 서독) 바덴바덴에서 1988 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고 그해 11월 1986년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게 되면서 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여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

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 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소폭의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되었다. 1988년 6월 18일에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을 신설하여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고,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과학국이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것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정책조정실(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였다.

다. 1990년대의 체육조직

1993년 3월 6일에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여 문화체육부에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총 인원은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이나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라. 2000년 ~ 2007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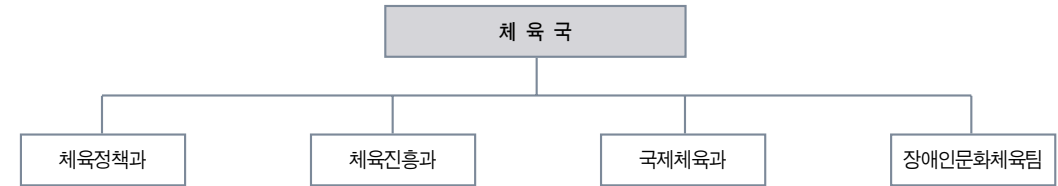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국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 단위를 '팀' 단위로 재편하였다.

마. 2008년 ~ 현재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 단위를 다시 '과' 단위로 개편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자로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개편된 과에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 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문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 받아 동일 과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도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고, 장애인문화체육과

를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1국 3과 1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표 2-6]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 1982. 3. 20	체육부 신설 (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2. 12	골프장업무 인수
○ 1992. 1. 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3. 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1. 29	한국마사회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3. 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7. 25	과명칭이 팀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 제가 '과' 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 2009. 5. 1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1국 3과 1팀 50명

2) 부서별 주요업무

2009년말 기준 체육국의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팀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육성·지원, 경륜·경정사업 지도·감독,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지도·감독,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의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후보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관련단체 설립 및 육성·지원, 국가대표 선수의 육성·지원 및 대한체육회와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축구·양궁·테니스·배드민턴·체조·탁구·사격·핸드볼·하키·럭비·세팍타크로·바둑·산악·정구 종목에 관련된 업무 및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진흥 계획 수립·시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조사·연구,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스포츠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스포츠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국제교류·협력,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농구·배구·근대5종·역도·펜싱·사이클·승마·트라이애슬론·야구·씨름·골프·궁도·택견·공수도·우슈·검도 종목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국제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 대한올림픽체육회 국제업무와 관련된 업무,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육상·태권도·복싱·레슬링·유도·수영·요트·카누·조정·보디빌딩·당구·볼링·수상스키·수중 종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문화체육팀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장

어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장애인 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국내외 장애인 문화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일반종목 중 빙상·봅슬레이 스킨레이팅·루지·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소프트볼·스쿼시·인라인롤러·댄스스포츠·오리엔티어링 종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1) 개 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체육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며, 주민의 체육활동은 바로 주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복리는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풍요하고 평등한 경제생활,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의 삶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체적인 사회발전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문화·체육 등의 사회문화복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생활행정이자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접촉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체육지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조직과 행정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의 변천

1982년 체육부 발족 이전의 지방 체육행정조직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로서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와 함께 체육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체육부가 발족한 후 198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사항인 '1986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 올림픽 지원기구 정비강화방안' 과 1983년 1월 14일 내무부 지침인 '시·도 체육지원 전담기구 설치지침' 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교육

위원회에 체육행정 담당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각 시·도는 지역 실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아래 체육지원계를 두거나 체육지원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방체육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경기도는 체육지원담당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밑에 지원계와 시설계를 두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올림픽업무를 전담하는 올림픽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기타 일반체육진흥업무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담당하였다. 기타 시·도는 기획관리실에 체육지원계를 설치하여 체육업무를 관장하였다.

1989년에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 주민체육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를 생활체육과로 확대 설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중앙정부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조직도 체육담당부서가 다른 부서와 통합되면서 체육청소년과 또는 문화관광과 등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조직행태는 2008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및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전담하는 부서가 담당 또는 팀단위로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3)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현황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각·시도에서는 대체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의 과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로 체육진흥팀(계, 담당)과 체육시설팀(계, 담당)이 지방의 체육진흥업무와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명~20명 내외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기초자치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 생활환경정비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두어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은 본청 인력보다 2~3배 정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2-7]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소 계	185	34	27	116	4	4
	문화국 체육청소년과	22	16	1	2	2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44	14	20	105	2	3
	시설관리공단부산	-	-	-	-	-	-
부산	소 계	153	40	34	69	6	4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올림픽유치팀)	26	21	2	1	-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7	19	32	68	6	2
대구	소 계	101	24	26	50	1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18	12	6	-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83	12	20	50	1	-
	소 계	93	30	21	15	6	21
인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체전관리)	22	17	4	1	-	-
	시설관리공단(문학경기장사업소, 삼산체육관사업단, 계산국민체육센터)	71	13	17	14	6	21
광주	소 계	17	12	4	1	-	-
	문화체육정책실 체육지원과	17	12	4	1	-	-
대전	소 계	115	29	32	1	6	47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20	15	4	1	-	-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체전관리)	-	-	-	-	-	-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본부)	95	14	28	-	6	47
울산	소 계	137	29	31	76	-	1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체육기획, 생활체육, 대회지원)	16	11	4	1	-	-
	시설관리공단	121	18	27	75	-	1
경기	소 계	16	9	6	1	-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 체육지원, 체육시설 담당)	16	9	6	1	-	-
강원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 체육시설) / 국제행사과	22	18	2	1	-	1
충북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체육팀, 체육시설팀, 체육산업팀)	12	10	1	1	-	-
충남	문화국 체육청소년과	14	10	2	1	1	-

[표 2-7-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인력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북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15	11	3	1	-	-
전남	관광문화국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레저산업담당)	14	12	1	1	-	-
경북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승마대회지원/시설담당)	16	14	1	1	-	-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 생활체육, 체육청소년시설)	15	12	2	1	-	-
	소 계	102	21	21	22	-	38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스포츠산업과					
	제주시	문화산업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총 계	842	281	187	242	19
총계	본청	288	201	57	22	-	8
	시설관리사업소	554	80	130	220	19	105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소 계	142	90	7	9	35	1
서울	중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중 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용산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성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광진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중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성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강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도봉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노원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은평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마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양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강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구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금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동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관악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서초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강남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송파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강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소 계	84	59	-	10	-	15
부산	중 구	총무과(구민협력계)					
	서 구	문화관광과(관광체육계)					
	동 구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계)					
	영도구	교육문화과(체육청소년계)					
	동래구	교육정보과(생활체육계)					
남 구	문화체육과(체육계)						

1. 기술직 :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 보조(워드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부산	북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9	4	-	1	-	4	
		문화빙상센터(빙상팀)	8	2	-	1	-	5	
	해운대구	행정지원과(주민협력팀)	3	2	-	1	-	-	
	사하구	총무과(구민협력팀)	5	5	-	-	-	-	
	금정구	총무과(구민지원계)	5	4	-	1	-	-	
	강서구	총무과(구민협력계)	3	3	-	-	-	-	
	연제구	평생학습과(체육진흥계)	4	3	-	1	-	-	
	수영구	총무과(평생학습계)	9	4	-	-	-	5	
	사상구	총무과(진흥계)	4	4	-	-	-	-	
		지역경제과(삼락강변공원관리팀)	1	-	-	1	-	-	
	기장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계)	3	3	-	-	-	-	
		도시관리공단(시설운영팀)	1	-	-	-	-	1	
소 계			33	27	3	3	-	-	
대구	중구	문화관광과	4	4	-	1	1	-	
	동구	문화공보실	3	2	1	-	-	-	
	서구	문화공보과	3	3	-	-	-	-	
	남구	문화체육과	6	4	1	1	-	-	
		문화공보실	4	3	1	-	-	-	
	수성구	문화체육과	4	3	-	1	-	-	
	달서구	문화체육과	5	5	-	-	-	-	
	달성군	문화체육과	4	3	-	1	-	-	
	소 계			45	32	5	8	-	-
	인천	중구	공보실	4	3	-	1	-	-
동구		문화홍보실	4	3	-	1	-	-	
남구		문화홍보실	5	2	1	2	-	-	
연수구		문화체육과	6	4	-	2	-	-	
남동구		문화홍보실	4	4	-	-	-	-	
부평구		문화체육과	4	2	1	1	-	-	
계양구		문화공보실	7	5	2	-	-	-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5	4	1	-	-	-	
강화군		총무과	4	31	-	-	-	-	
옹진군		관광문화과	2	2	-	-	-	-	
소 계			30	18	5	4	-	3	
광주	동구	문화예술팀 체육청소년담당	5	3	1	-	-	1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2	11	5	1	3	-	2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광주	남구	총무과 생활체육담당	3	2	-	1	-	-
	북구	총무과 생활체육담당	3	3	-	-	-	-
	광산구	관광체육시설과 관광체육시설팀	8	5	3	-	-	-
소 계			25	18	2	3	2	-
대전	동구	문화공보과(체육청소년담당)	6	4	-	1	1	-
	중구	문화체육과(체육담당)	4	4	-	-	-	-
	서구	문화홍보실(체육진흥담당)	5	3	1	-	1	-
	유성구	관광공보실(체육청소년담당)	3	3	-	-	-	-
	대덕구	홍보문화팀(체육파트)	7	4	1	2	-	-
	소 계			45	20	12	4	-
울산	중구	총무국 문화체육과(체육지원)	4	3	-	1	-	1
	남구	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체육지원)	5	4	1	-	-	-
		도시관리공단	3	2	-	-	-	1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	4	3	-	1	-	-
	북구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체육청소년)	5	3	1	-	-	1
	울주군	총무국 문화관광과(생활체육)	5	3	2	-	-	-
		시설관리공단	14	1	5	2	-	6
소 계			970	245	174	193	80	278
경기	수원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스포츠산업팀	1	2	8	2	2	-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체육팀, 시설관리팀	12	5	5	2	-	-
		시설관리공단	35	11	-	21	-	3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9	6	3	-	-	-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관리팀	2	4	6	10	-	8
	안양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7	3	3	1	-	-
		체육시설관리공단	84	9	-	25	-	50
	부천시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사회체육팀, 체육시설팀	1	3	7	5	1	-
		체육시설관리공단	65	6	1	25	-	33
	광명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체육팀	6	4	1	1	-	-
	평택시	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3	11	2	-	-	-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7	7	3	12	-	5

구분	조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3	2	1	-	-	-
	시설사업소 운동장담당	5	1	2	2	-	-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와~ 스타디움담당	23	12	8	3	-	-
	기획재정국 체육진흥과, 체육기획팀, 체육지원팀, 체육홍보TF팀, 체육시설팀	18	14	3	1	-	1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96	28	37	12	-	19
	문화체육과 체육팀	3	2	1	-	-	-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104	29	36	-	39	-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1	1	4	2	5	-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8	5	3	-	-	-
오산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3	-	-	-	-
	체육시설관리공단	6	3	2	1	-	-
시흥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담당, 체육시설담당, 체육시설운영담당(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7	7	5	4	-	1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5	4	1	-	-	-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13	3	-	3	-	7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체육팀	3	2	-	1	-	-
의왕시	체육시설관리공단	19	1	1	5	-	12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7	6	1	-	-	-
하남시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 체육행정담당, 체육시설담당	9	7	2	-	-	-
파주시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4	2	2	-	-	-
	시설관리공단	21	2	15	-	-	4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 시설관리팀, 시민회관팀	16	5	3	8	-	-
안성시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담당	13	3	-	3	-	7
	시설관리공단	7	1	-	-	-	-
김포시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체육팀, 체육시설팀	7	3	3	-	-	1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14	5	2	6	1	-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육성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운영담당, 스포츠마케팅 담당	10	8	2	-	-	-

구분	조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기	광주시	주민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6	4	2	-	-	-
	양주시	주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8	6	2	-	-	-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 시설관리팀	7	1	1	-	-	5
	여주군	문화관광과 체육팀, 체육시설팀	10	4	2	1	-	3
	연천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	3	3	-	-	-	-
		시설관리공단	78	17	-	16	-	45
	포천시	총무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7	4	2	-	-	-
	기평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4	2	2	-	-	-
		시설관리공단	32	14	15	-	-	3
	양평군	총무과 체육지원담당	4	2	2	-	-	-
	소 계		221	107	29	42	5	31
	춘천시	체육과	16	13	2	1	-	-
원주시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20	11	4	4	-	1	
원주시	문화체육사업소	20	5	3	8	3	1	
강릉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22	9	1	1	-	11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2	4	8	-	1	
동해시	체육산업과	16	13	1	2	-	-	
태백시	스포츠산업과	17	9	3	5	-	-	
속초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 행사유치, 체육운영)	10	6	2	1	1	-	
삼척시	문화공보실(체육진흥담당)	10	5	-	2	-	-	
홍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9	2	2	-	-	5	
횡성군	자치행정과	7	5	-	2	-	-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체육진흥담당)	22	9	1	1	-	11	
평창군	문화체육과(체육행정/체육시설)	9	6	1	2	-	-	
정선군	관광문화과 / 생활체육팀	4	3	-	1	-	-	
철원군	관광문화과(체육진흥·체육시설계)	7	3	2	1	-	-	
화천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체육시설계)	8	4	-	1	1	3	
양구군	문화체육관 체육진흥	3	2	1	-	-	-	
인제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계)	4	2	2	-	-	-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16	4	-	2	-	10	
양양군	문화관광과	4	3	-	1	-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소 계		188	61	40	39	5	20	
충북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담당, 생활체육담당)	9	6	-	2	1	-	
		문화예술체육회관 (운영과 체육 담당, 시설관리팀)	21	2	10	7	-	-	
		시설관리공단	24	4	2	3	-	15	
	충주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8	5	2	-	-	1	
		공공시설관리소·체육시설관리소	24	7	4	6	-	7	
	제천시	평생학습 체육과 (체육지원팀, 시설관리팀)	15	4	6	3	2	-	
	청원군	문화공보과 체육담당	4	3	1	-	-	-	
	보은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4	3	1	-	-	-	
		시설관리사업소	16	5	2	4	5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6	3	2	1	-	-	
	영동군	문화체육과 (체육마케팅담당, 체육진흥담당)	8	5	1	2	-	-	
	증평군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2	-	2	-	-	
	진천군	문화체육과 체육팀	16	4	-	2	-	10	
	괴산군	문화관광 체육지원담당	7	3	1	3	-	-	
	음성군	문화공보과 (체육담당, 문화체육시설담당)	8	2	4	2	-	-	
	단양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1	1	-	-	
		소 계		214	75	42	63	7	28
	충남	천안시	체육청소년과	11	9	1	1	-	-
종합체육관리사업소			28	4	8	13	3	-	
공주시		미래도시팀 (체육지원담당, 레저시설담당)	7	5	1	-	-	1	
		공공시설관리소	10	3	-	5	-	2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체육지원계)	3	3	-	-	-	-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계)	16	-	2	7	-	7	
아산시		관광체육과/시설경영과 (체육지원팀, 시설경영관리팀)	13	5	4	4	-	-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체육지원담당)	3	2	-	1	-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8	4	4	4	-	6	
논산시		문화관광과(체육담당)	3	2	-	1	-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충남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	17	6	4	7	-	-	
	계룡시	문화공보과(체육청소년담당)	4	2	2	-	-	-	
	금산시	문화공보관광과(체육진흥담당)	3	2	-	1	-	-	
	연기군	문화공보과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12	4	2	2	-	4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체육진흥담당)	10	3	1	3	3	-	
	서천군	문화관광과(체육담당)	3	2	1	-	-	-	
	청양군	전략사업단(체육진흥담당)	7	1	3	1	1	1	
	홍성군	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담당)	4	2	-	2	-	-	
		공공시설사업소(시설관리담당)	4		2	2	-	-	
	예산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4	3	-	1	-	-	
		공공시설사업소(관광체육시설담당)	4		1	3	-	-	
	태안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5	4	-	1	-	-	
		시설관리사업소	6	1	5	-	-	-	
	당진군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19	7	1	4	-	7	
		소 계		354	134	73	52	4	91
	전북	전주시	체육지원과	13	9	3	1	0	0
			시설관리공단	107	32	34	-	-	41
군산시		문화체육과	5	4	-	-	-	1	
익산시		체육진흥과	25	8	7	10	0	0	
		국민생활과	16	5	5	6	0	0	
정읍시		체육청소년과	13	8	4	1	-	-	
남원시		문화체육과	28	11	2	5	1	9	
김제시		체육청소년과	17	8	0	8	1	0	
완주군		문화관광과	3	1	1	1	-	-	
진안군		문화관광과	8	3	1	1	-	3	
무주군		문화관광과	5	1	-	1	3	-	
		태권도공원과	8	6	1	-	-	1	
장수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22	3	4	3	-	12	
임실군		문화관광과	17	3	0	0	1	13	
		공공시설사업소	17	6	0	5	0	6	
순창군		농촌관광과	8	2	1	2	0	3	
		공공시설사업소(체육시설담당)	2	1	-	1	-	-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10	7	3	-	-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북	부안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	3	2	-	1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	5	1	3	1	-	-
소 계			250	91	38	62	7	52
목포	목포	시스포츠타입과	14	10	1	2	-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3	3	4	8	-	8
여수시	여수시	체육지원과	30	11	9	6	-	4
순천시	순천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담당)	3	3	-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	4	2	5	1	-
나주시	나주시	자치행정과(체육지원담당)	7	4	-	3	-	-
광양시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16	4	3	9	-	-
		사회지원과 (사회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6	1	2	3	-	-
곡성군	곡성군	행정지원과(교육체육지원담당)	4	4	-	-	-	-
구례군	구례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2	2	-	-	-	-
		시설관리과(체육시설운영)	14	1	1	2	-	10
고흥군	고흥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2	2	-	-	-	-
보성군	보성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계)	4	3	-	-	-	1
		다항체육관	3	-	1	-	-	2
화순군	화순군	문화관광과(스포츠타입담당)	8	6	2	-	-	-
장흥군	장흥군	문화관광과	4	2	-	2	-	-
		장흥실내체육관	4	-	-	4	-	-
강진군	강진군	스포츠타입팀	18	6	1	4	-	7
		해남군	문화체육진흥사업소	21	3	4	1	2
영암군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관리공단)	4	1	1	2	-	-
		시설관리공단	5	1	1	3	-	-
무안군	무안군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담당)	3	3	-	-	-	-
함평군	함평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담당)	5	2	2	1	-	-
영광군	영광군	스포츠타입과	14	8	2	3	-	1
장성군	장성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2	1	1	-	-	-
완도군	완도군	총무과(체육진흥담당)	5	2	1	1	-	1
		농어민문화체육센터	4	-	-	-	2	2
		공설운동장	4	-	-	-	2	2
진도군	진도군	문화체육센터	6	2	1	1	-	2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남	신안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3	2	-	1	-	-
		소 계	309	129	51	99	1	29
포항시	포항시	자치행정국 체육지원과	14	10	1	2	-	1
경주시	경주시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지원, 체육관리담당, 스포츠마케팅팀, 국민체육센터담당)	28	9	1	7	1	10
		자치행정국 스포츠타입과(스포츠타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타입시설운영, 스포츠타입시설관리담당)	27	8	6	12	-	1
안동시	안동시	주민문화생활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경기장담당)	19	8	4	7	-	-
구미시	구미시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시설조성, 체육시설관리담당)	21	8	5	8	-	-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양성과 (체육지원담당)	5	3	1	1	-	-
영주시	영주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	2	-	4	-	-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체육과 (체육레저)	6	4	1	1	-	-
영천시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18	6	4	8	-	-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 승마추진단, 시민운동장관리담당)	21	13	6	2	-	-
문경시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 체육시설담당)	13	6	2	4	-	1
경산시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담당)	1	9	8	3	8	-
군위군	군위군	새마을과(체육담당)	3	3	-	-	-	-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관리담당)	8	1	4	3	-	-
의성군	의성군	새마을경제과(체육지원담당)	4	3	-	1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	1	2	1	-	-
청송군	청송군	새마을경제과(체육지원담당)	4	3	-	1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	1	2	1	-	-
영양군	영양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5	3	-	2	-	-
영덕군	영덕군	주민생활 지원과(체육지원담당)	22	2	1	4	-	15
청도군	청도군	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담당)	4	2	1	1	-	-
고령군	고령군	문화체육과(체육담당)	3	3	-	-	-	-
성주군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체육진흥담당)	4	3	-	1	-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북	칠곡군	새마을과(체육지원담당)	5	2	1	1	-	1
	예천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담당)	3	2	-	1	-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	6	-	9	-	-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레포츠담당)	4	2	-	2	-	-
	울진군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5	2	2	1	-	-
	울릉군	자치행정과(새마을체육담당)	3	2	1	-	-	-
소 계			324	122	70	61	4	67
창원시	체육청소년과		14	8	4	2	-	-
마산시	주민생활국/문화체육과/체육지원계		6	4	2	-	-	-
진주시	전국체전준비단 (전국체전준비인력 제외)		13	4	4	1	-	4
진해시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6	5	1	-	-	-
	공원관리사업소/공원시설담당		3	1	2	-	-	-
통영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 체육시설, 해양레저담당		14	9	1	4	-	-
사천시	체육지원과		22	9	2	7	-	4
김해시	체육지원과		15	10	4	1	-	-
	시설관리공단		42	8	0	16	-	18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40	7	4	2	-	27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체육진흥, 체육시설담당		7	3	3	1	-	-
	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 /체육시설		10	1	5	1	-	3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국/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지원담당		4	1	3	-	-	-
	시설관리공단		31	5	15	7	-	4
의령군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		5	4	-	1	-	-
함안군	문화관광과		5	3	2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	4	5	1	-	1
창녕군	문화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		3	2	-	1	-	-
창녕군	개발공사		6	2	1	-	-	3
고성군	문화관광과/체육팀		6	3	1	-	2	-
	문화관광과/문화체육센터팀		5	3	-	2	-	-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13	7	2	4	-	-
하동군	기획감사실/체육청소년담당		5	4	1	-	-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남	하동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담당	7	2	2	-	1	2
	산청군	문화관광과/체육계	6	1	1	2	1	1
	함양군	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담당	5	2	1	2	-	-
	거창군	문화관광과 /스포츠레저, 스포츠파크담당	9	4	2	3	-	-
	합천군	문화공보과	4	3	-	1	-	-
		공공시설사업소	4	1	2	1	-	-
총 계			3234	1228	551	652	150	624
총계	본청		2085	872	270	358	101	261
	시설관리 조직		1149	356	281	294	49	363

1. 기술직 : 전기 · 토목 · 건축 · 기계
 2. 기능직 : 사무 보조(워드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설립배경 및 목적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통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울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혁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하여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2월에는 경영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8월에는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3월에는 올림픽홀을,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기장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경정사업을 경주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이외에 스포츠산업본부와 경주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출자회사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3본부(원)장 3단 36실 6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7실 20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2실 10팀으로 되어 있고 경주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0팀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은 본부 174명, 스포츠산업 134명, 경주사업 404명, 연구원 71명 등 7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8]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구 분	정 원(현 원)								
	계	임 원	관리직	일반직	영업·기술	연구직	기 능	운영직	지 도
계	752(752)	6(6)	3(3)	395(376)	28(44)	41(36)	15(18)	264(269)	-
본 부	168(184)	3(3)	-	125(135)	0(1)	0(1)	5(4)	35(40)	-
스포츠산업	109(114)	1(1)	1(1)	49(36)	28(42)	-	4(4)	26(30)	-
경 주 사 업	402(381)	1(1)	2(2)	199(180)	0(1)	-	6(10)	194(187)	-
연 구 원	73(73)	1(1)	-	22(25)	-	41(35)	-	9(12)	-
(주)한국체육산업개발	160(176)	1(1)	-	28(28)	53(58)	-	28(31)	43(48)	7(10)

※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계약직 41(112)명을 제외한 값

4) 자산현황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조성액은 2009년 12월말 기준 1조 5,328억원이다. 주요 고정자산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구 분	내 역	
올림 픽 공 원	770,908.90㎡(서울시 소유 몽촌토성 675,030.00㎡ 별도)	
올림 픽 회 관	연면적 24,303.35㎡, 지하 2층, 지상 15층	
경 기 장 (6개)	제 1,2,3체육관,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벨로드롬	
올림픽유스호스텔	연면적 25,055.69㎡, 지하 1층, 지상 18층	
올림 픽 홀	연면적 10,827.93㎡, 지하 1층, 지상 2층	
올림픽미술관	연면적 10,191.17㎡, 지하 2층, 지상 2층	
올림픽 문화센터	연면적 9,639.50㎡, 지상 3층	
올림 픽 스포츠센터	선 수 촌	대지 1,302.49㎡, 연면적 3,808.00㎡ (지하1층, 지상 3층)
	분 당	대지 3,880.00㎡, 연면적 17,141.23㎡ (지하3층, 지상 5층)
	일 산	대지 3,716.50㎡, 연면적 35,849.45㎡ (지하6층, 지상10층)
구 축 물	조각작품 및 기념조형물 218점	

5) 예 산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9년도 예산 규모는 1,189,997백만원으로 주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227,768	합 계	1,227,768
본 부	계	109,278	계	109,278
	일반관리	8,785	일반관리	22,356
	올림픽공원	27,594	올림픽공원	27,687
	스포츠센터	14,558	스포츠센터	12,171
	스포츠산업	3,057	건설관리	19,836
	올림픽유스호스텔	18,538	스포츠산업	2,521
	경륜·경정·투표권 전입금	36,764	투표권운영	1,023
			올림픽유스호스텔	17,731
			기타	5,953
경 른	계	285,219	계	285,219
	경륜수득금	225,168	분장운영	109,512
	교차투표수수료	14,127	경륜훈련원	4,389
	운영자금이자수입	8,006	지점운영	48,591
	식당매점위탁수입	147	스포츠단	1,235
	지점매점수입	10,472	경륜예비비	3,158
	경정지점공동활용등	17,12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8,764
	기타수입	2,273	타기관배분금	48,153
	기금차입금	2,875	공단전출금	51,417
	비현금성수입	5,029		
경 정	계	94,085	계	94,085
	경정수득금	81,715	분장운영	41,172
	운영자금이자수입	2,737	경정훈련원	3,298
	분장식당수입	64	지점운영	21,576
	분장지점매점수입	2,577	스포츠단	916
	조정호수입	1,990	경정예비비	3,606
	기타수입	499	시설환경개선준비금	6,813
	기금차입금	400	타기관배분금	8,890
	비현금성수입	4,067	공단전출금	7,814
투 표 권	계	732,166	계	732,166
	투표권수입	695,007	투표권위탁비	257,758
	지급보증금회수	21,855	타기관배분금	87,448
	기타사업외수입	15,304	공단전출금	386,960
국 고	계	7,020	계	7,020

[표 2-11]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계	837,799	계	837,799
○ 이자수입	43,386	○ 기금관리비	10,079
○ 회원제골프장수입	20,400	○ 사업운영비	9,099
○ 투자사업수입	16,270	○ 부가금운영	501
○ 연구원 운영수입	1,547	- 투자사업운영	2,468
○ 법인회계전입금	425,854	- 연구원운영	4,210
- 경 른	25,749	○ 경상지출(보조금)	529,997
- 경 정	6,453		
- 투표권	393,652	○ 용자지출	11,599
○ 복권기금전입금	25,988	○ 투자지출	36,045
○ 용자회수	7,086	○ 공자금예탁	200,000
○ 공자금원금회수	20,000	○ 여유자금운용	40,980
○ 여유자금회수	277,268		

4. 체육단체

1) 대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3. 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꿈나무 - 청소년대표 - 국가대표후보선수 - 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연 혁

1920년 7월 13일 기미년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한편 런던올림픽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의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됐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1948. 9. 3),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됐다(1948. 9. 3).

또한 1954년 3월 16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 9월 8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분리된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했다가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을 겪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3월 1일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로의 지위를 갖게 됐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중전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영문약칭 'KOC')가 IOC에 가입한 KOC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 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등의 목적이 추가되었다.

주요 추진사업은 1986년에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1월, 19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1997년 5월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게임 개최,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게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 9월에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을, 2003년 8월에는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2006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014년 제17회 인천 하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였으며,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세계속에 한국스포츠를 빛내고 있다. 2009년에는 국제스포츠외교력 강화를 통하여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를 유치하였으며, 동계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하여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국내 평창에 유치코자 매진하고 있다.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과 IOC위원 현황은 (표 2-12), (표 2-13)와 같다.

[표 2-12]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KOC위원장)		
제 1대 장두현	-	-	1920. 7.13 ~1921. 7.22	제21대 이 효	제 9대 이 효	1963. 4.29 ~1964. 1.19 (1962.12.19 ~1964. 1.19)	
제 2대 고원훈	-	-	1921. 7.23 ~1923. 11.27	-	-	제10대 이상백	(1964. 1.20 ~1966. 4.14)
제 3대 최 린	-	-	1923.11.28 ~1924. 6.24	-	-	제11대 장기영	(1966. 6.15 ~1968. 2.28)
제 4대 박창하	-	-	1924. 7. 1 ~1924.11.12	제22대 민관식	제12대 민관식	1964. 1.20 ~1971. 7. 4 (1968. 3. 1 ~1970. 1.19)	
제 5대 이동식	-	-	1924.11.13 ~1925. 3.29	제23대 김용우	제13대 김용우	1971. 7. 5 ~1971.11.19 (1971. 7. 5 ~1971.11.19)	
제 6대 김규면	-	-	1925. 3.30 ~1925. 9.10	제24대 김택수	제14대 김택수	1971.11.20 ~1979. 2.14 (1971.11.20 ~1979. 2.14)	
제 7대 신희우	-	-	1925. 9.11 ~1927. 7.14	제25대 박종규	제15대 박종규	1979. 2.15 ~1980. 7.13 (1979. 2.15 ~1980. 7.13)	
제 8대 유억겸	-	-	1927. 7.18 ~1928. 8.17	제26대 조상호	제16대 조상호	1980. 7.14 ~1982. 7.11 (1980. 7.14 ~1982. 7.11)	
제 9대 윤치호	-	-	1928. 8.18 ~1937. 7. 2	제27대 정주영	제17대 정주영	1982. 7.12 ~1984.10. 1 (1982. 7.12 ~1984.10. 1)	
제10대 유억겸	-	-	1937. 7. 3 ~1938. 7. 3	제28대 노태우	제18대 노태우	1984.10. 2 ~1985. 4.25 (1984.10. 2 ~1985. 4.25)	
제11대 여운형	제 1대 여운형	1945.11.26 ~1947. 7.19 (1947. 6.15 ~1947. 7.19)	1947. 7.19 ~1947. 7.19	제29대 김종하	제19대 김종하	1985. 4.26 ~1989. 2.17 (1985. 4.26 ~1989. 2.17)	
제12대 유억겸	-	-	1947. 9.18 ~1947. 11.8	제30대 김종렬	제20대 김종렬	1989. 2.18 ~1993. 2.22 (1989. 2.18 ~1993. 2.22)	
제13대 정항범	제 2대 정항범	1948. 2. 6 ~1948. 9. 3 (1947. 9.18 ~1948. 9. 3)	1948. 9. 3 ~1948. 9. 3	제31대 김운용	제21대 김운용	1993. 2.23 ~1997. 2.25 (1993. 2.23 ~1997. 2.25)	
제14대 신익희	제 3대 신익희	1948. 9. 4 ~1949.10.28 (1948. 9. 4 ~1949.10.28)	1949.10.28 ~1949.10.28	제32대 김운용	제22대 김운용	1997. 2.26 ~2001. 2.26 (1997. 2.26 ~2001. 2.26)	
제15대 신희우	제 4대 신희우	1949.10.29 ~1951. 6.16 (1949.10.29 ~1951. 6.16)	1951. 6.16 ~1951. 6.16	제33대 김운용	제23대 김운용	2001. 2.27 ~2002. 3.12 (2001. 2.27 ~2002. 3.12)	
제16대 조병목	제 5대 조병목	1951. 6.17 ~1952. 9.26 (1951. 6.17 ~1952. 9.26)	1952. 9.26 ~1952. 9.26	제34대 이연택	제24대 이연택	2002. 5.29 ~2005. 2.23 (2002. 5.29 ~2005. 2.23)	
제17대 이기봉	제 6대 이기봉	1952. 9.27 ~1960. 4.28 (1952. 9.27 ~1960. 4.28)	1960. 4.28 ~1960. 4.28	제35대 김정길	제25대 김정길	2005. 3. 3 ~2008. 4.28 (2005. 3. 3 ~2008. 4.28)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KOC위원장)
제18대 이철승			1961. 1.28 ~1961. 5.15	제36대 이연택	제26대 이연택		2008. 5.26 ~2009. 2.18 (2008. 5.26 ~2009. 2.18)
제19대 김동하	제 7대 김동하		1961. 7.29 ~1962. 1. 8 (1961. 7.29 ~1962. 1. 8)	*제37대 박용성	제27대 박용성		2009. 2.19 ~2009. 6.28 (2009. 2.19 ~2009. 6.28)
제20대 이주일	제 8대 이주일		1962. 1. 9 ~1962.12.27 (1962. 3.16 ~1962.12)		박용성	-	2009. 6.29 ~2013. 2.

※ 2009년 6월 29일 KOC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됨.

[표 2-13]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성 명	기 간	성 명	기 간
이기봉	1955 ~ 1960	김운용	1986 ~ 2005
이상백	1964 ~ 1966	이건희	1996 ~ 현재
장기영	1967 ~ 1977	박용성	2002 ~ 2007
김택수	1977 ~ 1983	문대성	2008 ~ 현재
박종규	1984 ~ 1985	-	-

다.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5조 제3항에서는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두고, 정관 제6조 해외에도 재외한인체육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70개의 가맹경기단체와 16개의 시·도지부, 17개의 재외한인체육단체를 두고 있다. 시·도체육회에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17개 시·군·구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 체육회 및 재외한인체육단체는 (표 2-14)와 (표 2-15)과 같다.

[표 2-14] 시·도 체육회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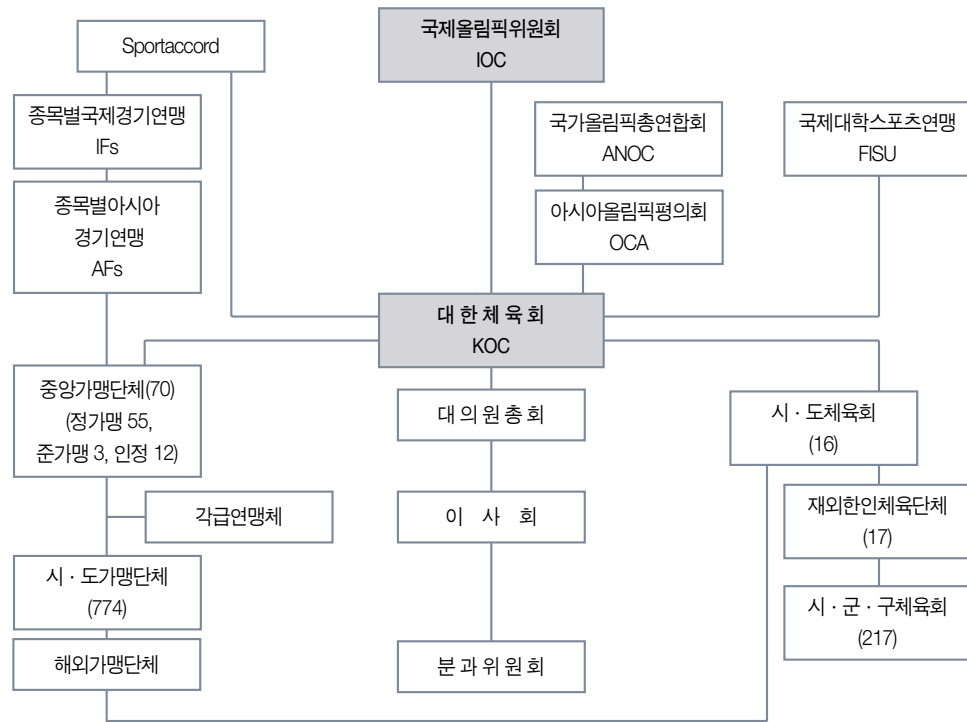
구 분	설립일	예 산		
		2007	2008	2009
서울특별시체육회	1953. 2. 20	17,562(18,942)	18,454(21,548)	20,098(22,215)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 3. 17	11,446(11,966)	12,861(16,669)	14,381(14,990)
대구광역시체육회	1981. 7. 20	8,263	9,166	9,656
인천광역시체육회	1981. 7. 1	13,521(14,174)	21,318	25,056
광주광역시체육회	1986. 11. 1	9,622	8,051	11,928
대전광역시체육회	1989. 1. 1	11,710(11,911)	13,266	25,635
울산광역시체육회	1997. 7. 15	6,815 (7,830)	10,119(11,168)	11,084(12,066)
경기도체육회	1946. 2	22,359(75,512)	21,810(68,012)	24,915(94,156)
강원도체육회	1946. 5. 1	10,587(26,760)	12,706(25,854)	10,714(32,363)
충청북도체육회	1946. 3	8,366(13,524)	8,368(15,583)	8,332
충청남도체육회	1927. 3	16,341(32,049)	17,483(31,368)	17,296(33,807)
전라북도체육회	1947. 3. 13	14,766(24,455)	17,532(26,871)	23,704(39,556)
전라남도체육회	1945. 9	8,135(14,372)	16,053(24,186)	7,407(13,761)
경상북도체육회	1949. 1	13,412(25,706)	8,203(25,639)	9,614
경상남도체육회	1945. 12. 22	11,191(25,671)	12,523(25,863)	14,915(32,144)
제주도체육회	1951. 6. 15	5,573 (7,090)	5,844 (7,816)	5,940(7,621)

※ 괄호안은 시군구 체육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자료 : 대한체육회

[표 2-15]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지부명	가맹일	지부명	가맹일	지부명	가맹일
일본	1962. 5. 25	브라질	1985. 9. 25	뉴질랜드	1994. 7. 8
미국	1972. 6. 7	호주	1987. 9. 28	필리핀	2001. 11. 15
독일	1976. 6. 3	아르헨티나	1987. 9. 28	중국	2005. 4. 7
캐나다	1977. 9. 19	파라과이	1989. 3. 27	영국	2006. 9. 27
스페인	1982. 9. 6	괌	1989. 3. 27	말레이시아	2008. 4. 25
홍콩	1984. 8. 31	싸이판	1999. 2. 5		



[그림 2-2] 국내·외 체육기구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위원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문화·환경·교육(올림픽아카데미)위원회 △의무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홍보위원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내 대학스포츠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orean University Sports Board)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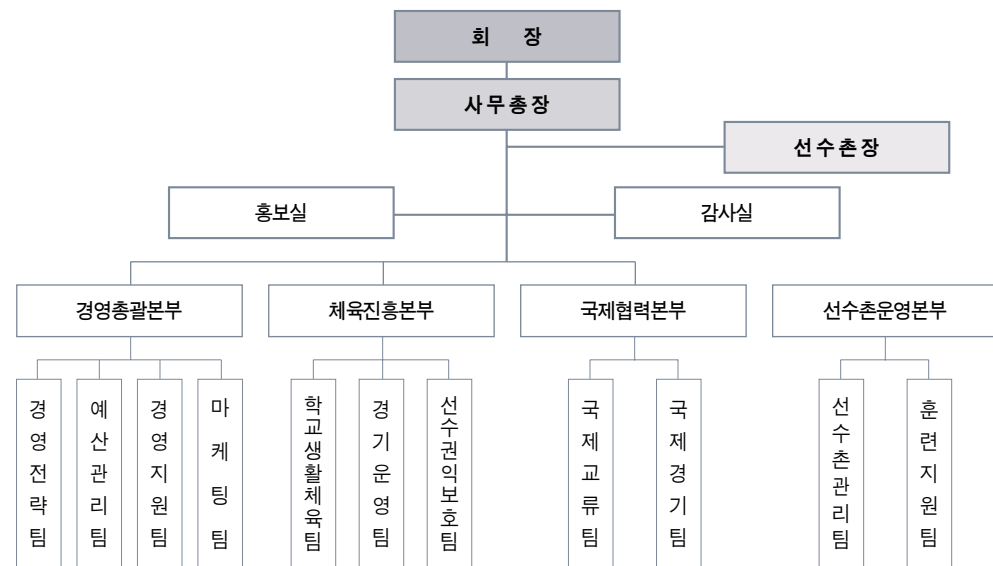
대한체육회는 회장 아래 사무처와 선수촌을 두고, 감사실과 홍보실을 두며 사무처는 사무총장 아래 경영총괄본부(경영전략팀, 예산관리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체육진흥본부(학교생활체육팀, 경기운영팀, 선수권익보호팀)와 국제협력본부(국제교류팀, 국제경기팀)를 두며, 선수촌에는 선수촌장을 두고 그 아래에 선수촌운영본부(선수촌관리팀, 훈련지원팀) 두고 있으며 국제체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로 국제위원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9명, 감사 2명이며, 사무총장 1명, 선수촌장 1명, 4본부 2실 11팀, 15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가맹경기단체 현황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된다. 정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약속하여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정관 제5조에 따라 제11조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대한체육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단체의 경우에도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55개 정가맹경기단체, 3개 준가맹경기단체 등 총 58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국내대회의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파견 등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 현황은 (표 2-16)과 같다.



[그림 2-3] 대한체육회 기구표 (2009년 12월말 기준)

[표 2-16]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		
				2007	2008	2009
1	대한육상경기연맹	Korea Amateur Athletic Federation	1945. 9.23	5,549	7,919	9,012
2	대한축구협회(사)	Korea Football Association	1928. 5.20	46,024	64,267	87,200
3	대한테니스협회(사)	Korea Tennis Association	1945.10. 1	4,875	4,320	5,962
4	대한정구협회(사)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1945.10. 1	827	899	867
5	대한탁구협회(사)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	1945. 9.28	2,398	1,964	2,962
6	대한핸드볼협회(사)	Korea Handball Federation	1945. 7.27	2,665	2,304	5,964
7	대한역도연맹(사)	Korea Weightlifting Federation	1945. 2.20	1,596	1,467	2,327
8	대한아미투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1945.11.10	1,546	1,614	1,693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Korea Skating Union	1945.11.24	4,279	4,909	4,381
10	대한유도회(사)	Korea Judo Association	1945.10.28	3,172	2,548	3,607
11	대한체조협회(사)	Korea Gymnastic Association	1945. 9. 1	5,464	5,450	2,924
12	대한사이클연맹(사)	Korea Cycling Federation	1945.11.30	2,699	3,741	3,533
13	대한농구협회(사)	Korea Basketball Association	1945.12.19	3,753	2,916	3,583
14	대한배구협회(사)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1945. 3. 6	3,910	4,085	4,878
15	대한씨름협회	Korea Ssireum Association	1927.11.27	946	1,226	1,812
16	대한럭비협회(사)	Korea Rugby Union	1946. 3.10	875	1,399	1,229
17	대한레슬링협회	Korea Wrestling Federation	1946. 3.14	3,088	3,258	3,323
18	대한수영연맹(사)	Korea Swimming Federation	1946. 3.15	2,594	3,207	2,933
19	대한야구협회(사)	Korea Baseball Association	1946. 3.18	2,261	2,150	2,943
20	대한스키협회(사)	Korea Ski Association	1946. 4.28	2,992	2,569	3,293
21	대한승마협회(사)	Korea Equestrian Federation	1946. 5.20	1,708	1,621	2,467
22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Korea Ice Hockey Association	1947. 1.11	1,513	1,097	1,374
23	대한하키협회	Korea Hockey Association	1947. 6. 7	2,197	1,986	1,908
24	대한검도회(사)	Korea Kumdo Association	1953.11.20	1,971	1,844	2,007
25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1922. 7.11	436	469	623
26	대한사격연맹(사)	Korea Shooting Federation	1955. 2. 8	3,380	2,599	4,319
27	대한펜싱협회(사)	Korea Fencing Association	1947.11.26	2,220	1,499	2,278
28	대한태권도협회(사)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1. 9.16	4,912	4,933	5,538
29	대한배드민턴협회(사)	Korea Badminton Association	1957.11.15	6,796	5,619	10,105
30	대한조정협회(사)	Korean Rowing Association	1962.10.31	1,904	1,692	1,838
31	대한인라인롤러연맹(사)	Korea Roller Sports Federation	1979. 3.10	856	821	863
32	대한요트협회(사)	Korean Yachting Association	1979. 3.17	1,793	1,863	2,778
33	대한볼링협회(사)	Korea Bowling Congress	1969. 8.10	1,217	1,612	1,541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		
				2007	2008	2009
34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1983. 3. 4	2,937	2,678	3,681
35	대한카누연맹(사)	Korean Canoe Federation	1983. 3. 26	1,546	1,242	1,383
36	대한골프협회(사)	Korea Golf Association	1965. 9. 23	2,881	2,853	8,657
37	대한근대5종연맹(사)	Modern Pentathlon Union of Korea	1982. 9. 15	2,197	1,912	2,330
3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사)	Korea Waterski and Wakeboard Association	1979. 2. 10	480	410	684
39	대한산악연맹(사)	Korean Alpine Federation	1962. 4. 21	2,386	1,998	2,854
40	대한보디빌딩협회(사)	Korea Bodybuilding Federation	1987. 6. 16	730	677	646
41	대한세팍타크로협회(사)	Korea Sepaktakraw Association	1988. 8. 29	1,657	765	985
42	대한수중협회(사)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1968. 3. 6	902	1,115	1,659
43	대한우슈협회	Korea Wushu Association	1989. 1. 20	479	727	837
44	대한소프트볼협회(사)	Korea Softball Federation	1989. 1. 25	843	867	772
45	대한B,S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1989. 5. 5	443	378	846
46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n Curling Federation	1994. 1. 25	509	615	610
47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사)	Korea Triathlon Federation	1987. 8. 2	1,830	2,251	1,996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Biathlon Union of Korea	1982. 9. 15	956	865	1,125
49	대한스쿼시연맹	Korea Squash Federation	1989. 5. 4	570	686	658
50	대한당구연맹	Korea Billiard Federation	1996. 5. 2	1,296	1,261	822
51	대한택견연맹(사)	Korea Taekkyon Association	1991. 1. 14	1,059	645	519
52	대한공수도연맹	Korea Karatedo Federation	1980. 8. 22	619	970	778
53	대한댄스스포츠연맹	Korea Federation of Dancesport	2001.10. 1	379	704	857
54	대한루지경기연맹	Federation Luge Korea	1989. 5. 5	-	182	271
55	대한바둑협회(사)	Korea Baduk Association	2002. 1. 25	1,447	1,066	2,809

마. 재정현황

대한체육회의 2009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10억 7,300만원, 국고 700억 9,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60억 2,300만원 등 총 1,371억 9,3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7】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2007년	105,221	44,910	53,249	7,061	6.7
2008년	136,497	64,977	58,954	12,566	9.2
2009년	137,193	70,097	56,023	11,073	8.1

※ 자료 : 대한체육회

【표 2-18】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예산 (A)	전체 수입 (B)	B/A× 100(%)	전체 예산 (A)	전체 수입 (B)	B/A× 100(%)	전체 예산 (A)	전체 수입 (B)	B/A× 100(%)
시·도체육회	189,669	6,450	3.4	213,757	6,116	2.9	240,675	7,693	3.2
시·군·구체육회	138,178	5,949	4.3	138,621	8,421	6.0	152,225	11,862	7.8
가맹경기단체	158,740	88,366	55.7	175,333	115,127	65.7	227,844	160,425	70.4

※ 자료 : 대한체육회

2) 국민생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열기 고조, 산업발달과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설건설 뿐만 아니라 클럽중심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들 단체들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생활체육 중심단체를 통해 지원함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 시·군·구생활체육회 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회 구성을 추진하여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도생활체육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생활체육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혁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2월 6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1991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의 가입을 시작으로 종목별연합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또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개최하던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산하단체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통합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한민족축전의 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생활체육 실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등 풀뿌리 생활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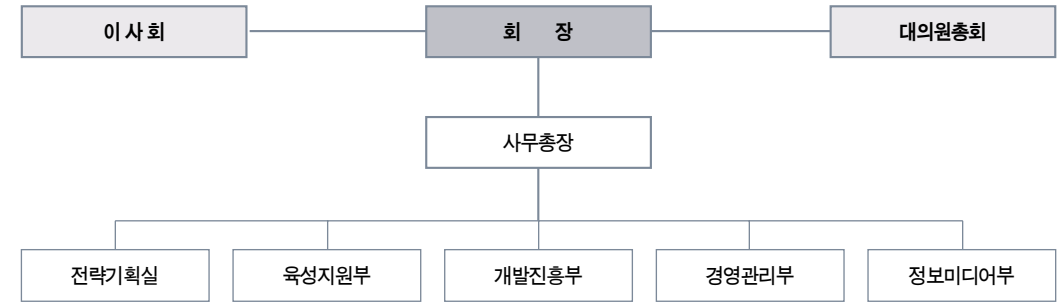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생활체육회는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생활체육회와 46개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6개 협력단체가 있으며, 시·도생활체육회에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시·도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생활체육회와 72종목 605개의 시·도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군·구생활체육회는 115종목 5,134개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동호인클럽 연결망을 갖추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1실 4부가 있으며,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 국회, 규정, 이사회·총회 업무, 육성지원부는 전국종목별연합회 관리업무와 전통종목 보급·지원,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및 생활체육국제교류 업무, 개발진흥부는 지역생활체육회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대축전 및 전국어르신대회, 스포츠클럽육성지원업무, 경영관리부는 인사, 회계 및 감사 업무, 정보미디어부는 홍보·공보 및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원은 창립초기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증가하는 국민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던 중,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합 정책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원을 4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전산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6년 3월 11일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52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정원 38명에서 2009년 현재 37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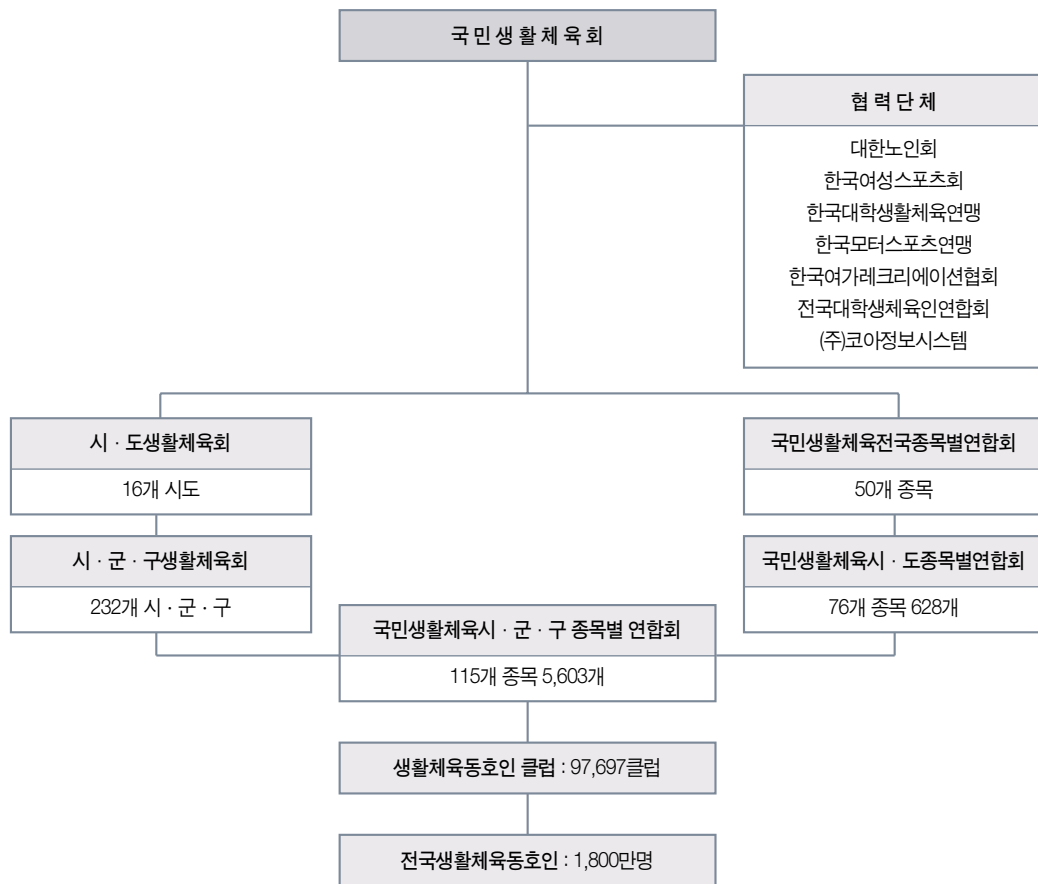
[그림 2-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1실 4부

라. 회원단체 현황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도생활체육회와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종목별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협력단체는 국민생활체육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여 국민생활체육회가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한, 시·도생활체육회는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시·도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며, 시·군·구생활체육회는 시·군·구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된다.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속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해당 종목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신규 동호인클럽을 창출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 해당종목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신규 동호인클럽 창출을 위한 안내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2-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표 2-19] 시·도 생활체육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특별시	1990.11.20	3,235(7,672)	6,546(9,998)	7,413(16,181)	7,759(15,552)	11,746(22,025)
부산광역시	1991. 3. 20	1,168(3,568)	1,525(4,026)	1,577(4,316)	1,675(4,641)	2,904(6,176)
대구광역시	1991. 2. 1	1,161(3,076)	1,274(3,649)	1,453(4,342)	4,818(7,263)	3,009(6,549)
인천광역시	1991. 4. 25	1,250(3,010)	1,672(3,656)	3,516(5,329)	2,998(4,898)	5,145(8,261)
광주광역시	1991. 4. 22	1,371(2,740)	1,487(3,055)	1,520(3,318)	1,232(3,016)	2,838(4,846)
대전광역시	1991. 7. 26	1,767(3,847)	1,338(3,596)	1,593(3,946)	1,746(4,494)	3,804(6,410)
울산광역시	1997. 9. 3	1,185(2,933)	1,431(3,611)	1,705(7,610)	1,286(3,697)	2,285(4,842)
경기도	1990.11.29	7,564(23,401)	7,288(24,501)	7,398(30,408)	6,753(29,418)	8,477(36,800)
강원도	1991. 7. 1	1,388(7,172)	1,174(7,732)	1,547(10,042)	1,293(9,451)	3,271(13,678)
충청북도	1990. 11. 5	1,982(4,829)	1,292(5,506)	1,456(6,047)	1,489(5,832)	2,475(9,593)
충청남도	1991. 5. 25	3,395(7,242)	1,577(6,805)	1,658(6,584)	1,297(6,836)	2,361(8,857)
전라북도	1990. 9. 20	2,321(6,898)	2,639(7,490)	2,411(8,387)	1,856(8,044)	6,640(15,717)
전라남도	1990. 8. 22	1,761(5,966)	3,590(9,220)	2,188(5,879)	1,545(7,678)	3,565(12,148)
경상북도	1990. 9. 21	1,486(4,735)	1,612(7,499)	2,414(6,110)	1,400(5,530)	2,975(16,018)
경상남도	1990.11.20	1,049(6,633)	1,169(7,383)	1,246(8,141)	1,170(8,843)	2,813(12,293)
제주특별자치도	1991. 5. 13	1,372(2,085)	1,566(2,570)	3,016(4,849)	2,837(4,093)	3,253(4,900)

※ 괄호안은 시군구생활체육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표 2-20]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5	2006	2007	2008	2009
1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1991. 3. 9	1,263	1,616	1,979	2,003	1,527
2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1991. 7. 13	279	286	338	341	312
3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	1991. 3. 31	640	718	788	910	910
4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	1991. 4. 2	1,190	1,272	1,602	1,509	1,551
5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1991. 9. 26	207	293	309	367	411
6	국민생활체육전국스케이트링연합회	1991. 11. 20	133	154	143	198	202
7	국민생활체육전국윈드서핑연합회	1993. 2. 10	94	206	197	203	101
8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1993. 2. 13	437	421	546	580	840
9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1993. 3. 12	189	186	240	215	169
10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1994. 10. 19	253	361	602	476	584
11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1994. 11. 29	281	224	224	386	439
12	국민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	1995. 2. 17	245	220	179	274	334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5	2006	2007	2008	2009
13	국민생활체육전국공도연합회	1994. 8. 23	79	84	208	333	336
14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연합회	1996. 2. 23	161	134	208	168	187
15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쿠버연합회	1997. 1. 17	400	162	168	166	213
16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1997. 2. 18	353	329	357	302	390
17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1998. 11. 30	262	274	257	464	370
18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체육연합회	1999. 1. 22	251	294	332	531	433
19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	1999. 1. 19	177	264	426	441	443
20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1999. 7. 20	206	164	143	407	163
21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1999. 1. 16	133	118	101	188	253
22	국민생활체육전국정구연합회	1999. 3. 18	135	157	165	160	186
23	국민생활체육전국보디빌딩연합회	1999. 9. 29	136	142	89	130	135
24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1999. 1. 1	102	171	539	1,662	298
25	국민생활체육전국줄다리기연합회	1999. 11. 24	85	99	107	111	203
26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1999. 7. 20	184	284	383	373	341
27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	1999. 4. 24	305	278	341	273	416
28	국민생활체육전국국무도연합회	1999. 6. 28	171	170	178	199	263
29	국민생활체육전국골프연합회	2000. 7. 7	156	138	145	218	199
30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2000. 12. 15	192	169	190	246	222
31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2001. 3. 10	170	173	191	217	171
32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2001. 4. 22	236	203	277	399	242
33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	1999. 11. 27	156	231	195	294	314
34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2003. 3. 31	108	111	103	131	150
35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2004. 1. 30	249	491	788	1,133	2,965
36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스케이트링연합회	2003. 3. 31	5	148	169	210	200
37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시연합회	2001. 3. 31	237	273	223	316	364
38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2002. 8. 9	190	100	123	393	537
39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2003. 3. 31	34	77	76	92	25
40	국민생활체육전국우슈연합회	2004. 1. 30	156	193	124	168	139
41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쿼시연합회	1999. 4. 22	65	58	75	163	91
42	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무술연합회	1999. 3. 10	215	217	248	275	297
43	국민생활체육전국리quet볼연합회	2003. 3. 31	63	102	127	131	137
44	국민생활체육전국익스트림게임연합회	2000. 6. 9	16	22	22	72	7
45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하키연합회	2001. 2. 7	46	85	85	80	20
46	국민생활체육전국하키연합회	1999. 8. 19	33	25	25	44	25
47	국민생활체육전국그라운드골프연합회	2009. 4. 28	-	-	-	-	169
48	국민생활체육전국줄넘기연합회	2009. 4. 28	-	-	-	-	81
49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	2009. 4. 28	-	-	-	-	20
50	국민생활체육전국파라골프연합회	2009. 4. 28	-	-	-	-	216

마. 재정현황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립초기 9억7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1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업무량의 증대 및 세계한민족축전의 개최에 따라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09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234억6,126만원 및 자체 예산 21억4,124만원 등 총 258억250만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표 2-21]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
		국고	기금	자체수입(B)	
1999년	10,528	2,276	6,828	1,424	13.5
2001년	15,876	4,056	8,555	3,265	20.5
2003년	19,171	-	17,983	1,188	6.2
2004년	20,330	-	18,294	2,036	10.0
2005년	18,590	-	17,408	1,182	6.4
2006년	18,209	-	16,891	1,318	7.2
2007년	20,302	-	18,911	1,391	7.4
2008년	17,801	-	16,283	1,518	8.5
2009년	22,449	-	20,387	2,062	9.2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표 2-22]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100 (%)	전체 예산(A)	자체 수입(B)	B/A×100 (%)
시·도생활체육회	33,455	2,996	8.9	37,188	2,497	6.7	42,111	2,482	5.8	41,152	1,479	3.6	67,561	2,043	3.0
시·군·구생활체육회	62,352	4,346	6.9	73,116	5,264	7.1	89,378	5,308	5.9	88,134	7,512	8.5	118,482	5,925	5.0
종목별연합회	10,678	5,196	48.7	11,897	8,537	71.8	17,809	9,624	54.0	17,980	12,226	68.0	19,475	13,550	69.0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제3절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2-23)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산정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3년 1조 6,600억원, 2004년 1조 7,976억원, 2005년 1조 9,762억원, 2006년 1조 8,957억원, 2007년 2조 5,955억원, 2008년 3조 1,303억원, 2009년 3조 4,09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도 교육청의 체육예산 등의 재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23]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 억원)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체육단체	계
2003	1,426	1,726	12,847	601	16,600
2004	1,093	1,526	14,443	914	17,976
2005	1,137	1,747	16,041	837	19,762
2006	1,489	2,291	13,835	1,342	18,957
2007	1,812	2,367	20,510	1,266	25,955
20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20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 국 고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 보조사업만 작성

※ 지방비 :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시도지부, 기맹경기단체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 자체수입 예산

2009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1.3%, 체육단체 수입이 6.3%, 국고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국고가 국민체육진흥기금보다 많았으나,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고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즉, 국가 체육예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2005년 국고예산은 1,137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으며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지원은 기금사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국고예산의 감소를 볼 수 있다. 2008년도까지는 국고예산 총계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에 들어서는 2008년 2,343억원에서 2,13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2-24] 분야별 국고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활체육	26,252	25,776	11,337	17,649	12,863
전문체육	77,718	98,342	142,701	193,058	177,563
국제교류	7,465	13,899	11,939	12,998	7,970
스포츠산업	2,010	6,792	6,674	6,262	8,269
장애인체육	-	3,898	8,514	4,110	6,610
기 타	239	145	227	263	244
합 계	113,684	148,852	181,392	234,340	213,519

※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08%, 2006년 0.10%, 2007년 0.11%, 2008년 0.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02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되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축소되었으나, 다시 2008 베이징 올림픽,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다(표 2-25 참조).

[표 2-25]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정부예산 (A)	문화체육관광부		체 육 부 문	
		예 산 (B)	점 유 율 (B/A, %)	예 산 (C)	점 유 율 (C/A, %)
1993	407,641	2,377	0.58	428	0.10
1995	557,805	3,838	0.69	511	0.09
1997	705,284	5,245	0.74	1,541	0.21
1998	807,629	6,183	0.76	1,816	0.22
1999	884,850	6,943	0.78	1,572	0.18
2000	946,199	9,149	0.96	1,799	0.19
2001	1,002,246	9,706	0.96	1,639	0.16
2002	1,060,963	10,991	1.03	1,589	0.15
2003	1,114,831	11,401	1.02	1,425	0.13
2004	1,183,560	15,340	1.30	1,093	0.09
2005	1,343,704	15,676	1.17	1,137	0.08
2006	1,448,076	9,644	0.66	1,489	0.10
2007	1,641,435	12,681	0.77	1,812	0.11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2009	2,041,000	16,579	0.81	2,135	0.11

※ 2005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청소년 예산이 포함되었음

※ 동 표는 국고예산만 해당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표 2-26]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0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9,205,394	211,565	0.72	28,928,207	203,081	0.70
부산광역시	8,574,050	111,993	1.31	8,242,970	128,660	1.56
대구광역시	5,667,502	115,160	2.03	5,553,019	106,126	1.91
인천광역시	7,569,538	112,391	1.48	6,671,477	80,889	1.21
광주광역시	4,558,269	44,846	0.98	3,923,372	39,619	1.01
대전광역시	4,424,812	60,354	1.36	3,890,520	63,138	1.62
울산광역시	3,926,684	69,612	1.77	3,206,557	68,002	2.12
경기도	32,549,935	559,165	1.72	31,444,882	513,193	1.63
강원도	8,902,741	209,855	2.36	7,881,811	179,968	2.28
충청북도	5,216,688	98,872	1.90	4,901,422	80,474	1.64
충청남도	9,622,237	151,548	1.57	8,777,245	129,080	1.47
전라북도	10,620,847	152,607	1.44	9,651,122	136,373	1.41
전라남도	12,644,257	190,592	1.51	11,777,207	155,072	1.32
경상북도	14,203,547	181,786	1.28	13,185,431	186,548	1.41
경상남도	12,188,522	285,875	2.35	11,490,897	325,662	2.83
제주특별자치도	2,398,131	46,793	1.95	2,214,565	38,535	1.74
합계	172,273,154	2,603,014	1.51	161,740,704	2,434,420	1.51

1.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2008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4,8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56조 44억원의 1.59%를 차지했으며, 2009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172조 2,731억 원 중 2조 6,030억 원으로 1.51%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2009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591억 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67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8.35%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편차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2-27, 표 2-28).

[표 2-27]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0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1,036,900	98,436	0.47	21,257,300	91,142	0.43
부산광역시	5,606,625	95,952	1.71	5,501,915	105,792	1.92
대구광역시	3,610,455	92,420	2.55	3,606,800	92,917	2.57
인천광역시	4,688,046	84,422	1.80	4,131,118	65,494	1.59
광주광역시	3,361,033	30,421	0.91	2,852,954	32,032	1.12
대전광역시	3,178,067	46,439	1.46	2,796,681	53,932	1.93
울산광역시	2,676,399	38,008	1.42	2,171,933	43,721	2.01
경기도	12,116,664	74,541	0.62	13,185,649	58,867	0.45
강원도	3,209,660	23,646	0.74	2,879,355	22,212	0.77
충청북도	1,051,577	9,556	0.91	1,021,724	10,218	1.00
충청남도	3,588,700	15,819	0.44	3,342,700	15,369	0.46
전라북도	4,086,734	44,468	1.08	3,748,135	34,350	0.91
전라남도	4,686,487	45,415	0.97	4,434,031	31,338	0.71
경상북도	4,676,060	13,571	0.29	4,405,120	14,625	0.33
경상남도	3,372,773	33,162	0.98	3,027,204	50,028	1.65
제주특별자치도	2,398,131	46,793	1.95	2,214,565	38,535	1.74
합계	83,344,311	793,069	0.95	80,577,184	760,572	0.94

1.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표 2-28]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0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8,168,494	113,129	1.38	7,670,907	111,939	1.45
부산광역시	2,967,425	16,041	0.54	2,741,055	22,868	0.83
대구광역시	2,057,047	22,740	1.10	1,946,219	13,209	0.67
인천광역시	2,881,492	27,969	0.97	2,540,359	15,395	0.61
광주광역시	1,197,236	14,425	1.20	1,070,418	7,587	0.71
대전광역시	1,246,745	13,915	1.12	1,093,839	9,206	0.84
울산광역시	1,250,285	31,604	2.52	1,034,624	24,281	2.34
경기도	20,433,271	484,624	2.37	18,259,233	454,326	2.49
강원도	5,693,081	186,209	3.27	5,002,456	157,756	3.15
충청북도	4,165,111	89,316	2.14	3,879,698	70,256	1.81
충청남도	6,033,537	135,729	2.25	5,434,545	113,711	2.09
전라북도	6,534,113	108,139	1.65	5,902,987	102,023	1.72
전라남도	7,957,770	145,177	1.82	7,343,176	123,734	1.69
경상북도	9,527,487	168,215	1.77	8,780,311	171,923	1.95
경상남도	8,815,749	252,713	2.86	8,463,693	275,634	3.25
제주특별자치도	-	-	-	-	-	-
합계	88,928,843	1,809,945	2.04	81,163,520	1,673,848	2.06

1.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운영됨

[표 2-28-1]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0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 (25)	종로구	285,754	7,144	2.50	214,877	7,181	3.34
	중 구	342,925	8,765	2.55	291,681	9,836	3.37
	용산구	231,774	2,497	1.07	232,579	2,473	1.06
	성동구	275,450	6,163	2.24	290,816	6,684	2.30
	광진구	247,995	1,062	0.42	251,699	896	0.35
	동대문구	463,249	4,892	1.05	340,837	5,043	1.47
	중랑구	290,727	1,557	0.53	295,874	598	0.20
	성북구	305,253	448	0.15	306,649	850	0.28
	강북구	282,091	3,535	1.25	284,634	3,025	1.06
	도봉구	307,340	2,802	0.91	249,486	1,857	0.74
	노원구	389,434	4,083	1.05	398,482	4,464	1.12
	은평구	392,971	7,661	1.94	305,400	5,339	1.74
	서대문구	322,051	760	0.24	254,072	515	0.20
	마포구	261,200	1,330	0.50	292,549	5,902	2.01
	양천구	290,259	8,792	3.03	298,742	9,306	3.12
	강서구	353,001	5,388	1.53	377,691	5,734	1.52
	구로구	281,827	4,488	1.59	289,603	2,136	0.74
	금천구	295,585	3,926	1.32	250,830	3,802	1.51
	영등포구	314,300	3,228	1.02	323,327	3,382	1.04
	동작구	278,118	11,556	4.15	277,849	8,557	3.07
	관악구	380,704	4,738	1.24	326,524	4,987	1.52
	서초구	315,960	2,010	0.63	375,624	4,191	1.12
	강남구	641,054	9,690	1.50	519,949	8,500	1.63
	송파구	343,530	5,982	1.74	348,010	5,962	1.71
	강동구	275,942	632	0.22	273,123	719	0.26
소계	8,168,494	113,129	1.38	7,670,907	111,939	1.45	
부산 (16)	중 구	88,847	261	0.29	68,636	297	0.43
	서 구	123,933	339	0.27	140,308	322	0.23
	동 구	142,689	470	0.32	116,945	463	0.39
	영도구	175,797	2,589	1.47	143,340	507	0.35
	부산진구	212,105	587	0.27	224,653	514	0.22
	동래구	142,512	502	0.35	133,049	434	0.32
남 구	198,920	1,194	0.60	165,337	1,315	0.79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부산 (16)	북 구	231,977	2,351	1.01	208,979	6,206	2.96
	해운대구	287,813	873	0.30	253,617	446	0.17
	사하구	217,339	1,564	0.72	218,712	711	0.33
	금정구	205,912	648	0.31	173,272	671	0.39
	강서구	123,336	1,198	0.97	126,403	698	0.55
	연제구	134,485	608	0.46	144,346	4,247	2.94
	수영구	137,252	834	0.60	113,557	759	0.66
	사상구	179,210	575	0.32	185,209	502	0.27
	기장군	365,298	1,448	0.39	324,692	4,776	1.47
	소 계	2,967,425	16,041	0.54	2,741,055	22,868	0.83
대구 (8)	중구	138,000	661	0.48	120,386	618	0.51
	동구	275,517	739	0.27	288,278	799	0.28
	서구	155,373	843	0.54	168,400	623	0.37
	남구	183,936	943	0.51	153,000	692	0.45
	북구	272,200	1,920	0.71	291,600	1,877	0.64
	수성구	347,221	1,408	0.40	289,255	1,549	0.53
	달서구	347,700	1,424	0.41	310,600	1,367	0.44
	달성군	337,100	14,802	4.39	324,700	5,684	1.75
	소 계	2,057,047	22,740	1.10	1,946,219	13,209	0.67
	인천 (10)	중 구	210,104	1,029	0.49	185,972	1,229
동 구		130,646	1,471	1.13	146,642	1,083	0.74
남 구		299,525	2,454	0.82	275,712	1,617	0.59
연수구		248,286	1,623	0.65	206,615	569	0.28
남동구		384,901	2,884	0.75	331,462	1,913	0.58
부평구		418,250	7,277	1.74	373,777	1,515	0.41
계양구		225,049	2,978	1.32	195,571	2,043	1.04
서 구		369,073	2,193	0.59	293,897	1,878	0.64
강화군		374,115	4,169	1.11	330,164	2,510	0.76
옹진군		221,543	1,891	0.85	200,547	1,038	0.52
소 계	2,881,492	27,969	0.97	2,540,359	15,395	0.61	
광주 (5)	동 구	123,226	576	0.47	127,914	535	0.42
	서 구	192,912	2,729	1.41	217,187	1,907	0.88
	남 구	212,245	419	0.20	180,289	331	0.18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광주 (5)	북 구	357,357	7,820	2.19	294,607	989	0.34
	광산구	311,496	2,881	0.92	250,421	3,825	1.53
	소 계	1,197,236	14,425	1.20	1,070,418	7,587	0.71
대전 (5)	동 구	287,960	5,216	1.81	230,260	910	0.39
	중 구	187,334	860	0.46	207,880	3,423	1.65
	서 구	298,546	3,134	1.05	251,135	1,986	0.79
	유성구	254,000	2,548	1.00	220,800	1,497	0.68
	대덕구	218,905	2,157	0.98	183,764	1,390	0.76
소 계	1,246,745	13,915	1.12	1,093,839	9,206	0.84	
울산 (5)	중 구	200,502	9,237	4.61	157,115	6,218	3.96
	남 구	288,073	9,511	3.30	220,335	5,925	2.70
	동 구	138,256	1,926	1.39	117,874	1,718	1.46
	북 구	153,427	4,627	3.02	132,099	1,628	1.23
	울주군	470,027	6,303	1.34	407,201	8,792	2.16
소 계	1,250,285	31,604	2.52	1,034,624	24,281	2.34	
경기 (31)	수원시	1,953,447	33,699	1.73	1,435,629	34,422	2.39
	성남시	2,293,208	47,100	2.05	1,757,774	43,810	2.49
	의정부시	947,022	15,975	1.69	689,094	5,773	0.84
	안양시	557,481	26,779	4.80	577,435	28,080	4.86
	부천시	931,962	32,037	3.44	1,046,155	29,782	2.85
	광명시	355,305	6,105	1.72	341,529	5,143	1.51
	평택시	1,132,530	27,735	2.45	1,001,310	29,266	2.92
	동두천시	274,743	1,129	0.41	232,252	1,158	0.50
	안산시	770,079	13,780	1.79	725,840	21,578	2.97
	고양시	1,300,000	29,482	2.27	1,194,081	23,847	1.99
	과천시	193,943	3,776	1.95	210,070	3,512	1.67
	구리시	255,421	3,539	1.39	214,191	2,222	1.04
	남양주시	692,185	11,417	1.65	745,516	19,428	2.61
오산시	264,121	16,171	6.12	303,959	17,794	5.85	
시흥시	583,979	9,628	1.65	473,271	9,435	1.99	
군포시	253,142	2,843	1.12	280,958	3,695	1.32	
의왕시	219,283	4,617	2.11	181,022	5,449	3.01	
하남시	270,230	7,376	2.73	226,955	6,392	2.82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경기 (31)	용인시	1,382,068	31,944	2.31	1,183,112	40,835	3.45
	파주시	652,436	4,000	0.61	760,333	2,974	0.39
	이천시	560,701	10,364	1.85	479,599	7,681	1.60
	안성시	430,733	11,654	2.71	351,703	5,585	1.59
	김포시	567,134	3,650	0.64	486,165	3,502	0.72
	화성시	1,066,644	64,243	6.02	1,101,371	71,908	6.53
	광주시	388,147	2,214	0.57	427,990	2,395	0.56
	양주시	448,651	12,189	2.72	347,406	4,234	1.22
	여주군	356,793	5,632	1.58	274,536	3,993	1.45
	연천군	338,360	7,066	2.08	306,064	1,652	0.54
	포천시	417,719	8,862	2.12	370,377	11,397	3.07
	가평군	200,252	3,145	1.57	252,224	3,539	1.40
	양평군	375,552	26,473	7.05	281,312	3,845	1.37
	소 계	20,433,271	484,624	2.37	18,259,233	454,326	2.49
	강원 (18)	춘천시	620,716	13,198	2.12	501,722	12,575
원주시		478,057	13,948	2.91	466,296	11,528	2.47
강릉시		555,836	28,611	5.14	463,015	14,925	3.22
동해시		274,240	11,821	4.29	248,992	14,961	6.01
태백시		248,930	11,984	4.81	210,929	9,495	4.50
속초시		277,891	6,600	2.38	246,376	4,982	2.02
삼척시		405,613	7,679	1.89	373,274	4,497	1.20
홍천군		292,691	5,328	1.82	248,876	6,600	2.65
횡성군		285,852	10,845	3.79	210,537	5,648	2.68
영월군		250,187	9,828	3.92	268,736	8,802	3.27
평창군		324,810	13,824	4.25	269,865	22,736	8.42
정선군		353,219	5,830	1.65	301,688	3,259	1.08
철원군		233,271	5,618	2.40	211,883	7,116	3.35
화천군		197,136	8,775	4.45	194,111	5,365	2.76
양구군		245,351	2,400	0.98	188,057	2,276	1.21
인제군		234,216	13,493	5.76	238,610	8,510	3.57
고성군		222,344	4,725	2.12	198,670	5,164	2.59
양양군		192,721	11,702	6.07	160,819	9,317	5.79
소 계	5,693,081	186,209	3.27	5,002,456	157,756	3.15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충북 (12)	청주시	845,768	14,836	1.75	808,092	10,786	1.33
	충주시	522,221	16,156	3.09	453,093	8,865	1.95
	제천시	366,033	9,565	2.61	399,692	7,975	1.99
	청원군	432,536	4,542	1.05	444,716	4,999	1.12
	보은군	212,977	4,269	2.00	219,552	1,811	0.83
	옥천군	249,829	12,549	5.02	216,834	11,075	5.11
	영동군	288,027	5,903	2.05	220,481	4,584	2.08
	증평군	148,334	2,833	1.90	117,256	2,565	2.18
	진천군	192,341	2,006	1.04	222,801	5,845	2.62
	괴산군	273,550	2,214	0.81	229,570	3,607	1.57
	음성군	357,742	8,541	2.39	299,789	5,324	1.78
	단양군	275,753	5,902	2.14	247,822	2,820	1.13
소 계	4,165,111	89,316	2.14	3,879,698	70,256	1.81	
충남 (15)	천안시	750,300	20,612	2.75	730,000	33,143	4.54
	공주시	446,600	4,225	0.95	392,700	9,409	2.40
	보령시	407,865	7,630	1.87	359,900	4,420	1.23
	아산시	537,059	9,590	1.79	540,500	8,800	1.63
	서산시	423,365	7,872	1.86	390,355	5,821	1.49
	논산시	443,552	4,650	1.05	354,704	3,516	0.99
	계룡시	102,700	14,414	14.03	90,000	5,217	5.80
	금산군	274,568	3,260	1.19	228,628	4,917	2.15
	연기군	286,240	3,786	1.32	250,304	2,993	1.20
	부여군	367,838	2,960	0.80	334,900	2,644	0.79
	서천군	288,297	4,392	1.52	258,948	7,338	2.83
	청양군	247,070	15,068	6.10	208,272	4,213	2.02
	홍성군	336,345	6,827	2.03	333,215	2,784	0.84
	예산군	327,539	5,922	1.81	275,080	3,489	1.27
	태안군	323,569	6,247	1.93	256,199	4,920	1.92
당진군	470,630	18,274	3.88	430,840	10,087	2.34	
소 계	6,033,537	135,729	2.25	5,434,545	113,711	2.09	
전북 (14)	전주시	1,047,332	21,086	2.01	952,901	20,099	2.10
	군산시	686,180	5,198	0.75	669,166	4,578	0.68
	익산시	771,372	18,482	2.39	742,988	20,500	2.76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전북 (14)	정읍시	537,377	9,225	1.71	464,715	4,595	0.98	
	남원시	438,052	8,018	1.83	404,580	2,410	0.59	
	김제시	458,800	5,447	1.18	452,250	6,749	1.49	
	완주군	504,220	4,088	0.81	410,817	2,005	0.48	
	진안군	280,132	1,584	0.56	240,037	5,764	2.40	
	무주군	256,882	9,009	3.50	216,541	10,642	4.91	
	장수군	208,386	5,661	2.71	197,018	4,738	2.40	
	임실군	302,295	2,062	0.68	250,517	2,311	0.92	
	순창군	265,980	2,144	0.80	222,280	1,927	0.86	
	고창군	404,854	7,743	1.91	347,891	4,793	1.37	
	부안군	372,251	8,392	2.25	331,286	10,912	3.29	
	소 계	6,534,113	108,139	1.65	5,902,987	102,023	1.72	
	전남 (22)	목포시	451,470	20,987	4.65	495,678	11,186	2.26
		여수시	727,076	14,238	1.96	663,311	7,107	1.07
순천시		511,046	2,750	0.54	529,560	6,030	1.14	
나주시		533,033	3,521	0.66	387,392	2,637	0.68	
광양시		429,014	13,841	3.23	343,340	7,152	2.08	
담양군		280,639	1,888	0.67	262,984	1,152	0.44	
곡성군		267,696	3,656	1.37	212,927	3,570	1.68	
구례군		201,103	1,433	0.71	201,227	2,600	1.29	
고흥군		383,799	2,163	0.56	384,119	2,555	0.67	
보성군		333,310	3,621	1.09	302,821	2,612	0.86	
화순군		464,281	17,513	3.77	407,453	18,191	4.46	
장흥군		246,028	3,618	1.47	270,797	14,780	5.46	
강진군		284,206	5,962	2.10	230,183	6,341	2.75	
해남군		388,355	8,300	2.14	370,319	5,327	1.44	
영암군		393,705	8,319	2.11	311,102	7,502	2.41	
무안군		275,253	8,111	2.95	296,607	4,635	1.56	
함평군		252,924	3,624	1.43	211,041	2,758	1.31	
영광군		289,500	6,789	2.35	287,000	3,526	1.23	
장성군	232,761	1,793	0.77	235,620	2,444	1.04		
완도군	315,606	4,843	1.53	303,159	1,910	0.63		
진도군	259,859	4,190	1.61	248,496	7,296	2.94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전남 (22)	신안군	437,106	4,017	0.92	388,040	2,423	0.62
	소 계	7,957,770	145,177	1.82	7,343,176	123,734	1.69
경북 (23)	포항시	1,159,700	19,758	1.70	1,040,300	29,683	2.85
	경주시	985,500	8,741	0.88	796,000	8,747	1.09
	김천시	553,000	10,180	1.84	508,000	14,105	2.78
	안동시	621,691	9,424	1.51	582,840	11,586	1.98
	구미시	638,800	23,149	3.62	823,703	23,800	2.88
	영주시	406,400	5,124	1.26	368,400	3,490	0.94
	영천시	429,700	4,453	1.03	382,200	4,158	1.08
	상주시	563,208	18,460	3.27	500,800	12,456	2.48
	문경시	327,830	13,686	4.17	378,500	14,967	3.95
	경산시	463,600	14,581	3.14	418,100	6,661	1.59
	군위군	210,865	1,203	0.57	184,826	2,428	1.31
	의성군	368,712	2,787	0.75	311,545	3,671	1.17
	청송군	220,379	1,300	0.58	186,620	1,508	0.80
	영양군	225,900	1,883	0.83	184,200	2,824	1.53
	영덕군	324,488	3,815	1.17	273,517	4,610	1.68
	청도군	255,980	3,136	1.22	254,237	2,353	0.92
	고령군	201,199	734	0.36	203,476	732	0.35
	성주군	218,000	3,969	1.82	238,000	2,347	0.98
	칠곡군	279,468	9,087	3.25	262,200	10,246	3.90
	예천군	287,219	3,747	1.30	244,475	3,561	1.45
봉화군	301,200	2,774	0.92	236,000	645	0.27	
울진군	319,198	5,098	1.59	255,872	6,444	2.51	
울릉군	165,450	1,126	0.68	146,500	901	0.61	
소 계	9,527,487	168,215	1.77	8,780,311	171,923	1.95	
경남 (20)	창원시	785,872	30,925	3.93	708,083	21,550	3.04
	마산시	665,736	14,595	2.19	639,263	11,287	1.76
	진주시	856,944	46,959	5.47	953,565	77,899	8.16
	진해시	317,075	4,341	1.36	255,441	3,453	1.35
	통영시	413,909	18,210	4.39	373,366	13,864	3.71
	사천시	383,709	7,693	2.00	374,841	7,757	2.06
	김해시	885,935	23,318	2.63	841,839	29,533	3.50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2009년도 체육예산			2010년도 체육예산		
		예산총액 ¹⁾ (A)	(B)	B/A×100	예산총액 ²⁾ (A)	(B)	B/A×100
경남 (20)	밀양시	395,935	5,208	1.31	422,302	5,490	1.30
	거제시	467,532	15,389	3.29	425,313	9,744	2.29
	양산시	542,970	16,419	3.02	535,954	25,588	4.77
	의령군	248,490	7,165	2.88	208,820	4,943	2.36
	함안군	305,812	8,760	2.86	305,564	12,278	4.01
	창녕군	355,343	4,207	1.18	320,477	7,386	2.30
	고성군	293,759	7,740	2.63	267,372	9,877	3.69
	남해군	243,617	8,120	3.33	260,460	6,921	2.65
	하동군	339,136	7,198	2.12	278,566	11,193	4.01
	산청군	319,709	7,909	2.47	318,558	6,429	2.01
	함양군	349,325	5,265	1.50	315,127	3,072	0.97
	거창군	318,247	11,529	3.62	331,020	5,403	1.63
	합천군	326,694	1,763	0.53	327,762	1,967	0.60
소 계	8,815,749	252,713	2.86	8,463,693	275,634	3.25	

1. 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4. 국민체육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연혁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36호, 1972년 8월 14일)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시작되면서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허가권자 : 문교부장관, 1972년 9월 23일)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년 3월 20일)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원 등 총 3,521억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2) 기금의 필요성

체육(Sports)은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국가 이미지·경쟁력 제고의 수단이며, 또한 사회·국민통합의 동력이며, 건전 청소년육성의 교육기회 제공 등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이러한 체육의 가치를 인식하여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개정 이후 예산 및 기금으로 전문·생활·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및 체육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스포츠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체육활동에 기초한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 재원은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데 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증가하는 국민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첫째, 체육재정 수요에 대한 정부예산의 한계, 둘째, 체육 인프라의 부족, 셋째, 국민복지증진 차원에서의 체육정책 실현, 넷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서 찾을 수 있다.

가. 체육재정 수요에 대한 정부예산의 한계

우리나라의 체육재정은 크게 정부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체육부문 예산이 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06%로 선진국의 체육예산비중(0.2%~1.6%)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증가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체육재정 수요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방·교육·복지 등 국가재정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체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체육 인프라의 부족

우리나라의 체육인프라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등 정부의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확충 노력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선진국과 비교시에는 여전히 체육 인프라의 양과 질에서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2006년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적정 체육시설 소요면적은 5.7㎡로 최근의 급격한 공공체육시설 공급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민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2.38㎡로 소요면적 대비 41.7% 수준에 미치고 있다.

[표 2-29] 1인당체육시설면적 및 보급률 변화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면 적	1.92㎡/인	2.09㎡/인	2.38㎡/인
보급율	33.70%	36.70%	41.70%

[표 2-30] 체육활동참여의 우선조건

구 분	비 율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	44.20%
체육활동의 홍보활동 강화	14.20%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3.50%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절	13.70%
체육활동 기구의 품질개선 및 보급	8.80%
지도자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	4.90%
기 타	- %

2008년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의 우선조건으로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을 가장 많이(44.2%) 선택하였다. 체육활동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16.3%, 헬스클럽 11.3%, 등산로 8.4%, 사설스포츠센터 4.8% 순이었다.

다.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의 체육정책 실현

스포츠는 문화복지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를 진흥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에 속하며, 국가적인 지원 없이 민간부문의 활동에만 맡겨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체육부문을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에만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경쟁시장의 속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이용기회가 박탈되는 등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정책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부문에 대한 공익기금의 개입이 불가피한 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라.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오늘날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자체가 국가 위상제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상승 및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산업의 성장가능성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육성차원에서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용품 개발, 스포츠 마케팅 확장 등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도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3) 기금 조성

가. 조성재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나. 조성실적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을 기반으로 1989~2009년까지 4조 134억원을 조성하고, 2조 6,0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말 기준 기금 적립액은 1조 7,383억원이다.

[표 2-31] 기금조성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족기금	조성금액	기금지원액	적립기금
1989~2009	3,521	40,134	26,024	17,383

4) 기금지원 실적

가. 지원 실적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2] 기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소계	1989~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6,024	2,130	548	593	704	97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국민체육진흥	소계	24,979	1,394	439	478	649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전문체육	11,241	933	300	305	415	443	2,324	522	603	829	420	443	556	667	896	1,585
	생활체육	12,089	394	113	145	200	447	301	430	555	747	952	1,145	1,549	1,527	1,518	2,066
	학교체육	1,649	67	26	28	34	52	83	79	85	150	154	159	186	173	164	209
청소년육성	774	500	100	100	44	30	-	-	-	-	-	-	-	-	-	-	
올림픽기념	271	236	9	15	11	-	-	-	-	-	-	-	-	-	-	-	

※ 전문체육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2,103억원)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9년 기준 국민체육진흥 2조 4,979억원, 청소년육성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 271억원 등 총 2조 6,024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에 11,241억원이, 생활체육에 1조 2,089억원, 학교체육에 1,649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용자 실적

국민체육진흥과 한축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금의 용자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업체에 1991년부터 2009년까지 560개업체에 총 1,534억원이 용자되었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에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11개업체에 173억원이 용자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서비스업체에는 2009년말 기준 총 11개업체에 29억원이 용자되었다. 이외에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시설설치자를 대상으로(2개업체 80억원) 용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5) 지원성과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진작 그리고 국민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정책에 따라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건인차가 되어 왔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서울올림픽잉여금 등 3,521억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내실있는 조성하고 운영을 통해 2009년말 기준 1조 7,383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기금조성 기간 중에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분야에 2조 4,979억원, 청소년분야에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에 271억원 등 총 2조 6,02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금의 지원성과를 2009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학교·지자체·특수시설 등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학교기본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 생활체육기반시설(1,40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인력·보급, 각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참여율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593억원)를 견인하고 있다.

둘째, 전문체육, 국제대회 지원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 서울 올림픽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온 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31개의 메달획득으로 종합순위 7위라는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후보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

금 등 체육인 복지향상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우수선수 육성(75억원), 국내대회(127억원), 학교체육육성(45억원), 체육인복지사업(86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교류 증진을 위해 청소년체육교류, 국제체육교류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 등 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활동(739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열악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체(75억원) 및 우수체육용기구 생산업체(13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2억원) 등에 체육산업 용자를 실시하였고 경륜사업, 경정사업 등 기금사업용자(43억원)와 경정훈련원 건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기금조성투자사업(41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장애인체육을 진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1월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과 아울러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 6억원, 시각장애인생활체육 2억원 등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분야(10억원), 생활체육분야(39억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으며 2009년에는 279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종합체육시설 건립지원에 10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분과학회의 학술 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체육과학연구원(현 체육과학연구원)을 부설 기관화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스포츠과학연구는 물론 체육정책개발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 스포츠정보 전산화, 스포츠산업 기술지원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2009년 69억원 지원)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 4 절 체육관련법제

1. 개 관

체육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4,000여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과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한국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법 등 특별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률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구성과 사용을,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09년에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되 5년간 한시적으로(2014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사업을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동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민간체육시설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였다.

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률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라.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률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초 제정시에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법이었으나, 그 후 2009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의 사용금지,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2009년 10월 9일 제정된 법률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시설 및 수익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루지봅슬레이 종목을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으로 분리하고, 공수도·댄스스포츠·택전을 종목에 새로 추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을 추가·분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2010년 2월 시행 예정에 있다.

2) 체육유관법령

가.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은 농림부 소관법률로서 1999년 8월 1일 제정되어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09년에는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의 조성 및 레저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하고,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등록의 절차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하며, 마주 등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정보의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개정하였다.

나. 수상레저 안전법

수상레저 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1조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

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을 인식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라.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제1조에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서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및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건축물 및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보다 일반적인 접근과 이동,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건물 출입에 관련된 매개시설, 시설 내 이동과 관련된 내부시설, 위생 시설, 기타시설(매표소, 관람석 등) 구분하고 있고 각 시설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과 관련된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과 내부시설 부분의 출입구(문), 위생시설의 소변기 등 5개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시설로 규정해 놓고 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체육관련법에 해당된다.

3) 각종 규정과 예규

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1995-3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 훈령 제21호(1993년 8월 9일)로 제정되었으며, 관세법 제3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부훈령 제19호(1993년 7월 13일)로 제정되었다.

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이 요령은 체육부고시 제90-2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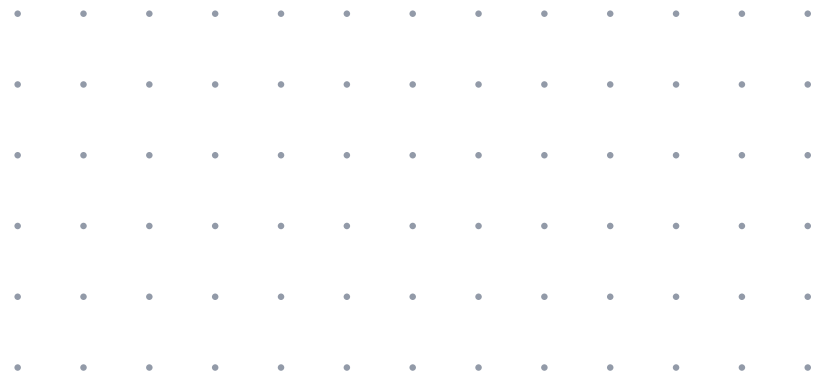
마.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호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이 훈령은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 제198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

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FIFA 월드컵,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03



제3장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제1절 개 관

제2절 국민의 여가활동

제3절 생활체육 직접참여 실태

제4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제3장 _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

제1절 개 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 및 경제성장, 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과 여가는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요소가 되었다. 특히, 여가시간의 질이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여가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여가의 개념은 '휴식, 오락, 인격형성' 등의 소극적이고 고전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인지된 자유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가의 본질적 요소인 '선택성, 융통성, 자발성, 자기결정성' 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 개념의 변화와 여가활동 욕구 증대는 자연스럽게 스포츠부문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인들의 여가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즉, 일과 놀이의 경계가 불명확한 아동들에게서는 특징적인 여가 행태를 찾아 볼 수 없으나 학교생활에 얽매이는 청소년이 되면 과중한 학업과 입시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에 표출해야 하므로 강렬하고 감각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의 여가 행태는 '가정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혼자들은 외적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기혼자들은 정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한다. 그 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하는 중년이 되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로 인해 가정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찾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과 이동성이 그들의 여가 활동을 결정짓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과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극히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생활체육 활동은 자유시간에 자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신체활동에 참가하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활동적 욕구를 합법적 표출방식으로 나타내는 신체활동이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경쟁적 게임 활동, 특수한 지형지물의 돌파를 추구하는 야외 활동, 심미적 리듬활동, 체력단련운동 등(Council of Europe, 1980)을 통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만족감과 자긍심을 고양시켜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동 참여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복지활동이며, 개인의 사회적 완성을 추구하는 여가문화 활동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8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체육활동의 직·간접적 참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2절 국민의 여가활동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년 주기 조사 실시)와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 (5년 주기 조사 실시)에서 나타난 국민 여가활동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여가시간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2시간 50분, 휴일 4시간 41분인 것으로 나타나 2006년 평일 3시간 32분, 일요일 6시간 12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가시간 조사 문항 변경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 "귀하의 하루 여가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조사문항을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시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하루 중 먹고, 자고, 일하고, 출퇴근하고, 주변 잡일을 정리하는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아무 일 없이 쉬거나 놀이를 하거나 사교하는 시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에서 비롯된 차이로 판단된다.

[표 3-1] 여가시간분포

(단위 : %)

요일	시간	없다	3시간 미만	3~5시간	5~7시간	7시간 이상	평균시간
평일		1.4	50.7	35.4	9.2	3.4	2시간 50분
휴일		1.7	17.2	35.6	30.7	14.9	4시간 33분

한편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하루 중 필수생활시간은 10시간 53분, 의무생활시간은 7시간 56분 그리고 여가생활시간은 5시간 1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필수생활시간은 2004년에 비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증가 등으로 19분 증가하였고 의무생활시간은 일(수입노동) 시간의 증가로 전체 9분 감소하

였으며 여가생활시간은 미디어 이용, 교제시간 감소 등으로 전체 11분이 감소하였다. 다만, 여가생활시간 중 스포츠 활동에 투자한 시간은 5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활동을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 성인(20세 이상)의 생활시간구조

(단위 : 분)

	전체	
	2004	2009
□ 필수생활시간	10:34	10:53
수면	7:46	7:48
식사 및 간식	1:39	1:47
기타 개인유지 ¹	1:08	1:18
□ 의무생활시간	8:05	7:56
일(수입노동)	4:02	3:48
가사노동 ²	2:10	2:10
학습	0:10	0:11
이동	1:42	1:47
□ 여가생활시간	5:22	5:11
미디어 이용	2:26	2:20
TV	2:05	1:59
컴퓨터 ³	0:11	0:13
교제	0:54	0:47
종교·문화·스포츠	0:39	0:46
스포츠	0:26	0:31
취미 및 그 외 여가 ⁴	0:53	0:44
독서	0:08	0:07

※ 출처 :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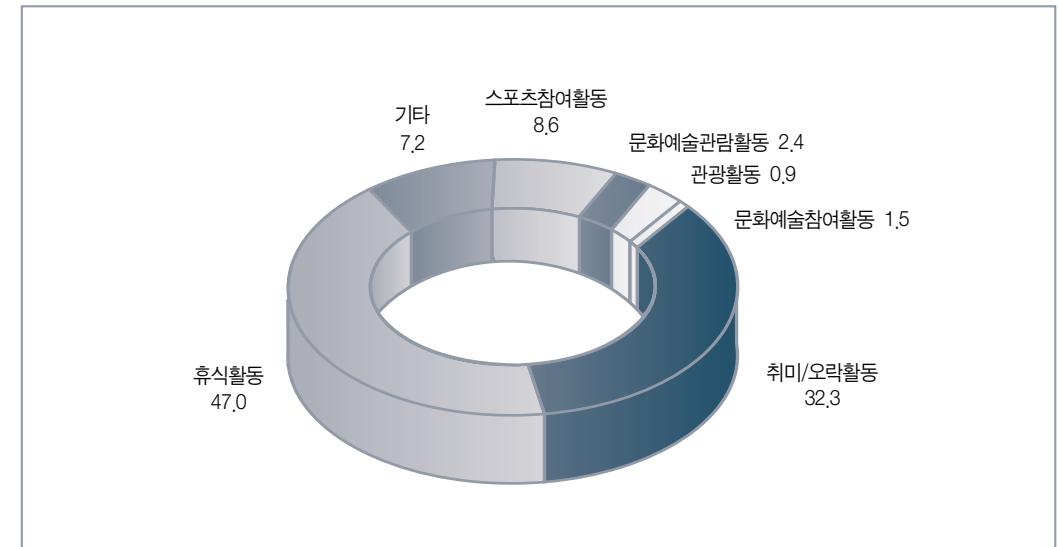
※ 1.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2.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3.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이용(업무, 학습용 제외) 4. 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유흥 등

※ 위 표의 평균시간은 초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여가활동 유형

여가시간에 즐기는 여가활동은 휴식활동 47.0%, 취미 및 오락활동 32.3%, 스포츠활동 8.6%, 문화예술관람 2.4%, 문화예술참여 1.5%, 관광 0.9%, 기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여가활동 보기의 변경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조사까지는 여가활동 방법 조사가 단순히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음악 및 영화 감상, 경기 관람 등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여가백서의 여가활동 유형 분류기준을 활용, 유형별 세부 보기를 제시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 보기의 세분화로 인해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여가활동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기타
1991	14.8	16.7	-	-	7.7	29.5	31.3
1994	13.4	10.7	-	-	13.6	28.9	33.4
1997	14.4	14.8	-	-	4.8	25.8	40.2
2000	12.2	-	-	-	9.8	37.2	31.1
2003	19.2	11.3	-	2.0	24.0	33.9	9.6
2006	20.5	8.9	-	2.5	20.0	34.1	14.1
2008	8.6	2.4	1.5	0.9	32.3	47.0	7.2

※ 주 : 여가백서(2008)의 여가활동 분류기준에 기준에 따라 여가활동을 재분류 한 것임

3. 레저스포츠 활동

산과 바다를 가다보면 흔히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윈드서핑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레저스포츠로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이후 레저스포츠는 어느새 우리 생활에 의·식·주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간, 직장동료간, 때로는 연인 간에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레저스포츠란 (사)대한레저스포츠협회에 의하면 'leisure + sports'의 합성어로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여가체육 등의 용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문적 용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용어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여가형 스포츠 활동'이다. 이러한 레저스포츠는 하루가 다르게 생성 및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선점요건으로는 국내 도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며 동호인의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인 종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 수는 60여 종목이다. 육상레저스포츠로는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암벽등반(빙벽타기 포함), 사이클링,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 클레이사격(권총사격포함), 스포츠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스노보드, 카트, 번지점프, 트레킹, 사륜오토바이, 자전거묘기, 오토캠핑, 오토바이경주, 스트리트보드, 석궁, 모터보드, 라켓볼, 오토바이묘기, 스케이트보드 등을 들 수 있고, 수상레저스포츠로는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낚시, 래프팅, 카누, 카약, 워터슬레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에는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모형로켓포함),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초경량항공기, 모터패러글라이딩(파고제트), 열기구 등이 있다.

대한레저스포츠협회가 2008년 실시한 국내 레저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 수와 이용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육상분야는 연간 약 300여만 명, 사업 및 단체는 약 5,000여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수상분야는 연간 이용자가 1,000여만 명, 업체 수는 약 5,400개소가 있다. 항공분야는 약 120여 개 활공장에서 연간 약 3~4천명 정도가 즐기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는 약 770여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저스포츠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종목이 생겨나고 있어 이 분야에 13만 명의 종사자와 15,000개의 레저스포츠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전국 130개의 대학에서 매년 레저스포츠 전공자 3,000여명도 배출되고 있어 이제 레저스포츠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群)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력을 '국민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 주요 스포츠선진국은 레저스포츠를 급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레저스포츠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0억 원을 배정하고 매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맞추어 자전거 길 인프라 및 수변 복합레저단지 구축 등 친환경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3회 코리아레저스포츠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코리아오픈낚시고수전, DMZ 접경 트레킹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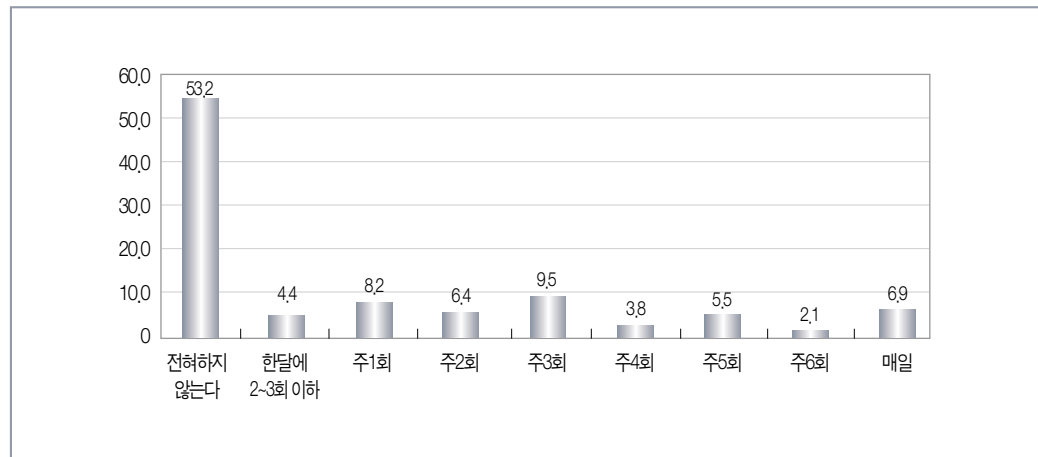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레저스포츠산업은 여전히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전문인력과 인프라구축 등 질적·양적 측면에서 스포츠선진국에 비해 레저스포츠 환경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의 체계적·안전적 육성을 위해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관계법 제정과 레저스포츠시설 확충 등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지도자 및 경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3절 생활체육 직접 참여 실태

1. 생활체육 참여유형

1)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여부 및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53.2%), 주3회(9.5%), 주1회(8.2%), 매일(6.9%), 주2회(6.4%), 주5회(5.5%), 한달에 2~3회(4.4%), 주4회(3.8%), 주6회(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46.8%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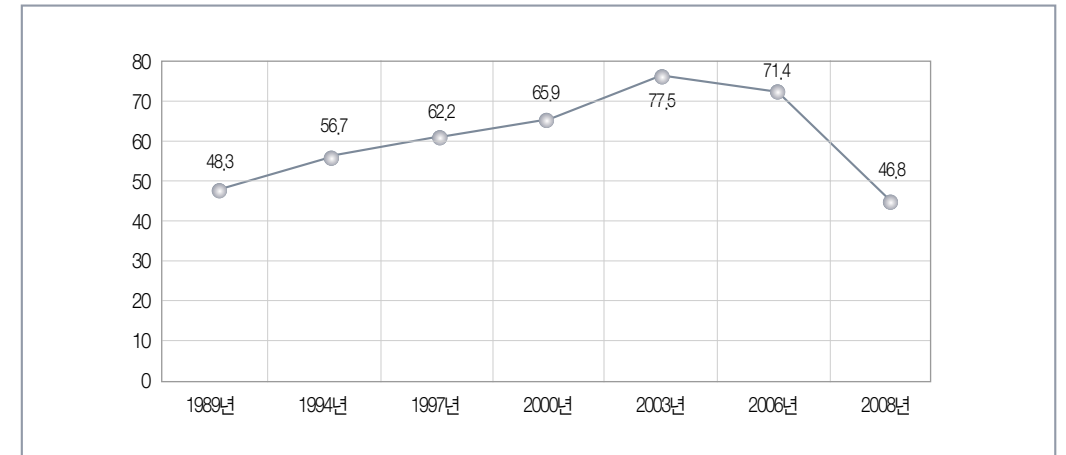


[그림 3-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2008년 생활체육 참여율 46.8%는 2003년 참여율 77.5%와 2006년 참여율 71.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생활체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경제 위기감 고조,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2008년 8월과 9월, '9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으며, 조기퇴직의 본격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률의 지속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체육활동 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가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증가일로에 있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IMF 직후 조사시점인 2000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 이유로는, 2008년 조사연령대가 10세~14세이하

로 확대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기존 조사에 10대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치들은 10대 조사대상자 수의 확대가 참여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림 3-3]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생활체육 참여빈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결과, 2000년 이후 월 2~3회와 주1회이하의 참여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2~3회, 주4~5회, 주 6회 참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주2~3회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인식 확대와 체육활동 일상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체육활동 참여 확대 정책보다는 '스포츠7330 캠페인'과 같이 올바른 참여와 참여 효과 극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표 3-4] 월 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빈도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주6회	매일
1994	13.9	19.8	27.9	7.9	-	30.5
1997	16.1	21.6	27.8	15.1	-	19.4
2000	25.4	24.0	25.3	10.8	-	14.5
2003	23.5	25.2	25.7	11.0	-	14.7
2006	18.7	19.5	33.6	16.8	-	11.4
2008	9.5	17.5	33.9	20.0	4.4	14.8

※ 주 : 여가백서(2008)의 여가활동 분류기준에 기준에 따라 여가활동을 재분류 한 것임

2) 참여종목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살펴보면, 걷기가 29.9%로 가장 높고, 보디빌딩 14.2%, 등산 13.6%, 축구 8.6%, 배드민턴 5.6%, 수영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등산, 육상/조깅/속보, 축구, 체조/줄넘기, 보디빌딩/헬스, 농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걷기 종목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06년까지와 달리, 일상생활의 걷기를 제외한 걷기운동을 운동종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디빌딩 참여 증가는 일명 ‘몸짱’ 만들기에 효과적인 종목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5] 참여종목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986	육상/조깅	축구	체조/줄넘기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1989	체조/줄넘기	축구	육상/조깅	등산	농구	배드민턴
1994	육상/조깅	체조/줄넘기	등산	볼링	농구	테니스
1997	등산	농구	체조/줄넘기	배드민턴	수영	볼링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수영
2003	육상/조깅/속보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줄넘기	수영	축구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속보	배드민턴	보디빌딩	체조/줄넘기
2008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수영

3) 1회 운동시간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회 평균 운동시간은 92.9분으로 나타났으며, 60분~90분 미만(40.8%), 120분~180분 미만(20.9%), 90분~120분 미만(13.8%), 30분~60분 미만(12.0%), 180분 이상(11.8%), 30분 미만(0.8%)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6년 1회 평균 운동시간 95.0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운동시간분포도

(단위 : %)

운동시간	분포도
30분 미만	0.8
30~60분 미만	12.0
60~90분 미만	40.8
90~120분 미만	13.8
120분~180분 미만	20.9
180분 이상	11.8
평균(분)	92.9

4) 운동시간대

[표 3-7] 운동시간대 분포도

(단위 : %)

운동시간대	분포도	
	평일	휴일
아침(새벽포함)	18.7	8.9
오전 시간대	9.5	12.4
점심시간	2.4	0.8
오후 시간대	9.3	9.5
저녁 시간대	34.9	13.1
불규칙	9.5	51.2

평일에 참여하는 운동시간대는 저녁(34.9%), 아침(새벽포함)(18.7%), 오전(9.5%), 일정하지 않음(9.5%), 오후(9.3%), 점심(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일정하지 않음(51.2%), 저녁(13.1%), 오전(12.4%), 아침(새벽포함)(8.9%), 오후(9.5%), 점심(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연도별 운동시간대 분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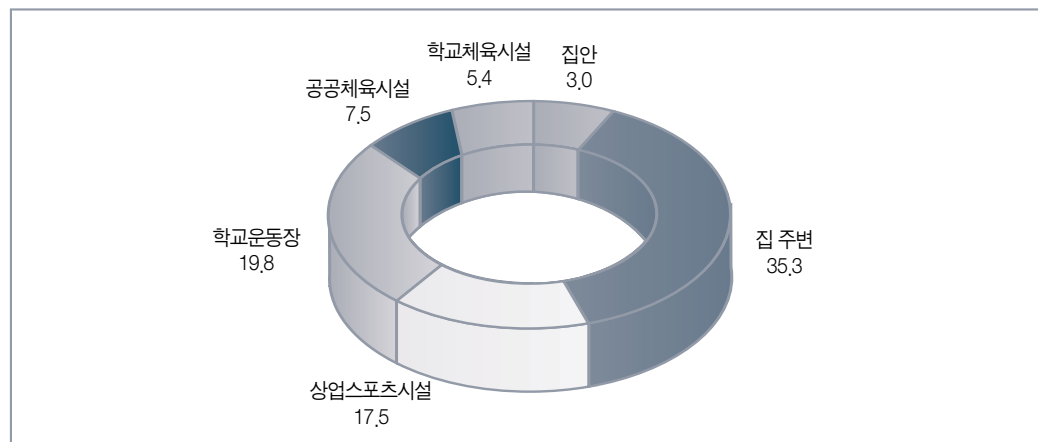
(단위 : %)

연도별	아침(새벽)	오 전	점심시간	오 후	저 녀	불규칙
1986	42.3	9.8	4.1	19.4	9.6	14.6
1989	35.9	11.4	3.1	17.0	12.3	17.8
1991	24.7	16.8	3.4	19.0	10.8	25.2
1994	34.9	11.7	3.2	21.0	16.4	12.9
1997	26.6	13.1	3.9	15.5	21.7	19.2
2000	24.1	14.2	1.8	19.8	22.4	17.6
2003	17.0	11.0	2.3	15.3	38.0	16.4
2006	12.7	13.9	1.4	20.7	30.9	20.4
2008	13.8	11.0	1.6	9.4	24.0	30.4

※ 주 : 2008년 운동시간대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평균치로 환산하였음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대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아침시간대 참여율은 감소 경향이 있는 반면, 참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새벽)시간의 운동참여율 감소 경향은 출근과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2008년 큰 폭으로 증가한 불규칙한 시간대의 운동참여는 파트타임직의 증가나 무직자 또는 실직자의 증가와 점점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운동장소 (참여장소 1순위)



[그림 3-4] 운동실시 장소분포(%)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집 주변이 35.3%로 가장 많고, 학교 운동장이 19.8%, 상업 스포츠시설 17.5%, 공공 체육시설 7.5%, 학교 체육시설 5.4%, 집 안 3.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 공터, 약수터, 등산로, 골목 등의 집 주변시설과 학교 운동장이 주요 운동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9]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집 안	자연환경 (야외)	집 주변	상업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직장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1989	-	13.0	29.1	14.9	30.9	4.0	7.3	-
1991	-	-	37.6	29.1	21.9	7.4	4.1	-
1994	-	9.5	38.8	24.9	21.6	2.9	2.4	-
1997	-	7.9	42.2	23.4	18.5	2.9	5.1	-
2000	-	8.9	40.8	23.5	20.0	2.6	4.3	-
2003	8.6	11.4	32.7	19.9	12.5	3.7	11.2	-
2006	5.2	7.2	24.5	24.8	18.1	2.8	17.3	-
2008	3.0	-	35.3	17.5	19.8	-	7.5	5.4

운동 장소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집안에서의 운동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집 주변, 학교운동장, 상업스포츠시설이 운동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 운동 참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공간적 제약 등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공원, 공터, 약수터, 등산로, 골목 등의 집 주변시설과 학교운동장 시설 이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 높고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가일로에 있는 건기 운동장소로서 적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 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학교공원화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시설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주민개방율도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운동경비

월 평균 운동경비는 없다(43.4%), 3~6만원 미만(22.8%), 3만원 미만(14.6%), 6만원~10만원 이상(7.8%), 10만원~15만원 미만(7.4%), 15만원~20만원 미만(1.5%), 20만원~25만원 미만(1.4%), 30만원 이상(0.9%), 25만원~30만원 미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거나 소액 지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여가활동비용의 감소와 참여율이 높은 걷기 및 등산 종목 특성상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33,549원으로 2006년 25,300원보다 약 8,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비 비지출자 역시 2008년 43.4%로 2006년 37.9%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운동경비 비지출 비율은 증가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운동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활동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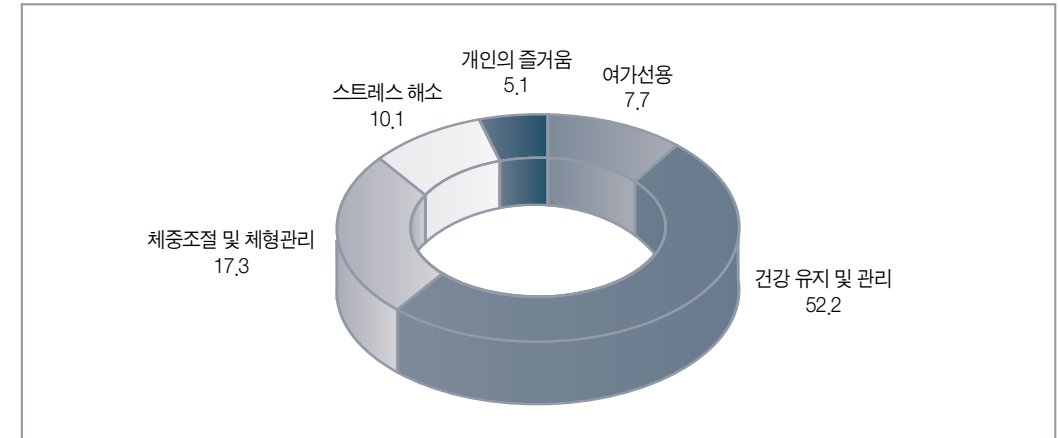
[표 3-10] 운동경비분포도

(단위 : %)

운동 경비	분포도
없다	43.43
만원 미만	14.6
3~6만원 미만	22.8
6~10만원 미만	7.8
10만원~15만원 미만	7.4
15만원~20만원 미만	1.5
20만원~25만원 미만	1.4
25만원~30만원 미만	0.2
30만원 이상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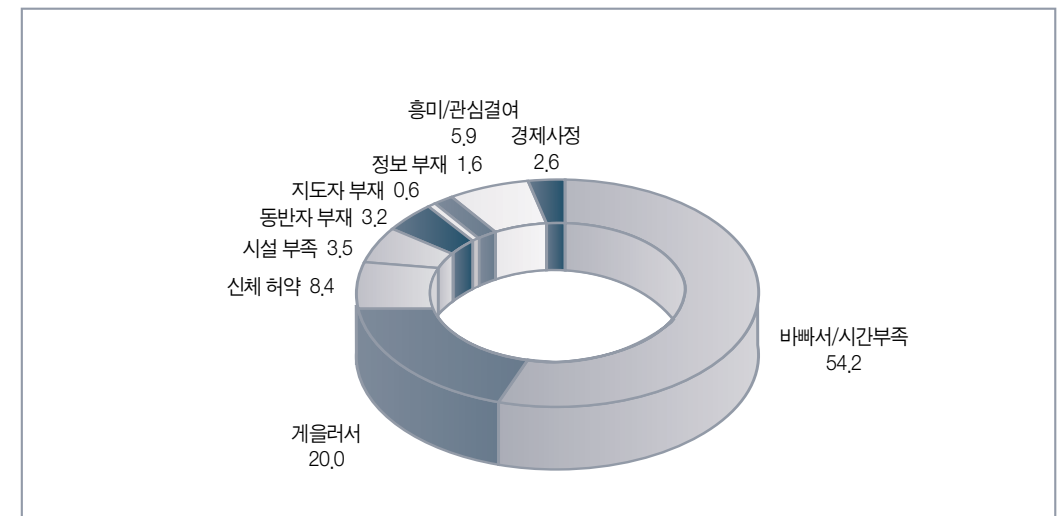
2. 운동 참가 및 불참 이유

운동에 참가하는 이유는 건강유지 및 증진(52.2%)이 가장 많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7.3%), 스트레스 해소(10.1%), 여가선용(7.7%), 개인의 즐거움(5.1%), 대인관계 및 사교(3.3%)로 나타났다.



[그림 3-5] 운동 참여 이유(%)

한편, 운동에 불참하는 이유는 바빠서/시간부족(54.2%)이 가장 높고, 게을러서(20.0%), 신체허약(8.4%), 관심이 없어서(5.9%), 주변에 운동할 장소나 시설이 없어서(3.5%),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3.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6%), 정보가 부족해서(1.6%), 지도자가 없어서(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운동 불참 이유(%)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의 주요 이유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1994년 59.4%에서 2008년 54.2%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강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생활체육이 활동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인식이 시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라는 방식으로 생활체육의 위치를 규정짓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닌, 심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행복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표 3-11]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바빠서/시간부족	게을러서	신체허약	동반자부재	시설부족	지도자부재	정보부재	흥미/관심결여	경제사정
1986	61.9	-	6.7	2.7	-	-	7.5	17.6	3.5
1989	59.2	-	12.6	2.8	-	-	8.1	13.4	-
1991	53.4	-	9.2	3.1	-	-	5.4	13.8	5.4
1994	59.4	16.0	9.0	2.8	-	-	4.6	6.3	2.0
1997	52.4	-	6.4	4.4	-	-	2.0	3.9	3.2
2000	39.1	20.8	5.8	7.1	1.9	0.2	0.2	1.1	1.1
2003	48.0	26.8	8.1	3.2	4.3	0.3	1.3	5.1	2.8
2006	44.6	21.5	13.8	2.2	2.8	2.4	0.2	11.7	1.3
2008	54.2	20.0	8.4	3.2	3.5	0.6	1.6	5.9	2.6

3. 희망 운동 종목

향후 참가해 보고 싶은 운동 종목으로는 수영(17.8%)이 가장 높고, 골프(7.2%), 요가(6.5%), 보디빌딩(6.0%), 등산(5.9%), 걷기(4.7%), 테니스(3.7%), 배드민턴(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희망 운동 종목

순 위	희망 운동종목	분 포 도
1	수영	17.8
2	골프	7.2
3	요가	6.5
4	보디빌딩(헬스)	6.0
5	등산	5.9
6	걷기	4.7
7	테니스	3.7
8	배드민턴	3.5

희망 운동 종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결과, 수영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골프, 등산, 헬스, 요가 등이 꾸준히 일정 수준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신체적 제약과 운동 기술적 제약이 적어 초기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수영은 신장이나 근력 등 체격과 체력상태에 따른 제약 요인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용이하며, 사전 운동기술을 습득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기술이 부족한 남녀노소 누구나의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참여 희망 종목으로 꾸준히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희망운동종목의 연도별 비교

연도별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미용체조	골 프	육 상	축 구	등 산	스쿼시	헬스	요가
1986	15.2	5.2	6.1	6.8	4.3	3.2	2.9	6.8	-	-	-
1989	4.0	12.3	5.9	7.4	-	-	4.0	9.1	-	-	-
1991	20.0	19.9	7.0	5.5	4.9	4.2	4.1	3.4	-	-	-
1994	20.0	20.4	8.6	5.3	2.7	4.2	3.8	5.2	-	-	-
1997	7.9	21.3	4.4	4.5	7.1	4.2	3.8	5.2	-	-	-
2000	8.0	22.5	2.6	-	6.1	1.7	2.8	4.8	-	-	-
2003	4.9	17.0	1.1	1.0	8.0	6.8	2.5	9.0	5.7	4.3	-
2006	5.1	15.6	-	2.3	11.6	2.5	3.3	3.9	3.6	2.3	7.2
2008	3.7	17.8	0.8	2.2	7.2	0.6	3.4	5.9	2.0	8.0	8.5

제 4 절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2009년 한 해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55.0%로 2007년의 54.3%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음악·연주회나 영화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경우가 89.5%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장 관람은 32.5%, 스포츠 관람은 20.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연장 이용은 2.7%, 스포츠 관람은 2.1% 증가한 반면 전시장 관람은 4.1% 감소하였다.

[표 3-14]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단위 : %)

	계	공연장 이용					전시장 관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2004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2007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2009	55.0	89.5	26.1	26.2	2.3	91.0	32.5	77.0	56.2	20.5
남 자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여 자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15~19세	79.4	94.6	24.3	20.1	2.9	93.7	26.4	74.8	65.0	13.7
20~29세	81.8	95.5	24.6	30.2	2.5	95.7	25.7	67.3	67.8	22.6
30~39세	71.4	88.5	21.1	26.6	1.8	91.9	37.8	82.7	48.9	20.8
40~49세	57.2	87.8	28.1	23.8	2.2	90.9	34.2	78.8	53.6	22.3
50~59세	38.1	83.6	36.8	27.1	2.1	83.0	33.5	72.8	60.2	20.5
60세 이상	14.4	72.6	37.3	28.4	2.6	67.7	42.0	81.9	45.8	17.2

※ 자료 : 통계청, 2009 사회조사 보고서

또한 성별로는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고, 스포츠관람은 스포츠관람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이것은 여전히 스포츠관람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람스포츠업계는 여성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연극, 무용, 미술관 관람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비율이 81.8%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14.4%로 가장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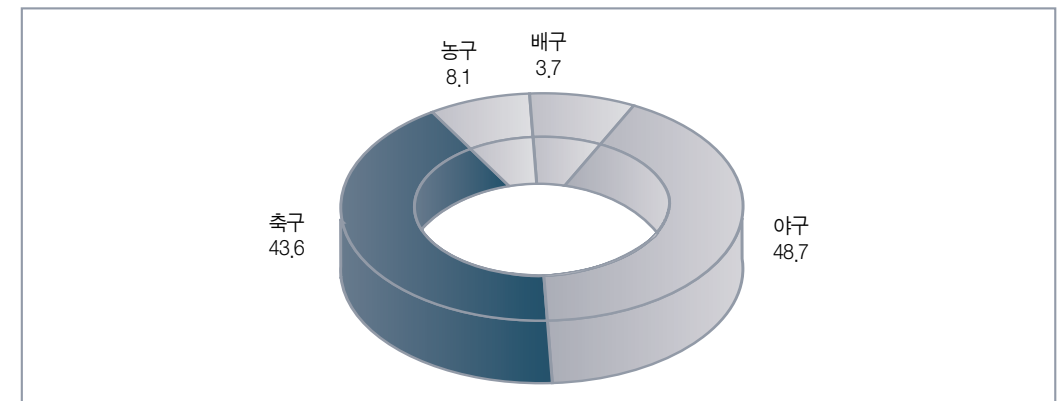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여가 활성화와 노인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운동경기 관람유형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한 사람은 전체의 14.5%이며, 나머지 85.5%는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관람 종목

운동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한 사람들의 관람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야구(48.7%)가 가장 많고, 축구(43.6%), 농구(8.1%), 배구(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관람종목 분포(%)

관람 운동종목으로는 야구와 축구의 선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야구 관람은 전년 대비 21.6%나 상승한 반면, 2002 FIFA 한·일 월드컵 이후 관람스포츠로서 인기를 구가하던 축구는 2008년에 전년 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관람율의 증가는 부산 연고인 롯데팀의 선전으로 인한 부산 관람인구의 급증과,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대표팀의 선전과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이 그 중심에 있다. 한편 축구관람률의 감소는 2002 FIFA 한·일 월드컵 이후 기대이하의 성적과 올림픽 성적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하락한 데에 그 원인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관람종목이 대부분 프로화되어 각 종목 모두 홍보와 광고 및 스폰서십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종목 간 경쟁이 보다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종목이 더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 나가느냐에 따라 종목관람 비율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프로스포츠 관람율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배구	야구	축구	농구
1986	4.6	48.3	25.2	5.8
1989	6.0	43.2	24.4	6.6
1991	6.4	44.7	19.3	14.3
1994	3.5	59.2	18.3	9.5
1997	3.4	54.8	20.1	11.6
2000	1.7	45.1	32.4	10.5
2003	1.7	37.4	41.5	10.3
2006	1.1	27.1	48.7	12.3
2008	3.7	48.7	43.6	8.1

2) 경기관람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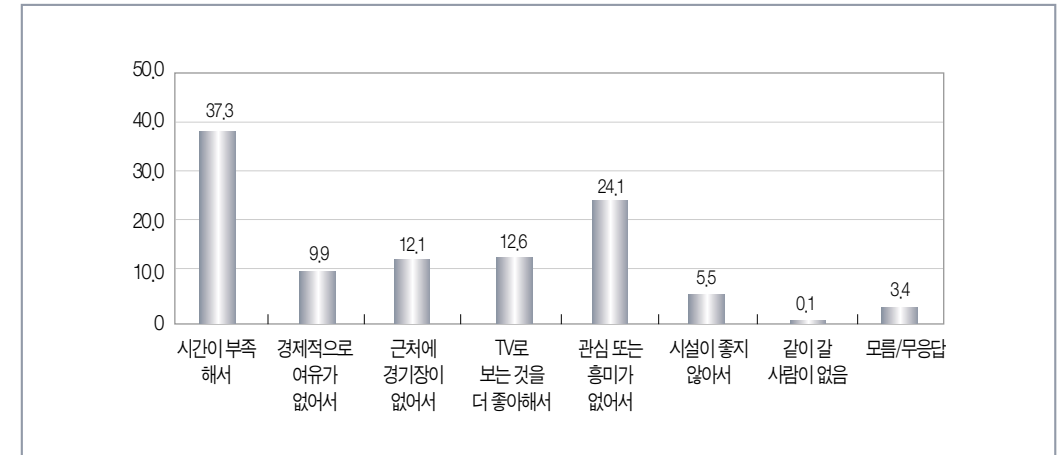
운동경기의 평균 관람 빈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결과, 1년에 1~2회 정도 관람률은 지속 증가추세인 반면, 다른 관람 빈도율에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8년 관람빈도 결과에서, 1년에 1~2회 관람비율이 전년 대비 12.6%로 나타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해 1995년 이후 13년만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중을 동원한 프로야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표 3-16] 경기관람빈도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1년에 1~2회	3~4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991	63.2	24.1	10.6	2.1
1994	54.2	24.4	18.3	3.0
1997	54.0	26.7	14.5	4.8
2000	59.1	15.3	23.1	2.5
2003	70.1	20.5	8.7	0.7
2006	70.0	18.6	10.0	1.4
2008	82.6	11.2	5.6	0.6

3)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그림 3-8]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경기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37.3%),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24.1%), TV로 보는 것이 더 좋아해서(12.6%),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12.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9.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는 2006년 대비 9.6% 증가한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4.7%,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는 9.1%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고물가, 저임금, 조기퇴직 및 은퇴 등 경제 불안으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고물가, 저임금, 조기퇴직 및 은퇴 등 경제 불안으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현상을 들 수 있다.

[표 3-17]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관심/흥미가 없어서	기타
1989	48.1	6.2	17.6	22.9	5.1	-
1991	34.1	7.4	18.4	14.6	25.6	-
1994	41.8	4.4	22.4	11.2	20.3	-
1997	35.7	7.2	18.7	12.7	25.7	-
2000	36.0	5.5	18.1	10.0	30.5	-
2003	33.0	8.4	14.7	12.9	27.4	3.5
2006	27.7	5.2	13.8	13.3	33.2	6.9
2008	37.3	9.9	12.1	12.6	24.1	0.6

한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스스로, 친구, 가족/친지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스스로 알아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어떤 영향보다 개인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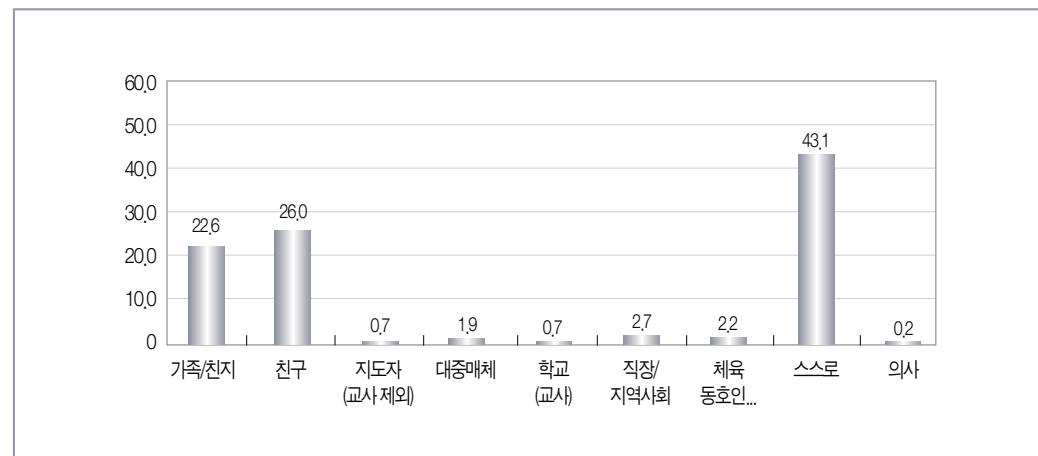
[표 3-18] 연도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비교

(단위 : %)

연도별	가족, 친지	친구	지도자 (교사/코치)	대중매체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동호인 조직	스스로
2000년	23.3	26.7	2.7	6.0	6.8	3.9	30.5
2003년	25.0	23.3	1.6	8.6	7.6	2.6	31.5
2006년	22.5	26.2	3.0	9.2	5.7	5.0	28.3
2008년	22.6	26.0	0.7	1.9	2.7	2.2	43.1

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체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스스로(43.1%), 친구(26.0%), 가족/친지(22.6%), 직장/지역사회(2.7%), 체육 동호인(2.2%), 대중매체(1.9%), 지도자(교사 제외)와 학교(교사)(0.7%), 의사(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04



제4장 생활체육

- 제1절 개 관
-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 제4절 직장체육활동 지원
-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제7절 생활체육 홍보
-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 제10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4 장 _ 생활체육

제 1 절 개 관

생활체육의 기본 철학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sport for all)의 이상은 1960년대 노르웨이 의 트림(Trim)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이 채택되면서 생활체육은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최초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범세계적 생활체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생활체육운동은 체육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3세계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수행하면서 체육활동에서의 불평등을 해소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눈부신 경제성장, 주5일 근무제 시행,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즉, 체육이 국위를 선양하는 활동이라는 인식 이외에 국민 누구나 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생활체육이 고칼로리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문제 해결 및 도시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생활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은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주5일 근무제에 힘입어 1998년 IMF로 인해 2000년 조사시에 참여율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6년까지 주2~3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06년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 이유는 경제 위기감 고조,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2008년 조사 당시 '9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돌았으며, '사오정'과 '조기퇴직'으로 인

한 고용 불안,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6년 대비 2008년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폭이 50대(16.1%)와 20대(15.0%)에서 넓게 나타난 결과는 고용 불안과 청년 실업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체육활동 참여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증가일로에 있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IMF 직후 조사시점인 2000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하된 데에는 2008년 조사연령대가 10세~14세 이하까지로 확대되었던 원인도 있다. 10대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기존의 결과들은 10대 조사대상자 수의 확대와 참여율 저하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10대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4-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년 도 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참 여 율	34.7%	37.6%	38.8%	33.4%	39.8%	44.1%	34.2%

둘째,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사업이다. 엘리트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과 동호인행사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년 도	클럽 수(개)	동호인 수(명)	인구대비(%)
2002	52,020	1,776,604	3.7
2003	64,665	2,176,221	4.5
2004	73,802	2,449,948	5.1
2005	77,452	2,556,737	5.3
2006	82,781	2,701,736	5.6
2007	92,688	2,913,806	6.0
2008	95,075	2,985,253	6.2
2009	97,697	3,081,436	6.3

※ 인구대비에서의 인구수는 2009년 말 기준 추계인구수임.

[표 4-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전국 종목별연합회	시·도 종목별연합회	시·군·구 연합회
2002 - 40종목	2002 - 63종목 (441개 연합회)	2002 - 84종목 (3,326개 연합회)
2003 - 44종목	2003 - 65종목 (524개 연합회)	2003 - 109종목 (3,847개 연합회)
2004 - 46종목	2004 - 67종목 (548개 연합회)	2004 - 109종목 (4,479개 연합회)
2005 - 46종목	2005 - 67종목 (565개 연합회)	2005 - 109종목 (4,814개 연합회)
2006 - 46종목	2006 - 69종목 (586개 연합회)	2006 - 109종목 (5,075개 연합회)
2007 - 46종목	2007 - 68종목 (582개 연합회)	2007 - 109종목 (5,089개 연합회)
2008 - 46종목	2008 - 72종목 (605개 연합회)	2008 - 115종목 (5,134개 연합회)
2009 - 50종목	2009 - 76종목 (628개 연합회)	2009 - 115종목 (5,603개 연합회)

※ 인정단체(9종목): 소프트볼, 프리테니스, 우드볼, 비둑, 럭비, 요트, 플라잉디스크, 특공무술, 댄스스포츠

셋째, 직장체육활동 육성 사업이다. 직장체육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직장체육은 운동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정하여 직장체육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직장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2009년 12월 말까지 등록된 직장체육 동호인 클럽 수는 15,980개이며 회원 수는 477,15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81,717개 클럽의 회원 수가 2,604,286명인 지역동호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직장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1975년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의해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의 비용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스포츠용품 지원과 불우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체험캠프 등이 운영되었다.

다섯째,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이다. 생활체육에서 홍보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사업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보전달 매체로서 대중화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홍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운영 방향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동기 유발 위주에서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IT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활용 사업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설,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통하여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해 왔다.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양성된 지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12월말까지 정부가 배출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699명, 2급 7,323명, 3급 126,953명 등 총 134,975명이다. 따라서 배출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 가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 시·도 생활체육교실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스포츠교실」운영 1만 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 2003년 3,261개소, 2004년 3,374개소, 2005년 4,241개소, 2006년 3,915개소, 2007년 3,946개소, 2008년 3,886개소, 2009년 4,205개소가 운영되었다.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교실운영수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4] 시·도 생활체육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생활체육교실 수)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3,208	561	110	80	90	127	98	81	564	145	164	176	290	195	217	234	76
2003	3,261	561	151	76	85	132	98	81	575	145	164	176	299	195	217	234	72
2004	3,374	561	220	80	92	125	98	80	544	145	165	209	316	198	217	248	77
2005	4,241	1,172	227	270	107	125	144	82	539	156	192	209	248	195	217	300	58
2006	3,915	745	252	270	83	113	98	80	562	168	207	209	248	195	233	377	75
2007	3,946	808	154	277	97	109	116	87	595	180	186	236	248	195	194	396	68
2008	3,886	599	227	286	96	113	158	87	509	154	206	212	359	195	237	395	53
2009	4,205	975	276	263	97	154	107	87	607	143	203	137	309	186	233	380	48

2.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 및 이웃 간 이해증진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까지 전국 520개소에 생활체육광장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7개월(4월~10월) 동안 지속 운영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의 기본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체조로는 택견, 스트레칭, 민속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 에어로빅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족구, 테니스 등 지역실정 및 장소에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종목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 등 기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확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4-5]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 실적	개소수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20개소	520개소
	회수	142,816회	137,074회	140,892회	142,672회	157,322회	166,180회	88,609회
	참가인원	5,370,996명	4,703,464명	4,943,438명	5,029,846명	5,452,284명	5,955,670명	4,818,484명

3.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1)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력교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시·도와 해당 지역 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09년 어린이체능교실에는 603,643명, 청소년체력교실에는 510,708명이 참가하였다(표 4-6 참조).

2)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스포츠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장수체육대학에는 739,688명, 여성생활체육강좌에는 430,123명이 참가하였다(표 4-6 참조).

3) 레크리에이션교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레크리에이션교실에는 19,034명이 참가하였다(표 4-6 참조).

4)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 사업은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상호우의를 증진하며 협동심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회참가를 통한 성취감과 사회성 발달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사실이 없는 만 13세~19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종목 중 2종목을 선정하여 클럽 간 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에는 40,991명이 참가하여 2008년 56,387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표 4-6 참조).

5)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직장의 체육담당자에게 직장체육 운영방법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직장, 지역체육지도자, 직장체육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의 개발과 체험 등을 통해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에는 1,753명이 참가하였다(표 4-6 참조).

[표 4-6] 2009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지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에이션 교실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강습회
서울	32,068	24,268	34,560	900	1,066	1,569	100
부산	13,573	15,088	58,450	29,868	200	1,624	70
대구	71,546	42,172	83,525	47,592	525	1,756	80
인천	116,894	118,497	25,443	13,423	100	2,573	100
광주	13,392	8,176	13,638	30,215	1,878	1,243	80
대전	12,980	18,098	13,981	11,284	780	1,850	160
울산	852	1,154	14,963	26,567	780	1,850	58
경기	25,348	18,349	41,712	32,221	2,462	2,691	35
강원	72,491	28,902	79,890	44,224	1,865	3,914	268
충북	41,201	20,479	28,807	33,647	880	5,308	100
충남	13,724	9,873	25,437	7,937	200	1,156	200
전북	6,736	14,296	30,612	20,685	1,215	2,500	72
전남	59,320	84,601	69,120	60,599	460	800	100
경북	63,208	55,938	73,600	38,305	1,200	3,284	145
경남	58,610	46,367	138,062	28,506	3,143	8,373	185
제주	1,700	4,450	7,888	4,150	2,280	500	0
합계	603,643	510,708	739,688	430,123	19,034	40,991	1,753

6)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 참여 동기 유발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선수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유명선수에게 직접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청소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성인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전인교육 실천에 있다. 2009년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은 5월~11월까지 축구(34교실), 탁구(4교실), 농구(4교실), 배드민턴(3교실), 테니스(3교실), 배구(2교실), 육상(2교실), 핸드볼(2교실), 볼링(2교실), 자전거(2교실), 인라인스케이팅(2교실) 등 11종목 60개 교실이 운영되었다. 각 교실에는 지도자 수당 및 교육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전년 대비 교실 수는 감소하였지만 배구, 육상, 핸드볼, 볼링,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종목의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7]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사업추진 실적

년도	항목	교실 수	지원용품	대회개최 교육	지도자 교재제작	교재제작
2002		49 (축구 35, 탁구 7 농구 5, 배드민턴 2)	9종 8,593점	축구 1회 개최 서산, 35개 클럽참가	-	-
2003		80 (축구 65, 탁구 7 농구 8, 배드민턴 5, 테니스 3)	8종 20,705점	축구 1회 개최 남해, 62개 클럽참가	-	-
2004		96 (축구 70, 탁구 10 농구 8, 배드민턴 5, 테니스 3)	10종 8,720점	축구 1회 개최 안동, 70개 클럽참가, 2,000명 참석	-	-
2005		96 (축구 70, 탁구 10, 농구 8, 배드민턴 5, 테니스 3)	9종 8,427점	축구 1회 개최 안성, 70개 교실 3,111명 참가 농구 1회 개최 울산, 8개 교실 600명 참가	-	-
2006		88 (축구 66, 탁구 8, 농구 8, 배드민턴 3, 테니스 3)	8종 4,685점	축구 1회 개최 합천, 70개 클럽 3,000명 참가 농구 1회 개최 인천, 24개 클럽 600명 참가	6.21~23 충북 단양 대명콘도 246명 참가	300부
2007		89 (축구 67, 탁구 8, 농구 8, 배드민턴 3, 테니스 3)	8종 7,685점	축구, 농구대회 통합 169개 팀 4,850명	3.26~28 충북 충주 수안보상록호텔 264명 참가	-
2008		89 (축구 67, 탁구 8, 농구 8, 배드민턴 3, 테니스 3)	8종 4,605점	-	11.20~21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181명 참가	-
2009		60 (축구 34, 탁구 4, 농구 4, 배드민턴 3, 테니스 3, 배구 2, 육상 2, 핸드볼 2, 볼링 2, 자전거 2, 인라인스케이팅 2)	11종 1,595점	42개 교실 64개 팀 2,500명	-	-

제3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간,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종목별연합회 발전은 동호인클럽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중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구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운영 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체계적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0개 단체(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이팅, 낚시, 철인3종, 수영, 우슈, 스쿼시, 종합무술, 라켓볼, 하키, 익스트림게임즈, 인라인하키,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핸드볼, 파크골프)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전국규모대회,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등이다. 또한 전국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 전국연합회 결성 종목의 시·도연합회 확대 결성 유도, 전국연합회 사무처직원 실무교육 실시, 전국연합회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 종목, 레저스포츠를 확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중심체인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호인클럽이나 종목별연합회는 선진국의 스포츠클럽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자생력이 미흡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사업이 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 종목별 동호인 행사를 지원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전국 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연합회별 동호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 분산 개최를 권장하며 종목별 지역동호인클럽의 신규 육성 및 친선 교류 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전국 일원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회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대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표 4-8)과 같다.

[표 4-8]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사업추진실적

구분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회 종목 수		21종목	40종목	42종목	43종목	43종목	45종목	46종목	46종목
대회 수		21회	121회	124회	123회	128회	129회	124회	133회
참가규모		21,067명	82,236명	87,031명	99,547명	118,789명	125,113명	132,754명	110,635명

2)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은 16개 시·도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기회를 마련하며 생활체육 실천으로 개인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축전은 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속경기 채택으로 전통 놀이 문화의 계승기반을 마련하며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환영음악회, 월드스타 쇼, 전국노래자랑 등이 열린다. 학술행사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세미나가 개최되며 주변행사로는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을거리 장터, 생활체육종목시연, 민속놀이체험, 가족체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4-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 종목
2006	4. 14~4. 16 (전라남도)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2,000명 포함)	-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볼링, 족구, 탁구, 테니스, 야구, 농구, 자전거, 배구, 당구, 검도, 합기도, 스킨스쿠버, 풋살,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등산, 태권도, 생활체조, 단학기공, 인라인스케이팅 - 민속종목(4개):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대학동아리(2개): 축구, 농구 - 시범종목(5개): 골프, 궁도, 낚시, 사격, 철인3종 - 장애인(4개): 배드민턴, 탁구, 론볼, 휠체어마라톤 - 전시종목(1개): 그라운드골프
2007	6. 1~6. 3 (울산광역시)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3,227명 포함)	- 정식종목(29개) o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정구, 탁구, 볼링,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농구, 당구,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야구, 테니스, 보디빌딩, 게이트볼, 풋살, 족구, 스킨스쿠버, 등산 o 민속종목(4개):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대학동아리(2개): 농구, 축구 - 장애인(3개): 테니스, 탁구, 휠체어마라톤 10km - 시범종목(7개): 궁도, 철인3종, 낚시, 사격, 골프, 윈드서핑, 라켓볼 - 전시종목(2종목): 그라운드골프, 론볼
2008	5.23~5.25 (대구광역시)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4,795명 포함)	- 정식종목(29개) o 일반종목(25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o 민속종목(4개):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시범종목(9개):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종합무술, 스쿼시, 라켓볼, 낚시 - 대학동아리(2개): 농구, 축구 - 장애인(4개):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 전시종목(2개): 그라운드골프, 론볼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종목
2009	5. 22~5. 24 (전라북도)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6,723명 포함)	-정식종목(29개) ○일반종목(26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민속종목(3개): 씨름, 택견, 줄다리기 -시범종목(9개):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스퀘시, 라켓볼, 국무도, 윈드서핑 -대학동아리(2개): 축구, 농구 -장애인(6개):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당구 -전시종목(4개): 그라운드골프, 우슈, 론볼, 파크골프(장애인 종목)

3)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로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는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축제와 통합되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노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대회는 종합개회식으로 시작되며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종목별 경기를 비롯해 문화·부대행사와 연계된 예술단체 공연, 지역문화 축제(풍물놀이, 예술제 등),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실버용품 전시회, 지역 명소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0]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현황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종목
2007	9. 18~20 (경북경주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5,207명 포함)	-10종목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2008	9. 8~10 (경기도 수원)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7,243명 포함)	-13종목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장기, 바둑
2009	9. 9~11 (인천광역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23명 포함)	-15종목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4) 전통종목 전국대회

전통종목 전국대회는 전통종목별로 시·도 대항전을 펼치는 국민축제의 장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전통종목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인식을 확산, 동호인 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9개 전통종목별(줄다리기, 족구, 궁도, 택견, 국학기공,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연날리기) 경기는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된다. 또한, 세계한민족축전행사와 연계하여 각국 재외동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전통문화(마상무예, 차전놀이, 줄타기 등) 시연행사, 투호놀이, 율놀이 등 민속 고유 전통놀이 행사를 난장식으로 전개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함께하는 부대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표 4-11] 전통종목 전국대회 현황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종목
2009	9. 26~28 (강원 속초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5,134명 포함)	-9종목 ○줄다리기, 족구, 궁도, 택견, 국학기공,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연날리기

3. 동호인 리그

1)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는 지역별, 종목별 동호인들의 연중 리그를 통하여 지역사회 동호인 활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종목별리그에는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234명)가 배치되어 연중 지속되는 동호인 리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역동호인클럽리그는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의 기초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군·구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복지혜택을 균등히 제공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표 4-12] 동호인클럽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서울	25	광주	5	강원	18	전남	22
부산	16	대전	5	충북	12	경북	23
대구	8	울산	5	충남	16	경남	20
인천	10	경기	31	전북	14	제주	4

따라서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사업의 운영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군·구별로 2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역별 동호인클럽 간 정기 교류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시·군·구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별로 연중 실시되며 지역별, 종목별 특성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표 4-13]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진 실적	233개소 61,779회 2,438,816명	233개소 74,527회 2,588,620명	233개소 98,448회 2,697,198명	234개소 105,246회 3,412,834명	234개소 112,798회 3,990,392명	234개소 115,394회 3,995,645명	234개소 107,918회 3,324,578명
종목	생활체육 종목 중 5종목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5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 종목 중 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아울러 동 사업은 2005년 「즐거운 주말리그」사업과 「시·도 동호인클럽 운영지원」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외에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2009년 기준 385회 지원)과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로 운영되고 있다.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는 지역에 배치된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가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국민생활체육회 주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4-14]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회수	409회	385회	376회	441회	592회	738회	385회
참가인원	175,861명	179,433명	180,767명	208,834명	303,862명	325,868명	249,929명

[표 4-15]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구분 지역	계	계		지역		직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계	48,746,693	97,697	3,081,436(6.3)	81,717	2,604,286	15,980	477,150
서울	10,036,377	10,313	320,206(3.2)	7,177	218,808	3,1361	01,398
부산	3,471,154	5,794	173,206(5.0)	4,733	145,367	1,061	27,839
대구	2,443,994	3,962	133,994(5.5)	3,661	128,431	301	5,563
인천	2,645,189	5,150	176,530(6.7)	4,403	157,307	747	19,223
광주	1,448,818	3,584	97,576(6.7)	3,270	88,890	314	8,686
대전	1,505,957	2,910	236,803(15.7)	2,161	176,765	749	60,038
울산	1,089,451	3,979	97,157(8.9)	3,732	91,444	247	5,713
경기	11,446,877	19,790	630,472(5.5)	18,444	597,801	1,346	32,671
강원	1,452,148	3,872	116,115(8.0)	3,534	108,147	338	7,968
충북	1,480,661	6,805	180,196(12.2)	5,032	139,584	1,773	40,612
충남	1,951,218	5,840	180,434(9.2)	4,486	160,719	1,354	19,715
전북	1,724,035	3,042	95,259(5.5)	2,503	78,249	539	17,010
전남	1,761,820	4,503	126,626(7.2)	3,639	99,981	864	26,645
경북	2,606,056	8,361	248,486(9.5)	7,124	206,747	1,237	41,739
경남	3,136,682	6,829	189,943(6.0)	5,284	138,141	1,545	51,802
제주	546,256	2,963	78,433(14.4)	2,534	67,905	429	10,528

※ 인구수는 2009년 말 기준 추계인구수이며, 괄호 안은 인구대비 회원 수 비율임.

[표 4-16]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계	97,697	3,081,436	키누	11	216
검도	1,438	62,696	탁구	3,689	81,933
경당	47	373	태권도	2,655	160,110
게이트볼	6,421	120,331	태극권	45	1,388
골프	574	17,368	택견	593	20,143
궁도	678	17,968	테니스	7,990	229,656
그라운드골프	235	5,070	패러글라이딩	687	14,919
기공	13	682	풋살	1,549	20,855
낚시	1,784	46,465	피구	47	1,026
농구	3,172	44,614	필드하키	25	544
단전호흡	44	1,072	합기도	1,376	63,796
단학기공/법륜공	1,645	58,332	항공스포츠	25	2,269
당구	1,189	26,983	핸드볼	33	559
댄스 스포츠	579	39,966	헬스	622	34,933
등산	3,527	186,196	행글라이딩	18	315
라켓볼	205	4,053	MTB	39	5,223
럭비	33	1,037	X-게임	28	1,247
레크리에이션	173	6,586	스포츠글라이딩	1	30
롤러스케이팅	125	8,117	캠핑	254	2,344
무에타이	17	482	인라인하키	214	15,477
미식축구	38	694	국무도	224	7,938
배구	2,473	54,049	아이스하키	7	361
배드민턴	4,406	163,682	트라이애슬론	43	2,204
보디빌딩	1,259	72,197	부메랑던지기	3	54
복싱	120	3,671	레포츠	16	2,126
볼링	9,925	223,466	레슬링	5	344
사격	237	4,781	론볼링	7	214
사이클	176	6,806	민속경기	44	18,484
생활체조	3,362	178,614	생활미술기공	11	464
석궁	6	146	전통무예	4	54
소프트볼	124	2,501	우드볼	29	1,052
수상스키	70	3,351	열기구	1	32
수영	1,339	54,396	양궁	5	56
스케이팅/빙상	198	6,142	해동검도	26	2,541

[표 4-16]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스쿠버다이빙	52	1,481	레저복싱	11	269
스쿼시	429	14,039	클라이밍	21	592
스키	301	9,948	격투기	11	731
스킨스쿠버	459	16,520	기천문	1	52
승마	306	5,807	킥복싱	19	642
서바이벌	8	315	활기도	1	38
씨름	391	8,428	오리엔티어링	23	304
야구	2,965	65,133	파크골프	70	1,633
에어로빅	1,355	60,917	보치아	1	7
역도	6	167	경비행기	9	539
요가	363	14,740	걷기	20	1,087
요트	15	313	법률대법	14	298
우슈/쿵푸	344	11,956	프리테니스	64	1,306
윈드서핑	195	4,098	인라인스케이팅	617	52,915
유도	185	5,415	펜싱	0	0
육상/조깅마라톤	1,989	56,330	특공무술	47	1,917
자전거	910	24,393	경호무술	8	468
전통무용	131	3,381	무예24기	3	168
정구	579	12,579	궁수도	7	194
족구	4,056	68,158	싱크로빅스	8	4,357
줄넘기	235	8,917	건강달리기	64	2,905
줄다리기	166	3,184	국선도	8	412
종합무술	292	6,877	모터스포츠	5	51
철인3종	88	2,090	바둑	31	1,062
축구	14,855	488,489	스포츠마사지	1	20

2)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목 간 연계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 간 교류 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 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종목별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에는 10종목(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 방법은 각 종목별 시·도 리그 → 권역 리그 → 결승전으로 2009년에는 15,897개 클럽, 292,591명의 동호인이 참여했다.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해당 종목 동호인의 저변확대, 클럽활동 활성화, 지역 클럽간의 교류 정례화 등으로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클럽리그가 전문체육의 정규리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단체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체육의 종목별 정규리그와의 연계 운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규리그를 1부, 2부, 3부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동호인클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은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정책 방향에 비추어볼 때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직장체육활동 지원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전국의 직장·단체 등을 지도자가 직접 순회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방법을 알려주고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권장·지도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지도내용은 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터꿍 체조, 민속에어로빅스, 탁견,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체조(차차차, 포크댄스, 자이브 등), 직장 및 가정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및 체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과 단체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시·도별로 고정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직장·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직장·단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찾다니며 적극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단체의 자발적 참여 의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2003년까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4-17] 2009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2009년 12월말 기준)

시·도	운영개소	참여인원	지도횟수
합 계	총 62,664	12,540,946	781,488
서울	서대문구문화체육관 등	1,005,327	73,599
부산	시민체력센터 등	858,276	65,528
대구	성서실내게이트볼구장 등	725,837	45,611
인천	주안 2동 주민센터 등	610,102	39,986
광주	전남대체육관 등	585,963	41,880
대전	국민생활관 등	667,559	52,589
울산	항교게이트볼구장 등	530,652	39,088
경기	팔달구민센터 등	1,643,887	67,910
강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25,471	34,064
충북	충주체육관 등	783,933	46,053
충남	수정아동센터 등	809,290	41,257
전북	인봉초등학교 등	733,925	39,561
전남	올림픽기념관 등	763,336	45,330
경북	국민체육센터 등	984,235	50,235
경남	마산주민자치센터 등	836,689	49,857
제주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등	376,464	48,940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직장체육진흥의 핵심 과제는 직장 동호인클럽을 육성하여 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직장 내 동호인클럽 육성은 연중 지속되는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는 2005년까지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직장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시·군·구 리그 → 시·도 리그(풀 리그전) → 결승전으로 운영을 유도하며, 전국 또는 지역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게 운동용구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주고, 명량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운동용품 지원 품목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대상별 희망 용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동용품 지원 대상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지원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970개소(아동시설 226개소, 노인시설 290개소, 장애인시설 150개소, 한부모가정 107개소,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교화시설 63개소,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에 운동용구가 지원되었으며,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4-18] 소외계층 응구지원 추진실적

연 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2009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회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2)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불우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및 건전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수영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일정은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따라 정해지며, 기간은 1박 2일 일정으로 시·도별로 1회씩(총 16회) 실시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활동지원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고 다민족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2009년 16개소에서 294회에 걸쳐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었으며 7,222명의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이 참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가 15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이 캠프에 339가족 1,291명이 참여하였다.

제6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란 일종의 체육지도자뱅크(ba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급 연수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사업은 체육지도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를 주선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개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소식지, 인터넷)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체육 지도자 구직 구인란)를 지도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 운영되며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등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 관련학과 학생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체육지도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도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지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배치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12월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검증 시험에 합격하여 2010년 4월말까지 자격증을 수령한 체육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9)와 같다.

[표 4-19]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구 분	계	1급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134,975	699	7,323	126,953
경기지도자	22,355	768	21,587	-
계	157,330	1,467	28,910	126,953

2.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생활체육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스포츠클럽들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클럽활동의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이루고 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은 생활체육 지도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며 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생활체육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자를 생활체육 현장의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은 시·도 생활체육회(시·도 자원봉사단)에서 연중 지속 운영하며 대상은 지역별 체육 관련학과 학생,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우수선수출신자, 체육교사, 체육관련 분야 교수 등이다. 각 시·도 생활체육회에서는 지역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구성, 생활체육 자원봉사활동 전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시상, 자원봉사단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충분한 지도 인력의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현장에 자원봉사제도 정착,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의 활용 최대화, 현장지도자의 원활한 수급체계 확보 등이다. 특히 생활체육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공공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은 16개 시·도에서 총 542,837명으로 구성되어 941회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련 업무는 시·도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지는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관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 관리 및 활동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 유급 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역별 배치 현황은 제10장 참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4.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사업은 노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어르신전담지도자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인원은 2006년 250명, 2007년 300명, 2008년 346명, 2009년 474명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배치된 어르신전담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지속적 생활체육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하고 있으며 지역클럽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프로그램은 지도자가 방문 시설의 운동여건 및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실시종목은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운동, 필라테스, 근력운동, 탁구 등이다.

어르신전담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및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4-20), (표 4-21)과 같다.

[표 4-20]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현황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지역	지도자수
서울	67	광주	14	강원	33	전남	50
부산	20	대전	14	충북	31	경북	40
대구	21	울산	8	충남	33	경남	40
인천	20	경기	49	전북	25	제주	9

[표 4-21]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시·도	기간	장소	참가규모	행사 운영		
				일반경기	번외경기	부대행사
서울	6.17	KBS 88체육관	2,500명	3종목	-	축하공연
부산	5.8	부산종합운동장	1,500명	7종목	-	축하공연
대구	6.9	대구시민운동장	1,491명	9종목	-	축하공연
인천	6.19	도원체육관	2,000명	5종목	-	축하공연
광주	-	-	-	-	-	-
대전	4.15	국민생활관운동장	900명	6종목	2종목	스포츠마사지 라틴댄스 등
울산	5.9	종합체육관	814명	7종목	-	-
경기	-	-	-	-	-	-
강원	5.13~14	홍천군종합운동장	1,507명	8종목	3종목	-
충북	6.19	단양군문화센터	1,500명	9종목	1종목	-
충남	6.12	예산군공주대학교	2,500명	5종목	-	-
전북	10.14	완주군공설운동장	1,340명	8종목	-	스포츠마사지
전남	7.2	고흥군팔영체육관	1,637명	6종목	-	축하공연
경북	6.25	상주시민체육관	2,000명	6종목	-	축하공연
경남	4.24	합천군민공설운동장	3,061명	8종목	2종목	스포츠마사지 라틴댄스
제주	6.18	한라체육관	3,500명	11종목	-	공넵기기 흘라후프

제7절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 7330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취지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1) 스포츠 7330 정책 태동 배경

가.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 수준에 머물르고 있다. 이에 국민여가시간을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다.

나.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 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 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 상해 예방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2008년 주 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34.2%(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08)에 불과하며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지면서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2) 스포츠 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 7330은 스포츠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 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 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 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아 이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 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선행 연구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만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 중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 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운동의 강도 결정의 주요 표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 심박 수의 약 60%~70% 내외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 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60% 정도의 운동 강도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 정도이며, 목표 심박수는 ((220-본인나이)×0.6)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 은 바로 심박수를 130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축축하게 난다.

3) 스포츠 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는 (표 4-22)와 같다.

[표 4-22] 스포츠 7330 정책추진 경과

정책개발 및 적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들의 운동 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 과학적 가이드 마련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 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4) 스포츠 7330의 단계별 로드맵

스포츠 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선포식과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7330 아젠다를 형성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23]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구분	1단계(시범사업-도입)	2단계(정착사업-확산)	3단계(강화)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7330 선포식 로드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기법의 다양화 스포츠 7330 아젠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7330 생활화 브랜드의 국제화

[표 4-24]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2단계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 7330의 이슈화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스포츠 7330 캠페인과 연계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3단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7330 노래 제정, 확산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브랜드의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해 적극홍보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생활체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국민생활체육지를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5]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02	210회	29회	27회, 545회(CA)	25회
2003	232회	37회	47회	71회
2004	268회	23회	24회	56회
2005	874회	14회	-	182회
2006	958회	38회	25회	182회
2007	1,190회	31회	26회	180회
2008	1,190회	28회	37회	186회
2009	1,380회	41회	594회	217회

[표 4-26]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행부수	72,000	72,000	48,000	96,000	96,000	96,000	96,000	120,000
발행회수	6회	6회	6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간 별	격월간	격월간	격월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 수	52면	52면	52면	56면	56면	60면	60면	60면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전달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각종 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정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제11장 참조).

[표 4-27]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고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200,000	-	-	-	-	-	-	-
기금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	365,000	360,000	340,000	300,000	300,000	184,000	225,000

제8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협력

1. 배경

학교체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선진화와 교원단체가 선도하는 교육민주화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체육교과도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육교사 선발방식의 개선으로 우수한 체육교사들이 중등학교에 임용되고, 체육전담교사들이 초등학교에 발령받기 시작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질이 21세기에는 급격히 향상될 전망이다. 대학입학 시험방법이 다양화되고 사회적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교과로서의 체육의 지위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격은 커지는데 비해 오히려 체력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의 체력 저하는 대학 입시에 따른 공부 위주의 생활,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반하고 있다. 이 중 운동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특히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의 증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교체육 수업에 대한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적극적 인식 없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소홀히 운영되는 것도 학생 체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연계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학교체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 학교체육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체육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양 부처의 공동 노력 및 업무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토대임을 감안할 때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4-28]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주요 내용

(2005년 12월 20일)

구분	주요 내용
업무협력 방향	양 부처는 학교·생활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연계 및 효율적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학교·생활체육 발전의 토대 마련	양 부처는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재정지원 확대 등 학교·생활체육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학생 등 청소년 체력증진	양 부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체력저하 현상에 대응하며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해 조사·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실행한다.
학교체육실무협의회의 활성화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기존 학교체육실무협의회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 ○ 정기회의: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 ○ 분과기구: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향후 새로운 분과 필요시 학교체육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구성
우선 추진과제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개선,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클럽 육성, 학교·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교내 체육활동 기회 확대

최근 학교체육 - 생활체육 - 엘리트체육의 연계·통합을 위한 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12월에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협력기반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체결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엘리트체육이 육성되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체육시스템이 선진형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는 학교 내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청소년체력 증진, 스포츠클럽제도 도입, 학교 내 체육활동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체육의 지속 발전과 효율적 진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3. 학교체육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협력 및 홍보 강화

1)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학교 내 체육활동 보급을 통해 전인교육 여건 및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정서·사회성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 등 학교 내 문제의 근원을 예방·치방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12개 체육단체 및 소속 유망선수와

체육단체장이 일선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가지도와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학교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표 4-29] 학교체육보급프로그램 운영 현황

일 자	종 목	선 수	방 문 학 교
10. 30	스키	최홍철 외 3	강원 알펜시아스키점프장
11. 3	아이스하키	황병욱 외 2	대구 용지초등학교
11. 4	공수도	정일홍 외 7	부산 학산여자중학교
11. 6	인라인롤러	우효숙	충북 서현초등학교
11. 12	배구	여오현 외 1	충남 둔포초등학교
11. 17	태권도	차동민	서울 동성중학교
11. 18	유도	이규원	서울 문일고등학교
11. 20	체조	유원철	경남 창북중학교
11. 24	야구	이영우 외 3	충남 합덕초등학교
11. 27	스쿼시	송선미, 이세현	경기 백영고등학교
12. 2	역도	사재혁	강원 흥천고등학교
12. 9	당구	김봉수 외 2	경기 곡반초등학교
12. 9	세팍타크로	유동영 외 5	충남 삼교고등학교
12. 22	축구	서정원	서울 신목초등학교
12. 24	핸드볼	-	인천 부평남초등학교

※ 출처: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팀

2) 학교 내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에 문화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학교 내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접근성이 좋아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체육과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30] 학교 내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계획

(단위: 개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 학교수	83	90	90	90	90	443

제 9 절 세계한민족축전

1. 개최배경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리나라의 힘을 밖으로 표출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 구소련 거주 동포들에게 당시 이념의 장벽에 가려져 있던 조국 땅을 밟고 싶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두 달 앞둔 1988년 7월 마련된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추진 기본계획」은 바로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바람을 수용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착안되었고, 특히 1988 서울 올림픽에 중국, 소련을 비롯한 30여개 미수교국의 참가가 확실시되면 서부터 구체화되었다.

체육행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단결시키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동 계획에 따라 1988년 10월말부터 당시 체육부 관계자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미주 및 유럽지역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교민단체와 교섭을 갖고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동 대회의 개최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대회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체육부는 1989년 4월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88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1989년 9월, 50개국에서 1,326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70회 전국체전과 함께 개막식을 갖게 되었다.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989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문화·예술행사와 청소년축제가 함께 포함되었으며, 1995년부터 「세계한민족축전」으로 공식대회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렸으나,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 축전은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축전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표 4-31]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회 차	축전 개최 특징
11회 2002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32개국 668명)
12회 2003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2개국 601명) ○ 해외 입양아 8개국 61명 참가
13회 2004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1개국 623명) ○ 해외 입양아 6개국 56명 참가
14회 2005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45개국 501명) ○ 해외 입양아 24명 참가
15회 2006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35개국 483명) ○ 해외 입양아 5개국 17명 참가
16회 2007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46개국 473명) ○ 해외 입양아 3개국 11명 참가
17회 2008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44개국 430명) ○ 해외 입양아 4개국 25명 참가
18회 2009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38개국 421명) ○ 해외 입양아 2개국 4명 참가

3. 개최현황

초창기에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었지만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참가국과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개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미 있는 한민족 생활체육축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4-32] 세계한민족축전 개최현황

구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인 원
2002	2002세계한민족축전	2002. 9. 13 ~ 9. 19(7일)	서울, 경기, 충청 일원	32개국 668명
2003	2003세계한민족축전	2003. 8. 29 ~ 9. 4(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2개국 601명
2004	2004세계한민족축전	2004. 9. 17 ~ 9. 23(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1개국 623명
2005	2005세계한민족축전	2005. 9. 9 ~ 9. 15(7일)	서울, 경기, 충청, 제주 일원	45개국 501명
2006	2006세계한민족축전	2006. 9. 2 ~ 9. 27(7일)	서울, 제주 일원	35개국 483명
2007	2007세계한민족축전	2007. 10. 10 ~ 10. 16(7일)	서울, 제주 일원	47개국 473명
2008	2008세계한민족축전	2008. 9. 18 ~ 9. 24(7일)	서울, 경기 및 경주 일원	44개국 430명
2009	2009세계한민족축전	2009. 9. 23 ~ 9. 29(7일)	서울 및 강원 일원	38개국 421명

제10절 과제 및 발전방안

생활체육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과제로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동호인육성 및 활동지원, 직장체육 육성,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지역주민이 쉽게 이동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행 장소와 시설 여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소와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청소년의 참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선호에 적합한 시행 방법을 고안하여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전문화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의 핵심 과제는 국민생활체육의 기본적 활동단위 조직을 전문클럽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사업의 초점은 21세기를 향한 선진화된 체육구조로서 스포츠클럽화를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체육동호인클럽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동호인클럽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클럽화의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사회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및 운영조건을 개선하여 스포츠클럽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조건은 스포츠클럽화를 위한 법과 제도, 체육시설,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성 등이며, 내적 조건은 스포츠클럽의 조직화 및 전문화, 경영·관리 능력, 자립화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동호인클럽의 관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체육활동은 학교체육을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운영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청소년 시절의 학교체육 경험이 청년기 이후의 지역사회 생활체육활동과 직장체육활동의 근간이 되며, 이는 다시 우수한 엘리트선수 육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호인클럽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 단위조직을 전문클럽화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회원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호인클럽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동호인클럽의 경영능력과 전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스포츠클럽화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며, 스포츠클럽은 확보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자립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의 스포츠지도 분야에서 전문적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클럽경영에서 탁월한 행정 관리자를 고용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직장체육 환경구축과 내실화

직장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하며, 직장체육 환경의 복지화, 직장체육 내용의 다양화, 직장체육 활동의 조직화 및 직장체육 지원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토대를 두고 직장체육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추진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표 4-33)과 같다.

특히 직장체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개별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역 근로자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4-33] 직장체육 육성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법

추진 과제	추진 방법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준한 직장체육시설 설치 유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지원 직장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직장체육시설의 지역동호인 공동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 체육 관련학과와 협력 지원 직장 생활체육 참가자의 욕구조사를 기초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공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확장
체육지도자의 배치·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협조 지역대학의 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협조 지역대학 체육대학생의 현장실습장 제공
동호인클럽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생활체육동호인의 직장체육동호인클럽 등록 동일종목의 지역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교류 및 협력 확대
과학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 체육 관련학과와 스포츠과학 혜택 제공 협력 체계적 과학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체력센터의 활용
안정적 재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자체재정 지립도 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보조 확보

최근 들어 밀집된 대단위 산업공단 근로자들과 지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산업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공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폐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과 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산업공단 내에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4.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개선뿐 아니라 향후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현장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체적 장애인을 고려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초보자를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이들이 체육활동 현장에서 기능적 미숙과 환경적 부적응 등의 이유로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

가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활동 지원 모두 전문적 소양과 자격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5.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의 선진화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발전방향은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감각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 방법을 변화 있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TV를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 서비스는 미래 생활체육의 환경변화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생활체육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참여 및 생활체육 정보 수요의 증가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유지, 갱신하는 생활체육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정보가 수요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형태로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미래 복지사회를 향한 대국민 생활체육 정보 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생활체육 정보는 일반대중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서비스는 대국민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6.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정부가 양성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도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생활체육 투자 예산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가 적절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신상정보와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 현장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이와 같은 관리 운영 체계를 널리 홍보하여

배출된 지도자와 체육시설이 체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 체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인근대학의 체육 계학과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지도 분야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모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가확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폭 넓은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 기능을 가르치고 대회를 운영하는 것 외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 기능만을 전수하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체육에 관한 폭 넓은 지식과 정보, 교양과 인격, 풍부한 현장지도경험, 전문적인 상담기술 그리고 전문적 기능을 겸비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출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도자의 자기계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5장
학 교 체 육

- 제1 절 개 관
- 제2 절 체육교육과정
- 제3 절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 제4 절 학생체력
- 제5 절 정과체육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 제6 절 학원스포츠 지원사업
- 제7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5 장 _ 학 교 체 육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에서 체육은 근대식 학교가 본격 도입된 19세기 말부터 정규교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올바른 성장이 지·덕·체의 합일에 기초하며, 체육이 학생의 균형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고가 그 때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통해 체육은 ‘체조’ 혹은 ‘체련’으로 지칭되기도 했지만, 해방이후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이란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이 같은 교과명의 변천은 체육의 목적에 대한 시대적 인식변화와 관련이 있다. ‘체조’ 및 ‘체련’이란 명칭은 체육을 통해 건강한 황국신민을 육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적을 강조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후 체육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사실은 체육이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회복하며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조직에서 학교체육 업무의 주무부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크게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교육부처 환원기로 구분된다. 교육부처 존치기는 해방이후부터 4공화국까지 체육을 교육부처에서 담당했던 시기를 의미한다. 이후 1982년부터 1994년 초기까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등의 체육부서로 주무부서가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체육부처 이양기라고 하며,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그 업무가 교육 부처로 다시 이관된 시기를 교육부처 환원기라고 한다. 교육부처 환원기 초기에 교육부 학교보건체육과, 1999년 학교시설환경과,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등이 그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2005년에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학교체육보전급식과를 거쳐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에서 학교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별도로, 체육 저변확대와 제반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양한 학교체육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 내에 학교체육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부처 상호간 또는 민간과의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양 부처간 MOU를 체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표 5-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교육부처 환원기
시기	해방이후~4공화국 (1946. 7. 10 ~1982. 3. 20)	5공화국~문민정부 초기 (1982. 3. 20 ~1994. 5. 16)	문민정부~현재 (1994. 5. 16 ~ 현재)
세부 내용	▶ 1946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 ▶ 1948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 1961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 1981 문교부 체육국제국 학교체육과 ▶ 1982. 3. 20 학교체육업무 체육부 이관	▶ 1982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 ▶ 1990. 9. 10 ~1993. 3. 5 체육청소년부 1993. 3. 6 ~1994. 5. 15 문화관광부 초기	▶ 1994. 5. 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학교보건체육과 ▶ 1999. 1. 29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 2001. 2.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 2005. 3.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전급식과 ▶ 2008. 3.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2009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서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 “건강한 학생, 멋있는 학생, 즐거운 학교”를 비전으로 “SPORT”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SPORT는 ‘스포츠 과학화’, ‘신체활동 중심’, ‘조직 및 협조체계’, ‘재창조’, ‘교수-학습’ 등을 의미하는 약어로서, 그 하위영역별로 두 가지씩 총 10개의 중심추진과제를 두고 있다(그림 5-1 참조).

전략	중점 추진 과제
Sports science (스포츠과학화)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 스포츠 친화적 학교분위기 형성
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 중심)	□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Organization (조직, 협조)	□ 학교체육진흥 관련 법·제도 개선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구성·운영
Recreation (재창조)	□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 □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Teaching (교수-학습)	□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그림 5-1] 2010년 학교체육 중점 추진 과제

제 2 절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9년 현재 학교 현장에는 7차 체육교육과정(초등 3,4학년 이후에 해당)과 이를 일부 수정한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초등학교 1, 2학년)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7차 체육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은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고등학교 2,3학년 시기 체육교과목의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7차 체육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의 체육은 예체능과목군으로 분류되어 이 시기의 학생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의 체육은 독립 과목군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7차 체육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은 예체능교과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과명은 '즐거운 생활'이며, 3학년부터 '체육'이라는 독립교과로 주당 3시간씩 배정된다. 중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주당 3시간, 3학년은 주당 2시간씩 배정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10학년)은 연간 4시간이 지정된 반면 2,3학년은 선택교과로 분류되어 연간 4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다.

[표 5-2] 7차 교육과정내 체육시간 배당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010년)			선택중심교육과정
	초1~2 즐거운생활 (체·음·미)	초1~2 즐거운생활 (체·음·미)	초1~2 *즐거운생활 (체·음·미)	
학년				고2~3
체육시수	6시간/주 (* 체육은 2시간 정도)	3시간/주	중3: 2시간/주 고1: 4단위(2시간/주)	선택 시 0~4단위(+2) (* 2단위 증배 가능)

현행 7차 체육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에 따르면 현장에 적용되는 체육교과는 학령에 따라 '필수교과' 또는 '선택교과'로 구분된다. 필수교과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과목의 수업을 규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시기에 행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체육은 시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체육교과는 체육, 음악, 미술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교과로서 분류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각 체육교육과정 별로 과목의 명칭이나 배당된 수업시수가 꾸준히 변화되어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의 명칭 및 배당수업시수의 변천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7)
초등학교	보건(3)	체육(3)	체육 (2-3)	즐거운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6)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중학교	체육(2)	체육 (2~4)	체육(3)	체육(3)	체육(3)	체육(3)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고등학교	체육 (24단위)	체육 (24단위)	체육 (14~18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1학년 필수 체육(4단위) 2~3학년 선택 체육과건강(4단위) 체육이론(4단위) 체육실기(4단위 이상)

※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함

지금까지 체육교과는 1~6차 교육과정을 통해 필수교과로 주당 약 3시간 정도의 시수를 확보하였으나, 7차 체육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시수가 감소되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체육과목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게 되었다. 최근 고등학교 2, 3학년의 체육교과 선택 현황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76%를 다소 상회하는 학교만이 체육교과를 선택하고 있어 이런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4 참조). 2009년 현재 그 비율이 전체의 79.7%로 7차 교육과정 적용 초기에 비해 소폭 증대된 상태이다.

[표 5-4] 계열별 고등학교 2,3학년 체육교과 선택현황

년도	학생수	2학년				3학년				전체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소계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소계	
2005	총학교수	1,328	649	116	2,093	1,303	624	109	2,036	4,129
	개설학교수	1,224	529	88	1,841	989	249	64	1,302	3,143
	비율(%)	92.2%	81.5%	75.9%	88.0%	75.9%	39.9%	58.7%	63.9%	76.1%
2006	총학교수	1,369	606	114	2,089	1,357	613	109	2,079	4,168
	개설학교수	1,255	491	82	1,830	1,057	238	61	1,356	3,186
	비율(%)	91.7%	81.0%	71.9%	87.6%	77.9%	38.8%	56.0%	65.2%	76.4%
2007	총학교수	1,384	6241	37	2,145	1,357	623	133	2,113	4,258
	개설학교수	1,255	515	95	1,865	1,058	266	74	1,398	3,263
	비율(%)	90.7%	82.5%	69.3%	86.9%	78.0%	42.7%	55.6%	66.2%	76.6%
2008	총학교수	1424	576	160	2,159	1,418	573	170	2,157	4316
	개설학교수	1,301	471	108	1,871	1,108	239	78	1,421	3,292
	비율(%)	91.4%	81.8%	67.5%	86.7%	78.1%	41.7%	45.9%	65.9%	76.3%
2009	총학교수	1,483	627	138	2,248	1,461	628	165	2,254	4,502
	개설학교수	1,378	522	134	2,034	1,158	302	95	1,555	3,589
	비율(%)	92.9%	83.3%	97.1%	90.5%	79.3%	48.1%	57.6%	69.0%	79.7

제3절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2009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교원 수는 23만 4,079명으로 중학교 10만 9,075명, 고등학교 일반계 8만 8,997명, 고등학교 실업계 3만 6,007명에 이른다. 체육교원은 일반교사 1만 6,266명과 선발종목에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임용된 특기교사 1,4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 4,755명이다. 중·고등학교 체육교원의 정원은 중·고등학생수 감소, 중·고등학교 보장 체육수업 시수의 실질적 감소, 체육교원 신규임용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향후 수업시수의 절대적 감소와 학급당 정원의 안정화로 인해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표 5-5]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구분	남			여			계		
	중등	고등	계	중등	고등	계	중등	고등	계
일반	6,511	4,629	11,140	1,468	658	2,126	7,979	5,287	3,266
특기	657	599	1,256	132	101	233	789	700	1,489
계	7,168	5,228	12,396	1,600	759	2,359	8,768	5,987	14,755

1. 중학교 체육교원현황

2009년도 중학교 체육교원은 총 8,768명으로서 이중 여성은 1,600명(18.25%)이다. 연령별로는 20대 492명(5.61%), 30대 2,470명(28.17%), 40대 3,143명(35.85%), 50대 이상 2,160명(24.64%)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6 참조)

[표 5-6] 중학교 체육교원 현황

시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20		30		40		5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일반	7,979	6,511	1,468	312	149	1,855	493	2,210	528	1,708	221
	특기	789	657	132	20	11	93	29	340	65	204	27
	계	8,768	7,168	1,600	332	160	1,948	522	2,550	593	1,912	248

시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20		30		40		5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일반	1603	1287	316	50	24	287	85	483	127	467	80
	특기	-	-	-	-	-	-	-	-	-	-	-
부산	일반	560	425	135	15	7	95	38	182	58	133	32
	특기	-	-	-	-	-	-	-	-	-	-	-
대구	일반	421	346	75	31	9	116	26	151	26	48	14
	특기	3	3	-	-	-	-	3	-	-	-	-
인천	일반	412	329	83	15	9	145	35	138	34	31	5
	특기	185	158	27	7	3	41	11	107	11	3	2
광주	일반	149	120	29	4	3	23	6	36	14	57	6
	특기	8	7	1	1	-	2	1	3	-	1	-
대전	일반	208	158	50	11	4	64	18	43	22	40	6
	특기	62	45	17	1	-	12	4	17	8	15	5
울산	일반	155	119	36	6	4	55	26	40	3	18	3
	특기	53	48	5	-	-	-	-	32	3	16	2
경기	일반	1,896	1,499	397	102	58	698	188	456	112	243	39
	특기	-	-	-	-	-	-	-	-	-	-	-
강원	일반	321	289	32	12	4	64	8	91	15	122	5
	특기	-	-	-	-	-	-	-	-	-	-	-
충북	일반	286	240	46	6	2	48	21	111	19	75	4
	특기	19	8	11	2	4	4	5	2	2	-	-
충남	일반	253	208	45	21	7	52	6	83	31	52	1
	특기	134	114	20	3	2	6	-	72	15	33	3
전북	일반	141	129	12	4	1	31	1	44	8	50	2
	특기	280	232	48	5	2	19	7	80	25	128	14
전남	일반	433	378	55	12	9	46	11	134	23	186	12
	특기	7	6	1	-	-	1	5	1	-	-	-
경북	일반	504	427	77	-	-	-	-	-	-	-	-
	특기	-	-	-	-	-	-	-	-	-	-	-
경남	일반	542	465	77	22	8	127	23	191	34	125	12
	특기	38	36	2	1	-	5	1	22	-	8	1
제주	일반	95	92	3	-	-	4	1	27	2	61	-
	특기	-	-	-	-	-	-	-	-	-	-	-

2. 고등학교 체육교원현황

2009년도 고등학교 체육교원은 총 5,987명으로서 이중 여성은 759명(12.68%)이다. 연령별로는 20대 129명(2.15%), 30대 1,271명(21.23%), 40대 2,287명(38.20%), 50대 이상 1,956명(32.67%)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7) 참조

[표 5-7] 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시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20		30		40		5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일반	5,287	4,629	658	86	33	988	171	1,709	279	1,537	142
	특기	700	599	101	7	3	86	26	250	49	256	21
	계	5,987	5,228	759	93	36	1,074	197	1,959	328	1,793	163
서울	일반	1167	1026	141	29	14	151	31	358	53	488	43
	특기	-	-	-	-	-	-	-	-	-	-	-
부산	일반	419	362	57	5	1	40	8	154	27	163	21
	특기	-	-	-	-	-	-	-	-	-	-	-
대구	일반	291	259	32	5	-	42	11	126	12	86	9
	특기	2	2	-	-	-	1	-	1	-	-	-
인천	일반	325	275	50	7	1	66	20	103	22	99	7
	특기	271	224	47	3	1	40	16	74	21	107	9
광주	일반	238	205	33	8	3	75	10	59	12	63	8
	특기	18	13	5	1	2	3	1	5	1	4	1
대전	일반	108	88	20	3	1	25	4	23	10	37	5
	특기	77	67	10	1	-	16	2	20	6	30	2
울산	일반	69	61	8	1	-	15	4	38	2	7	2
	특기	32	30	2	-	-	-	-	25	1	5	1
경기	일반	1,087	937	150	19	11	377	56	372	66	169	17
	특기	-	-	-	-	-	-	-	-	-	-	-
강원	일반	199	181	18	1	-	20	3	84	9	76	6
	특기	-	-	-	-	-	-	-	-	-	-	-
충북	일반	175	157	18	-	1	33	5	60	6	64	6
	특기	-	-	-	-	-	-	-	-	-	-	-
충남	일반	167	141	26	5	-	41	4	61	19	34	3
	특기	78	71	7	-	-	2	3	40	2	29	2
전북	일반	81	68	13	2	-	8	2	22	10	36	1
	특기	189	159	30	2	2	19	4	63	18	75	6
전남	일반	235	217	18	1	-	26	4	101	9	89	5
	특기	4	4	-	-	-	-	-	4	-	-	-
경북	일반	342	309	33	-	-	-	-	-	-	-	-
	특기	-	-	-	-	-	-	-	-	-	-	-
경남	일반	325	288	37	-	1	66	8	128	19	94	9
	특기	22	22	-	-	4	-	14	-	4	-	-
제주	일반	59	55	4	-	-	3	1	20	3	32	-
	특기	7	7	-	-	-	1	-	4	-	2	-

제 4 절 학생체력

1. 학생신체능력검사의 개요

해마다 초·중·고등학생의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학생신체능력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세부종목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50m달리기, 팔굽혀펴기(남)·팔굽혀매달리기(여),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오래달리기-걸기로 총 6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초등학생은 팔굽혀펴기(남)·팔굽혀매달리기(여)가 제외되어 총 5개 종목을 실시한다. 학생신체능력검사는 개별 종목 점수뿐만 아니라 종합적 체력의 판단을 위해 급수판정도 실시된다. 이 급수는 각 종목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목전체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그 기준은 (표 5-8)과 같다.

[표 5-8] 학생신체능력검사의 급수별 기준점수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초등학교(5종)	20 이상	17~19	14~16	11~13	10 이하
중·고등학교(6종)	23 이상	20~22	17~19	14~16	13 이하

2.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1) 학생신체능력검사 종목별 결과

[표 5-9]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종목별 점수 및 연도별 비교

종목	년도	2007		2006		2000	
		기록	2008년대비편차	기록	2008년대비편차	기록	2008년대비편차
50m달리기(초)	2008	9,39	9,41	9,39	9,22	9,22	0,17
팔굽혀펴기(남/회)	2008	30,00	29,5	30,67	31,27	31,27	-1,27
팔굽혀매달리기(여/초)	2008	5,88	5,77	5,62	8,63	8,63	-2,75
윗몸일으키기(회/분당)	2008	34,00	33,75	33,88	35,44	35,44	-1,44
제자리멀리뛰기(cm)	2008	174,06	172,85	173,37	180,65	180,65	-6,59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2008	12,72	12,83	13,28	13,84	13,84	-1,12
오래달리기-걸기(분:초)	2008	8,09	8,12	8,02	7,32	7,32	0,37

2008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종목별 점수는 (표 5-9)와 같다. 최근 8년간의 각 종목별 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종목에서 체력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대비 오래달리기-걸기의 경우 +37초, 제자리멀리뛰기-6.59cm, 팔굽혀매달리기(여) -2.75초 등 6개 종목 모두 감소했으며, 2007년 대비 50m달리기는 -0.02초, 팔굽혀펴기 +0.5초, 팔굽혀매달리기 +0.11초, 제자리멀리뛰기 +1.21cm, 오래달리기-걸기 -0.03초 등 총 5개 종목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유연성 검사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만 -0.11cm 감소했다.

2)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결과

2008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의 비율은 1급의 경우 14%, 2급 19%, 3급 25%, 4급 22%, 5급 20%이다. 2000년과 대비하여 1~2급은 약 8% 감소했으나, 4~5급은 11% 증가하여 전체학생의 42%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체력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전년도인 2007년 대비하여 1급은 약 2% 증가, 4~5급은 2%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소폭 향상하였다.

[표 5-10]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의 연도별 추이

년도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2000		16	25	28	20	11
2001		16	24	27	20	13
2002		16	22	27	21	14
2003		15	22	27	21	15
2004		16	22	27	21	15
2005		16	22	26	21	16
2006		13	20	26	22	18
2007		12	19	25	23	21
2008		14	19	25	22	20
증감(2000년대비)		-2	-6	-3	+2	+9
증감(2007년대비)		+2	0	0	-1	+1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실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현행 운동기능 중심의 체력평가인 학생신체능력검사를 개선한 제도로서, 과거의 운동기능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건강체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력검사로 일명 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로 지칭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200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2008년간에 걸쳐 시범운영 하였으며, 2009년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2010년에 중학교, 2011년에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다.

[표 5-11] 학생건강체력평가와 학생신체능력검사의 비교

구분	중전(학생신체능력검사)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적용 학년	○ 초 5~고 3	○ 초 4~고 3 ※ 초 5~고 3(의무/필수), 초 4(선택)
특징	○ 운동기능체력 위주 :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 운동선수 조기선발에 초점	○ 건강관련체력 위주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조절력 등 ※ 학생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
종목	▶ 6개 종목(고정형) ① 50m 달리기 ② 제자리멀리뛰기 ③ 오래달리기-걸기 *1600(1200)m ④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⑤ 윗몸일으키기 ⑥ 팔굽혀펴기(오래매달리기) ※ 괄호 안은 여자 종목	〈필수평가〉 ▶ 5개 체력요인 5종목(12개 종목 중 선택형) 〈심폐지구력〉 ① 왕복오래달리기(페이스) ② 오래달리기-걸기 *1600(1200)m ③ 스텝검사 〈유연성〉 ④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⑤ 종합유연성검사 〈근력·근지구력〉 ⑥ (무릎대고)팔굽혀펴기 ⑦ 윗몸말아올리기 ⑧ 악력검사 〈순발력〉 ⑨ 50m 달리기 ⑩ 제자리멀리뛰기 〈체지방〉 ⑪ 체질량지수(BMI) ⑫ 체지방량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등급	○ 1~5급(종목별 5점, 총점 초 25점, 중·고 30점)	○ 1~5등급(종목별 20점, 총점 100점) ※ 신체활동 성취동기 유발
활용	○ 검사결과가 단순 기록·보관(1회적)되고, 운동 처방 등 후속 조치 미흡 - 건강기록부에 기록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통지·활용도 낮음	○ 자신의 건강체력 정보의 능가적 관리 및 운동처방을 받음 - 건강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구축 ○ 비만 학생의 선별 및 관리 ○ 선택평가 있음

학생건강체력평가는 단순한 체력측정에서 그친 기존 학생신체능력검사에 비해 건강체력과 관련된 종합체력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운동처방과 연동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교무업무시스템 내에 PAPS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학생이 건강체력평가를 받게 되면 PAPS 시스템에 개인자료가 입력된다. 이후 시스템 내부에 개별 자료에 대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져 학생이 운동처방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토대로 신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PAPS 시스템은 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조회하고, 건강체력일기를 작성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측정 장비 확충이다. 이를 위해 측정 장비는 학교별로 구비(8,230천원/1교) 하도록 하되, 소규모 학교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구비하여 관내학교에 순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표적 사업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등 협력체제 구축' 사업이 있다. 지역사회 인프라 등 협력체제 구축 사업은 보다 정밀한 측정·평가를 위해 외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역 인프라는 대학, 국민체력센터,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을 의미한다.

제 5 절 정과체육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정과체육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은 1%의 운동부 학생이 아닌 99%에 해당되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체육수업과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과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있다.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초등학교에 일정 자격 이상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정규수업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여교사 편중으로 인한 체육 실기수업 지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초등학교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해 2008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육과학연구원이 2008년에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 결과,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92.1%가 동 사업이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에는 16개 시·도에 887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였으며, 강사 1명이 1개 학교당 7개 학급(주당 21시수)의 수업 운영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5-12] 2008년·2009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비교

	2008년(시범사업)	2009년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 졸업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체육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자격 보유자 경기단체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상 체육 현장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 졸업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체육관련 학과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등체육교사 자격 ② 실기교사 자격 ③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④ 경기지도자 자격 보유자
선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심사(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선발 후 2차 심사(면접심사)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개 시·도(원거리 배치자 계약 포기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단위 모집

사업 주관기관은 국민생활체육회, 시·도교육청으로서 1, 2월에 스포츠 강사의 채용하여 체육교수-학습 이론, 실기 등 체육수업 관련 60시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하였다. 2009년 스포츠강사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루어졌는데, 2008년과 2009년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12와 같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에 178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까지 2,200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표 5-13 참조)

[표 5-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배치목표	825	1,000	1,300	1,800	2,200	
문화체육관광부	7,490	9,030	14,688	20,834	26,1737	8,215
사업 예산 시·도 교육청	-	8,830	14,188	20,234	25,473	68,725
합계	7,490	17,860	28,876	41,068	51,646	146,940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최근 일반학생의 체력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적인 체육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체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추진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구분된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역할을 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 및 대회개최 지원을 실시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스포츠클럽을 등록시켜 학생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내대회를 개최한다. 각자의 역할과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표 5-14)와 같다.

[표 5-14]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① 지침시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사업계획 시달
②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도교육청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 및 대회 개최 지원
③ 세부계획 수립·시행	지역교육청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 및 대회 개최 지원 ※ 리그전 형식으로 지구별 대회 개최 권장
④ 교내대회 개최, 학교대표 선발	학교 자체계획 수립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교내대회 개최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되, 학교 대표로 교육부(청) 주최 등 대회 참가 시 출전비(교통비, 식비 등) 일부 지원
⑤ 지역교육청대회 개최, 대표 선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초·중학교 학생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역 교육청대회 개최
⑥ 시·도교육청대회 개최, 대표 선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시·도교육청대회 개최 초·중학교 학생(지역교육청 대표팀) 대상 대회 개최

2) 소요예산 및 성과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25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5-15]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2007~2012년)

(백만원)

재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교육과학기술부		2,000	2,000	2,500	3,000	3,500	100	13,100 (61.5%)
문화체육관광부		-	50	50	100	100	100	400 (1.9%)
교육청		-	-	-	-	3,900	3,900	7,800 (36.6%)
합계		2,000	2,050	2,550	3,100	3,600	4,100	21,300 (100%)

2009년 한 해 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했던 학교는 10,424개교로서 전체 학교수 대비 93.4%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 학생은 159만 7,308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27.4%이다. 이 같은 수치는 사업 초기인 2007년에 설정한 목표치인 2007년(8.1%) → 2008년(15%) → 2009년(20%) → 2010년(25%) → 2011년(30%) → 2012년(35%)를 상회하고 있다(표 5-16 참조).

[표 5-16] 학교스포츠클럽 현황

(단위 : 교, 명)

년도 재원	학교 현황(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학교수	학생수 (초4~고4)	교원수	운영학교수	등록학생수	등록교원수	등록강사 (코치)수
2007	10,947	5,718,028	395,379	8,286(75.7%)	460,591(8.1%)	23,029(5.8%)	2,349
2008	11,080	5,873,827	403,796	10,061(90.8%)	1,003,575(17.1%)	38,868(9.6%)	4,382
2009	11,160	5,838,680	409,217	10,424(93.4%)	1,597,308(27.4%)	53,128(13.0%)	5,621

※ 전체학교수 : 2007~2009 교육통계연보(KEDI) (특수학교 제외)

제 6 절 학원스포츠 지원사업

학원스포츠는 학교 간 체육활동의 확장된 개념으로, 학교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코치 또는 감독)의 지도하에 대회 참가 및 입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활동으로 규정된다. 학원스포츠 체계 내에 있는 학생은 일반 초·중·고교 또는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필하고 학교대항경기 및 각종 경기대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체육특기자제도에 의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학원스포츠는 한국 전문체육의 산실로서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입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각종 인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학원스포츠 현황

1) 학교운동부 현황

2009년 7월 기준 전국의 학교운동부의 수는 총 7,811개(초등학교 2,909개, 중학교 2,836개, 고등학교 2,066개)이며,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수는 총 5,951개(초등학교 2,403개, 중학교 2,108개, 고등학교 1,440개)로 전체 학교수의 53.3%에 달한다. 학생선수의 수는 총 6만 7,975명(초등학교 2만 1,157명, 중학교 2만 4,481명, 고등학교 2만 2,337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수는 총 4,905명이다. 일선 학교운동부의 코치는 전임코치(순회코치)와 일반코치로 구분되는데, 전임코치는 시·도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이며, 일반코치는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코치를 말한다. 2009년 전임코치의 수는 3,399명(초등학교 1,166명, 중학교 1,396명, 고등학교 837명)로서 전체 코치수의 69.3%이며, 일반코치의 수는 1,506명(초등학교 439명, 중학교 464명, 고등학교 603명)으로 30.7%를 차지한다.

[표5-17] 학교운동부 현황

(단위 : 교, 팀, 명, 천원)

시·도	학교수	육성 학교수	학생수 (초 3~고 3)	학교 선수수 (초 3~고 3)	학교 운동부수	코치 현황			
						계	전 임 코치		일반 코치
							인원수	월급여(천원)	
초	5,829	2,403	2,471,894	21,157	2,909	1,605	1,166	1,490	439
중	3,106	2,108	2,006,972	24,481	2,836	1,860	1,396	1,500	464
고	2,225	1,440	1,965,792	22,337	2,066	1,440	837	1,504	603
계	11,160	5,951 (53.3%)	6,444,658	67,975 (1.1%)	7,811	4,905 (100.0%)	3,399 (69.3%)	1,498 (69.3%)	1,506 (30.7%)

[표5-18]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현황(특수학교 제외)

(단위 : 교, 팀, 명, 천원)

시·도	학교수	육성 학교수	학생수 (초3~고3)	학교 선수수 (초3~고3)	학교 운동부수	코치 현황				
						계	인원수	전 임 코치		일반 코치
								1인당/월	월급여(천원)	
전 체	11,160	5,951 (53.3%)	6,444,658	67,975 (1.1%)	7,811	4,905 (100%)	3,399 (69.3%)	1,498	61,088,976	1,506 (30.7%)
서울	1,268	518	1,148,906	10,866	782	701	328	1,320	5,195,520	373
부산	611	281	427,095	3,307	324	263	130	1,280	1,996,800	133
대구	429	404	348,837	4,105	689	273	175	1,460	3,066,000	98
인천	461	281	367,347	3,707	486	313	215	1,430	3,689,400	98
광주	294	307	224,834	2,554	170	148	136	1,270	2,072,640	12
대전	285	220	213,283	2,164	327	183	149	1,900	3,397,200	34
울산	226	158	169,607	1,709	231	153	150	1,280	2,304,000	3
경기	2,068	817	1,563,529	13,276	1,130	893	554	1,795	11,933,160	339
강원	631	772	190,218	2,949	652	405	205	1,500	3,690,000	200
충북	471	284	202,877	3,251	559	199	179	1,700	3,651,600	20
충남	741	278	255,454	3,395	408	225	182	1,260	2,751,840	43
전북	751	456	248,884	4,185	586	207	207	1,390	3,453,240	0
전남	838	390	242,240	3,903	496	264	228	1,646	4,503,456	36
경북	967	267	322,256	3,373	391	273	273	1,290	4,226,040	0
경남	941	394	438,047	3,197	438	322	216	1,570	4,069,440	106
제주	178	124	81,244	2,034	142	83	72	1,260	1,088,640	1

※ 2009년 7월 기준

2)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국에 소재한 체육중학교 7개교 및 체육고등학교 14개교와 더불어 1개 반을 특기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제주 남녕고를 포함하여 총 22개가 있다. 2009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체육중학교 850명, 고등학교 3,600명을 포함하여 총 4,450명이며, 소속코치는 총 297명의 규모이다.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문체육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중 국가대표 28명, 후보선수 297명으로 총 325명의 대표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표 5-19]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명, 개)

학교별	설립년월	학생수	코치수	육성종목수	졸업생수	비고	
합계	22개교	4,450	297	-	35,464	-	
중학교	소계	7개교	850	-	-	5,559	-
	서울체육중	2004.3	147	-	-	1,158	중·고 병설 운영
	광주체육중	1983.11	194	-	-	1,420	
	대전체육중	1993.3	112	-	-	811	
	강원체육중	2005.3	76	-	-	60	
	전북체육중	2007.3	98	-	-	-	
	전남체육중	2000.3	124	-	-	275	
경북체육중	1973.6	99	-	-	1,835		
고등학교	소계	15개교	3,600	297	-	29,905	-
	서울체육고	1971.1	417	44	22	3,737	-
	부산체육고	1972.11	270	22	16	2,483	-
	대구체육고	2003.1	157	13	10	229	-
	인천체육고	1993.11	258	21	13	6,650	-
	광주체육고	1972.12	259	15	14	2,857	-
	대전체육고	1973.3	266	24	18	2,520	-
	경기체육고	1995.3	297	23	13	966	-
	강원체육고	1991.3	199	17	16	1,033	-
	충북체육고	1991.3	240	13	12	1,254	-
	충남체육고	1992.1	187	14	12	1,151	-
	전북체육고	1975.11	260	19	16	2,322	-
	전남체육고	2002.12	168	21	12	180	-
	경북체육고	1972.11	248	25	16	2,303	-
	경남체육고	1984.12	264	19	14	1,848	-
제주남녕고	1997.3	110	7	10	372	-	

[표 5-20]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가대표수	9	0	3	1	0	5	7	1	1	0	1	0	0	0	0	28
후보선수수	62	11	12	17	20	21	34	24	13	3	18	13	24	21	4	297
계	71	11	15	18	20	26	41	25	14	3	19	13	24	21	4	325
비율(%)	22	3	5	6	6	8	13	8	4	1	6	4	7	6	1	100

2. 학원스포츠 지원사업

학원스포츠는 한국 전문체육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학원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운동부 지원사업과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다.

1)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인 학교운동부를 지원·육성하여 선수 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림픽 34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근대5종, 농구, 레슬링을 비롯한 하계 28개 종목과 빙상, 스키 등 동계 6개 종목에 지원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및 제주 남녕고는 제외되며, 일반 초·중·고 학교운동부 중에서 후보선수 소속된 502개 팀과 시·도 교육감 지정 초·중·고 학교운동부 336개 팀을 포함 총 838개 팀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역은 훈련지원비와 행정지원비로 구분된다. 훈련지원비는 훈련 및 경기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공동 훈련용품, 훈련기구 구입비에 활용된다. 훈련지원비는 후보 선수 2명 이상 운동부에 1개 운동부 당 연간 300만원, 후보선수 1명인 운동부에 1개 운동부 당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도교육감 지정 운동부에 1개 운동부 당 연간 300만원이 지급된다. 2009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의 규모는 후보선수 소속 운동부 지원 9억 3,900만원, 교육감 지정 운동부 지원 10억 800만원, 행정지원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6,300만원이다(표 5-21 참조).

[표 5-21] 2009년도 학교운동부 지원내역

(단위: 개, 천원)

시·도 교육청	계 (A+B)	후보선수소속 운동경기부수			교육감 지정운 동경기 부수(B)	전체 운동부수	2009년도 지원 예산					
		소계 (A)	선수 2인이상	선수 1인			계 (A+B+C)	후보선수소속 운동경기부 지원			교육감 지정 운동부 지원(B)	행정 지원비 (C)
								소계 (A)	선수 2인이상	선수 1인		
합계	838	502	187	315	336	13,513	1,963,000	939,000	561,000	378,000	1,008,000	16,000
서울	119	70	32	38	49	1,985	289,600	141,600	96,000	45,600	147,000	1,000
부산	47	26	7	19	21	832	107,800	43,800	21,000	22,800	63,000	1,000
대구	42	27	9	18	15	600	94,600	48,600	27,000	21,600	45,000	1,000
인천	39	23	8	15	16	642	91,000	42,000	24,000	18,000	48,000	1,000
광주	23	12	2	10	11	460	52,000	18,000	6,000	12,000	33,000	1,000
대전	29	17	5	12	12	474	66,400	29,400	15,000	14,400	36,000	1,000
울산	27	20	7	13	7	296	58,600	36,600	21,000	15,600	21,000	1,000
경기	155	97	44	53	58	2,328	370,600	195,600	132,000	63,600	174,000	1,000
강원	67	42	14	28	25	1,009	151,600	75,600	42,000	33,600	75,000	1,000
충북	33	17	5	12	16	637	78,400	29,400	15,000	14,400	48,000	1,000
충남	45	25	14	11	20	793	116,200	55,200	42,000	13,200	60,000	1,000
전북	47	28	6	22	19	788	102,400	44,400	18,000	26,400	57,000	1,000
전남	50	33	10	23	17	647	109,600	57,600	30,000	27,600	51,000	1,000
경북	51	32	12	20	19	757	118,000	60,000	36,000	24,000	57,000	1,000
경남	47	28	9	19	19	786	107,800	49,800	27,000	22,800	57,000	1,000
제주	17	5	3	2	12	479	48,400	11,400	9,000	2,400	36,000	1,000

2)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 사업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의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9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은 (표 5-22)와 같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22억 3,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 운영비 1천만원, 대회개최비 1억원, 훈련비 10억 2,800만원, 훈련시설·장비비 10억 9,500만원으로 구분된다.

[표 5-22] 2009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단위: 명, 개)

구 분	학생수 (중·고 합계)	2009년도 지원 소요예산								행정 지원비 (C)
		합 계	연구 학교 운영	대회 개최비	훈련비 (훈련경비, 훈련용구비 등)	훈련시설·장비비				
						소계	일률 지원	학생수 비례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수 비례	
계	4,450	2,233,000	10,000	100,000	1,028,000	1,095,000	495,000	490,500	109,500	2,233,000
서울시교육청 (서울체육중·고)	564	249,378	-	-	130,290	119,088	33,000	62,167	23,9222	39,346
부산시교육청 (부산체육고)	270	128,840	-	-	62,373	66,467	33,000	29,761	3,706	144,805
대구시교육청 (대구체육고)	157	191,628	-	100,000	36,269	55,359	33,000	17,305	5,0549	6,000
인천시교육청 (인천체육고)	258	127,103	-	-	59,601	67,503	33,000	28,438	6,065	132,724
광주시교육청 (광주체육중·고)	453	194,318	-	-	104,648	89,670	33,000	49,932	6,738	181,823
대전시교육청 (대전체육중·고)	378	180,747	10,000	-	87,322	83,425	33,000	41,665	8,760	169,497
경기도교육청 (경기체육고)	297	148,161	-	-	68,610	79,551	33,000	32,737	13,814	141,653
강원도교육청 (강원체육중·고)	275	135,263	-	-	63,528	71,735	33,000	30,312	8,423	135,666
충북교육청 (충북체육고)	240	119,614	-	-	55,443	64,171	33,000	26,454	4,717	130,238
충남교육청 (충남체육고)	187	97,822	-	-	43,199	54,623	33,000	20,612	1,011	97,521
전북교육청 (전북체육고)	358	161,564	-	-	82,702	78,862	33,000	39,460	6,402	144,896
전남교육청 (전남체육중·고)	292	137,021	-	-	67,455	69,566	33,000	32,186	4,380	137,695
경북교육청 (경북체육중·고)	347	159,495	-	-	80,161	79,334	33,000	38,248	8,086	278,841
경남교육청 (경남체육고)	264	130,162	-	-	60,987	69,175	33,000	29,099	7,075	129,781
제주교육청 (제주남녕고)	110	71,884	-	-	25,411	46,472	33,000	12,125	1,348	72,514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

그 동안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200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7년 12월)」 등을 비롯하여 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들어 저출산 및 운동선수 기피 현상의 심화에 따른 학생선수 수 감소 문제, 학생선수 성적저하로 인해 중도포기 시 사회부적응 문제로 인해 학원스포츠 전반의 위기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최근까지 정부는 2009년 초·중·고 학교축구 리그대회 개최, 합숙훈련 금지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고, 그 결과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이 도출되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개별 사업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사업목적에 위한 구체적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제도·환경 개선 등의 세부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크게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 강화,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은 학습출발점 점검,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 서비스 체계화, 학습 동기 관리, 학습 이력 관리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출발점 점검은 교육청 및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초학습능력 진단, 학습 환경 분석 등을 통해 학생선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 서비스 체계화는 평소 교사의 수시진단 및 전문검사 도구를 활용한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학습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학습동기 및 학습이력관리는 학습 성취감 부여를 위한 학교 단위의 「개인별 교육 성공 프로그램」 도입 운영 및 SMS, 메일링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진행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 강화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 강화는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습 충실, 방과후 보충학습지도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선수 개별지도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운동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인턴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또래·선배학습도우미, 학부모 등을 활용하여 학교차원에서 방과전·후 보충학습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근 대학과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방과후, 야간, 주말, 방학기간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마련, 스포츠과학 자문단, 동작(영상)분석 자료 등 지원 등의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3)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운동부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와 단위학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분된다. 운동부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부진학생선수 지도, 평가, 학습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승진가산점, 성과급 반영, 표창 등을 통해 학생선수 책임지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위학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및 교육청 단위의 학교경영 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하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에서 진단 및 관리가 어려운 학생선수들이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 제도 및 환경 개선

제도 및 환경 개선은 각종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규정 준수 철저,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1) 각종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이는 학기 중 전국단위의 토너먼트대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대회를 주말리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09년 초·중·고 축구리그제가 본격 실시되어 4~10월에 지역리그제, 11월에 왕중왕전을 거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정규수업 후 훈련

하고 대회는 주말·공휴일·방과 후에 개최되는 관행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대회운영방식의 전환은 현재 학부모, 지도자, 행정가 등 관계자들 간에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같은 주말리그 대회 전환사업을 아이스하키, 야구 등의 타종목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2)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규정 준수 철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회에 참가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현장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를 연간 3~4회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체 53개 종목 중 육상, 체조를 비롯한 12개 종목은 연간 4회 이하, 정구, 탁구, 테니스, 핸드볼 등 대회가 3일 이상 진행되는 41개 종목은 연간 3회 이하로 제한된다(표 5-23 참조). 그러나 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방학 중 개최 대회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표 5-23] 종목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규정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태권, 공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오토,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볼스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3)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사업은 운동부 코치들이 본인이 선수시절 습득한 방식에 의거하여 학생선수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상으로 선수생활 단축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기 학생선수들에게 적절한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해 종목별 표준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이 사업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현장 지도자의 교육적 역량을 담보하고, 사기를 진작하

기 위해 실시한다. 세부사업은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해 전임코치의 경우, 코치관리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및 정원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선발·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경력을 감안하여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5)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생선수의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 관련 조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초·중학교 합숙훈련 전면금지 등 상시 합숙훈련 금지 강화, 선수휴게실, 선수기숙사 학습환경 개선, 정규수업 후 운동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 등의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 합숙훈련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활용되었으나, 학생선수의 발달단계상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초·중학교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기중 상시합숙훈련 금지규정에 대한 변화 추이는 표 5-24와 같다.

[표 5-24] 학기중 상시합숙훈련금지 규정변화 과정

	2004년 ~ 2006년	2008년	2009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기간중의 합숙 및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 - 초등학교 : 학기 중 상시합숙(2주 이상) 훈련 금지 - 중·고등학교 : 상시합숙(2주 이상) 감독교육청에 훈련 계획 제출·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등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 중·고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 계획 제출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중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 고등학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 계획 제출 및 협의
사유	2003. 3. 26 천안초 축구부 화재사건(9명 사망)을 계기로 2004년부터 합숙훈련 제한규정 신설	학원체육 축구 국회결의안(2007. 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7. 12)	국회, 언론 등 요구 →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수립(2008. 5) *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까지 합숙훈련 금지

한편 독일의 스포츠 기숙학교 ‘인터넛(Internat)’을 벤치마킹하여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선수기숙사를 운영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제7절 과제 및 발전방향

학교체육은 해방 후 지금까지 2007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을 포함하여 8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운동기능 습득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에서 신체활동에 내재된 도전, 경쟁, 표현, 여가, 건강의 가치를 학습하는 교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키며 발전해왔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과정 개발 초기의 폐단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적용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자체의 적극적 참여기회를 넓혀 현장의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체육교육 자체의 발전과 달리, 주지교과 중심의 인지학습을 우선시 하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정과체육이 담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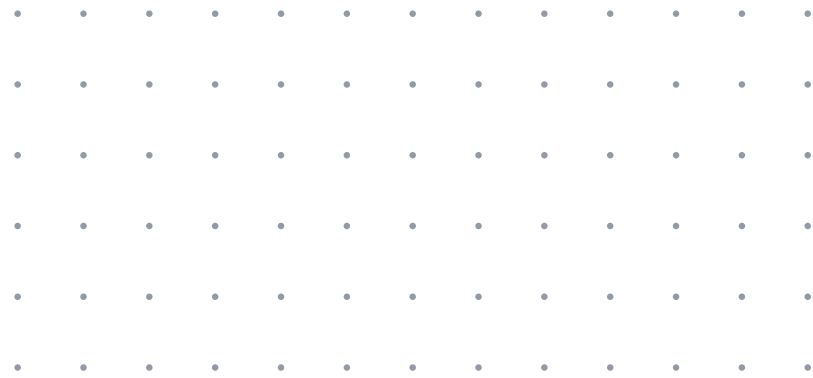
학교체육은 운동장, 체육관을 학습공간으로 하고 신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용기구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현재 학교체육 발전에 기반이 되는 환경, 시설, 용구는 이른바 체육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체육시설 및 용구의 개선은 학교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 및 학교체육 관련 예산이 증가되어야만 가능하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는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선진시설 표준모델 정책연구'를 통한 투자계획 수립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충되었으며, 2006년부터 실시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2009년부터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과 후 자율체육과 특기적성교육의 공간 확보라는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와 같이 학교체육의 발전은 체육교사의 질과도 밀접히 연계된다. 현재 체육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직전교사 교육과 현직교사 교육의 강화를 통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전교사 교육기관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전문능력을 갖춘 체육교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또한 현직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연수, 직무연수 등을 학점화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 재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를 재교육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교육대학원도 정기적 평가를 통하여 현장 교사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학교운동부는 지금까지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기능을 통해 전문체육의 인적토대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학생선수는 신분은 학생이지만 일반 학생과는 달리 전문선수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으며 성장해왔다. 이 결과 해당 연령기에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기회 및 인지기능 발달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는 또래 관계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할 여지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는 학생선수가 선수생활 중에 중도탈락

하게 되는 경우나 향후 선수생활을 은퇴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적 소양 부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개인으로서는 사회전체적으로나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학교운동부 및 체육특기자의 문제는 운동만 하는 기계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2009년 축구 종목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던 주말리그제가 타 종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최저학력기준제 설정,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습보조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정책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학교운동부의 정상적 운영과 체육 특기자의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선수로서 제한된 선수양성체제를 다원화시키는 노력으로서, 학교스포츠클럽과 같은 제도를 통해 체육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도 요구되는데, 이는 인건비와 용구구입 등 운동부 운영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기타 지원금 및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체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문제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만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교체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지속적 추진력이 필요하다.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학교체육행정업무의 전문화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학교체육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체육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하여 학교운동부와 체육특기자 양성, 비만 및 체력저하, 학생의 균형적 성장 발달 등 현안문제 및 사회가 학교체육에 기대하는 국가적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 학교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인식의 개선이 있을 때, 학교체육 발전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전문체육

제1절 개 관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제3절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제4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제6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6장_ 전문체육

제1절 개 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전문체육을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통한 국위 선양, 각종 국내대회 개최,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체계적·과학적 육성·관리, 선수지도를 위한 경기 지도자 양성, 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 경기단체의 운영 및 지원 육성 등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즉, 전문체육은 선수의 운동경기활동은 물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육성 활동 및 관련 단체 및 기구의 지원·육성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기초하여 제반 전문체육 관련 기관, 즉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실업팀 및 각급 학교운동부 등 제반주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이루어지며, 이런 체계상의 특징으로 국내 체육분야의 중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전문체육은 국가의 이미지 및 위상제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기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하에 성장하였다.

정부의 전문체육 육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장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꿈나무선수·후보 선수 등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
- 둘째,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지원,
- 셋째, 선수의 경기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내대회 운영지원,
- 넷째, 프로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다.

제2절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경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계속해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대회 성적에 기초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특기자제도, 우수선수의 병역의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병역특례제도, 군입대로 인한 경기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군체육부대 설치, 선수의 수업결손방지 및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한 체육계학교 운영,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태릉선수촌 운영, 국가대표선수와 후보선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우수선수 양성프로그램의 중추적인 핵심 분야는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후보선수와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다.

1. 꿈나무 선수 육성

우리나라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종목 의존, 기본종목 경기력 저조 등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구조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 국가의 경기력에 대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경기력이 매우 취약하다. 둘째, 소수 정예선수를 대상으로 집중훈련을 통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선수육성 관행으로 선수의 저변이 두텁지 못하다. 셋째, 전략종목 위주의 지원체제로 인하여 종목별 경기력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신인선수 발굴사업

꿈나무 선수 발굴사업은 1993년 신인선수 발굴사업으로 시작되어 후보선수 발굴사업과 통합되는 1995년까지 3년 동안 총 9개 종목 1,204명을 선발, 육성하였다.

[표 6-1]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구분	종목수	종목현황	인원
1993	3	육상, 수영, 체조	200
1994	8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485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2) 기본종목 꿈나무선수 육성

가. 개요

꿈나무선수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 과학적 훈련과 관리를 통해 차세대 국가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취지로 시작 되었으며, 기존 사업이었던 신인선수 선발·육성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 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에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고 여타 종목 선수확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받는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빙상, 스키 종목을 추가하고, 2008년도부터 핸드볼, 탁구, 유도를 포함 8개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나.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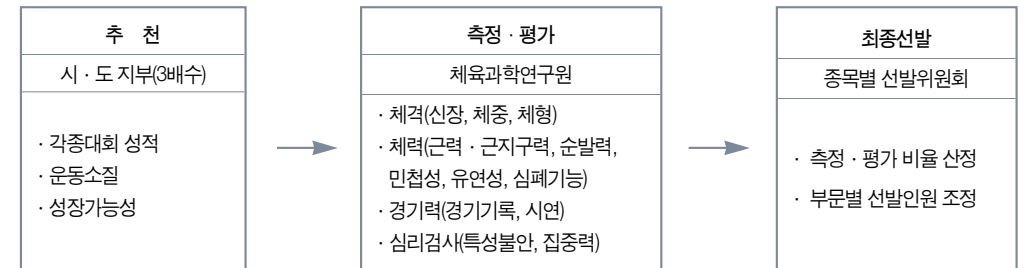
① 선발과정

꿈나무선수 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30~50%), 체력(30~40%), 경기력(20~30%)의 3개 요인을 종합 측정, 점수화한 평가결과와 특성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결과를 합산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4단계로 세분된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이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종목 시·도협회에 추천하고 시·도협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중앙경기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하며, 3단계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발대상자의 측정·평가가 실시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 등을 측정하고 종목별, 연령별,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을 계산,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추진과정에는 해당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전문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3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측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에서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꿈나무선수 선발절차

2009년도에는 기존 5개 종목과 핸드볼, 탁구, 유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 1,047명을 측정·평가하였으며 이는 (표 6-2), (표 6-3)과 같다.

[표 6-2] 2009년도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현황

(단위 : 명)

종목	선발인원	측정·평가 참가인원	측정·평가 일정	장소
육상	80	426	2009. 4. 15~17	대전 신일여고 체육관
수영	40	108	2009. 5. 7~ 8	체육과학연구원, 태릉선수촌
체조	40	69	2009. 4. 29~30	체육과학연구원
빙상	30	48	2009. 5. 6	체육과학연구원
스키	30	110	2009. 4. 27~28	체육과학연구원
핸드볼	30	114	2009. 4. 21/4.24	체육과학연구원
탁구	30	112	2009. 4. 22~23	체육과학연구원
유도	20	60	2009. 5. 11~12	체육과학연구원
총계	300	1,047		

[표 6-3]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단위: 명)

종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종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육상	단거리	21	스키	알파인	12
	중·장거리	19		크로스컨트리	11
	도약	22		스키점프	1
	투척	18		스노우보드	6
수영	경영	25	빙상	스피드	12
	다이빙	11		쇼트트랙	12
	싱크로	4		피겨	6
체조	남자기체조	13	핸드볼	남자	15
	여자기체조	15		여자	15
	리듬체조	12	탁구	남자	15
유도	남자	12		여자	15
		여자	8	총계	300

※ 2009년 12월말 기준

② 훈련 및 관리

2009년도 선발된 꿈나무선수의 훈련·관리 프로그램은 동·하계 합숙훈련을 중심으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24일 이내의 동·하계합숙 훈련을 지원하고,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에 대해 9개월동안 월 500,000 원을 지급하여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시 상해보험을 가입하며,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지도로서 연중 3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층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 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매년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꿈나무선수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③ 합숙훈련 현황

동·하계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숙훈련은 해당 종목별로 실시되며, 해당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의 내용은 표6-4와 같다.

[표 6-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육상	하계합숙훈련	2009. 7.29~ 8.12	충북보은	80	26	106	-
	동계합숙훈련	2009.12.14~22	충북 보은	80	26	106	-
수영	하계합숙훈련	2009. 7. 11~25	서울(서울체고)	40	10	50	-
	동계합숙훈련	2009.12.15~23	경북 김천	40	10	50	-
체조	하계합숙훈련	2009. 7.29~8.12	대전	13	4	17	남
		2009. 7.31~8.14	인천	15	4	19	여
		2009. 8. 7~20	경기 용인	12	2	14	리듬
	동계합숙훈련	2009.12.22~30	부산	13	4	17	남
		2009.12.16~24	인천	15	4	19	여
		2009.12.16~24	경기 용인	12	2	14	리듬
빙상	하계합숙훈련	2009. 7.20~8.3	강원 화천	12	3	15	스피드
		2009. 8. 1~8.15	강원 춘천	12	3	15	쇼트트랙
		2009. 8.12~26	서울 태릉	6	2	8	피겨
	동계합숙훈련	2009.12.21~29	서울 태릉	12	3	15	스피드
		2009.12.28~10.1.5	강원 춘천	12	3	15	쇼트트랙
		2009. 12. 1~9	서울 태릉	6	2	8	피겨
스키	하계합숙훈련	2009. 6.14~27	경기 포천	12	2	14	알파인
		2009. 7.12~25	강원 대관령	11	2	13	크로스
		2009. 7.24~8.6	강원 대관령	1	2	3	스키점프
	동계합숙훈련	2009. 6.14~6.27	경기 포천	6	2	8	스노우보드
		2009.12.20~28	경기 포천	12	21	4	알파인
		2009.12.14~22	강원 대관령	11	2	13	크로스
핸드볼	동계합숙훈련	2009.12.20~28	강원 대관령	1	2	3	스키점프
		2009.12.20~28	경기 포천	6	2	8	스노우보드
		2009. 8.13~27	대전	30	6	36	-
탁구	동계합숙훈련	2009.12.15~23	충북 증평	30	6	36	-
	하계합숙훈련	2009. 8.5~19	경남 거창	30	6	36	-
유도	동계합숙훈련	2009.12.15~23	충북 단양	30	6	36	-
	하계합숙훈련	2009. 7. 6~19	충북 청주	20	6	26	-
	동계합숙훈련	2009.12. 5~13	경기 금곡	20	6	26	-
계				300	80	380	-

2. 후보선수의 효율적 관리

1) 후보선수 관리운영 개요

후보선수 육성사업의 목적은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기력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후보선수를 즉시 대표선수로 충원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을 지원한다. 후보선수 육성사업은 1982년도에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 4,359명을 선발하면서 시작되었고, 1983년부터 각 경기단체가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28종목에 1,300명의 후보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표 6-5의 대표선수 배출비율은 당해연도에 대표선수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보선수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6-6)은 2009년 12월말 기준 국가 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이다.

[표 6-5] 연도별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단위 : 명)

연도별	발굴	탈락	(육성인원) 최종선발	대표선수배출	비율(%)
2003	1,300	-	1,300	54	4.2
2004	1,300	-	1,300	70	5.4
2005	1,300	-	1,300	104	8
2006	1,300	-	1,300	62	4.8
2007	1,298	-	1,298	108	8
2008	1,300	-	1,300	115	8.8
2009	1,300	-	1,300	64	4.9

[표 6-6]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

(단위 : 명)

종목	후보선수수	대표선수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 후보선수출신 대표
육상	135	84	68(81%)	16(19%)
수영	117	53	53(100%)	-
체조	60	28	27(96%)	1(4%)
복싱	30	22	22(100%)	-
레슬링	50	44	41(93%)	3(7%)
역도	30	30	23(77%)	7(23%)
유도	48	44	36(82%)	8(18%)
태권도	48	16	6(38%)	10(62%)
양궁	40	16	11(69%)	5(31%)
사격	84	66	46(70%)	20(30%)
배구	36	24	13(54%)	11(46%)
핸드볼	48	34	30(88%)	4(12%)
하키	48	16	3(18%)	13(82%)
탁구	30	20	18(90%)	2(10%)
근대5종	15	14	10(71%)	4(29%)
펜싱	48	44	29(66%)	15(34%)
테니스	24	8	8(100%)	-
사이클	40	16	15(94%)	1(6%)
조정	30	10	9(90%)	1(10%)
요트	29	22	19(86%)	3(14%)
카누	26	15	13(87%)	2(13%)
배드민턴	60	48	47(98%)	1(2%)
축구	36	20	19(95%)	1(5%)
소프트볼	17	16	11(69%)	5(31%)
아이스하키	25	22	22(100%)	-
바이애슬론	18	12	10(83%)	2(17%)
빙상	78	38	24(63%)	14(36%)
스키	49	30	29(97%)	1(3%)
합계	81	26	62(82%)	15(18%)

※ 2009년 12월말 기준

2) 후보선수 육성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종목은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 등 총 28종목이다.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이며,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의 평가를 한다.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파견훈련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표 6-7] 2009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단위 : 명)

종목	지도자	선수			계	종목	지도자	선수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양궁	4	20	20	40	44	수영	경영	6	33	33	66	72	
육	단·허	5	16	17	33		38	다이빙	3	14	13	27	30
	중·장	4	18	14	32		36	싱크로	2	-	10	10	12
	도약	4	21	8	29		33	수구	2	15	-	15	17
	투척	4	15	14	29		33	소계	13	62	56	118	131
상	혼성	1	3	3	6	7	태권도	4	24	24	48	52	
	경보	1	4	2	6	7	테니스	4	12	12	24	28	
	소계	19	77	58	135	154	배구	4	18	18	36	40	
배드민턴	6	30	30	60	66	역도	4	18	12	30	34		
복싱	4	30	-	30	34	레슬링	그레코	2	21	-	21	23	
카누	4	18	8	26	30		자유형	3	21	8	29	32	
사이클	6	25	15	40	46		소계	5	42	8	50	55	
펜싱	5	24	24	48	53	요트	4	25	4	29	33		
체조	축구	3	-	36	36	39	빙상	스피드	4	15	15	30	34
	기계	6	27	21	48	54		쇼트트랙	4	24	12	36	40
	리듬	2	-	12	12	14		피겨	2	3	9	12	14
	소계	8	27	33	60	68		소계	10	42	36	78	88
핸드볼	4	24	24	48	52	스키	알파인	2	12	8	20	22	
하키	4	24	24	48	52		크로스	2	13	8	21	23	
유도	4	24	24	48	52		스키점프	1	4	-	4	5	
근대5종	2	10	5	15	17		스노보드	1	4	-	4	5	
조정	5	17	13	30	35	소계	6	33	16	49	55		
사격	10	49	35	84	94	바이애슬론	2	12	6	18	20		
소프트볼	2	-	17	17	19	아이스하키	2	25	-	25	27		
탁구	4	15	15	30	34	계(28종목)	152	720	580	1,300	1,452		

[표 6-8] 2009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 경기단체 훈련비 보조	5,412,761	
- 동·하계 합숙훈련	3,915,887	○ 종목 : 28개 종목 ○ 인원 : 1,452명 (선수 1,300 지도자 152) ○ 동·하계합숙훈련비 3,823,966 ○ 운영비 82,445 ○ 여비 7,566 ○ 업무활동비 1,910
- 국외전지훈련	262,144	○ 훈련종목 : 8개 종목 10세부종목 ○ 훈련인원 : 140명 (선수 120 지도자 20) ○ 항공료 122,020 ○ 체재비 140,124
- 전임지도자 운영	1,234,730	○ 종목 : 22개종목 ○ 인원 : 29명 ○ 인건비 1,070,527 ○ 운영비외 118,963 ○ 순회지도여비 45,240

3) 전임지도자 제도 운영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 제도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13종목 20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월 20일 이상 전국단위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는 1985년 대한체육회 회장이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 1년인 전임지도자를 임명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처우를 보장해주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였고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전임지도자의 주요 업무는 첫째, 후보선수의 발굴·추천 및 선발관리. 둘째,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과 국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관리. 셋째, 후보선수 소재 지방순회지도. 넷째, 후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 다섯째, 대표선수 훈련지원. 여섯째, 연간 및 월별 업무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일곱째,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참석. 여덟째, 기타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 22종목에 29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미임용 종목은 수영(경영), 사이클, 근대5종, 테니스, 빙상 등 5종목이다.

이들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엘리트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대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종목에서 공금유용 등 회계문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고 현 시스템은 전임지도자의 지도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6-9]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종 목	정 원	현 원	종 목	정 원	현 원
육상	단거리	1	1	핸드볼	1	1
	중·장거리	1	1	하키	1	1
	도약	1	1	조정	1	1
	투척	1	1	사이클	1	미입용
수영	경영	1	미입용	테니스	1	미입용
	다이빙	1	1	탁구	1	1
	싱크로	1	1	배구	1	1
체조	남자(기계)	1	1	배드민턴	1	1
	여자(기계)	1	1	펜싱	1	1
레슬링	자유형	1	1	요트	1	1
	그레코	1	1	카누	1	1
	복싱	1	1	근대오종	1	미입용
	유도	1	1	축구(여)	1	1
	역도	1	1	빙상	1	미입용
	양궁	1	1	스키	1	1
사격	공기총	1	1	아이스하키	1	1
	화약총	1	1	바이애슬론	1	1
계					34	29

제3절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시설 확충

1.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사업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는 중점지원종목의 경우 엔트리의 1.5~2배수로 훈련을 실시하고 아시안게임 종목의 경우에는 엔트리의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훈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가대표 코치는 효율적인 훈련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하며 세부 종목수 및 종목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는 다음의 (표 6-10), (표 6-11), (표 6-12)와 같다.

[표 6-10] 2009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단위 : 명)

구 분	종목수	인 원				계
		코 치	선 수			
			남	여	소계	
하계종목	39	173	611	410	1,021	1,194
동계종목	7	27	85	59	144	171
계	46	200	696	469	1,165	1,365

[표 6-11]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단위 : 명)

연도	종목수		인원			계	총계
			코치 (트레이너 27명)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1	하계	37	112	387	252	751	883
	동계	6	18	68	46	132	
2002	하계	38	118	456	294	868	1,010
	동계	6	19	75	48	142	
2003	하계	28	102	340	239	579	830
	동계	6	21	75	53	128	
2004	하계	38	117	391	254	645	905
	동계	6	20	75	48	123	
2005	하계	39	143	521	378	1,042	1,203
	동계	6	20	83	58	161	
2006	하계	38	157	532	356	1,045	1,175
	동계	6	19	53	58	130	
2007	하계	38	156	510	354	1,020	1,171
	동계	6	21	74	56	151	
2008	하계	39	157	542	327	1,026	1,187
	동계	6	23	77	61	161	
2009	하계	39	173	611	410	1,194	1,365
	동계	7	27	85	59	171	

※ 자료 : 대한체육회(2009)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연간 200일 이내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전문체력육성 및 기술연마를 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개인 및 단체 특기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대표선수대상 훈련은 태릉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에서 실시되는 촌내훈련과 종목별 전용훈련장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촌내훈련은 촌내 및 인근지역 훈련시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훈련여건상 불가피한 종목이나 자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촌외훈련이 실시된다.

국내전지훈련은 태백선수촌 및 무주훈련장 등을 활용하며, 특별훈련으로 파트너 훈련, 크로스컨트리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등이 병행된다. 파트너 훈련은 메달유망 종목 및 상대성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크로스컨트리훈련은 선수촌 입촌종목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였으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였다. 세부 훈련종목은 표 6-13과 같다.

[표 6-12] 2009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

(단위 : 명)

구분	종목	세부종목			인원			계	
		남	여	혼성	코치	선수			
						남	여		
하계 (39)	양궁	2	2	-	5	8	8	16	21
	육상	24	22	-	9	55	25	80	89
	배드민턴	3	3	1	7	24	24	48	55
	야구	1	-	-	3	2	40	24	27
	농구	1	1	-	4	12	12	24	28
	복싱	11	-	-	3	10	2	12	15
	카누	12	4	-	3	8	8	16	19
	사이클	12	7	-	3	22	0	22	25
	승마	-	-	6	3	14	5	19	22
	펜싱	6	6	-	6	18	8	26	32
	축구	1	1	-	3	12	0	12	15
	체조	9	9	-	6	22	22	44	50
	핸드볼	1	1	-	4	20	18	38	42
	하키	1	1	-	2	6	6	12	14
	유도	8	8	-	10	12	18	30	40
	근대5종	1	1	-	6	24	24	48	54
	조정	8	6	-	6	22	22	44	50
	요트	6	3	4	6	16	16	32	38
	사격	26	18	-	2	8	5	13	15
	소프트볼	-	1	-	3	4	4	8	11
	수영	25	26	-	2	6	6	12	14
	탁구	3	3	1	3	29	0	29	32
	태권도	8	8	-	5	20	10	30	35
	테니스	3	3	1	2	12	12	24	26
	트라이애슬론	1	1	-	11	43	22	65	76
	배구	2	2	-	2	0	16	16	18
	역도	8	7	-	3	6	6	12	15
레슬링	14	4	-	2	5	5	10	12	
당구	8	2	-	9	35	19	54	63	
볼링	6	6	-	4	10	10	20	24	
골프	2	2	-	4	16	16	32	36	
공수도	8	5	-	2	8	4	12	14	

(단위 : 명)

구분	종목	세부종목			인원				계
		남	여	혼성	코치	선수			
						남	여	계	
하계 (39)	럭비	1	-	-	2	4	4	8	10
	정구	3	3	1	6	12	12	24	30
	세팍타크로	3	3	-	7	16	14	30	37
	스쿼시	1	1	-	8	28	8	36	44
	우슈	8	3	-	2	8	7	15	17
	인라인롤러	4	4	1	3	6	6	12	15
댄스스포츠	-	-	10	2	6	6	12	14	
소계	39종목	241	177	25	173	611	410	1021	1194
동계 (7)	빙상	11	11	2	8	17	19	36	44
	스키	15	12	-	6	22	8	30	36
	아이스하키	1	1	-	4	22	21	43	47
	바이애슬론	1	1	-	3	6	6	12	15
	컬링	5	4	-	2	5	5	10	12
	루지	1	1	-	1	3	0	3	4
	봅슬레이스켈레톤	1	1	-	3	10	0	10	13
소계	7종목	35	31	2	27	85	59	144	171
합계	46종목	276	208	27	200	696	469	1,165	1,365

[표 6-13] 2009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구분	종목수	종목
하계 종목	올림픽 및 아시아 종목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아시아 종목	야구, 당구, 볼링, 골프,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정구, 스쿼시, 우슈,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소계	-
동계종목	7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계	46	-

2) 경기력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선진 경기기술 습득, 스포츠선진국에 지도자 파견을 통한 국외정보의 수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국외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은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의 습득과 상대성 전술개발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훈련 참가 종목의 임원 및 선수의 엔트리 범위 이내에서 참가하게 된다. 국외전지훈련기간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의 경우 연중 2~3회, 1회 당 30일 이내이며, 기타 종목은 1회 20일 이내이다. 2009년에는 29종목 73건 1,063명(임원 212명, 선수 851명)이 참가하였다.

[표 6-14]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임원			지원금액		
		계	임원	선수	계	국고	기금
2002	8(10)	119	23	96	302,909	-	302,909
2003	19(27)	478	85	393	1,400,229	1,400,229	-
2004	13(40)	588	118	470	1,529,766	1,529,766	-
2005	14(29)	376	67	309	964,025	964,025	-
2006	26(57)	909	181	728	2,357,304	2,357,304	-
2007	27(56)	1,375	252	1,123	929,398	3,929,398	-
2008	33(94)	1,344	260	1,084	4,321,330	2,016,084	2,305,246
2009	29(74)	1,063	212	851	3,212,547	359,136	2,853,411

나. 외국인코치 초청사업

외국인코치 초청사업은 스포츠선진국의 경기기술 습득 및 취약한 전술전략의 습득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 및 경기력 취약종목, 경기력향상과 지도자 자질향상에 효과가 큰 종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다. 초청대상 외국인 코치는 세계 정상급 선수경력 보유자, 세계 정상급 선수지도 유경험자 및 현 지도자인데, 2009년도에는 4종목에서 5명이 초청되었다.

[표 6-15]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수	국가수	지 원 금 액		
				계	국 고	기 금
2002	4(4)	4	3	41,063	-	41,063
2003	5(5)	6	-	112,653	112,653	-
2004	3(4)	4	4	92,372	92,372	-
2005	1(1)	1	1	29,944	29,944	-
2006	5(8)	8	7	244,892	244,892	-
2007	6(7)	8	6	203,012	36,321	166,691
2008	4(6)	9	4	192,370	60,786	131,584
2009	4(4)	5	4	203,445	66,007	137,438

다.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참가를 통해 지도자 자질 향상, 주요 국제대회파견 상대국 전력 탐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는 종목별 국가대표코치와 훈련필수 지원요원(행정, 지도위원 등)이다. 정보를 수집할 대상은 세계정상급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 각종 국제스포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지, 체육선진국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체계, 훈련시설 등이며 기간은 종목별 10일 내외이다. 2009년에는 17종목 23건 42명이 파견되었다.

[표 6-16]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회)	인원수	국가수	지 원 금 액		
				계	국 고	기 금
2002	325	5	38,480	-	-	38,480
2003	15	25	14	68,718	68,718	-
2004	14(27)	48	19	123,100	123,100	-
2005	19(24)	40	14	92,574	92,574	-
2006	18(21)	35	12	70,446	70,446	-
2007	15(17)	27	13	70,738	70,738	-
2008	18(24)	33	17	87,065	87,065	-
2009	17(23)	42	15	131,948	63,768	68,180

3)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내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도에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을 3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대표팀 경기력 향상지원, 대표선수 훈련 과학화를 위한 정보 제공,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제공의 하위영역별 각종 사업으로 분류된다.

첫째,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획득이 유망한 종목 18개를 중점/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훈련, 체력훈련, 심리훈련을 지원하였다. 기술지원 훈련은 실시간 기술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동작의 즉각적 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선수 및 팀의 기술 향상을 도모했으며, 종목별 체력측정 및 훈련처방제공, 주기별 체력평가에 의한 향상도 평가지원 등을 통해 체력훈련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장면에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 진단 연구, 심리기술 훈련 등의 심리 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과학교실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원간 공동으로 경기력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선진화된 종목별 특성화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종목별 체력진단평가설명회, 대표팀 전체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대표팀 코치 및 선수 개인의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자율훈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도자 선수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셋째, 정보분석·제공을 위해 선수의 실전 적응력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 기술 분석을 통해 선수 및 코치의 기술, 전략 이해도를 증대하기 위해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현 지조사 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파견 정보 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선수촌내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훈련 참가 전 건강진단과 영양관리(교육, 상담, 지도)를 지원하였으며, 약물복용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팀닥터와 물리치료를 두어 부상방지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종목별 체력강화 훈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4)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가. 명량한 촌내생활 환경 조성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입촌선수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수촌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선수들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챔피언 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 저명인사 및 체육계 인사 또는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월 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국가관,

사명감,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본교양을 함양하며 정서순화 및 긴장감 해소를 도모한다. 셋째, 종교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나. 학생선수 학업증대

학생선수들의 훈련으로 인한 학업손실을 보전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거주 학생의 오전수업 참가를 보장하고, 지방거주 학생 대상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고교 소속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훈련장 인근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양양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선수과 코치의 사기양양을 위해 선수수당과 코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선수수당은 30,000원이며 코치수당은 월 3,300,000원이다.

[표 6-1기]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급 식	18,000 → 21,000	21,000	24,000	24,000	24,000	26,000	26,000
숙 박	11,000 16,000	11,000 →	18,000	18,000	18,000	20,000	20,000
선수수당 (1일)	5,000 →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코치수당	1,521천원 → 2,021천원	2,021천원 → 2,800천원	3,0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	3,300천원(유직장) 3,800천원(무직장)

2.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확충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무주합숙소를 관리·운영한다.

가.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에서는 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배구, 축구, 유도, 레슬링, 육상, 수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등 하계올림픽 종목을 비롯하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의 선수를 수용한다. 입촌 대상자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예정 선수이다. 태릉선수촌은 총 93,985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3만 여 평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① 숙 소

숙소동(남자)은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1996년에 건립하였으며, 여자전용 숙소는 기존의 올림픽의 집과 외국인숙소를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210명 수용규모로 건립하였다.

②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모두 11개로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상 1층의 월계관은 1978년 건립, 2001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관과 연수관은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으로 2003년 신축하였다. 배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리관은 1973년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으며, 농구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체육관은 1983년에 건립,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경영, 수구, 싱크로 등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실내수영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1985년에 건립하였다. 특히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을 위해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지상 1층으로 3,056평 규모이다.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을 위해 2005년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실내빙상장을 신축하였다.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던 감래관은 여자선수 숙소용으로 리모델링중에 있으며, 필승체육관 A는 우수 종목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978년에 건립되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5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을 위해 2000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는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규모의 시설로서 동하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선수의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며, 서울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 학습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빙상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옥외시설

태릉선수촌의 옥외시설에는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110×50M 규격의 양궁장은 2005년 새로 단장되어 양궁국가대표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크로스컨트리코스는 입촌선수의 기초체력훈련 용도로 사용되는데 1.6km×3M의 규격으로 부상 방지를 위해 톱밥이 포설되어 있다. 그리고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구장은 400M트랙 6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④ 부대시설

태릉선수촌의 부대시설로는 선수회관(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이 있다. 이 가운데 영화관, 음악감상실, 당구장, 임원실, 이용실 등 위락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수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986년에 건립되었다. 행정업무 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나. 태백선수촌 및 무주합숙소

① 태백선수촌

태백시 함백산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96년 6월에 개촌되었으며,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사우나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 관리동 등의 시설이 있다. 태백선수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9,761평(32,267㎡)으로 120평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 및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빙상 등 21개 종목의 훈련이 가능하다.

② 무주합숙소

무주합숙소는 국가대표선수의 동계훈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숙박이 가능한 19평 4인용 3실, 28평형 6인용 4실, 39평형 8인용 3실을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 받아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표6-18]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태릉선수촌 : 306,153㎡, 태백분촌 : 61,486㎡)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인원	규모	건립연도
태릉	숙소 (2)	올림픽의 집	250실	지상 4, 지하 2(13,906㎡)	1996
		영광의 집	102실	지상 4, 지하 1(5,639㎡)	2003
	훈련 시설 (14)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 1 (1,697㎡)	1978
		개선관	체조, 탁구, 역도, 펜싱, 태권도	지상 2, 지하 1 (7,792㎡)	2003
		승리관	배구, 유도	지상 3 (2,075㎡)	1973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 2, 지하 1(1,593㎡)	1983
		실내수영장	경영, 수영, 싱크로	지상 1, 지하 1(2,644㎡)	1985
		오류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 1 (10,102㎡)	2000
		감래관	29실	지상 4, 지하 2(1,877㎡)	2008
		태릉국제스키이트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 3, 지하 1(27,067㎡)	2000
		필승주체육관	리듬체조, 레슬링	지상 3, 지하 1(4,402㎡)	1978
		필승보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 2, 지하 1(5,056㎡)	2005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 4, 지하 1(5,477㎡)	2005
		양궁장	양궁	110 X 50M	2005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트랙 6레인, 인조잔디	1984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인원	규모	건립연도
태백 (22)	부대 시설 (6)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 2, 지하 1(2,523㎡)	1986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 2, 지하 2(1,917㎡)	1987
		수위실(정문)	수위실	지상 1(31,36㎡)	2003
		수위실(연구원)	수위실	지상 1(62,28㎡)	1966
		양궁장부속시설(사선대)	사대	지상 2 (408㎡)	2005
태백	시설	숙소, 체육관	68명(17실~4명)	지상 2(2,538㎡ : 행정동 포함)	1997
		행정동	-	지상 2, 지하 1	
무주	숙소	무주합숙소	60명 38평 : 3실×8명 28평 : 4실×6명 19평 : 3실×4명	무주리조트	1997. 8 ~ 2022. 7

※ 출처 :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내부자료

3)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태릉선수촌은 입촌선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설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선수에게 쾌적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훈련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첨단화된 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경제성, 훈련의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월계관 증축 및 보수,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스탠드 조성, 선수회관 내부 보수 등 기존시설 개보수를 실시 하였으며, 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오륜관, 개선관, 실내빙상장, 필승관 등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가. 기존시설의 개·보수(2009년)

노후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유지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코치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는데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19] 2009년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9	체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	658
	올림픽의 집 환경 개선공사	364
계	-	1,022

[표 6-20]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	9,034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4,937
	국고	-	9,034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2,500	1,022
	기금	-	0	0	0	0	0	0	0	0	2,437	0
1. 기존시설 개보수	국고	-	2,156	1,305	834	1,293	3,445	694	2,092	1,700	1,500	658
	소계	-	6,878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3,437	364
2. 신규시설 확충	국고	-	6,878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1,000	364
	기금	-	0	0	0	0	0	0	0	0	2,437	0

나. 신규시설의 확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내 노후시설 철거후 현대식 훈련시설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집약적으로 현대화·첨단화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21]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3	○ 종합체육관 건립	3,070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	6,509
2004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계	-	8,500
2005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계	-	9,061
2006	○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소계	-	750
2007	○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 필승기숙사(A,B,C)동 철거후 부지정리	452
소계	-	932
2008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0
2009	○ 올림픽의 집 환경개선	364
소계	-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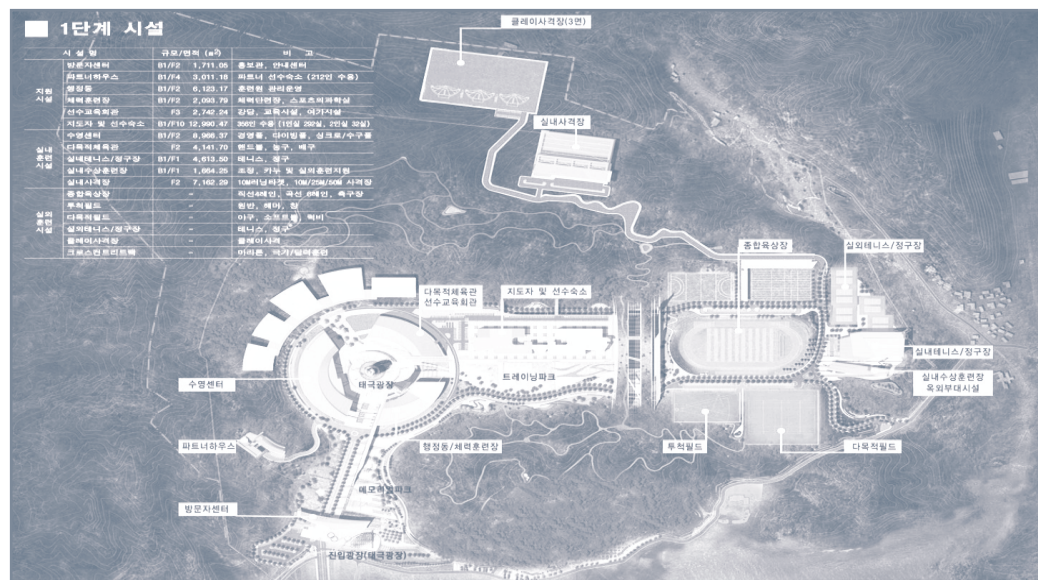
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데,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대표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5년도 11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을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이

에 따라 부지면적 856,253㎡, 연면적 56,124㎡, 구조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로 주요 건립 시설물은 실내육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숙소동, 편의 및 교육시설, 행정동, 스포츠의·과학센터, 육외훈련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추진 계획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조감도



[그림 6-3]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

[표 6-22]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금액비고
2001. 6	○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요구(3회)	문화재청
2003. 3	○ 선수촌 장기이전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 6	○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 8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 3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 9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 불가능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2004.12	○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 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 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11	○ 선수촌이전 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대한체육회
2006. 3	○ 선수촌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 5 ~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 1 ~ 2008.10	○ 기본·실시 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 공사계약(단기 방식)	대한체육회
2009. 2. 5	○ 집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 5. 18	○ 본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 ~ 2011.8	○ 공사 완공 예정	대한체육회

○ 주요시설 : 지원시설, 실내훈련시설, 실외훈련시설 등 13개 종목

구분	건립시설명
지원시설	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방문자센터, 스포츠의/과학실, 선수숙소(350명), 파트너하우스
실내 훈련시설	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 사격장, 조정/카누경기장
실외 훈련시설	종합훈련장, 투척필드, 다목적필드(소프트볼, 럭비, 야구),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제 4 절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국내 체육대회 개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일반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 창설 이후부터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과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자질있는 우수선수 육성과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국내 체육대회는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 대회 등이 있다.

1. 전국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全朝鮮) 야구대회에서 기원하는데, 1920년에 조선체육회의 창립을 계기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행해져 오던 모든 경기를 조직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한 이래, 각종 경기대회가 종목별로 개최되었다. 이후 1925년에 당시 경성운동장이 완공되면서 근대적 시설을 갖춘 운동장에서 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1934년부터 축구, 야구, 농구, 육상, 정구 등 5개 종목 경기를 통합한 조선체육회 창립 제15주년기념 전조선 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1938년 조선체육회가 해산되면서 광복전해인 1944년까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체육인들은 조선체육동지회를 조직하였으며, 제26회 전국체육대회를 10월 27일부터 5일간에 걸쳐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재개최하였다.

1946년 제27회 대회는 대회명칭을 조선올림픽대회라 칭하여 경기대회의 국제화 추세를 부각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948년의 제29회 대회 때부터 전국체육대회로 대회명을 변경하였으며, 경기운영방식을 시·도대항전으로 전환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중단되었으며, 1951년 제32회 대회는 전란 중에도 불구하고 피난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의 제33회 대회부터 이후 5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하였고, 1957년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의 체육시설 확충, 해당 시도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 시·도에서 대회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체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66년 제47회 대회부터 매년 대회표어를 채택하여 참가선수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1967년 제48회 대회부터 우리나라 체전사상 처음으로 카드섹션을 도입하여 연출하기도 하였다. 1972년 제53회 대회부터 해외동포선수단이 모국의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미동포가 최초로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참가한 이래 전국체전은 국내·외 동포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산실로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도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재정적 낭비가 많고 대회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일반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져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어 전국체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제90회 전국체육대회(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마음을 하나로, 대전을 세계로’이라는 구호아래 대전광역시에서 1994년 제75회 대회 이후 15년만에 개최 되었으며 경기장의 신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지방의 체육기반 시설 및 경기용구의 확충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41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시범종목에 선수 18,264명, 임원 6,277명이 참가하였고 해외동포선수단은 16개국에서 988명이 참가하였다. 동호인종목은 총 16개 종목에 3,023명이 참가하였다. 종합시상의 경우에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이며 대한체육회 우승기를 제공하며 종목별종합시상은 1, 2, 3위에 대한체육회 회장배를 제공한다.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1위 금메달과 상장, 2위 은메달과 상장, 3위 동메달과 상장을 수여하며 이외에도 최우수선수상(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선수에게 수여), 특별표창(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선수와 비기록의 경우 특별한 경기실적을 발휘한 선수나 팀에게 수여) 등이 있다. 종합1위는 경기도선수단, 종합2위는 서울특별시선수단, 종합3위는 대전광역시선수단이 시상하였다. 경기력부문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신기록이 140개가 증가되어 대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초종목인 수영에서의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육상 여자일반부 200m에서는 23년만에 한국신기록이 수립되어 언론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대회에 앞서 우주·과학·문화가 함께하는 문화제전을 추진하며 개·폐회식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 접목하여 창조체전을 추구하였다. 다만 대회개최에 앞서 우주과학도시축전같은 행사가 실시된 결과 대회에 대한 지역호응도 저하, 숙박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3) 연도별 개최현황

[표 6-23]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현황

회 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순 위		
					1위	2위	3위
84회	2003.10.10~16	전북	40	23,732	경기	서울	전북
85회	2004.10. 8~14	충북	41	25,848	경기	서울	충북
86회	2005.10.14~20	울산	41	26,930	경기	서울	경북
87회	2006.10.17~23	경북	41	23,319	경기	경북	서울
88회	2007.10. 8~14	광주	41	23,612	경기	서울	광주
89회	2008.10.10~16	전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90회	2009.10.20~26	대전	44	24,541	경기	서울	대전

2.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 비롯된다. 그 후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조선(全朝鮮)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고, 그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의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신설되었다. 한편 스키 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흥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인데, 당시의 정황상 주로 일본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다.

광복이후 1946년 1월 한강특설링크에서 빙상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오늘날의 빙상경기대회로 연결되었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 실내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키를 제외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의 3개 종목 경기를 한자리에서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채점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동계 스포츠는 동계올림픽에서 10위내 성적을 거두었으며(1990년 프랑스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10위,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에서 6위,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에서 9위,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7위를 차지함), 각종 국제 대회에서 무수한 신기록이 작

성되고 우수선수가 육성 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내 국제스케이팅장을 포함한 실내 스케이팅장 개장, 10여개에 이르는 스키장 건설, 스키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시설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8년 동계 올림픽 한국유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는 2009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총 3,43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등 5종목이었으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경기 개최 전 해당중앙경기단체와 협의로 통해 대회기간이 IBU 세계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2009년 2월 14일~22일) 및 제24회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9년 2월 18일~28일)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다수 경기시설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장소 확보에 문제가 있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의 동기간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주 개최지인 강원도 용평리조트와 대한체육회의 협조체계 구성으로 원만하게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종합시상은 1위는 경기도선수단, 2위는 경기도선수단, 3위는 서울특별시선수단이 시상하였다.

3) 연도별 개최현황

[표 6-24]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 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순 위		
					1위	2위	3위
85회	2004. 2. 18~20	전북	5	2,918	경기	강원	서울
86회	2005. 2. 24~26	서울, 경기, 강원	5	3,363	경기	강원	서울
87회	2006. 2. 1~ 4	서울, 경기, 강원	5	3,192	경기	강원	서울
88회	2007. 2. 21~24	서울, 경기, 강원, 경북	5	3,293	경기	강원	서울
89회	2008. 2. 19~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90회	2009. 2. 10~13	서울, 경기, 강원	5	3,434	경기	강원	서울

3.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1) 약 사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소년·소녀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목적으로 ‘스포츠 소년단’이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면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 36회를 맞게 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꿈나무 선수발굴의 산실로서 그 위상 및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실제로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대부분이 이 대회 출신이며, 특히 1986 서울 아시안게임, 1988 서울 올림픽 참가선수의 약 50% 정도가 소년체전에서 발굴된 선수로서, 동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총 금메달의 72%가 소년체전을 통해 발굴된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전은 시·도간의 지나친 과열경쟁,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증가, 선수의 수업 결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89년부터 전국단위체전 형태를 폐지하고 시·도별 소년체전으로 경기진행방식을 전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등록선수 감소, 경기부 해체, 초·중학교 선수의 경기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2년부터 종합순위에 대한 시상을 폐지하고 개인시상만을 실시하는 개선책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개최후보신청 시·도의 부족으로 개최장소의 선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시설 및 인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대회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회기간을 청소년의 달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그동안 전국소년체전은 지방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의 학교운동부 육성 확대,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한 바 있으나 해가 거듭될 수록 다시 시·도간 과열경쟁과 참가규모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과 역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소년체전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09년)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아래 16,98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기초적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

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질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대회라 평가할 수 있었다. 우선 대회규모 및 참가인원을 분석하였을 때 전년도에 비해 종목이 1개가 증가된 33개 종목(정식 30, 시범 3)으로 대회가 운영되었으며, 경기장 운영은 전년도에는 총 44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운영하였으나,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총 47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운영하였다.

참가인원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참가선수수가 171명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력을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앞서 전라남도 여수시는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5월 12일~15일)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회준비에 있어 여수시와의 사전협조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국단위 행사의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회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5]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 수	대 회 기 간	장 소	참가 인원	순 위			종 목 수 (정식·시범)	비 고
				1위	2위	3위		
30	2001.6. 2~5. 5	부 산	15,669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볼링
31	2002.5.11~5.14	충 남	15,970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볼링
32	2003.5.31~6. 3	제 주	16,113	개인시상			29/1	시범종목(1): 볼링
33	2004.5.29~6. 1	전 북	16,358	개인시상			30	-
34	2005.5.29~6. 1	충 북	16,524	개인시상			30	-
35	2006.6.17~6.20	울 산	16,358	개인시상			30	-
36	2007.5.26~5.29	경 북	16,581	개인시상			31	시범종목(1): 소프트볼
37	2008.5.31~6. 3	광 주	16,816	개인시상			30/2	시범종목(2): 소프트볼, 요트
38	2009.5.30~6. 2	전 남	16,98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제5절 프로경기의 진흥

1. 종목별 프로단체 현황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1982년 한국프로야구리그의 출범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프로권투와 프로레슬링의 프로스포츠 종목이 지속되어 왔으나, 당시의 프로야구의 출범은 스포츠를 거대 산업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2009년 12월 기준 축구, 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남·여), 남자골프, 여자골프, 볼링, 권투, 레슬링, 바둑 등 9개 종목에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대한프로레슬링협회, (재)한국기원 등 10개 프로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15개 구단, 배구 12개 구단, 야구 8개 구단, 남자농구 10개 구단, 여자농구 6개 구단 등 총 51개 구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표 6-26] 프로단체 현황(2009. 12말 기준)

종목 구분	축 구	야 구	농구(남)	농구(여)	배 구	
단체명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대표	곽정환회장	유영구총재	전육총재	김원길총재	이동호총재	
구단수	15	8	10	6	남 7	여 5
구단명	제주 유나이티드 FC	서울 두산 베어스	서울 삼성 썬더스	부천 신세계 쿨캣	인천 대한항공	인천 GS칼텍스
	울산 현대 호랑이	서울 LG 트윈스	서울 SK 나이츠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대전 삼성화재	대전 KT&G
	수원 삼성 블루윙즈	광주 기아 타이거즈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용인 삼성생명 비추미	구미 LG화재	구미 한국도로공사
	성남 일화	대구 삼성 라이온즈	대구 오리온스	천안 KB 세이버스	천안 현대 캐피탈	수원현대 그린폭스
	부산 아이파크	부산 롯데 자이언츠	울산 모비스 피버스	춘천 우리은행 한새	신협상무	천안흥국생명
FC 서울	대전 한화 이글스	원주 동부프로미	구리 금호생명 레드윙스	마산 한국전력		
전북 현대 모터스	서울 넥센 히어로즈	안양 KT&G 카이츠		서울 우리캐피탈		
전남 드래곤즈	인천 SK 와이번스	전주 KCC 이지스				
포항 스틸러스		KTF 매직윙스				

종목 구분	축 구	야 구	농구(남)	농구(여)	배 구	
	대전 시티즌 대구 FC 광주상무 불사조 인천 유나이티드 FC 경남 FC 강원 FC	-	창원 LG 세이커스	-	-	-

종목 구분	골 프(남)	골 프(여)	볼 링	권 투	레슬링	바 둑
단체명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사)대한프로레슬링협회	(재)한국기원
대 표	박삼구회장	선중구회장	김연식회장	김주환회장	김수홍회장	허동수 이사장

1) 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프로축구연맹(Korea League)은 1983년 2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슈퍼리그 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슈퍼리그 위원회는 1983년 5월 슈퍼리그라는 명칭으로 프로리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까지 다각적으로 프로화를 모색했던 한국축구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출발한 슈퍼리그는 프로 2팀, 아마추어 3팀이 참가하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20년간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프로축구는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중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울산, 전남, 전북, 포항, 안양 등 10개팀이 참가한 2002년 K-리그에서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7월 7일 개막전에 총 12만 3천여명이 입장, 역대 일일 최다관중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이어 열린 11일 경기에는 총 10만 8천여명이 입장, 역대 일일 2번째 기록이자, 평일 최다관중 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토, 일 양일간에 벌어진 다음 경기에는 총 13만 8천여명의 관중이 입장, 역대 주말(토, 일 합산) 최다관중 신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17일에 열린 4차전에서는 총 11만 5천여명을 끌어들이며 11일에 수립했던 평일 최다관중 기록을 1주일만에 경신하는 등 매 경기 관중기록을 경신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된 가운데 2003년에는 프로축구계의 숙원이던 리그 참가팀 수의 증가가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시민구단인 대구 FC와 광주 상무 불사조 두개의 팀이 추가되어 총 12개 팀이 리그에 참여하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2003년 시즌은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전년대비 약 30%의 관중수 감소를 보임으로써 한국

의 프로축구리그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6-27] 프로축구연도별 관중수 변화추이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5	240	2,873,351	11,972
2006	275	2,448,128	8,806
2007	254	2,746,749	10,814
2008	253	2,94,5400	11,642
2009	256	2,811,651	10,983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컵대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이후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팬들의 관심 속에서 2005년까지 총 관중수 및 평균 관중수가 꾸준히 증대되었다. 2009 프로축구리그는 전년대비 3경기가 늘었으나 총 관중수 및 평균 관중수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 FC와 수원 삼성의 저조한 성적과 프로야구 등 다른 종목의 출현으로 전체적인 흥행의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는 1981년 12월 창립총회로 시작되어 1982년 3월 (사)한국야구위원회로 법인허가를 받고 그 해 프로야구 원년리그를 치른 이래 현재까지 28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고교 및 대학야구와 실업야구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1981년, 삼성, 롯데, MBC, OB, 해태, 삼미 등 6개 구단을 회원으로 하는 프로야구 창립총회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밝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이란 기치아래 개최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들 6개 팀은 드디어 1982년 3월 첫 경기를 가지며 프로야구시대를 열었으며, 지역연고제의 도입, 홈 앤드 어웨이제의 실시, 일년 시즌의 장기 레이스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스포츠경기 체제에서는 행해지지 못했던 현대적 프로스포츠의 운영방식을 최초로 접목시켰다.

프로야구 개막 초에는 총 240경기에 불과했지만 28시즌을 넘긴 지금은 총 549경기가 벌어질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팀의 수도 최초로 6개 팀에 불과했으나, 1986년 빙그레(현재의 한화구단)가 충청권을 연고로 제7구단을 창단했고 1991년 창단된 쌍방울을 포함 지금까지 8개 구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관중수의 면에서 보면 개막년도에 143만 8,76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634만 7,547명으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

에 이어 지난 3월에 있었던 제 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이 프로야구에 대한 인기로 이어진 것에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표 6-28] 프로야구 관중입장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5	517	3,640,690	7,042
2006	518	3,240,992	6,257
2007	517	4,410,340	8,531
2008	518	5,636,191	10,860
2009	549	6,347,547	11,562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3) 한국농구연맹

1990년대 초반부터 프로화를 모색하던 농구계는 1995년 10월 한국농구연맹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6년 10월 한국농구연맹을 창립, 그해 11월 (사)한국농구연맹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96~1997 시즌으로 첫 리그를 시작하였다. 대학농구와 실업농구에 대한 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 프로농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미국식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국농구연맹의 노력에 힘입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6-29] 남자프로농구 관중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6	288	1,109,793	5,899
2007	291	1,104,503	6,347
2008	292	1,160,113	6,354
2009	296	1,228,855	6,354

※ 위의 수치는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표 6-30] 여자프로농구 관중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6	123	169,518	870
2007	267	106,999	647
2008	118	172,736	1,329
2009	130	156,788	1,206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결승리그를 합친 것임

4) 한국배구연맹

타 구기 종목의 프로화 추세에 따라 배구계는 2004년 한국배구연맹창립추진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프로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을 기해 한국배구연맹을 출범시키므로써 본격적인 프로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한국배구연맹은 2005년 2월 20일 KT&G V-리그가 개막되면서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도 시즌 관중수 278,106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생 프로리그로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6-31] 프로배구 관중 입장수

연 도	경 기 수	총 관 중 수	평균관중수
2006	191	159,716	836
2007	163	227,954	1,398
2008	187	234,308	1,253
2009	189	278,106	1,471

※ 총 관중수는 남녀의 수치에 대한 합산임

제6절 과제 및 발전 방안

1. 전문체육 운영시스템의 개선

그 동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1988 서울 올림픽에서 4위, 2002 FIFA 한·일 월드컵에서 4강,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 위상 제고와 국민통합에 기여해 왔다. 이외에도 올림픽 10위권 유지, 아시안게임 2위 고수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상위입상은 체육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앞서 언급했던 각종 정책과 더불어 체육인복지제도, 병역특례제도, 체육특기자제도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체육관련 민간단체는 자신의 역량을 전문체육의 발전에 집중하여왔다.

그 동안 전문 체육은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육성 및 국가대표 선수의 집중훈련에 힘입어 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각급 학교는 학교운동부를 창단하여 시·도체육회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기업 등에 소속되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선수와 후보선수에 대해서는 태릉선수촌의 시설사용과 재정지원, 체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적 훈련지원 등을 통해 종목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선수선발제도 및 훈련과정은 선진국 수준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광범위한 저변에 기초한 선수선발과 과학적 선수발굴과 체계적 훈련시스템이 적용된 우수 선수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된 선수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 스포츠 선진국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 자원에 기초하여 이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도 그 경기력 수준이 이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도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와 최첨단 기자재 정비를 통한 대대적 투자에 힘입어 2000 시드니 올림픽 종합 14위(한국 12위)에서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5위(한국 9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비록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8위로 한국의 7위보다 열세에 있지만, 일본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종목별 경기력 수준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일부 대표선수 및 우수선수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훈련방식을 통한 경기력 향상방안의 한계를 절감하고, 세계적 외국인 코치 영입 및 지도자 자질향상 등을 통해 선진 훈련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종목별로 특성화된 선수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체력·전술·기술향상 등)을 개발·운영하는 차원과 더불어 일본의 JISS와 같은 최첨단

과학시설 등을 구비한 · 종합선수촌 · 건설운영 등 스포츠 과학화에 기초한 새로운 엘리트 체육 시스템 및 훈련방법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육성과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광범위한 생활체육 인구에 기초하여 엘리트스포츠가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선수저변에 의해 전문선수가 원활히 공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조화롭게 연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스포츠를,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을 각각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어 양자 간의 체계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연계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구축된 현행 소수의 우수선수 집중 훈련방식의 경기력향상 시스템은 1988 서울 올림픽 4위 달성을 비롯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소득 향상 및 국내의 체육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효율성 및 실효성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선수자원의 지속적 감소와 선수대상 폭력 및 학습권 침해 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엘리트스포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수선수 양성의 산실로 기능해온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은 종목 및 인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대회 의의 및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고 학생선수 등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 결과 각종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엘리트스포츠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선수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종형으로 되어 있어 선수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전국 학교운동부 규모와 증가 추이변화상 운동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간의 비율 차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수저변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스포츠클럽 등 대안적 구조를 통해 예비선수자원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후보선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종목 및 지원내역을 차별화하며 후보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후보선수 지원 종목은 경기력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별화하고 국외전지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은 체력검정 실시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곧바로 각 종목별 전임지도자들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목별 특성에 맞는 대표선수선발 규정을 제정하여 경기력과 실적에 의한 선수 선발이 필요하다. 선발대상 및 기준은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성적 및 기록 우수자, 종목별 최고기록 보유자, 종목별 각종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입상자 등 경기실적과 종목별 특성에 따른 과학적 선수선발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향후 발전가능성과 훈련 적응력, 기초체력 및 기술을 참작한다. 이를 위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운영하되 종목 담당 연구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선발시와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시 대표코치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1인당 훈련비를 증액하고 식비와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대표선수 은퇴준비를 위해 직업교육과 직업알선 제도의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프로스포츠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정상화 노력

프로스포츠는 아마추어 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에 기반한 스포츠 형태를 의미한다. 한때 프로스포츠는 물질만능주의 조장,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제성장, 물질문명의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후반부터 스포츠계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프로스포츠는 대표적 관람 스포츠 영역으로 대중적 위락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지역적 연대감 고취, 아마추어 선수의 진로 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 및 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프로스포츠는 선수의 해외리그진출을 통한 선수자원의 고갈 및 무역역조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해외 프로스포츠 콘텐츠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중계권료에 대한 부담이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프로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중계권료 케이블 TV 해외 프로그램 수입 총액의 20% 수준이며 스포츠전문채널 프로그램 편성료의 약 50%에 이르는 반면, 국내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외면 속에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외무역역조현상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프로스포츠를 시장논리에 근거한 산업·경제적 관점이 아닌, 모기업의 홍보수단 정도의 의미로서 운영했던 관행 때문이라는 평가가

체육계 내에서 지배적이다. 그 결과 모기업 홍보와 공익성 추구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경영합리화나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자립이라는 프로스포츠 본연의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프로스포츠는 고사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현재 프로씨름의 위기로 인하여 증폭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의 프로스포츠의 속성상 국내의 프로스포츠가 산적하고 있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구단 및 리그라 할 수 있다. 구단 및 리그 스스로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팬과 관객층을 확장시키고 팀 및 리그 운영과 관련된 선수, 마케팅, 경기력, 리그운영, 미디어,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목격할 수 있듯이 이 같은 주체의 노력에 기초하여 관중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국내 프로스포츠의 미디어 콘텐츠적 가치가 높아졌을 때, 각종 규제완화 및 여건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장애인체육

제1절 개 관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제4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7 장 _ 장애인 체육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2005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과 더불어 관련 제도 및 행정적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 부는 2009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체육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과 전문체육, 국제체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지사항을 통해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장애인체육은 이제 체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보편성을 띤 전문용어로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이 결합된 용어(문화관광부, 2007)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과목으로서의 발전과 병원 및 재활원 등에서의 체육활동으로 시작되어 발전됨으로써 오랫동안 특수학교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의료 패러다임의 수동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2005년 10월)과 더불어 현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능동적인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년 7월)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4월)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2008년 4월) 등 법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2005년 12월)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년 11월)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에서는 체육의 본질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는 일반체육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학교체육의 구분에 더하여 재활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난제가 따른다(표 7-1 참조).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한계를 가져오는 등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지만, 향후 적극적인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7-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체육구조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재활체육	없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09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래 5년차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기(2대 회장 윤석용)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법적 기반 마련, 관련 조직 및 단체(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설립 확산, 예산의 지속적 증가, 생활체육 사업 확대 및 참여율 향상,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09년은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국제교류 분야 사업들이 자리를 잡은 한 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 생활체육 활동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지원, 전통종목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장애인 체육동호인대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 축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및 배치, 시·도 주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신규 사업의 발굴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 국제체육 교류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 장애인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대표선수 훈련시스템 준비 및 훈련용기구 확보, 훈련장 환경 조성 차원에서 향후 경기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운영 지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와 같은 협력 및 교류차원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장애인체육진흥 증장기계획 수립추진, 지방 장애인 체육행정 실무자 교육, 시·도 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 공고, 장애인체육용 휠체어리프트장착 특장 차량 구입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추진 등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 이후 발전하였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도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용사들의 재활수단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시초가 되었고, 특수학교에서 교과목 또는 운동부 창설, 대회 개최 및 참가 등과 함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의 속성상 치료개념이나 재활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의 비전문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관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재활체육 영역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담당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전담 부서 및 공무원이 없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조직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2005년 11월) 이후로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부서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2008년 2월)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지부를 일부 승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구분	주요내용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 이전 (1960-1987)	- 장애인스포츠의 시작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적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70년대)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 (1962) -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 국제뇌성마비경기대회(육상) 참가(1982)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1988~2004)	- 88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개편(2008) - 학문적 토대 마련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1990)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1993)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발전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시작(2000)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시작(2003)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관 이후 (2005~)	-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7) ○ 대한장애인체육회(2005.11)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5) 설립 →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2008. 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 장애인체육과(현 장애인문화체육팀) 신설(2005.12)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 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동법 시행령 제정(2008. 4)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부활(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2008. 10)

2. 대한장애인체육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2005년 11월 25일)된 단체로 다음의 (표 7-3)과 같은 주요임무가 있다.

[표 7-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임무(기능)

구분	내용
주요 임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 국내·외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스포츠클럽 ◦ 장애인 선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 선수·체육지도자·유공자의 복지향상 ◦ 장애인 체육시설·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조직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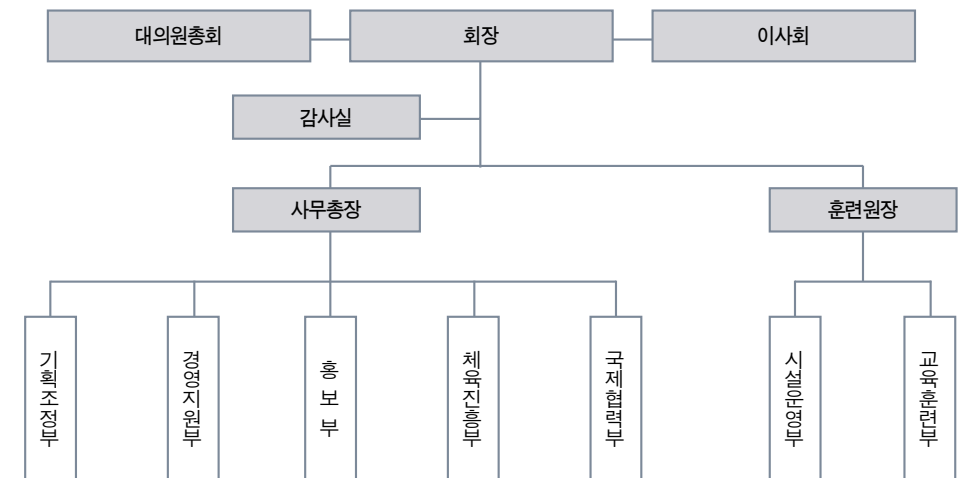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포함 이사 26인(부회장 5인 포함)과 2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감사실을 포함한 1실 5부, 이천 훈련원 2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7-1 참조).

3) 시·도지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시 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지부 설립을 완료(표 7-4 참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사업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의 육성
-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

그러나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과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으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승인(14개 지부) 및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연계성의 원칙, 자율성 확보의 원칙, 지방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영지원부내 "전산팀", "회계팀" 운영

[그림 7-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표 7-4]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

연번	지부승인	단체명	소재지	설립일	시군구 지부
1	2006.09.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6.07.27	-
2	2006.12.2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 창원시	2006.07.18	-
3	2006.12.2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수원시	2006.11.20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양주시, 김포시, 평택시
4	2006.12.29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 청주시	2006.12.18	청주시, 충주시
5	2006.12.2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전주시	2006.12.26	-
6	2007.04.0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중구	2007.01.17	서산군
7	2007.04.0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02.14	노원구(강서), (양천), (중랑), (도봉)
8	2007.04.0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03.30	-
9	2007.05.03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 경산시	2007.04.10	-
10	2007.05.2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2006.12.07	-
11	2007.05.2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서구	2007.05.04	-
12	2007.06.07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동구	2007.04.11	-
13	2007.08.2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2007.05.30	속초시, (양양)
14	2007.08.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2007.07.18	-
15	2007.12.2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목포시	2007.11.02	여수시, 목포시
16	2008.02.0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 중구	2008.01.17	-

※ () 는 현재 설립 추진 중

[표 7-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구분	가맹경기단체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고	
1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07. 07. 16	2008. 03. 14	5	종목별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006. 02. 03	2006. 04. 27	12		
3	대한장애인농구협회	1997. 04. 25	2006. 04. 27	9		
4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006. 04. 27	2006. 04. 27	10		
5	대한장애인롤볼연맹	2006. 04. 27	2006. 04. 27	15		
6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00. 02. 15	2003. 04. 03	14		
7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006. 03. 18	2006. 04. 27	12		
8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002. 12. 12	2006. 04. 27	15		
9	대한장애인사격연맹	1997. 04. 15	2006. 04. 27	12		
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993. 07. 10	2006. 04. 27	8		
11	대한장애인수영연맹	2003. 03. 22	2006. 04. 27	9		
1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1. 10. 20	2001. 12. 27	4		
13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003. 02. 21	2006. 04. 27	3		
14	대한장애인양궁협회	2004. 04. 04	2007. 01. __	10		
15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995. 03. 20	1996. 03. 20	12		
16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02. 02. 25	2006. 04. 27	8		
1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993. 09. __	2006. 04. 27	13		
1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2006. 04. 26	2006. 04. 26	10		
19	대한장애인배구연맹	2006. 02. 26	2006. 04. 27	11		
20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002. 07. 28	2006. 04. 27	12		
21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006. 07. 08	2006. 07. 31	9		
22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993. 08. 20	2006. 07. 31	15		
23	대한장애인컬링협회	2007. 05. 28	2007. 10. 16	6		
24	대한장애인요트연맹	2006. 12. 15	2007. 10. 16	7		
25	대한장애인유도협회	2008. 03. __	2009. 09. 18	4		
26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2006. 04. 02	2009. 09. 18	16		
27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1978. 05. 01	2008. 01. 25	-	유형별 체육단체	
28	대한농아인체육연맹	1982. 12. 30	2006. 07. 31	16	KPC	
29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06. 02. __	2006. 07. 31	12		
30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2005. 08. 20	2006. 04. 28	4	인정단체	
소 계				293		
31	대한장애인검도협회	2005. 10. 23	2009. 05. 18	-		
3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04. 09. 19	2007. 10. 16	-		
33	대한장애인바둑협회	1999. 07. 25	2007. 10. 16	-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 26개, 유형별 체육단체 2개, KPC 소관 단체 2개로 총 30개이며, 별도의 인정단체 8개를 포함할 경우 총 38개이다. 각 가맹경기단체는 각각의 시·도지부(총 293개 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가맹경기단체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고
34	대한장애인다트연맹	2007. 04. 13	2007. 10. 16	-	인정단체
35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2007. 11. 27	2008. 03. _	-	
36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2008. 09. 24	2009. 05. 18	-	
37	대한장애인당구연맹	2008. 12. 27	2009. 05. 18	-	
38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2008. 11. 11	2010. 02. 19	-	

※ 인정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현황 제외(일부 단체의 창립일 및 가맹일 누락)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각 경기단체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개 단체에 8,033명(남 6,483, 여 1,550)이 등록되어 있다(비장애 선수 230명, 남 157, 여 73 포함시 8,265명). 이는 전년도 7,285명에 비해 10%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목별 등록 선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총 1,623명: 남 1,600, 여 23)이며, 그 다음으로는 탁구(총 846명: 남 661, 여 185), 육상(총 803명: 남 559, 여 244), 볼링(총 656명: 남 453, 여 203), 론볼(총 606명: 남 438, 여 168), 수영(총 561명: 남 416, 여 145)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체장애인 위주 종목과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를 포함하는 종목의 선수가 많았다. 또한, 등록 선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자선수들에 비해 여자선수들의 비율(약 19.3%)이 낮고, 전년도(약 19%)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총 1,092명: 남 902, 여 190)와 서울특별시(총 874명: 남 716, 여 158)의 등록 선수가 가장 많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였으며, 인천(총 565명: 남 465, 여 100)과 대구(총 513명: 남 415, 여 98), 강원(총 505명: 남 407, 여 98), 충남(총 503명: 남 392, 여 111)이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300~400명 내외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장애유형별로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기타장애(총 2,219명: 남 1,723, 여 496)와 지적장애(총 2,208: 남 1,891, 여 317)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총 1,180명: 남 916, 여 264)와 척수장애(총 1,034명: 남 879, 여 155), 시각장애(총 739명: 남 539, 여 200), 뇌성마비(총 655명: 남 536, 여 119)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약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비장애선수가 총 230명(남 157, 여 73) 등록되어 있고, 종목별로 사이클(남 4, 여 2), 론볼(남 16, 여 16), 축구(남 21), 농구(남 83, 여 2), 댄스스포츠(남 28, 여 53) 등 종목 특성에 따라 일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등록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맹된 경기단체나 인정단체의 경우 선수 등록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가맹경기단체의 적극적인 선수 등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7-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 현황

(단위: 명)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6	3	9	0	0	0	5	0	5	3	1	4	9	1	10	2	0	2
육상	58	16	74	31	13	44	49	20	69	25	16	41	22	8	30	22	10	32
배드민턴	22	7	29	25	12	37	21	10	31	16	10	26	19	13	32	20	8	28
보치아	47	9	56	18	5	23	6	2	8	8	1	9	5	3	8	7	2	9
사이클	11	1	12	5	2	7	24	7	31	1	0	1	2	0	2	1	0	1
휠체어펜싱	9	3	12	0	0	0	2	0	2	0	0	0	4	0	4	0	0	0
골볼	9	6	15	10	0	10	10	9	19	8	0	8	0	0	0	7	0	7
론볼	67	26	93	47	17	64	36	6	42	9	4	13	21	9	30	23	15	38
역도	17	2	19	10	2	12	13	2	15	16	5	21	14	3	17	21	5	26
사격	18	5	23	7	3	10	12	4	16	7	1	8	7	2	9	6	0	6
축구	125	0	125	98	0	98	104	2	106	103	0	103	69	0	69	93	0	93
수영	74	21	95	28	11	39	24	5	29	32	14	46	29	11	40	28	7	35
탁구	56	14	70	16	2	18	47	10	57	49	10	59	36	7	43	25	11	36
좌식배구	10	17	27	11	0	11	9	0	9	12	0	12	10	11	21	0	0	0
농구	76	0	76	23	0	23	27	0	27	47	1	48	0	0	0	33	0	33
휠체어 테니스	10	1	11	3	1	4	12	2	14	10	0	10	4	2	6	4	0	4
볼링	48	22	70	27	16	43	33	12	45	36	19	55	23	6	29	18	11	29
휠체어력비	12	0	12	10	1	11	11	0	11	6	2	8	11	2	13	11	2	13
조정	14	4	18	1	0	1	7	4	11	17	9	26	1	1	2	7	2	9
댄스스포츠	6	1	7	2	3	5	3	2	5	3	2	5	0	0	0	2	1	3
요트	2	0	2	7	1	8	0	0	0	0	0	0	0	0	0	0	0	0
스키	8	0	8	0	0	0	10	3	13	7	3	10	2	0	2	0	0	0
아이스 슬레지하키	11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0	0	0	0	1	1	0	0	0	0	0	0	5	1	6	0	0	0
소계	716	158	874	379	90	469	465	100	565	415	98	513	293	80	373	330	74	404

(단위 : 명)

시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1	1	2	8	1	9	4	0	4	3	1	4	2	0	2	0	0	0
육상	24	13	37	71	27	98	31	15	46	29	13	42	18	10	28	64	26	90
배드민턴	9	3	12	62	19	81	22	20	42	16	3	19	18	9	27	10	4	14
보치아	11	3	14	13	4	17	17	4	21	22	7	29	15	3	18	20	4	24
사이클	4	2	6	4	1	5	13	7	20	10	1	11	5	0	5	7	0	7
휠체어펜싱	3	3	6	2	4	6	7	0	7	7	1	8	4	3	7	0	0	0
골볼	0	4	4	7	0	7	0	0	0	10	4	14	6	4	10	6	0	6
론볼	29	12	41	40	10	50	18	3	21	33	6	39	18	15	33	30	19	49
역도	18	8	26	44	9	53	17	6	23	18	9	27	29	5	34	11	5	16
사격	4	0	4	16	4	20	8	3	11	7	1	8	5	2	7	28	6	34
축구	99	0	99	232	6	238	118	4	122	138	0	138	82	4	86	77	1	78
수영	2	6	8	91	27	118	9	3	12	14	8	22	5	2	7	8	3	11
탁구	19	8	27	91	33	124	40	16	56	25	1	26	98	36	134	11	1	12
좌식배구	6	0	6	19	0	19	11	0	11	9	0	9	11	0	11	20	0	20
농구	21	0	21	49	1	50	33	1	34	28	0	28	36	4	40	6	0	6
휠체어 테니스	3	0	3	19	4	23	3	0	3	4	2	6	5	0	5	6	0	6
볼링	13	8	21	66	28	94	25	11	36	20	13	33	26	8	34	9	4	13
휠체어력비	0	0	0	11	1	12	7	1	8	11	3	14	0	0	0	0	0	0
조정	2	2	4	11	6	17	0	0	0	5	4	9	7	4	11	0	0	0
댄스스포츠	3	4	7	10	3	13	1	0	1	2	2	4	0	0	0	0	0	0
요트	0	0	0	2	0	2	0	0	0	0	0	0	1	1	2	0	0	0
스키	4	0	4	16	2	18	11	4	15	2	2	4	1	1	2	3	0	3
아이스 슬레지하키	0	0	0	17	0	17	12	0	12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75	77	352	902	190	1,092	407	98	505	413	81	494	392	111	503	316	73	389

(단위 : 명)

시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4	1	5	4	0	4	0	0	0	0	0	0	51	9	60
육상	28	13	41	41	13	54	33	20	53	13	11	24	559	244	803
배드민턴	10	1	11	17	2	19	23	5	28	8	3	11	318	129	447
보치아	9	4	13	6	2	8	14	1	15	7	5	12	225	59	284
사이클	13	0	13	9	0	9	5	2	7	4	2	6	118	25	143
휠체어펜싱	1	0	1	4	0	4	0	0	0	0	0	0	43	14	57
골볼	5	0	5	6	0	6	5	5	10	0	0	0	89	32	121
론볼	36	18	54	14	2	16	0	0	0	17	6	23	438	168	606
역도	29	21	50	17	19	36	3	2	5	0	0	0	277	103	380
사격	14	1	15	3	1	4	14	5	19	4	0	4	160	38	198
축구	38	0	38	96	0	96	99	5	104	29	1	30	1,600	23	1,623
수영	28	7	35	14	3	17	18	10	28	12	7	19	416	145	561
탁구	53	9	62	31	9	40	61	17	78	3	1	4	661	185	846
좌식배구	17	12	29	11	0	11	0	0	0	0	0	0	156	40	196
농구	8	0	8	37	0	37	8	0	8	22	0	22	454	7	461
휠체어 테니스	5	0	5	0	0	0	3	0	3	0	0	0	91	12	103
볼링	21	6	27	19	9	28	51	22	73	18	8	26	453	203	656
휠체어력비	10	3	13	7	4	11	9	2	11	0	0	0	116	21	137
조정	2	4	6	9	5	14	2	2	4	0	0	0	85	47	132
댄스스포츠	5	0	5	6	5	11	0	2	2	1	1	2	44	26	70
요트	1	0	1	0	0	0	4	0	4	2	0	2	19	2	21
스키	0	0	0	0	0	0	0	0	0	0	0	0	64	15	79
아이스 슬레지하키	0	0	0	0	0	0	0	0	0	0	0	0	40	0	40
휠체어컬링	0	1	1	0	0	0	0	0	0	0	0	0	6	3	9
소계	337	101	438	351	74	425	352	100	452	140	45	185	6,483	1,550	8,033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09년 12월말 기준)

※ 유형별 단체(2) 및 KPC 가맹단체(2)는 선수 등록을 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종목별 경기단체에만 등록할 수 있음

※ 신규가맹(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인정단체(8) 제외

(단위 : 명)

시도	합계			절단기타		시각		척수		뇌성		지적		청각		비장애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궁	51	9	60	31	8	0	0	20	1	0	0	0	0	0	0	0	0
육상	559	244	803	46	5	95	30	63	7	103	39	172	101	80	62	0	0
배드민턴	319	129	448	164	50	0	0	56	6	1	0	55	34	43	39	0	0
보치아	225	59	284	7	0	0	0	1	0	217	59	0	0	0	0	0	0
사이클	122	27	149	36	1	22	16	2	0	9	0	33	8	16	0	4	2
휠체어펜싱	43	14	57	36	11	0	0	7	3	0	0	0	0	0	0	0	0
골볼	89	32	121	0	0	89	32	0	0	0	0	0	0	0	0	0	0
론볼	454	184	638	283	132	0	0	148	32	5	4	2	0	0	0	16	16
역도	277	103	380	83	35	35	2	8	0	0	0	104	53	47	13	0	0
사격	160	38	198	87	22	0	0	69	15	2	0	0	0	2	1	0	0
축구	1,621	23	1,644	0	0	93	0	0	0	144	2	874	21	489	0	21	0
수영	416	146	562	131	56	38	23	14	5	7	6	206	43	20	13	0	0
탁구	661	185	846	291	68	29	18	226	46	6	1	65	18	44	34	0	0
작식배구	156	40	196	156	40	0	0	0	0	0	0	0	0	0	0	0	0
농구	537	9	546	140	2	0	0	32	0	0	0	282	5	0	0	83	2
휠체어 테니스	91	12	103	21	4	0	0	70	8	0	0	0	0	0	0	0	0
볼링	453	203	656	75	31	103	53	33	5	37	7	45	16	160	91	0	0
휠체어력비	116	21	137	18	6	0	0	96	15	2	0	0	0	0	0	0	0
조정	85	47	132	22	11	18	17	17	5	0	0	28	13	0	1	0	0
댄스스포츠	72	79	151	22	8	11	8	6	4	3	1	0	0	2	5	28	53
요트	24	2	26	15	1	0	0	4	1	0	0	0	0	0	0	5	0
스키	64	15	79	18	2	6	1	2	2	0	0	25	5	13	5	0	0
아이스 슬레지하키	40	0	40	35	0	0	0	5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6	3	9	6	3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6,641	1,624	8,265	1,723	496	539	200	879	155	536	119	1,891	317	916	264	157	73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09년 12월말 기준)

※ 비장애등록선수(230명, 남 157명, 여 73명)는 선수등록시스템 상 시도별 등록선수 현황(총 8,033명)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유형별 등록선수 현황(총 8,265명)에만 포함되어 수치에 차이가 있음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 제3장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2006년 5월) 한국의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Paralympic Committee(KPC)라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설립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올림픽사업에 관하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올림픽정신의 함양·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 도모,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2. 스포츠윤리의 증진, 반도핑 및 장애인올림픽운동(Paralympic Movement)을 전개하는 사업을 수행 3.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올림픽헌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을 유지
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대해 한국을 대표 2.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게임 등 IPC의 후원을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파견·관리 3. 국내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장애인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올림픽표장 등을 관리 4. 대회 이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IPC, APC 및 장애인아시아게임 사업에 대표자 선정파견 및 주관 5. 장애인스포츠의학의 진흥과 IPC 및 국제장애인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 활동 6. 장애인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8. 제 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9. 국제심판, 기술임원, 국제등급분류위원,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국제장애인체육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0.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재 정

장애인체육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표 7-9 참조), 2010년에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완공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과 2010년 장애인체육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0)과 같다.

[표 7-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10,936	19,634	26,018	36,387	30,560	
장애인체육 예산	소계	9,731	18,308	23,729	34,579	27,769
	국고	3,898	8,513	4,110	6,610	5,500
	기금	5,833	9,795	19,619	27,969	22,269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2,289	1,808	2,791	
전년비 증가액	-	8,698	6,384	10,369	-5,827	
전년비 증가율	-	79.5%	32.5%	39.9%	-16%	

[표 7-10] 2009년 및 2010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2009	2010	
국고	○ 장애인체육육성지원	4,610	4,500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지원	2,000	0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	0	1,000
	소 계	6,610	5,500
기금	○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	2,914	2,914
	○ 장애인생활체육	5,365	6,279
	○ 장애인전문체육	7,390	6,229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10,400	4,947
	○ 시·도장애인체육지원	1,900	1,900
	소 계	27,969	22,269
계	34,579	27,769	

※ 체육인복지사업 관련 예산 미포함 (260쪽 표 7-19, 261쪽 표 7-20참조)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1. 생활체육부문

1) 생활체육참여 저변 확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참여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89%에 이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저변확대의 방법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크게 프로그램 개발·보급/연구 지원, 교실 및 동호인 지원, 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 지도자 교육 및 배치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2009년도 세부 사업 현황 및 실적은 다음의 (표 7-11)과 같다.

2)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1993년부터 지도자양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이후로 국가공인 자격제도에 대해 논의가 확정되어 법안 제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도자 강습회의 교과목은 장애인 체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기종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기 종목은 국내 미 보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격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지도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사후관리, 전문지도자의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도자자격 제도화는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표 7-11]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

사업영역	사업실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연구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통합체육수업매뉴얼 II 개발 지적,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시각장애인 태권도 품새 프로그램 개발 청각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개발 2006년~2007년 개발종목 보급(웨이트트레이닝, 등산 등) 장애인체육 사진 공모 및 전시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2009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장애인 체력관리실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척추장애인가장체력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연구 실내·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콜서비스 운영(전화상담, 영상상담서비스 제공) - 전국 대표전화 : 1577-7976 생활체육 잠재군 발굴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 장애인스포츠용품 임대시스템 관리 및 운영
교실 및 동호인 지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200개소 지원(장애청소년체육활동지도자를 전담 배치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절감을 통한 개소 확대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장애유소년 지역캠프 10개소 지원 운영사례발표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교실 182개소 지원(초보자교실 32개소, 종목별생활체육교실 42개소, 직장인운동교실 23개소, 여성장애인교실 27개소,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35개소, 계절스포츠교실 20개소, 산악레포츠캠프 1개소, 스키학교운영 2개소) 전통종목육성 75개소 지원(전통종목교실 및 클럽 50개소, 지역순회강습회 23개소, 전통종목대회 2개소)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16개시·도 85개 클럽 지원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sad.or.kr) 기능개선 및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 확대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9개 대회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 25개 대회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8개종목(게이트볼, 당구, 탁구,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파크골프, 론볼) 16개시·도 781명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지원	전국생활체육동호인최강전 8개 대회 지역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50개 대회
	전국장애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11개종목(정식 10, 전시 1) - 정식: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농구, 배구, e스포츠 - 전시: 실내조정
지도자교육 및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101명 배치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53, 시·도지원 48 2009년 생활체육참여자 210,000명 현장지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교육 2회 실시
	종목별생활체육축제 개최 및 지원	종목별지역생활체육대회 8개 장애유형별생활체육대회 6개 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대회 5개 대회 장애인체육가족어울림대회 및 전국장애인골프대회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년 12월말 기준)

(2) 경기지도자 양성

장애인 체육분야에 있어서 비장애인 경기지도자에 상응하는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에 걸쳐 유일한 자격으로, 현재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와 같이 쿼터 시스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19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유도대학(현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었고, 1990년 비로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인정되었으며, 2009년 기준 12개 대학에서 중등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며, 기타 체육 부전공 중등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 일반체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 대학원 졸업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7-12]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구분	학교명	학과명	양성정원			계	설치년도
			초등	중등	기타		
1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2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3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2002
4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1988
5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3
6	한국국제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20(20)	-	20	2005
7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40(40)	-	40	2004
8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	30(30)	-	30	1998
9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	40(4)	-	40(4)	1994
10	신라대학교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	30(3)	-	30(3)	2006
11	동의대학교	특수체육학과	-	30	-	30	2007
12	나사렛대학교	장애인체육지도학과	-	30	-	30	2008
계				340(217)	-	340(217)	

※ ()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 인원

(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유사 자격증의 증가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의 국가공인 취득과 더불어 일선 장애인생활체육현장에 공인자격증 취득자의 채용을 의무화하여 현장 지도의 질을 높여 날로 높아 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요 충족의 일환으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일부 경기단체에서 총 20명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생활체육지도자(시·도 5명)를 배치하였고, 2008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총 39명(대한장애인체육회 15명, 시·도 24명)을 배치 활용하였다. 2009년도에는 배치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도와의 매칭 펀드 방식에 의해 총 101명을 배치 활용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54, 시·도 47). 특히, 2009년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에도 각각 1명씩을 배치 활용하였다.

향후 체육지도자자격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이 법제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의무 채용에 관한 법률적 강제, 세부 배치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인된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7-13] 2009년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번	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지원	총계	비고
1	서울	10	10	20	
2	부산	3	3	6	
3	인천	6	5	11	
4	대구	2	2	4	
5	광주	3	2	5	
6	대전	3	3	6	
7	울산	2	2	4	
8	경기	2	2	4	
9	강원	3	2	5	
10	충북	2	2	4	
11	충남	2	3	5	
12	경북	4	3	7	
13	경남	3	3	6	
14	전북	3	2	5	
15	전남	2	2	4	
16	제주	2	1	3	
17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1	-	1	
18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1	-	1	
계		54	47	101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내부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

2. 전문체육

1) 국내대회 개최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는 1988 서울 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으며, 제9회 대회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다. 2000년 제20회 인천대회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2002년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미개최), 2005년 제25회 대회부터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 대회는 광역 시도에서 벗어나 김천시에서 대회를 주관하여 경상북도 일원 7개 지역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었다. 2008년 광주광역시 대회는 16개 시도지부가 모두 설립되어 치뤄진 첫 대회로서 전년대비 25%의 참가 증가율을 보였고,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대진추첨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대회였다. 2009년 전라남도 여수대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9개 종목 참가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중복참가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대회와 동반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동반 개최될 예정이다(표 7-14 참조).

[표 7-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체육대회	경남진주 (제90회)	경기고양 (제91회)	대구 (제92회)	인천 (제93회)	△△ (제94회)	●● (제9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 (제30회)	경남진주 (제31회)	경기고양 (제32회)	대구 (제33회)	(인천) (제34회)	●● (제35회)

※ 2012년과 2013년은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개최 시·도를 변경함(2009년 12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

※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는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2015년부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동일시·도에서 동일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개최여부는 인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1988년 서울 올림픽 및 서울 장애인올림픽으로 제8회 대회 미개최

-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로 제22회 대회 미개최

[표 7-15]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 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1981.10. 2~10. 4	-	5	1,011	761	250	-	-	-
2회	1982.10.11~10.12	-	7	1,295	945	350	-	-	-
3회	1983. 9.15~ 9.16	-	7	1,140	860	280	-	-	-
4회	1984.10.24~10.25	-	8	1,507	1,157	350	-	-	-
5회	1985.10.19~10.20	-	7	1,624	1,224	400	-	-	-
6회	1986.10.11~10.13	-	9	1,733	1,314	419	-	-	-
7회	1987. 9.19~ 9.22	-	16	1,932	1,500	432	-	-	-
8회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 관계로 개최하지 않음								
9회	1989.10.15~10.17	-	16	1,469	1,129	340	서울	경기	대구
10회	1990. 5.14~ 5.26	-	15	1,443	1,052	391	서울	경기	경남
11회	1991. 5.22~ 5.24	-	16	1,588	1,189	399	서울	경기	경북
12회	1992. 5. 7~ 5. 9	-	16	1,708	1,304	404	서울	경기	부산
13회	1993. 5.25~ 5.27	-	16	1,637	1,222	415	서울	경기	경남
14회	1994. 5.14~ 5.16	-	16(시범1)	1,733	1,310	423	서울	경남	부산
15회	1995. 5.23~ 5.25	-	17	1,695	1,276	419	경기	서울	부산
16회	1996. 5.14~ 5.16	-	17	1,740	1,305	435	경기	서울	대구
17회	1997. 5.20~ 5.22	-	17	1,756	1,340	416	경기	서울	충북
18회	1998. 5.19~ 5.21	-	17	1,744	1,312	423	경기	서울	충북
19회	1999. 5.25~ 5.27	-	17	1,766	1,334	432	경기	서울	충북
20회	2000. 6.13~ 6.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2001. 5. 9~ 5.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하지 않음								
23회	2003. 5.14~ 5.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2004. 5.11~ 5.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2005. 5.10~ 5.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2006. 9.12~ 9.15	울산	19(시범1)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2007. 9.10~ 9.14	경북 (김천)	22 (시범1, 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2008.10. 5~10. 9	광주(전시2)	23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2009. 9. 21~ 9. 25	전남(여수)	24	6,350	4,692	1,653	경기	서울	충북
30회 (예정)	2010.	대전	24 (시범1, 전시1)	7,000	5,000	2000	-	-	-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서

(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장애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 현황은 다음의 (표7-16)과 같다.

[표 7-16]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			참가대상	주최
				계	선수	임원		
1회	2004. 2.24(화)~2.25(수)	용평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150	100	5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2회	2005. 2.17(목)~2.18(금)	용평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150	80	7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3회	2006. 2.22(수)~2.24(금)	보광휘닉스파크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시범종목)	209	102	107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4회	2007. 2.21(수)~2.24(토)	강원랜드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시범)	224	117	10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5회	2008. 2.19(화)~2.22(금)	하이원 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울산과학대학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446	215	231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6회	2009. 2.10(화)~2.13(금)	하이원스키장 춘천의암빙상장 의성컬링경기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429	304	125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7회	2010. 1.26(화)~1.29(금)	하이원스키장 이천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 동천빙상장 춘천의암빙상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660	330	33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0), 제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서

2) 경기력 향상 지원

2009년은 경기력 향상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상시훈련과 농아인올림픽 국가대표 훈련, 동계 종목 훈련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을 이를 기반으로 단체전 최초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선수 훈련지원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 7-17)과 같다.

[표 7-17] 2009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구분	종목/인원	훈련일수	비고	
국가대표상시훈련	20개 종목 308명(선수 208, 임원 100)	800일		
농아인올림픽 국가대표훈련	9개 종목 95명(선수 60, 임원 35)	450일	종합3위 입상	
국가대표 동계종목 훈련	3개 종목 41명(선수 31, 임원 10)	180일	휠체어컬링 은메달 획득	
기타대회	4개 종목 29명(선수 20, 임원 9)	120일	INAS-FID 종합대회 IBSA 유소년대회 대비훈련 등	
후보선수 지원	후보선수 상시훈련	16개 종목 121명(선수 102, 임원 19)	640일	종목당 평균 약 40일
	도쿄 유소년대회 대비훈련	5개 종목 54명(선수 35, 임원 19)	75일	상시훈련에 추가일수 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내부자료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선수 훈련지원과 경기단체별 추천 지도자를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배치, 지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 종목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현황은 다음의 (표 7-18)과 같다.

[표 7-18] 2009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현황

종목	인원	종목	인원
역도	1	육상	1
테니스	1	조정	1
탁구	1	사이클	1
축구	1	컬링	1
스키	1	아이스슬레이지하키	1

3)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력향상연금 등 총 8개 분야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 선수의 경우 2005년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우수선수연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일반체육선수 경기력향상연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일반선수 연금지급액의 60%(2005년) 수준에서 80% (2007년)로 지급 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100%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장애인선수연금의 경우 월정액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전환되어 비장애선수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2008년 일시금 수령자 1명). 지급대상 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와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이며, 연금지급액은 선수 월정금의 경우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2009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관련 지급인원 및 지급액(연차별 규모 포함)은 다음의 (표 7-19)와 같다.

[표 7-19]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획	비고(지급대상)
지급 인원	152명	160명	168명	168명	165명	180명	199명	204명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지급액	923	1,062	1,004	1,205	1,196	1,829	1,808	2,791	메달획득자

※ 자료 : 보건복지부(2003년~2004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2005년~2010년)
2010년은 예산만 확정된 상태임

또한, 2007년부터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에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상해보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20)과 같다.

[표 7-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 (상해보험)	250명 24,586천원	236명 14,300천원	289명 12,281천원
16명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연인원 192명)	16명→11명 32,000천원 (연인원 139명)	11명 69,500천원 (121명)	60,500천원
체육장학금	50명 65,000천원	11명 12,000천원	40명 52,000천원
경기지도자연구비	-	21명 362,100천원	14명 505,400천원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7년~2009년)

4) 실업팀 지원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 도모와 선수생활을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보장의 일환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 지원은 총 9개 종목, 8개팀(표 7-21 참조)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발휘하고 평소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후원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팀 육성책이 필요하다.

[표 7-21]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

창단 년도	종 목	소 속	담당자	감독	인 원
2004	사 격	청주시청	진영주	유호정	7명(감독 1, 주무 1, 선수 5)
2006	아이스슬레지하키	강원도청	이 호	이영국	16명(감독1, 코치1, 주무2, 선수12)
2006	휠체어테니스	달성군청	강미진	정필교(코치)	5명(감독1, 코치1, 선수3)
2007	육 상	울산광역시	서인달	박정웅	5명(감독 1, 선수4)
2008	사 격	강릉시청	최규영	-	2명(선수2)
2008	스 키	하이원리조트	김울백	김보성(코치)	6명(감독 1, 코치 1, 선수 4)
2010	휠체어농구	서울시청	배규현	한사현	12명(감독1, 트레이너 1, 선수 10)
2010	역 도	인천장애인체육회	이창수	이화정(코치)	5명(코치1, 선수4)
2010	배드민턴	인천장애인체육회	이창수	최복락(코치)	5명(코치1, 선수4)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0) 내부자료

5)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훈련원은 향후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개원 첫해에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수영장을 활용한 아이스링크에서 컬링 종목의 집중 훈련 결과 동계종목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건립내역(표 7-22)과 활용계획(표 7-23)은 다음과 같다.

[표 7-22] 이천 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구 분	시설 주요내역 및 규격(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21,667㎡(6,554평) / 지하1층, 지상4층	
종합체육관	제1체육관(종합플로어)	농구코트 3면 크기
	제2체육관(실내수영장)	50m × 8레인
	제3체육관(테니스장)	테니스코트 2면 크기
	제4체육관(개별종목실)	역도 · 펜싱 · 탁구 · 유도 · 골볼장 · 체력단련실
생활관 (숙소, 식당, 사무실)	2인용 72실(144명 수용)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6,480㎡ (1,960평)
운동장 (육상장, 축구장)	육상장: 트랙, 투척 · 도약장 축구장: 훈련용 잔디	23,800㎡ (7,200평)
기타시설	조경, 정문	479㎡ (145평)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표 7-23] 이천 장애인체육종합체육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시설명	사 용 종 목	비 고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력비	5개 종목
제2체육관	수영 / 타종목 기초체력훈련	1개 종목
제3체육관	테니스 / 타종목 공동사용	1개 종목
제4체육관	역도 · 펜싱 · 탁구 · 유도 · 골볼 / 체력단련실(공동사용)	5개 종목
운동장	육상, 축구, 타종목 기초체력훈련	2개 종목

※ 사격, 양궁, 론볼, 사이클 종목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촌외시설로 운영

※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 대비 컬링 종목의 경우 훈련시설의 설비 어려움으로 수영장시설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훈련

3. 국제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각종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가입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교류 활동을 하였으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변화하는 국제장애인체육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006년 5월 12일)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 회의 참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7-24]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 기타 단체 가입 기구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아인스포츠경기연맹(ICSD)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 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WAS) ○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 ISMWSF와 ISOD는 2004년 IWAS(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 아시아 · 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은 2006년 APC로 통합출범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내부자료

1)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장애인올림픽의 기본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은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이다.

(1) 하계 장애인올림픽

1960년 로마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올림픽 개최 도시의 동반 개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동반 개최는 이후 국제관례로 이어져 오다가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직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설립(1997년)된 이후, 2000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 IOC와 IPC 간의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장애인올림픽을 동반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텔아비브(이스라엘) 장애인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지난 2008년 베이징(중국) 장애인올림픽에는 다양한 종목에 걸쳐 메달을 획득하였고,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개원에 맞추어 향후 과학적인 훈련시스템의 도입으로 2014년 런던(영국) 장애인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메달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 동계 장애인올림픽

동계 장애인올림픽은 1976년 스웨덴 외른셴드스비크(Sweden-Ornskoldsvik)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 장애인올림픽이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 장애인올림픽은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Tignes-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동계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Lillehammer), 1998년 일본 나가노(Nagano)장애인올림픽은 동계 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8회와 제9회 동계 장애인올림픽은 동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동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 장애인올림픽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는 컬링 종목에서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는 향후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연중 기술 강화 훈련, 선수 저변 확대 및 최신 장비 보급 등을 필요성을 입증한 대회라 할 수 있다.

[표 7-25] 하계 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규 모	한국선수단입상현황			비 고
					종목	입원/선수	결과	
1	1960	로마(이탈리아)	척수장애	23개국(550명)	-	-	-	
2	1964	동경(일본)	척수장애	22개국(515명)	-	-	-	
3	1968	텔아비브(이스라엘)	척수장애	29개국(1,100명)	2	10(4/6)	-	처음 참가
4	1972	하이델베르그(독일)	척수장애	44개국(1,400명)	2	16(6/10)	금4/은2/동1	첫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캐나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42개국(2,660명)	2	11(4/7)	금1/은2/동1	종합27위
6	1980	안헴(네덜란드)	절단 및 기타장애/척수장애/ 시각장애/뇌성마비	42개국(3,406명)	2	15(5/10)	금2/은2/동1	종합26위
7	1984	뉴욕(미국)	뇌성마비/시각장애/절단 및 기타장애	45개국(2,500명)	6	25(11/14)	동1	동반개최
		에일즈버리(영국)	척수장애	45개국(1,422명)	2	24(12/12)	은2/동1	종합37위
8	1988	서울(한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61개국(4,103명)	16	366 (130/236)	금40/은35/동19	종합7위
9	1992	바르셀로나(스페인)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82개국(4,242명)	10	92(27/65)	금11/은15/동18	종합12위
10	1996	애틀랜타(미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03개국(4,750명)	13	92(28/64)	금13/은2/동15	종합12위
11	2000	시드니(호주)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23개국(6,032명)	13	119(30/89)	금18/은7/동7	종합9위
12	2004	그리스(아테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36개국(6,274명)	13	123(41/82)	금11/은11/동6	종합16위
13	2008	베이징(중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47개국(7,000여명)	13	131(54/77)	금10/은8/동13	종합13위
14	2012	런던(영국)			개최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보고서

[표 7-26] 동계 장애인올림픽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지	참가장애	참가국가	대회규모 (선수)	한국선수단		비고
						선수(여자)	성적	
1	1976	Ornskoldsvik(Sweden)	시각 기타장애	14	250	-	-	-
2	1980	Geilo(Norway)	전 장애인	18	350	-	-	-
3	1984	Innsbruck(Austria)	전 장애인	22	457	-	-	-
4	1988	Innsbruck(Austria)	전 장애인	22	397	-	-	-
5	1992	Tignes-Albertville(France)	전 장애인	25	475	2	-	첫 참가
6	1994	Lillehammer(Norway)	전 장애인	31	492	2	-	-
7	1998	Nagano(Japan)	전 장애인	32	571	4(1)	-	-
8	2002	Saltlake(America)	전 장애인	36	416	6(1)	은1	개인첫 메달
9	2006	Torino(Italy)	전 장애인	39	486	3	-	-
10	2010	Vancouver(Canada)	전 장애인	44	505	25(2)	은1	컬링단체전 첫 메달
11	2014	Russia(Sochi)			개최 예정			

※ 자료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식홈페이지(2009). <http://www.paralympic.org>

2)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극동 및 아시아남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 YPOC단체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칭 ASSOD(아시아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는 설립될 장애인스포츠 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극동 및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1974년 10월 8일 일본 오이타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연맹(FESPIC Federation)을 정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지역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로 병합(2006)되면서 향후 2010년 12월 개최예정인 광저우(중국) 대회부터는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 개최될 예정이다.

[표 7-27] 역대 아·태 장애인경기대회(향후 장애인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 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금/은/동)	종합순위
1	1975	일본(오이타)	18/973	-	-	-
2	1977	호주(파라마타)	16/430	6	6/7/1	-
3	1982	홍콩	23/744	11	8/4/3	-
4	1986	인도네시아(수라카르타)	19/834	76(62/14)	40/19/9	-
5	1989	일본(고베)	41/1,648	114(78/36)	73/29/29	4위
6	1994	중국(북경)	45/2,081	131(93/38)	48/28/17	3위
7	1999	태국(방콕)	42/2,500	137(104/33)	31/26/27	4위
8	2002	한국(부산)	40/2,268	425(303/122)	63/67/60	2위
9	200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47/3,000	256(166/90)	58/42/43	3위
10	2010	중국(광저우)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로 개편 12월12일~18일 개최 예정 / 250명 참가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내부자료

3)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올림픽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대회이다. 기록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올림픽을 능가하고 있다.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는 대부분 장애인올림픽 중간년도에 개최된다.

2008년 국제대회 국내개최는 IPC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등 총 5개 대회였으며, 국제대회 참가는 IBSA 아시아시각축구선수권 등 총 14개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7-28] 2009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현황

구분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 규모(결과)
국제대회개최	1	IPC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2,28~ 3. 1	강원-정선 25개국274명 (159/115)미입상
	2	지지배 아시아오픈사격선수권대회	4,23~ 4,30	충북-청주 15개국359명(83/276) 금10,은7,동1
	3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10	서울-잠실 8개국6,000명(577/5,423)은1
	4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5,12~ 6. 2	서울,대구,부산 4개201명(110/91) 10개260명(150/110) 5개161명(71/90) 금20,은19,동7
	5	탁구세계선수권 프레대회	11,11~11,15	광주 11개국 175명 금18,은14,동18
국제대회참가	1	IPC 스키월드컵	1. 8~ 1,27	스페인,이태리 5명, 미입상
	2	IPC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2,22~ 2,28	캐나다 밴쿠버 10명(5/5)종합 5위
	3	IPC 월드컵노르딕스키대회	2,28~ 3,16	캐나다 휘슬러 4명(2/2)미입상
	4	IPC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5. 5~ 5,16	체코 카르로비 21명(15/6)미입상
	5	IBSA 유소년세계선수권대회	7,15~ 7,20	미국 콜로라도 14명(10/4)금1,은2,동2
	6	IPC 세계휠체어테니스선수권	7,27~ 8. 2	영국 버밍엄 10명(6/4)남6위, 여4위
	7	IPC 세계양궁선수권대회	8,15~ 8,22	체코 님빅 19명(15/4)금2,은2,동1
	8	FISA 세계조정선수권대회	8,23~ 8,30	폴란드 7명(5/2)미입상
	9	UCI 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	9. 3~ 9,13	스페인 살비아 6명(4/2)미입상
	10	APC 역도선수권대회	10,18~10,25	말레이시아 10(8/2)미입상
	11	APC 탁구선수권대회	10,23~10,30	요르단 암만 만20명(16/4)은5,동3
	12	IWBF 휠체어농구세계선수권지역예선전	10,11~10,17	호주 멜버른 18명(12/6)금7,은8,동9
	13	IWRF 아시아오세아니아러닝비선수권	11. 2~11. 9	뉴질랜드 15명(10/5)동1
	14	IBSA 아시아사격축구선수권	12,15~12,21	일본 도쿄 13명(10/3)미입상

4) 농아인올림픽(데프림픽)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기구는 여러 국가에서 1차 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지만(독일의 경우 188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스포츠기구가 발족됨) 1924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국제청각장애인경기대회(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 International Silent Games)로 시작된 농아인올림픽(Deaflympics)은 1969년 제 11회 유고 벨그레이드(Belgrade) 대회부터 청각장애인월드게임(World Games for the Deaf)으로 개칭되던 것이 2001년 제 19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부터 지금의 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시작된 동계 대회는 1949년 4회 스위스 몬타나 대회부터 하계 대회 개최년도 중간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동·하계 농아인올림픽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친목도모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제16회 대회에서는 29명(선수21, 임원8)의 선수단 참가, 제17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사이클, 탁구 4개 종목 36명(선수25, 임원11)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채경완 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단식의 박혜연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회원국은 2009년 기준 104개국이며, 한국은 1984년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 배드민턴, 농구, 비치발리볼, 볼링, 사이클, 축구, 유도, 가라데,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등 19개 종목(동계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컬링, 아이스하키, 스노우보드 등 5개 종목)이 있고, 참가자격은 국제 연맹의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로서 잘 들리는 쪽의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55데시벨(dB) 이상인 농아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1회 타이페이 하계대회에 총 94명(선수 63, 임원 31)이 참가하여 금 14, 은13, 동 7의 메달을 획득, 종합 3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7-29] 역대 농아인올림픽(하계) 개최 및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원 (임원/선수)	메달획득 (금/은/동)	종합 순위
1회	1924	파리(프랑스)	9/148	-	-	-
2회	1928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0/212	-	-	-
3회	1931	뉴런베르크(독일)	14/316	-	-	-
4회	1935	런던(영국)	12/221	-	-	-
5회	1939	스톡홀름(스웨덴)	13/249	-	-	-
6회	1949	코펜하겐(덴마크)	14/375	-	-	-
7회	1953	브뤼셀(벨기에)	16/481	-	-	-
8회	1957	밀라노(이탈리아)	25/635	-	-	-
9회	1961	헬싱키(핀란드)	24/613	-	-	-
10회	1965	워싱턴 DC(미국)	27/698	-	-	-
11회	1969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33/1189	-	-	-
12회	1973	말뫼(스웨덴)	31/1105	-	-	-
13회	1977	부쿠레슈티(루마니아)	32/1150	-	-	-
14회	1981	켈른(독일)	32/1199	-	-	-
15회	1985	로스앤젤레스(미국)	29/995	19(9/10)	-	-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30/954	30(8/22)	-	-
17회	1993	소피아(불가리아)	52/1680	36(11/25)	-	-
18회	1997	코펜하겐(덴마크)	65/2029	40(11/29)	· / · / 2	38위
19회	2001	로마(이탈리아)	68/2217	44(16/28)	4/ 4/ 4	11위
20회	2005	멜버른(호주)	63/2044	50(15/35)	6/ 5/ 5	10위
21회	2009	타이페이(대만)	77/2493	94(31/63)	14/13/7	3위
22회	2013	아테네(그리스)		개최 예정		

※ 자료 : Deaflympics (<http://www.deaflympics.com>) / 대한장애인체육회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008년 시작된 스포츠외교인재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 사업은 독일 본 소재 IPC 본부에 1명을 파견하여 향후 국제외교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표 7-30 참조).

[표 7-30] 2009 스포츠외교인재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사업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09. 4. 4 ~ 2010. 3. 31	-
장소	IPC 사무국	독일 - 본 소재
인원	1명	-

또한, 2009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는 KPC 장애인체육행정·정책 실무자 양성교육으로 총 96시간에 걸쳐 국내외 장애인스포츠 변천과정, 스포츠영어, 스포츠등급분류, 스포츠대회, 스포츠행사기획론, 스포츠정책론 등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표 7-31] 2009년도 장애인체육스포츠아카데미

구분	KPC 장애인체육행정·정책 실무자 양성교육	비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스포츠선수 및 지도자 등 스포츠관계자 장애인체육행정기관 임직원 특수체육 등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재학생 포함) 및 학계 관계자 기타 등 양성사업 참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기간	2009. 10. 19 ~ 12. 6	96시간(1·2차과정)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
교육내용	국내외 장애인스포츠 변천과정, 스포츠영어, 스포츠등급분류, 스포츠대회, 스포츠행사기획론, 스포츠정책론 등	-
수료인원	28명(30명 중)	실무교육 및 국제스포츠 외교 교육 동시참가
우수교육생 선정	10명(성적우수자 - 평가시험 및 출석)	-

한편, 2009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사업 또한 2008년에 이어 5개권역(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되었고,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말 위주 80여 시간의 연수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7-32] 2009년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순	시·도	연계대학 (실기장소)	연수기간	연수과목(시간)			수료 인원(명)
				계	이론	실기	
				계	계	계	256
1	서울	한국체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8.29(토)-9.27(일) (주말, 10일)	25 (80)	20 (60)	5 (20)	70
2	경기	용인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9.5(토)-9.27(일) (주말, 8일)	30 (90)	20 (60)	10 (30)	42
3	충남	백석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8.22(토)-9.12(토) (금-일, 10일)	29 (80)	20 (60)	9 (20)	47
4	전북	우석대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9.5(토)-10.25(일) (주말, 14일)	26 (84)	20 (60)	6 (24)	49
5	경남	한국국제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8.28(금)-9.27(일) (금-일, 11일)	26 (80)	20 (60)	6 (20)	48

2009년 국제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사업은 휠체어농구, 사격, 스키, 육상, 컬링, 탁구, 펜싱 등 7개 종목 관련 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등급분류사 69명, 심판 1명),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7-33] 2009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구분	계	휠체어농구		사격		스키		육상		컬링		탁구		펜싱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등급	심판
인원 (명)	70	1	1	3	-	5	-	2	-	12	-	1	-	45	-

제 4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민체육의 범주에 포함된 이래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14개 시군구지부 설립 승인 완료)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 시점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지속적인 참여율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의 값진 은메달(컬링, 단체전 첫 메달) 획득과 2009년 10월 15일 개관한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선진국의 목표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및 시행령(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과 같은 법적 기반 아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1)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어울림대회, 동호인대회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지원,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지원), (2)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단계별 생활체육 교실 지원, 동호인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진공모전, 통합체육 수업매뉴얼 교육 및 보급), (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센터 운영 (6) 생활체육 활성화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 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환경 조성 (2) 국내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개최 지원 (3) 국제스포츠교류 거점국가 확보 및 외교인력 양성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국제스포츠외교 정보인력 네트워크 구축 (5)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지원 등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1) 국가대표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교육 이외에도 (2) 장애인생활체육 보급의 선도적 역할수행 및 지역발전 기여 (3) 시설운영 및 다양한 시설활용 도모 (4) 2단계 건립추진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유희시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1) 효율적 조직운영, (2) 행정역량 강화, (3) 윤리경영 추진 등을 적극 관리·감독함으로써 장애인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를 조속히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학생 및 중증장애인의 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목표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스포츠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체육 근간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시설 접근성 강화, 지도자 배치사업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구체성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교류 강화, 훈련원 운영 내실화, 장애인체육행정 선진화 등의 목표 아래 (1) 종목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생활체육지원 추진, (2) 선진화된 훈련시스템으로 경기력 향상 및 국제스포츠의 우수한 경쟁력 도모를 통하여 생활체육 동기부여 역할제공, (3) 장애인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모델 제시 및 유희시설화 방지, (4) 장애인체육관련 기관 소속 전직원의 국가관 확립 및 국익과 연계된 조직운영 도모를 달성하고자 한다.



제8장 체 육 시 설

제1 절 개 관

제2 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제3 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제4 절 태권도공원 조성

제5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8 장 _ 체육 시설

제 1 절 개 관

1.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으로써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에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을 통해 인간은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체육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자 직접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체육시설은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포괄적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운동장소로서의 공간적 개념 뿐 아니라 용기구와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효과적이며, 보다 쾌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법적 개념은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시법시행령 별표 1에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운동종목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종류

체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은 체육시설을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45개의 시설과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표 8-1)과 같다.

또한, 설치주체나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994년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체시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체시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체시법시행령 제3조).

[표 8-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 육 시 설 의 종 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리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퀘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출처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체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체시법시행규칙 별표 2)〉

1.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로서, 상시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체시법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체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체시법 제8조는 공공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함으로써, 공적 이용이라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체시법 제8조 개정(2009년 3월 18일)으로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표 8-2)와 같다.

[표 8-2] 전국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3,968	2,349	674	339	586	279	284	215	2,503	1,028	508	766	829	1,032	1,089	1,204	283
육상경기장	198	3	3	3	2	3	3	3	30	24	13	12	14	21	26	26	12
축구경기장	558	60	18	16	14	10	10	18	108	36	13	10	53	45	33	98	16
하키장	12	1	1	1	1	-	-	-	2	1	1	1	-	1	1	1	-
야구장	64	12	2	3	1	1	1	-	11	7	3	-	4	5	5	7	2
싸이클경기장	11	1	1	1	1	-	1	-	1	1	1	-	1	1	-	1	-
테니스장	487	53	7	13	5	14	7	1	96	60	16	26	44	48	32	61	4
씨름장	32	-	1	-	-	-	1	1	6	4	-	1	5	2	7	3	1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0,669	1,976	602	265	521	214	216	168	1,963	691	358	491	530	733	894	842	205
체육관	581	103	17	14	12	15	16	8	104	45	27	29	40	44	35	49	23
전천후게이트볼장	628	1	-	1	2	4	4	4	66	90	42	164	101	74	14	47	14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영장	262	86	3	11	10	7	15	6	46	12	6	5	13	10	14	16	2
롤러스케이트장	107	15	9	2	7	2	2	1	17	7	7	4	6	5	8	14	1
사격장	20	-	1	1	1	-	-	1	1	4	2	1	1	1	4	2	-
국궁장	220	8	2	3	7	2	5	3	36	31	13	21	12	35	11	29	2
양궁장	18	1	1	2	1	1	1	1	3	2	2	-	1	1	1	-	-
승마장	13	1	2	2	-	1	1	-	1	3	-	-	2	-	-	-	-
골프연습장	48	25	1	-	1	4	-	-	3	4	1	-	-	2	2	4	1
조정카누장	7	-	1	-	-	-	-	-	1	1	2	-	-	2	-	-	-
요트장	12	-	1	-	-	-	-	-	1	2	1	1	1	2	1	2	-
빙상장	21	3	1	1	-	1	1	-	7	3	-	-	1	-	1	2	-

※ 2009년 12월말 기준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든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상업용 체육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체시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이라는 용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은 당초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29일 개정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상기의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 17개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체육시설업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표 8-3)과 같다.

[표 8-3] 전국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종목\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53,851	11,091	3,131	2,420	2,932	1,612	1,490	1,381
등록시설계	332	0	6	2	4	0	3	3
골프장	339	0	6	2	4	0	3	3
스키장	20	0	0	0	0	0	0	0
자동차경주장	2	0	0	0	0	0	0	0
신고시설계	53,490	11,091	3,125	2,418	2,928	1,612	1,487	1,378
요트장	13	0	0	0	0	0	0	0
빙상장	43	9	4	3	1	1	2	0
승마장	73	0	1	0	0	0	0	0
종합체육시설	201	79	17	8	3	4	7	2
수영장	581	75	31	21	17	11	22	17
체육도장	13,112	2,298	880	785	752	374	339	331
골프연습장	7,446	1,798	374	322	320	154	199	256
체력단련장	6,128	1,496	491	324	287	197	216	141
당구장	24,568	5,155	1,260	829	1,508	800	647	595
썰매장	124	4	0	2	2	1	2	1
무도장	64	23	0	0	3	0	0	0
무도학원	1,137	154	67	124	35	70	53	35

종목\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계	12,842	1,901	1,655	2,177	2,013	1,970	3,016	3,450	770
등록시설계	125	50	23	12	15	25	35	19	39
골프장	118	38	22	12	14	25	35	18	39
스키장	6	11	1	0	1	0	0	1	0
자동차경주장	1	1	0	0	0	0	0	0	0
신고시설계	12,717	1,851	1,632	2,165	1,998	1,945	2,981	3,431	731
요트장	0	0	0	0	0	2	1	9	1
빙상장	4	3	1	2	1	4	3	2	3
승마장	21	2	1	8	4	4	5	2	25
종합체육시설	46	6	3	4	6	2	9	4	1
수영장	152	50	16	29	13	31	39	37	20
체육도장	3,262	374	363	539	524	412	771	932	176
골프연습장	1,986	261	210	242	200	200	408	374	139
체력단련장	1,266	165	187	217	183	162	329	397	70
당구장	5,718	924	821	1,064	1,026	1,069	1,325	1,579	248
썰매장	33	31	8	11	6	6	9	7	1
무도장	25	1	1	1	0	1	3	3	3
무도학원	201	34	21	48	35	52	79	85	44

※ 2009년 12월말 기준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서구교육의 도입과 이들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육상, 축구, 야구, 빙상 등의 스포츠가 소개되면서 체육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각급 학교의 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시설은 자연상태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1897년 2월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1,000원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 및 운동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 후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 절반을 매입, 그 넓이를 측정한 후 경기장 한가운데 100m 직선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최초의 근대적 체육시설은 경성부가 1926년 건립한 경성운동장(구 동대문운동장)이며, 특히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운동장(1959)과 효창운동장(1959), 그리고 장충체육관(1960) 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1960년대부터는 상당 부분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어 왔다. 1962년 9월 법률 제 1146호로 제정, 발효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을 더 이상 학교와 교육의 영역만이 아닌 국민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체육 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 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1966년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로서 태릉선수촌이 세워졌고, 1970대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운동장, 체육관 등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1년도에 서울 올림픽의 개최가 확정되고, 1982년 체육부가 발족한 데 이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시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골프장, 스키장은 교통부, 수영장은 보사부, 체육도장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여 체육지도자 배치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이 보다 싼 이용료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올림픽 이후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15개 시·도에 건립되는 등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체육시설 부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로 고조된 체육에 대한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90년 3월 3개년계획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호돌이 계획은 생활체육진흥의 목표를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복지사회의 실현, 축적된 에너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의 가속화,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두고, 기본방향으로 평생체육의 실현,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한 국력배양, 건전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

체육시설부분에서는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을 신규 확충 대상으로 하여,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전략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장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체육장화 등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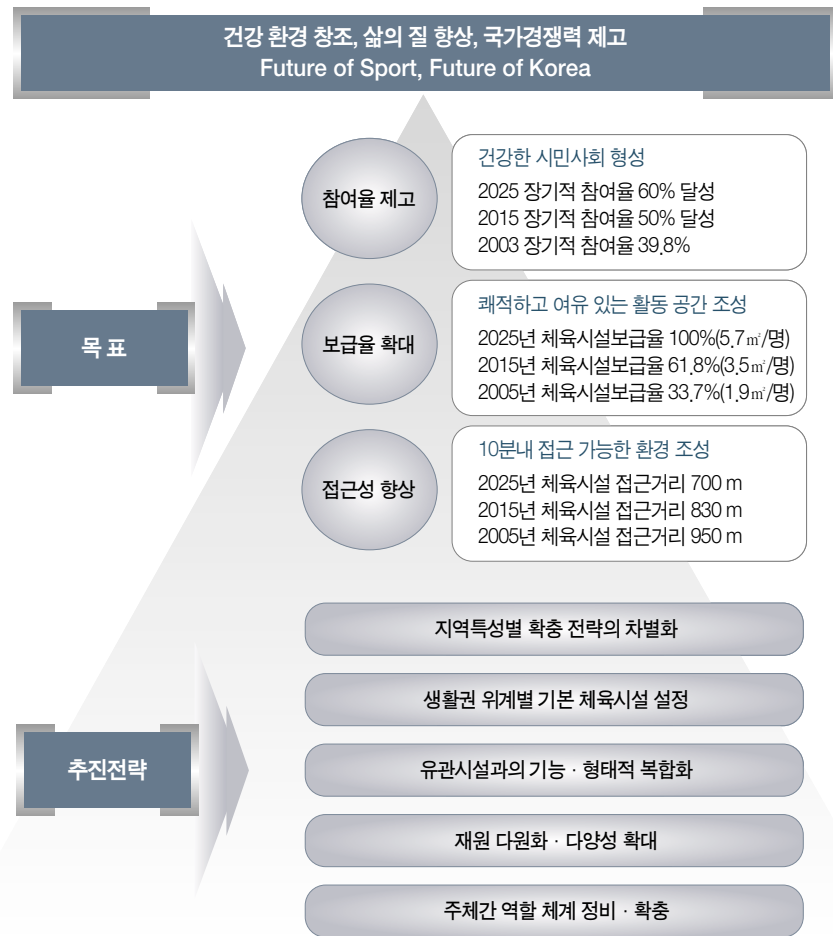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년~1997년)에서는 국민 전체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부족한 동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고, 생활권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연속의 체육시설인 체육공원 등의 집중적인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열악한 동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수요에의 대응을 위해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시·군·구별로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복합 기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활동 향유기회 확대, 시설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수립되었다. 체육시설 공급수준이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문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 시설 등의 확보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5일 근무제 시행,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조성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우리부는 2006년 10월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하며, 201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담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건강환경의 창조,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를 미래 비전으로 하여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체육시설 보급률 확대, 접근성 향상 등 3대 목표를 설정, 2025년까지 정기적 참여율 60%, 체육시설 보급률 100%, 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 700m(시간거리 약 10분)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별 확충전략의 차별화, 생활권 위계별 기본체육시설 설정, 유관시설과의 기능적·형태적 복합화, 재원의 다원화 및 다양성 확대, 주체간 역할체계 정비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8-1] Sports Future 21 비전 체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5.7㎡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61.8%(3.5㎡/인), 참여율 50%, 접근거리 830m 등을 중기목표로 설정, 2015년까지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5.7㎡/인은 월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이 75%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5㎡(보급율 61.8%)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클럽 활동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었다. 균형은 지역의 환경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체육시설 확충 전략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를 균등히 제공함을 의미한다. 지역을 인문지리적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 체육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 지역유형별로 공급주체, 상급정부의 보조, 시설의 배분 형태, 공급기준, 주요 공급시설의 종류를 차별화하여 제안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간단위를 생활권 단위로 구분, 각 생활권별 기본체육시설을 설정, 시설유형별 적정 입지, 개발방식과 자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생활공감형 공공체육시설 건립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생활공감형 체육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 확대 건립 계획을 2008년 9월 7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으로 수영,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실내형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1997년부터 2008년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해 전국에 총 153개소(97개소 완공, 56개소 건립 중, 올림픽생활기념관 15개소 포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체육활동 참여의 우선 조건으로 '체육시설 확충' (50.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에 가능한한 2012년까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체육시설 외에 문화시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체육 공간·학교체육 활성화의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지원한 공공체육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4]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시설명	목 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 요 시 설
전국체전시설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경기장 확보	○ 국고, 지방비 각 50%	미보유 및 규격 미달 경기장 등
시군기본 운동장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필드(축구장), 육상트랙 등
체육시설 체육관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구기 가능 시설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가능 시설
종목별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승마장, 야구장, 하키장, 씨름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개보수
생활체육공원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실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휴게실, 녹지공간 등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 국고, 지방비 각 50%	체육활동·레저시설,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시·군·구 단위에 1개소 건립(올림픽 국민생활관 등 건립지 포함)	○ 개소당 체육진흥기금 30억원 내외(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민간스포츠클럽 수준에 준하는 종합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9~2012년 5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 개소당 체육진흥기금 3.5억원	운동장, 트랙, 야간조명시설 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읍·면지역 대상	○ 개소당 체육진흥기금 2~6억원(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다목적구장, 실내형 복합시설 (커뮤니티센터, 운동센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2009~2012년 1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 개소당 체육진흥기금 4억원 ○ 교육청 8억원, 지방비 4억원 별도	강당 겸 체육관 또는 다목적 전용 체육관 중 선택

1. 전문체육시설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시·군 지역 기본체육시설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 여가공간 마련 및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전문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군 기본체육시설과 종목별 전문체육시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등의 신규 조성사업,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전국체전시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치 시·도의 미보유(규격미달 등) 경기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에는 대전 1개소 98억원, 경남 3개소 75억원, 경기 4개소 66.2억원 등 총 239.2억원이 일반회계로 지원되었다.

[표 8-5] 전국체전시설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최년도	지 역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1982	경 남	1,200	마산야구장(1,200)
1983	인 천	200	종합운동장(200)
1984	대 구	2,000	종합운동장(500), 수영장(1,500)
1985	강 원	4,500	춘천종합운동장(3,000), 벨로드롬(500), 원주운동장(500), 강릉운동장(500)
1987	광주·전남	7,000	광주체육관(2,800), 목포운동장(400), 체육관(600), 수영장(1,700), 나주사격장(700), 벨로드롬(800)
1989	경 기	3,000	성남로울러장(300), 의정부벨로드롬(700), 인양수영장(2,000)
1990	충 북	7,000	청주수영장(3,600), 로울러장(1,430), 궁도장(170), 사격장(1,100), 음성벨로드롬(600)
1991	전 북	8,000	전주수영장(2,500), 벨로드롬(1,500), 롤러스케이트장(1,000), 승마장(500), 군산체육관(1,500), 이리운동장(1,000)
1992	대 구	3,843	사격장(360), 로울러장(1,010), 다이빙장(250), 테니스장(505), 승마장(1,168), 궁도장(300), 조정카누장(250)
1993	광 주	4,000	수영장(4,000)
1994	대 전	4,913	수영장(2,736), 벨로드롬(2,177)
1998	제 주	5,500	제주체육관 4개소(2,300), 동흥, 조천, 한경, 안덕, 표선체육관(2,000), 서귀포궁도장(600), 서귀포테니스장(600)
2001	충 남	14,537	천안종합운동장(12,750), 천안실내체육관(750), 보령요트장(750), 예산운동장(500)
2002	제 주	2,500	제주시 주경기장 및 야구장보수(1,250), 서귀포 롤러스케이트장(750), 제주유도체육관(500)
2003	전 북	19,200	전북임실도립사격장(6,000), 전주실내수영장(11,200), 전주롤러스케이트장(1,000), 부안요트장(1,000)

개최년도	지역	지원금액	지원대상
2004	충북	12,100	청주운동장(2,500), 청주유도회관(2,000), 청주다이빙장(1,000), 충주체육관(2,500), 충주요트장(500), 제천하키장(1,100), 제천정구장(500), 진천운동장(1,500), 진천카누장(500),
2005	울산	31,100	종합운동장(17,000), 수영장(11,000), 테니스장(1,000), 롤러스케이팅장(1,400), 사격장(700)
2006	경북	15,000	실내수영장(2,800), 실내체육관(7,550), 테니스장(900), 롤러스케이팅장(710), 종합운동장 조명탑(670), 태권도경기장(1,500), 종합스포츠클럽(870)
2007	광주	14,200	핸드볼경기장(4,877), 정구장(349), 하키장(500), 사격장(475), 월드컵경기장증축(1,724), 수영장보수(1,800), 태권도장보수(1,768), 승마장 보수 등 10개소(2,707)
2008	전남	23,000	사격장(3,967), 나주인라인롤러장(1,905), 여수종합경기장보수(7,387), 망미경기장보수(2,797), 목포하키장(1,316), 목포수영장보수(1,181), 사이클경기장 보수 등 18개소(4,437)
2009	대전	19,600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19,600)

2) 시·군 기본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운동장은 2009년 총 140개 시·군에서 확보하여 약 86%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전남 무안 등 5개소에 44.4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체육관은 2009년 총 130개 시·군에서 확보하여 약 80%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기 광주 등 20개소에 242.65억원이 되었다.

국고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며, 시·도별로 정해진 균특회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표 8-6] 지역별 운동장·체육관 확보 현황

시·도	전체 시군	확보 시·군		미확보 시·군		건립중	
		운동장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계	163	140개 시·군(163)	130개 시·군(177)	23개 시·군	33개 시·군	6	13
부산	1	-	1개 시·군(1) 기장	1 기장	-	-	-
대구	1	-	1개 시·군(1) 달성	1 달성	-	-	-
인천	2	-	1개 시·군(1) 강화	2 강화, 옹진	1 옹진	-	-
울산	1	-	1개 시·군(1) 울주	1 울주	-	-	-

시·도	전체 시군	확보 시·군		미확보 시·군		건립중	
		운동장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경기	31	23개 시·군(27) 수원, 성남(2), 의정부, 안양, 부천(2), 동두천, 평택(2), 안산, 고양, 과천, 오산,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광주, 포천, 안성, 김포, 여주, 연천, 가평, 하남	25개 시·군(36)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2), 광명, 구리, 평택(2), 안산(3), 고양, 과천, 오산, 군포(3), 시흥(2), 남양주(2), 파주, 이천, 용인, 안성, 김포(2), 여주, 포천, 가평, 양평, 하남, 연천	8 광명, 구리, 의왕, 군포, 시흥, 양주, 화성, 양평	4 동두천, 의왕, 화성, 양주	-	2 광주, 연천
강원	18	17개 시·군(2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2), 삼척(2),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2),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2)	17개 시·군(23) 춘천(2), 원주(2), 강릉(4), 동해, 태백, 속초, 삼척(2), 평창(2),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영월, 철원, 홍천	1 양양	1 횡성	-	1 영월
충북	12	11개 시·군(13) 청주, 충주, 제천(2),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2), 단양	7개 시·군(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단양, 영동	1 증평	5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	-	-
충남	16	12개 시·군(12) 천안(2), 서산, 공주, 아산,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	13개 시·군(13) 천안(2), 공주, 아산, 보령, 연기, 부여, 서천, 당진, 태안, 홍성, 계룡, 예산, 청양	4 계룡, 연기, 서천, 태안	3 서산, 논산, 금산	-	3 계룡, 예산, 청양
전북	14	14개 시·군(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순창	11개 시·군(13) 전주(2), 군산, 익산, 정읍(2), 김제,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남원, 부안	-	3 원주, 무주, 장수	-	2 남원
전남	22	21개 시·군(22) 목포, 여수(2),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무안, 영광, 장성, 원도, 진도, 신안	15개 시·군(19) 목포, 여수(2), 순천(2), 나주, 광양, 구례, 보성, 장흥, 해남(2), 영암, 장성, 진도, 신안, 담양, 화순	1 곡성	7 곡성, 고흥, 강진, 무안, 함평, 원도, 영광	3 구례, 무안, 신안	2 진도, 화순
경북	23	20개 시·군(21) 포항, 경주(2),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산	15개 시·군(19) 포항(2), 경주, 김천(2), 안동(2), 구미, 영주, 영천(2),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진, 경산	3 군위, 고령, 성주	8 군위,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울릉	3 칠곡, 울릉, 경산	1 경산
경남	20	20개 시·군(24) 마산, 진주(2), 창원, 진해, 통영, 사천(2), 김해, 밀양(2), 거제(2),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9개 시·군(29) 마산(2), 진주(2), 창원(2), 양산, 진해, 통영, 사천(2), 김해(5), 밀양(2), 거제, 창녕, 고성(2),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함안	-	1 의령	-	2 남해, 함안
제주	2	2개 시(9) 제주(2), 서귀포(1), 북제주, 남제주(5)	2개 시(14) 제주(2), 서귀포(3), 북제주(5), 남제주(4)	-	-	-	-

[표 8-7] 2009년 운동장·체육관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대 구	달성 스포츠파크 운동장	1,000	대구 달성군
울 산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	500	울산 중구
경 기	연천 실내체육관	1,203	연천군
	광주 문화스포츠클럽센터	1,380	광주시
	과천 실내체육관	877	과천시
강 원	원주 종합체육관	1,900	원주시
	화천 실내체육관	500	화천군
충 남	계룡 실내체육관	1,909	계룡시
	청양 실내체육관	3,000	청양군
전 북	남원 실내체육관	1,800	남원시
	고창 실내체육관	2,258	고창군
	부안 실내체육관	1,194	부안군
전 남	목포 배구체육관	300	목포시
	고흥 김일선수 기념체육관	400	고흥군
	화순 복합실내체육관	2,500	화순군
	장흥 청소년다목적체육관	500	장흥군
	해남 다목적생활체육관	450	해남군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1,640	영암군
	무안 공설운동장	500	무안군
	진도 실내체육관	600	진도군
	신안 공설운동장	270	신안군
	경 북	철곡 종합운동장	1,470
상주 실내체육관		1,100	상주시
경 남	마산 내서 운동장	1,200	마산시
	거제 사등 실내체육관	250	거제시
계	25개소	28,701	

3) 종목별 전문체육시설

종목별 전문체육시설은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전문경기장 및 전지훈련시설 등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 15억원, 2004년 54.5억원, 2005년 65억원, 2006년 311.7억원, 2007년 421.9억원, 2008년 419.3억원, 2009년에는 계속사업 포함 48개시설에 389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다. 2009년의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8] 2009년 지역별 전문체육시설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부 산	청소년복합문화체육센터(체육관)	1,000	북구
광 주	진월 국제테니스장	500	광주 본청
	실내 배드민턴장	900	광주 본청
	첨단 인라인스케이트장	120	광산구
울 산	아름 근린공원 체육시설	700	남구
경 기	광주 문화스포츠클럽센터	1,380	광주시
	남양주 와부수영장	800	남양주시
	오산 시민스포츠클럽센터	1,600	오산시
	고양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1,000	고양시
강 원	법슬레이 루지 스타트 훈련장	300	강원 본청(평창)
	원주 종목별 체육경기장	500	원주시
	동해 전용축구장	500	동해시
	속초 인조잔디 야구장	500	속초시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300	평창군
	둔내 종합체육공원	500	횡성군
	양양 사이클경기장	3,000	양양군
	화천 카누슬라럼경기장	500	화천군
	충주 배드민턴 전용구장	550	충주시
	충주 탄금테니스장 및 인라인장	580	충주시
충 북	청주 정구 돐구장	1,300	청주시
	음성 전천후 정구장	1,100	음성군
충 남	공주 레슬링훈련장	130	공주시
전 북	전라북도 체육회관	1,350	전북 본청
	순창 풍산 체육광장	160	순창군
전 남	목포 전남제일고 수영장	400	목포시
	여수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300	여수시
	순천 상사축구잔디구장	300	순천시
	나주 웨이트트레이닝장	1,000	나주시
	광양 실내수영장	1,000	광양시
	광양 광영축구장	200	광양시
	고흥 축구보조구장	500	고흥군
	보성 국민에코스포츠클럽	500	보성군
	해남 다목적 체육시설	500	해남군
	영암 공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656	영암군
	함평 야구전문터운	500	함평군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경 북	구미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1,730	구미시
경 남	마산 시립종합테니스장	814	마산시
	삼천포운동장 주변체육시설	300	사천시
	사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300	사천시
	거제 스포츠파크	700	거제시
	통영 오트윤영시설	300	통영시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2,500	통영시
	함안 승마장	700	함안군
	고성 역도경기장	500	고성군
	거창 스포츠파크	3,500	거창군
제 주	남부전지훈련센터	1,500	제주 본청
	서부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400	제주시
	서귀포 실내야구장	540	서귀포시
계	48개소	38,910	-

4)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변화된 체육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목적으로 노후한 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한 지방체육시설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35개 사업에 202.9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다. 2009년의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지원실적은 (표8-9)와 같다.

[표 8-9] 2009년 지역별 리모델링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 설	지원금	비 고
대 구	두류수영장	600	대구 본청
	강변축구장	420	대구 본청
	시민야구장	450	대구 본청
	실내씨름장	960	대구 본청
광 주	풍영 다목적구장 체육시설	240	광산구
대 전	국민생활관	503	서구
	대전 지방체육시설	600	대전 본청
	월평 사이클경기장	195	서구
울 산	문수 국제양궁장	270	남구
경 기	시흥 정왕동 육상경기장	383	시흥시
	김포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240	김포시
강 원	강릉 컬링경기장	300	강릉시
	속초 종합운동장	400	속초시
	동해 종합운동장	1,000	동해시
	철원 종합운동장	500	철원군
충 북	옥천 공설운동장	810	옥천군
	보은 공설운동장	690	보은군
충 남	청양 공설운동장	1,800	청양군
전 북	임실 군민체육회관	200	임실군
전 남	목포 유달경기장	400	목포시
	장흥 공설운동장	300	장흥군
	해남 우슬경기장	900	해남군
	영광 공설운동장	900	영광군
	완도 종합운동장	1,040	완도군
경 북	성주 하키경기장	400	성주군
경 남	김해 하키경기장	600	김해시
	삼천포 운동장	300	사천시
	진해 공설운동장	800	진해시
	진해 풍호공원 운동장	750	진해시
	통영 공설운동장	250	통영시
	하동 공설운동장	680	하동군
	산청 공설운동장	1,280	산청군
	함양 공설운동장	330	함양군
	합천 공설운동장	295	합천군
제 주	제주 종합경기장 야구장	500	제주시
계	35개소	20,286	-

2.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간 확충은 지역주민이 집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신규시설의 적극적 조성과 기존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센터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서민 체육공간을 확충, 사회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 생활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건립하여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7년의 지방스포츠센터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에는 보급형스포츠센터로, 다시 2001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체육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착공, 200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서는 일반 대중이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 체육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구 단위에 각 1개소씩 기존의 35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하였으며, 다시 시군구에 각 1개소씩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4레인×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체육관복합(기본형+체육관),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표 8-1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구분	계		국민생 활관('89)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량	금액													
계	153	4,679	15개 (450)	3개 (180)	17개 (516)	5개 (142)	7개 (210)	10개 (300)	13개 (390)	16개 (480)	12개 (360)	6개 (180)	7개 (210)	13개 (390)	29개 (870)
서울	3	150	종로(30)	강서(90)	-	-	-	성동(30)	-	-	-	-	-	-	-
부산	10	307.5	해운대 (30)	-	서구 (37.5)	-	-	사하 (30)	금정 (30)	영도 (30)	-	남구 (30)	-	기장(29) 연제(30) 북구(31) 사상(30)	연제(30) 북구(31) 사상(30)
대구	6	186.5	달서(30)	-	동구(37.5)	-	-	-	경북대(30)	달서(30)	서구(30)	-	-	-	달성(29)
인천	5	157.5	남동(30)	-	계양(37.5)	-	부평(30)	-	남동(30)	서구(30)	-	-	-	-	-
광주	6	188.5	서구(30)	-	광산(37.5)	-	서구(30)	-	북구(30)	남구(30)	-	-	-	-	동구(31)
대전	6	173	서구(30)	-	유성(22)	-	-	서구(30)	-	-	대덕(30)	-	-	중구(30)	동구(31)
울산	4	119	-	-	중구(30)	-	동구(30)	-	-	-	북구(30)	-	-	남구(29)	-
경기	18	524	안산(30)	-	의왕(30) 부천(30)	-	-	광명(30) 평택(30)	가평(30)	시흥(30) 하남(30)	화성(30) 오산(30)	-	양평(29)	포천(29) 안성(29)	남양주(28) 김포(27) 성남(27) 여주(28) 고양(27)
강원	14	422	춘천(30)	-	춘천(30)	원주(30)	-	-	고성(30)	인제(30) 동해(30)	강릉(30)	평창(30)	태백(28)	속초(30) 횡성(31)	양구(31) 홍천(31) 정선(31)
충북	10	317	청주(30)	제천(45)	-	충주(30)	-	보은(30)	청원(30)	음성(30)	증평(30)	-	영동(30)	-	옥천(31) 단양(31)
충남	12	360	아산(30)	-	천안(30)	공주대 (30)	금산(30)	연기(30)	서산(30)	보령(30)	논산(30)	서천(30)	-	태안(30)	예산(31) 당진(29)
전북	11	349	익산(30)	익산(45)	-	전주(30)	군산(30)	정읍(30)	완주(30)	남원(30)	장수(30)	-	-	부안(32)	김제(31) 진안(31)
전남	14	426	순천(30)	-	강진(30) 목포(30)	-	무안(30)	-	영광(30) 곡성(30)	나주(30)	해남(30)	구례(30)	진도(36) 여수(27)	장흥(32)	영암(31) 화순(30)
경북	13	383	구미(30)	-	영주(30) 군위(22)	-	-	문경(30) 경주(30)	안동(30)	포항(30)	상주(30)	경산(30)	청도(30)	칠곡(29)	고령(31) 봉화(31)
경남	16	474	마산(30)	-	진해(30) 밀양(22)	-	함안(30)	-	의령(30)	양산(30) 진주(30)	거제(30)	거창(30)	김해(30)	통영(31)	창원(27) 사천(31) 고성(31) 하동(31) 산청(31)
제주	5	142	서귀포 (30)	-	제주 (30)	서귀포 (22)	-	-	-	북제주 (30)	-	-	-	남제주 (30)	-

※ 원공지역(97개소): 서울(강서, 성동, 종로) 부산(서구, 사하, 금정, 해운대, 영도) 대구(동구, 경북대, 달서2, 서구) 인천(계양, 부평, 남동 2, 서구) 광주(광산, 서구2, 전남대, 남구) 대전(유성, 서구2, 대덕) 울산(중구, 동구, 북구) 경기(의왕, 부천, 평택, 시흥, 하남, 가평, 광명, 안산) 강원(춘천2, 원주, 고성, 동해, 인제, 강릉) 충북(청주, 제천, 충주, 보은, 청원, 증평, 음성, 영동) 충남(아산, 천안, 공주대, 금산, 연기, 서산, 보령, 논산) 전북(익산2, 전주, 군산, 정읍, 완주, 남원, 장수) 전남(순천, 강진, 목포, 영광, 곡성, 해남, 구례, 무안), 경북(구미, 영주, 군위, 문경, 경주, 안동대, 포항, 상주) 경남(마산, 밀양, 진해, 함안, 의령, 진주, 김해) 제주(제주, 서귀포2, 북제주, 남제주)

2)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는 전국 시·도 단위별로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발표된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확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7개소에 대한 사업이 착수되었고, 2009년까지 총 151개소에 지원되었다. 2009년에는 18개 사업에 105.5억원이 지원되었다.

국고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며, 시·도별 정해진 균특회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표 8-11] 생활체육공원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시·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0	-	-	-	-	-	-	-	-	-	-
부산	1	-	-	-	-	기장	-	-	-	-	-
대구	3	-	-	-	-	달서구, 남구	-	-	-	달성	-
인천	2	-	-	-	남동, 계양	-	-	-	-	-	-
광주	6	-	-	-	서구, 북구, 광산	남구, 동구	-	-	-	본청	-
대전	1	-	-	-	-	-	대덕구	-	-	-	-
울산	4	-	-	-	북구	중구	울주군	-	-	남구	-
경기	24	-	과천	가평, 양평	안양, 수원, 평택	용인, 부천, 여주, 시흥	연천, 양주, 김포	이천, 가평, 수원, 광주	동두천, 양주, 포천, 구리	양평	오산, 의정부
강원	12	화천	-	평창, 고성, 정선	인제, 홍천, 횡성	철원, 춘천	등해	영월	-	원주	-
충북	11	-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옥천	청주, 음성	-	청원, 보은	충주	-	제천
충남	12	부여	-	금산	당진	연기, 천안, 아산	계룡, 홍성, 논산	-	태안	-	당진, 서천
전북	13	익산, 진안	-	전주, 순창	원주, 장수, 정읍, 임실	무주, 고창	-	김제	-	완주	익산
전남	19	광양	해남	목포, 곡성	담양, 함평, 화순	무안, 순천, 신안, 고흥	완도	장흥, 강진	목포, 영광	신안, 곡성, 보성	-
경북	16	안동	-	영주, 영덕, 봉화	고령, 군위	상주, 울진, 경주, 청송	예천	문경, 경산	-	포항, 의성, 안동	-
경남	22	김해	진주	진해, 밀양, 함안, 함천, 거창	하동,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산청	사천, 의령, 함양	-	고성	진해, 양산, 창녕	양산, 남해
제주	5	-	제주	-	서귀포	북제주	-	제주	북제주	-	-
계	151	7	5	21	26	32	14	13	10	15	8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2006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운동을 하고 싶으나 시설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읍/면 이하의 경우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체육시설 확충이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생활체육 활성화 및

균등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체육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으로 지원되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04년 종료)의 대안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체육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전국 읍·면·동 지역을 서비스 영역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폭 넓게 환원함과 동시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체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말 기준 15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3개소가 건설 및 사업 추진중에 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09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하여 확대여부 등 합리적 시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모델을 개발(주요시설 :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 하여 지원되고 있다.

[표 8-12]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단위 : 억원)

시·도	개소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5	남양주(3.5), 포천(5)	양주(5), 여주(5)	파주(5)	-
강원	5	삼척(6)	-	영월(6)	홍천(4.5), 화천(5), 고성(6)
충북	1	-	-	-	음성(6)
충남	-	-	-	-	-
전북	2	순창(5)	-	정읍(5)	-
전남	4	고흥(6)	영암군(6)	강진(4.5), 신안(6)	-
경북	5	-	구미(4.5), 포항(5), 영주(6)	봉화(6)	청도(5)
경남	5	사천(6), 산청(6)	하동(6)	창녕(4.5)	함안(6)
제주	1	-	-	-	제주(5)
계	28 (150)	7 (37.5)	7 (37.5)	7 (37.5)	7 (37.5)

4)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전문체육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국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축구발전종합대책(1997년 9월)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 의거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 공설운동장 35개소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다. 2000년부터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레탄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부터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에는 사업명을 운동장생활체육시설로 개칭,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초·중·고교 운동장 147개소, 대학(교) 20개소, 지자체 33개소 등 총 200개소를 지원하여 2009년까지 총 996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MOU 체결(2008년 10월 15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총 1,000개 초·중·고 학교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내용)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등으로 조성 지원
- (계획) 2009년~2012년 기간 총 1,000개교의 학교운동장 조성(문체부, 교과부 각 500개교)
* 200개교(2009년) → 200개교(2010년) → 300개교(2011년) → 300개교(2012년)

[표 8-13]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연잔디구장	1998	37	-	1	-	2	-	-	5	4	3	1	4	3	7	6	1
	1999	34	-	1	1	2	1	1	2	2	2	2	6	5	4	3	2
	2000	13	1	-	-	-	-	-	1	2	-	-	1	2	1	3	2
	2001	11	-	-	1	-	-	-	1	2	1	-	1	2	-	1	2
	합계	95	1	2	2	-	4	1	1	9	10	6	3	12	12	12	13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공 생활 체육 시설 ^ 잔디 · 우 레탄 ▽	2000	13	5	-	-	-	1	-	-	1	-	-	2	1	-	1	1	
	2001	50	6	2	2	1	2	3	1	9	2	4	5	2	4	3	2	
	2002	55	4	2	4	2	2	2	2	9	3	2	6	3	5	4	2	
	2003	109	12	12	8	3	5	4	4	10	5	4	6	6	7	9	11	3
	2004	104	11	13	8	4	5	4	3	9	4	6	5	6	9	9	2	
	2005	116	10	11	8	4	6	5	5	11	6	6	7	6	8	10	9	4
	2006	100	12	10	6	3	4	4	3	13	3	4	5	6	5	8	10	4
	2007	141	16	14	8	6	6	5	4	18	9	5	8	5	10	12	12	3
	2008	108	10	10	7	5	4	5	4	16	5	5	6	4	8	8	9	2
	2009	200	18	17	12	7	10	11	5	19	15	8	14	14	12	18	17	3
합계	996	76	65	44	23	30	28	22	79	33	29	39	41	42	57	59	21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5)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진입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축구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FIFA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FIFA 월드컵 잉여금 1,690억원 중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650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입되었다(2003년 6월).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은 축구센터(Football Center)와 축구공원(Football Park)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에 축구센터 3개소, 축구공원 14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축구센터는 충북 천안, 전남 목포, 경남 창원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2004년 12월). 축구공원은 대도시의 부지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분리 조성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서울 3개소, 부산 기장, 대구 2개소, 인천 연수, 광주 3개소, 대전 4개소, 울산 울주, 경기 2개소,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익산, 경북 2개소, 제주 서귀포 등 총 23개소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말 기준 축구센터는 천안, 목포, 창원 세 곳 모두 완공되었으며, 축구공원은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전북 익산, 부산 기장, 광주 광산, 경기 포천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14개소가 완공되었다.

[표 8-14]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구 분	축구센터(Football Center)	축구공원(Football Park)
지원액	375억원(개소당 125억원)	275억원(개소당 19.6억원)
세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 풋살 경기장 1개 ○ 하프돔 1개 ○ 숙박시설(120베드 이상) ○ 편의시설(교육연수, 체력단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잔디 3면 ○ 풋살 경기장 1면 ○ 편의시설(관리실, 라커룸, 화장실 등)
부지규모	5~6만평 이상	1.5~2만평 이상
후보지	중부·호남·영남권 각 1개소	13개 시·도(경기 2, 각 시·도 1) * Football Center 선정 시·도는 제외

6)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속에 체육활동과 휴식,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노인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고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며, 시·도별 정해진 균특회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표 8-15] 노인건강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개소)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 구	4	-	-	-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달서구
광 주	1	남구	남구	-	-	-	-
강 원	1	-	-	-	-	삼척시	-
충 북	4	-	-	-	-	옥천군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충 남	1	-	-	-	서천군	서천군	-
전 북	1	-	장수군	-	-	-	-
전 남	2	-	-	-	-	장흥군	함평군
계	14	1	1	0	2	4	6

7)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자체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은 사업비로 학교부지를 활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일반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토록 하고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자립도 30%이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초·중·고교를 지원하였으며, 개소당 총사업비 16억원 기준(체육진흥기금·지방비 각 25%, 교육청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정규) 체육관(바닥면적 600㎡ 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강당 겸용 체육관(평상 시 : 체육활동 / 행사 시 : 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 2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MOU 체결(2008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 초·중·고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8-16]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개소수	2009년
경기	2	상면초(410), 개군초(410)
강원	2	팔월고(315), 강림중(220)
충북	2	이월중(410), 황간고(415)
충남	2	백제중(420), 광동초(410)
전북	3	이평초(420), 구이중(410), 무주초(420)
전남	7	매산중(410), 관산초(425), 도포중(270), 예당고(337), 송지중고(337), 군내북초(420), 강진여중(425)
경북	7	중모중(420), 영양초(425), 대가야고(420), 대영고(415), 감천초(420), 의성초(425), 영천전자고(415)
계	25	25(9,825)

3.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들이 국민의 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시설수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종합운동장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운동장, 체육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수 증가와 함께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재정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8-17]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 수

(단위: 개소수)

계	육상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롤러장	국궁장	기타
3,270	197	569	258	485	557	64	107	220	813

※ 동네체육시설(10,669개소) 제외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이에 정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의 설치, 운영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와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및 제101조를 개정(2010.3.16)하여 스포츠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간 스포츠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에는 아래와 같이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 종래 허용 경기장 및 수익시설 범위 〉

- 허용 경기장 : 월드컵경기장,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 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허용
- 허용 수익시설 : 면적 100만㎡ 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에만 설치 가능

2)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체육시설관리자 대상 교육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 체육시설의 공간적, 시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 관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전문단체 위탁관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침 배포

이용자 편의 위주의 시설관리운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유희화 방지와 공공체육시설의 주민 화합 및 복지센터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리제도의 합리화 및 대안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시설관리전문단체의 민간위탁관리를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테니스장,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빙상장 등은 전반적으로 위탁율이 높고 위탁여건이 성숙된 시설로 보이나, 육상경기장, 하키장, 싸이클경기장, 체육관, 요트장 등은 위탁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간이운동장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특성별로 관리운영 환경이 다르며, 이미 위탁여건이 성숙된 종목의 체육시설은 위탁단체를 통한 관리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에 경쟁력있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공공시설 상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건립취지나 정책 목적과는 괴리된 결과를 수반할 우려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그것의 운영방법이 정부 직영이든 민간위탁·민영화이든 저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좋게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와 시·군·구 소유의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시설로 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의 합리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 시설보완 및 이용절차 간편화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합리화는 수영장, 테니스장, 국궁장 등 민간위탁 여건이 성숙된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운영은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지역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둘째, 유희공간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경기장을 각종 문화, 집회, 행사 등 지역주민의 이용에 적극 활용하며, 셋째, 체육시설의 다용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체육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이용절차 간편화는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의 경기장시설에 대한 이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4)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유희화 방지 및 주민 편의·활용 위주의 관리·운영으로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문화행사·집회 등 개최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지역 내 주민 화합 및 주민복지 중심으로 정착시키고자 추진되었다.

노후화된 운동장·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지방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장애인·노인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체육시설은 주·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시설 이용료 책정, 시설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 방향 전환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5)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할인율 적용 확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동법 시행령 별표 2를 근거로 하며,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 현황

1) 운영수지 현황

10개 월드컵경기장의 운영수지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2004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은 2004년에는 49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대형할인매점 임대수입 등의 증가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1,368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 10개 경기장 수입 총액은 36,865백만원으로 이 중 서울이 18,126백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출 총액은 42,981백만원이며, 대구가 10,980백만원으로 가장 지출이 큰 경기장으로 조사되었다.

총 적자규모는 6,116백만원으로 인천, 대구, 수원 순으로 큰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8-18] 월드컵경기장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수지
서울	18,125,665	9,759,258	8,366,407
부산	3,358,516	1,990,941	1,367,575
대구	435,924	3,324,345	△2,888,421
인천	2,723,006	5,844,385	△3,121,379
광주	191,182	1,857,826	△1,666,644
대전	309,622	1,946,277	△1,636,655
울산	1,547,964	3,313,481	△1,765,517
수원	8,748,825	10,880,978	△2,132,153
전주	1,265,913	3,245,338	△1,979,425
제주	158,511	817,806	△659,295
합계	36,865,128	42,980,635	△6,115,507

2) 입주업체 현황

2009년 10개 월드컵경기장의 전체 임대면적은 240,819㎡로 나타났다. 연간 임대료 총액은 21,679,636천원으로 서울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면적은 서울, 수원, 인천, 제주, 광주 순으로, 연간임대료는 서울, 수원,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9] 월드컵경기장 임대 및 매장 구성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대부면적	연임대료	매장구성
서울	84,236	13,489,271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복합상영관, 사우나, 음식점, 패스트푸드, 커피숍
부산	4,125	65,431	사무실, 생활체육교실, 선수훈련장, 창고
대구	3,510	199,385	음식점, 일반음식점, 매점, 사무실
인천	23,928	983,053	축구전문물, 종합스포츠센터, 어린이박물관, 청소년문화센터, 은행, 사무실
광주	1,011	48,783	매점, 사무실
대전	7,825	469,529	스포츠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매점, 식당, 골프용품점, 공연장, 은행, 사무실
울산	9,459	785,191	음식점, 레스토랑, 사치관, 집회장, 사무실
수원	77,121	4,777,790	스포츠센터, 컨벤션, 식당, 매점, 사무실
전주	13,407	718,543	음식점, 사우나, 유품점, 식당, 사무실
제주	16,197	142,660	아쿠아랜드, 영화관, 전시관, 사무실
합계	240,819	21,679,636	-

※ 출처 : 경기장별 관리 업체

매장 구성은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음식점, 문화시설, 사무실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형할인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과 부산이 운영수지 흑자를 보임에 따라 할인점의 입점 여부가 운영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태권도공원 조성

1. 태권도공원 조성의 의의

1) 태권도공원 조성의 배경 및 의의

태권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5개의 지역연맹, 191개 가맹국, 약 7천 만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했다. 가라테와 우수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도 종목뿐만 아니라,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태권도와 같이 40여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는 근대체육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태권도가 단기간에 양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기에 기초한 세계화 추진전략”(윤상화,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계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범의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모든 역량을 외연확대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10만 여개의 태권도장이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또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문화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미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태권도는 이러한 해외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해외 태권도계에서의 한국인의 비중 역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기위주의 단순성과 무도 및 생활태권도로서의 기능약화,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저하 등 국내적 요인과 이종격투기 등과 같은 각종 무술종목과의 경쟁심화 등 국외적 요인 때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와 관련하여 태권도는 종주국으로서의 문화원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문화브랜드화를 통하여 21세기 문화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태권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1997년 7월 대한체육회의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 등을 계기로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태권도 관련 시설물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2001년 9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과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확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과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세계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기능적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2004년 5월 정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간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에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등의 공공투자 부문과 세계문화촌, 숙박촌, 전통한방요양원 등 민간투자 부문의 시설물을 2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선정을 위하여 15개 분야 19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와 11개 분야 총 13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후보지 신청기간(2004년 10월 7일~11월 6일) 중 접수된 총 17개 지역(부산시-기장, 광주시-광산구, 인천시-강화, 경기도-양주·양평·여주·포천, 강원도-강릉·원주·춘천, 충청도-보은·진천, 충청남도-금산·천안, 전북도-무주, 전남도-여수, 경북도-경주)을 심사한 결과, 1차적으로 3개 지역(춘천, 무주, 경주)을 선정한 후 2004년 12월 30일 전북 무주(설천면)를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경과

1)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준비단 발족

정부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2월 14일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을 발족,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준비단은 단장 이외에 4급 1명, 5급 1명, 6~7급 2명, 업무보조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 수립, 태권도공원 해외홍보,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태권도공원 조성을 담당할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2)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홍보방안 마련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은 2005년 3월 세계태권도연맹 이상철(미국) 부총재, 박선재(이태리) 부총재, 이태은(캐나다) 감사, 정화(미국) 집행위원 등 5명을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준비단장 및 무주군수 등이 참석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 각국 태권도지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한 2005년 7월 조정원 총재 등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37명을 전북 무주로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3) 태권도공원에 대한 명칭 공모 및 국민제안, 세미나 실시

태권도공원의 명칭은 1997년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당시까지는 ‘태권도성전’ 등이 사용되다가, 1998년 문화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부터 ‘태권도공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에서는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전 국민 및 세계태권도연맹 가맹국의 태권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공원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태권도장 및 태권도학과, 태권지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 국민 대상 명칭 공모에서는 402명이 응모한 178편의 명칭 중 ‘태권도공원’, ‘태극공원’, ‘화랑공원’ 등이 최다 응모를 받았으며, 우수작 3편(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센터, 태권도월드)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참여한 태권도단체장 간담회에서 ‘태권도공원’이라는 명칭이 이미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 태권도인뿐 아니라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도 필요하므로 현재의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반영하여, 2006년 11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태권도공원’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2007년 12월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명칭으로 명시되었다.

[표 8-20]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및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제 안 된 명 칭	비 고
국내 명칭 인터넷 공모 (178편)	○ 다수 응모 : 태권도공원(97건), 태극공원(46건), 화랑공원(25건) 등 ○ 우수작 : 세계태권도광장, 태권도월드, 태권도센터	2005.3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시 제안	○ 세계태권도전당, 태권랜드, 한국정신공원	2005.3~6
국내 태권도장 의견수렴 (240개)	○ 세계태권도전당(29.2%), 태권도공원(17.5%), 세계태권도광장(15.8%) 태권도누리, 태권도월드 등	2006.4
태권도신문 설문조사 (태권도학과 208명)	○ 세계태권도공원(30.3%), 태권도공원(16.4%), 태권도전당(14.4%), 세계태권도광장(12.5%) 등	2006.5
무토미디어 설문조사(731명)	○ 태권도전당(19%), 국기원(18%), 태권도마을(9%) 등	2006.4~5

또한 준비단에서는 2005년 6월과 7월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국민 제안을 공모하여 총 20건 중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제안자 3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표 8-21] 태권도공원 조성 방향 국민제안 공모 결과

구 분	제 안 내 용
최우수 제안	태권도 세분화를 통한 홍보전략과 공원의 조성방안
우수 제안	태권도역사관, 명예의 전당, 전시관, 체험관 건립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체계적 관리(이메일, 아이디 등)
	태권도공원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준비단은 태권도공원의 기본개념 정립과 향후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성격의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연구를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태권도공원 기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5년 7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태권도계, 관광계, 건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하여 태권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계와 문화·관광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5년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문화관광부 태권도조성추진위원장을 맡아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에 참여한 이대순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이 선출되어 현재까지 연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 25명(이사장, 사무총장 포함)과 감사 1명 등 총 26명의 임원 및 사무총장 이하 2국 5팀 총 25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이외에도 태권도 관련 연구·조사·홍보사업, 태권도 연수사업 및 태권도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 태권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한다.

5)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컨소시엄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태권도공원 기본개념 정립, 공간구성 등 건축프로그램 설정, 총사업비 산출, 운영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제설계경기 운영계획수립, 설계지침서 작성 등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공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태권도공원 이용자를 지도자, 일반인(고단자, 태권도인, 일반인), 수련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 이용자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태권도인의 중심본부, 세계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 공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명소 공간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아울러 이용자를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태권도인에게는 전문교육과 수련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태권도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도입시설 계획은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시설로서 태권도공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으며, 지형 순응형 자연친화적 건축계획을 통해 태권도의 기본정신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의뢰(2006년 11월)하였고,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총사업비 6,009억원:민자포함시)되었으며, 2009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승인을, 동년 12월에는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득하였다.

6) 관련 법체계 정비 및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2008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의해 태권도공원 입찰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5월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태권도공원 건설사업관리(CM)사 및 턴키사업자 선정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였다.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2월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공고하여 2009년 5월 턴키사업자(시공사)를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부지에서 태권도공원 기공식을 성대히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다.

3. 태권도공원 향후 사업추진 일정

2010년 3월 미 매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착공에 따라, 태권도공원은 2010년도에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지정리, 가설 및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개관할 예정이다.

[표 8-22] 사업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추진 기관
2010	문화재(시발굴) 조사 가설공사 및 토목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1~2012	건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3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제 5 절 과제 및 발전방안

1. 조성정책의 평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체육시설 관련 정책의 주요 기조는 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로 대표될 수 있다. 시설 확충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접근기회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참여로 인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복지사회를 구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이용활성화는 지역의 체육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육활동 공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조성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므로 경비지출 및 수입조달 과정에서 이윤기대나 특정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나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공급관계 역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예산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이러한 기조는 1990년대 후반의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장, 체육관, 빙상장, 전국체전시설 등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스포츠센터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괄목할 정도로 증대되었고, 이를 공공부문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스포츠 욕구와 건강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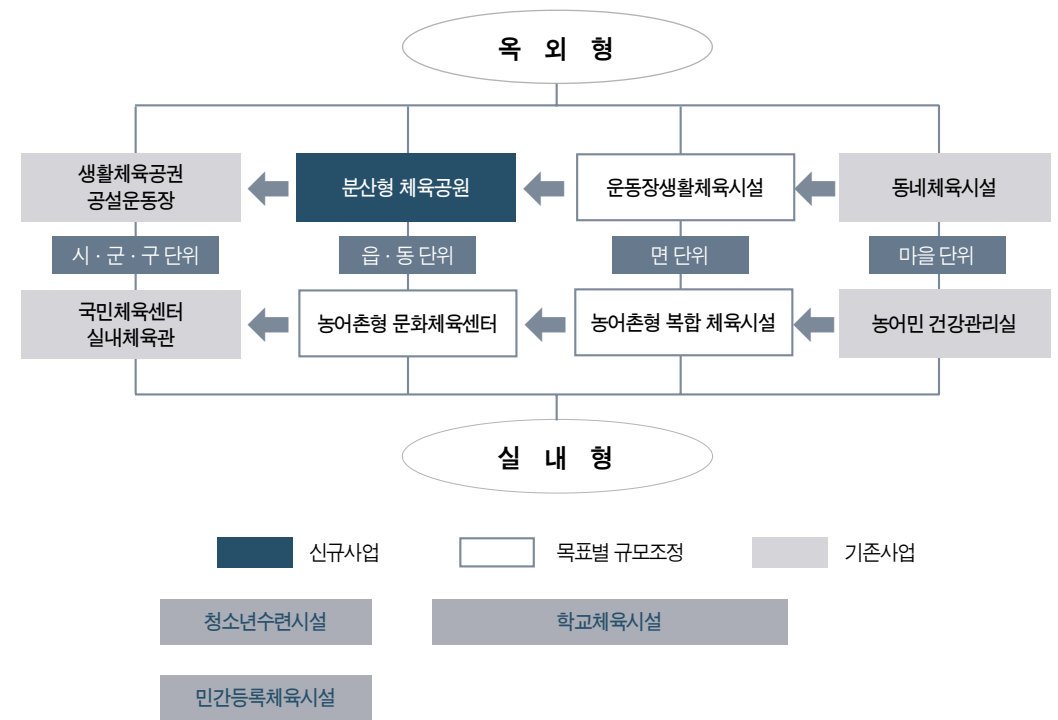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시설 보급률은 1인당 체육시설 소요면적 5.7㎡ 대비 50.6%로 2.88㎡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스포츠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만족할만한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행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생활권 주변의 학교 등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의 규모와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2. 체육시설 조성정책 방향 및 발전과제

이상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 결과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지원 정책의 전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은 여전히 체육시설의 공급 규모가 국민의 수요에 따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의 공급체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후한 체육시설, 단순한 경기대회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방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권 단위 등 서비스 공간 범위와 기술 수준별 체육시설 이용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설간 이용체계의 합리화와 지역간 서비스 수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위계를 마을(리) 단위, 면단위, 읍·동 단위, 시·군·구 단위, 광역 및 전국 단위로 구분하고 각 단위별 기본체육시설을 설정·정비함으로써 기본체육시설이 각 공간단위에 있어서 체육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2]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조성방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재임시 치적사업으로 체육시설의 규모를 방대하게 건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리적 체육시설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규모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시·도에서 건의하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체육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30%(용지매입비 제외)에서 50%로 원상 복귀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활동공간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등을 통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경기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유인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소요면적 확충을 위한 효율적 실천 수단으로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2009년부터 추진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방향으로 평가된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BTL 사업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조성 재원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BTL 사업방식 등 새로운 기회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9장 스포츠 산업

- 제1절 개 관
-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 제5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9 장 _ 스포츠 산업

제 1 절 개 관

1.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스포츠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조화에의 기여, 개인의 건강 증진 및 개인적 오락 기회제공 등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회문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중시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고 몸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면서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로의 역할을 넘어서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이 지배하던 1970년대에는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류의 생산과 수출 등을 기초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스포츠 관련 산업은 19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스포츠를 핵심상품으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시장을 형성하고 해당시설의 건설 및 운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와 관련된 스폰서십 시장과 마케팅 시장이라는 파생상품을 생성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스포츠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08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26조 3,614억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6년의 23조 2,698억원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스포츠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촉진된 관련 학문의 발달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의된

다. 또한 스포츠활동에 참가한 스포츠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단체와 기업의 생산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 그리고 스포츠경기, 이벤트, 강습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이므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활동이 자리한다. 관람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스포츠구단, 개인종목의 프로 및 세미프로 선수 등 스포츠활동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단체가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또한 스포츠센터의 강습, 골프장의 골프라운딩, 마라톤대회 완주 등 직접적으로 고객이 참가하는 활동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도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한편 이러한 핵심부문에 속한 업체(단체)가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보조부문이 필요하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스포츠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스포츠용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요구되며, 선수 등 경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스포츠스폰서십 수주 등의 자원조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대상 영역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2)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

스포츠산업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스포츠산업에 속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용구생산 장려조항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육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시설운영에 관계된 스포츠시설운영업의 법적 근거이다. 반면에 스포츠를 오락과 여흥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업이나 각종 스포츠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포츠정보업, 스포츠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스포츠마케팅업의 법적 근거는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3)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스포츠산업 내에 다양한 분야의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제정이 매우 시급하면서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지원정책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조항에 의거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업의 육성 등에 한정하고 있을 뿐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육성은 불가능한 현실이 이 법의 제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스포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자금지원,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 국내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진출 지원,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의 지속적,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스포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9년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 되어있었지만 개정안에서 25년까지 임대 가능할 것으로 수정함으로 경기장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프로스포츠산업이 육성될것으로 보인다.

4) 스포츠산업의 분류

스포츠산업의 분류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분류이다. 스포츠산업은 정보산업, 관광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물류산업, 자동차관련전용 부품제조업 등과 같이 산업분류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도소매) 및 임대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9-1 참조).

둘째,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류로서 광범위한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3개 하위 산업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과 사업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정책의 대상은 직접 참여와 관련된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간접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스포츠서비스업을 포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1] 스포츠산업 분류항목

코드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9	기타신발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기타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763	스포츠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92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P	교육서비스업	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85611	스포츠교육기관
				85612	레크레이션교육기관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출처 : 통계청(2008). 표준산업분류, <http://www.kostat.go.kr>

스포츠시설업은 생활체육에서부터 올림픽 또는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건설 및 운영업에 이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스포츠용품업은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용품유통업으로 구분되며, 특히 스포츠용품업은 엘리트선수, 순수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 동호인의 시장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장비, 의류 그리고 신발 등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스포츠서비스업은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람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업종으로 스포츠경기업과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기획 및 관리, 선수 사업 등이 있으며,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스포츠정보업이 있다.

최근 들어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활동에 기반하고 최소한의 경쟁성이 있고 조직화과정에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시키려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의 핵심 용어인 스포츠의 영역확대를 스포츠산업에 반영하는 추세다. 따라서 제도화수준이 높은 기성스포츠(올림픽 종목인 것과 종목관리단체가 있고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거나 가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종목)외에 다양한 변종 및 신종 스포츠활동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인 ‘레저스포츠용구 제조업’이나 ‘비시설 교습업’, ‘모험형 자연스포츠 교습업’ 등을 스포츠산업에 포함시켰다.



[그림 9-1] 국내 스포츠산업 분류

4) 스포츠산업의 특성

스포츠산업은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산업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C.G.클라크가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사용한 산업구조의 분류를 살펴보면 스포츠용품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시설업 중 스포츠시설운영업과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산업은 각기 다른 산업분류를 복합적으로 통합한 형태를 갖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업에서 용품제조업은 스포츠산업이기보다는 각각 상품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되기도 하고 도소매업은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산업분류가 통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이러한 특성으로 종래의 산업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스포츠참여 활동에는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의 서비스는 입지조건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 월드컵 주 경기장, 스키장 그리고 골프장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냐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입지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대로(예 : 주 40시간 근무제) 발전한 산업이다.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오락성이 중심 개념인 산업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보다는 ‘재미’와 관련이 있는 ‘오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삶, 혹은 삶 속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스포츠활동을 한다. 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관전하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다섯째,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영화나 연극같이 각본에 의한 감동과는 달리 스포츠는 각본 없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로 전달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건강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주는 산업은 스포츠산업뿐이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스포츠산업의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체육·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그 동안 체육·스포츠 발전의 중심원리로 작용하여 오던 전인교육, 국위선양,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의 전통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미디어가치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를 소비지향적 문화·오락활동으로 간주하는 일상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지향적 산업활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이다. 특히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공통문화로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직·간접적인 소비 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국내 스포츠산업은 신발과 의류 제조를 중심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의 본질은 스포츠 자체의 발전을 통해 고도화 되고 그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이 스포츠산업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타산업과 연관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 신규직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감성적 여가 및 오락지향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화와 스포츠 서비스의 생산·유통·분배의 촉진을 가져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 할 것이고 민간 기업의 마인드를 스포츠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은 우수한 경기력 및 국제 체육계에서의 높은 위상 등 유리한 세계시장 진출 여건과 발전가능성에 비해 이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 인력, 정보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스포츠산업 환경

1) 여가시간의 확대

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정착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주2일간의 휴일이 발생하면 여가 활동이 종전에 비해 다양화되며 각 문화활동이 대중화·보편화되어 자기개발 및 취미 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취미, 교육, 게임 등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기업 노동 대체사업, 자기 계발과 사회성 개발, 가사노동 대체 사업, 그리고 체험형 여가산업, 관광산업 등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게 된다. 참여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 스포츠용품의 다양화 및 첨단화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스포츠산업(예 : 가족형·체험형 참여 스포츠 등)의 등장도 예상된다.

나. 산업의 IT화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 기업투자는 1995~1999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1998년 이래 40%이상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이 실질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01년 4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대로 인해 관련 장비 및 서비스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13만 8,00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서 2,438만 명 선이었으며 2004년에는 3,000만 명 선을 넘어 섰고 2005년에는 3,301만 명을 넘었으며, 2007년에는 3,482만 명을 넘었으며 2008년에는 3,536만 명, 2009년에는 3,658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단위 : 만명)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용자수	310	1,086	1,904	2,438	2,627	2,922	3,158	3,301	3,412	3,482	3,536	3,658

※ 출처 : www.nic.or.kr

IT산업의 발전, 여타 산업의 IT화 가속,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가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는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와 신규 사업(산업)의 e-business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의 경우 스포츠용품 산업, 참여스포츠 관련업체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인터넷 활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신규 산업에서의 e-business화는 스포츠로 특화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스포츠산업의 IT화 및 e-business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이며, e-business를 통한 스포츠산업의 수익 모델 또한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이 등장함으로써 과거와는 크게 다른 다양한 매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매체 수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기술, 휴대통신기술, 동영상기술 등의 개발은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스포츠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신, 라디오, TV 등 새로운 매체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스포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는 점으로 볼 때 통신기술의 발전과 매체 수의 증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 수의 증가는 각 매체가 수용할 콘텐츠 수요의 급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스포츠가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IOC, FIFA 및 프로구단 등의 경기에 관한 저작권리를 소유한 스포츠조직은 뉴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콘텐츠 공급업체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디어의 콘텐츠 확보경쟁은 국내 방송사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송 중계권료가 대폭 인상되는 현상은 이러한 콘텐츠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5년에는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방송에서 메이저리그의 방송중계권을 확보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축구의 아시안컵 예선 등의 중계권을 케이블방송이 구매함으로써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FIFA 남아공 월드컵까지 SBS가 독점 중계권을 획득하여 모든 경기를 독점 중계함으로써 타 방송사와 법적인 분쟁을 일

으키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영화 아바타를 시작으로 3D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3D 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디어 및 3D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3D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라. 스포츠의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영역에서 일어난 세계화이다. 세계화란 일종의 동질화이자 세계의 각 사회간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과정이기도 하다.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의 세계에서 각국이 보여준 동질화가 심화되는 것이자 각국의 스포츠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스포츠의 동질화는 올림픽 스포츠의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에서 발견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올림픽 스포츠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변화는 올림픽 참가국 수의 증가에서 관찰된다. 1960년 100개가 넘어서면서 주춤하던 참가국수가 2000년이 되면서 200개로 2배가 된 것이다. 1972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123개 국가가 참가하였고 이후 이념대립으로 반쪽짜리 대회가 열리면서 참가국수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140개국,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172개국,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는 197개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200개국,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는 202개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205개국이 참가하였다.

각 나라들이 올림픽스포츠를 수용해가는 과정은 사실 스포츠부문 세계화의 토대이지만 본격적인 스포츠의 세계화 현상은 각국의 스포츠가 함께 소비되는 것, 각국의 스포츠에 다른 나라 선수나 감독, 코치 등 경기인력이 이동하는 것, 스포츠사업에 투자되는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월드컵 시청인구를 들 수 있다. 1998년 FIFA 프랑스 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370억 명이었고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420억 명 이상으로 2006년 FIFA 독일 월드컵을 시청한 인구는 50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심은 이벤트 유치 경쟁으로 이어져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 사례에서처럼 국가 원수를 동원한 유치 경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자본 및 상품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미디어와 스포츠와의 결속력강화에 의해서 더욱 진전될 것이다. 즉 스포츠 세계화는 특정 스포츠대회나 특정 스포츠선수가 일시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 및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수백억 명의 관심을 끌어들 수 있게 됨으로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화는 스포츠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스포츠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특정 유명대회나 스타선수의 미디어가치가 커질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원 외에도 높아진 관심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

시에 스포츠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의 각 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다른 나라의 스포츠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대내 환경변화

가.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참여·레저스포츠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소비자의 차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1997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많은 레저스포츠 시설들이 부도나거나 신규개발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95~2000년 기간 동안 레저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7%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 레저스포츠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스포츠, 실버스포츠 등이 새롭게 늘어날 것이며, 신세대를 위한 익스트림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게임, 암벽 등반 등 모험 스포츠 및 자연 친화적 스포츠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상호 결합된 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소비지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참여자들의 소비경향은 전문 선수 수준에 준하는 스포츠용품 및 시설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람스포츠에서도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가고 있다. 스포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비경향을 반영하는 스포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스포츠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나. 스포츠용품업의 경쟁 심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와 관련 스포츠용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게 된다.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은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극심한 경쟁에 처해 있다. 기존 스포츠용품은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스포츠용품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연쇄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스포츠용품업체들의 시장(내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9-3) 운동용구의 수출입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9-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9	91,785	501,618	△409,833
2008	90,559	580,402	△489,843
2007	114,227	587,015	△472,788
2006	120,141	503,542	△383,401
2005	105,096	436,217	△331,121
2004	105,762	442,660	△336,898
2003	90,676	438,526	△347,894
2002	83,074	359,389	△276,315
2001	90,226	272,442	△180,216
2000	85,189	230,232	△145,043
1999	73,797	173,806	△100,009
1998	82,033	88,611	△ 6,578
1997	111,461	246,142	△134,681
1996	111,379	257,710	△146,331

※ 자료 : 관세청(2010), 무역통계-품목별(HS4단위 9506)수출입실적

스포츠용품의 부가가치는 생산공정에서 보다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세계적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스포츠 스폰서십과 같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사는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경쟁사인 나이키는 각종 대표팀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밖에 FILA, 푸마, 아식스 등도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스포츠용품사의 이러한 활동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함이다. 즉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은 선진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용품업체들은 극심한 경쟁과 영세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공정 부문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경쟁력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기술·디자인 경쟁력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스포츠용품업체는 '소재의 첨단화' 및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1. 스포츠소비 정의

소비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며 스포츠소비는 스포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다. 스포츠소비는 상업적 시장에서 조달되는 스포츠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비상업적 스포츠활동(예, 동호인회 회비, 스포츠교실 참가비 등)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스포츠참여 기회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혹은 참여자 개인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소비라 할 수 있다.

스포츠소비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소비는 국민이 스포츠활동의 재원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특정 사회의 스포츠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소비규모는 운동참여율 지표와 더불어 체육진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소비의 특징을 종목별, 소비자의 특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을 진단하고 성장을 전망하는 데 기초적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의 경우 자유시간디자인센터에서 스포츠소비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가개발센터 조사는 스포츠활동에 쓰는 연간 총 비용은 물론 종목별, 참가형태별로 소요된 비용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주기로 조사 발표되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월평균 운동경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 비용이 어떤 종목에 쓰였는지 혹은 용품구입에 쓰였는지 서비스이용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밝힐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한 스포츠소비 현황 추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 스포츠소비 특성

스포츠소비는 운동용품 소비, 스포츠시설서비스지출, 그리고 운동경기관람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포츠시설서비스 이용료와 운동경기관람료는 서비스 구입에 해당되며 운동용품은 재화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

국내 스포츠에 대한 소비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가계조사연보의 가구당 소비현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는 2007년의 국내 스포츠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육시설이용료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21.7%를 차지하였고 운동복 구입이 18.6%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지출된 관람료는 가구당 연평균 1,200원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구성은 스포츠용품과 시설서비스 교습은 직접 스포츠참가로 파생된 소비인데 반해서 관람료는 간접적 스포츠참여에 대응되는 소비이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비율이 우리사회의 스포츠활동 여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서비스소비 즉 운동시설 이용료와 교습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근거할 때 관람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비는 매우 적다. 전체 소비의 0.33%이며 그 규모는 가구당 연간 1,200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관람스포츠의 시장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점은 스포츠시설이용료와 운동강습비가 스포츠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스포츠시설이용료 및 운동강습비 지출이 스포츠용품 소비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개인적 경비 부담을 해야 함을 뜻한다.

3. 스포츠소비 지출

여가보다 일을 우선 시하는 전통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넓게 확산되었다. 여가를 중시하는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여가생활의 여건도 여가활성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을 거친 이후 2000년부터 국내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축된 가계소비로 인해서 여가관련 지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1999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여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의 근무제가 적용되어 실시되면서 점차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축소는 여가시간의 증대로 이어져 여가활동의 활성화되어 스포츠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간 스포츠소비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주체인 가계나 기관(기업 등) 단위의 스포츠소비 즉 스포츠활동과 관련해서 파생된 경비를 합산해야한다. 그러나 기업의 스포츠관련 지출 자료는 공식 통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고 관련 조사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

약 때문에 스포츠소비는 가계단위 소비의 총량으로 대신하였다.

스포츠관련 소비통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조사연보」를 들 수 있다. 동 자료 중에서 교양·오락비 항목 지출이 여가부문 가계 소비규모의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스포츠소비는 가계조사연보의 전 가구지출 통계치 중 스포츠용품 구입과 스포츠시설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과, 그리고 운동경기 관람료를 합산하여 이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계조사연보 품목별 지출 중에서 이온음료, 운동복, 운동화, 어린이자전거(1998년 이후로는 어린이 승용물), 자전거, 등산낚시도구, 운동기구(1997년부터 운동기구, 운동용품으로 항목이 분리되었음), 스포츠관람료(1997년부터 운동경기관람료로 용어변경), 스포츠오락시설이용료(1997년부터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로 구분), 교양오락강습료의 일부(1997년부터 운동강습료와 운동 외 교양오락강습료가 1:2인 점을 반영해서 교양오락강습료의 2/3를 운동강습료로 가정하고 계산함)를 합산한 것이다.

품목별 스포츠소비를 연간으로 합산하면 2007년 연간 가구당 평균 354,400원으로 2006년 가구당 연간 스포츠소비인 314,400원을 기준으로 증가 하였다. 2007년 가구의 스포츠소비를 스포츠용품소비와 스포츠서비스소비로 구분해 보면 스포츠용품소비는 161,800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스포츠서비스소비는 183,600원으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54.4%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스포츠소비는 1996년 연간 207,600원이던 것이 1997년 243,000원으로 증가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1998년 207,60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1999년에 233,800원으로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2000년에는 연간 286,000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02,400원, 2002년에는 325,20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188,4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 208,8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318,000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6년 314,400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7년 354,400원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스포츠소비가 가구 교양오락비 지출 총액 대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24.1%이던 것이 1997년에는 26.8%, 1998년에는 29.5%, 1999년에는 27.5%, 2000년에는 28.0%로 시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25%에서 3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17.6%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27.0%로 증가하여 그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계 항목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9-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단위: 천원)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포츠 용품	이온음료	3.6	3.6	3.6	- ¹⁾	-	-		-	
	운동화	32.4	32.4	37.2	- ¹⁾	-	51.6	51.6	66.0	
	자전거	4.8	4.8	6.0	4.8	8.4	8.4	6.0	7.2	
	등산낚시용품	7.2	8.4	9.6	9.6	15.6	15.6	16.8	18.0	
	운동기구	8.4	7.2	7.2	32.4	26.4	25.2	26.4	4.6	
	운동용품	12.0	10.8	13.2						
		운동복	32.4	33.6	42.0	46.8	51.6	56.4	57.6	66.0
	소 계	100.8	100.8	118.8	93.6	102.0	157.2	157.2	161.8	
스포츠 서비스	운동경기 관람료	-	1.2	2.4	1.2	1.2	1.2	1.2	1.2	
	수영장이용료	6.0	4.8	6.0	- ¹⁾	61.2	63.6	64.8	76.8	
	볼링장이용료	4.8	3.6	6.0	52.8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	68.4	70.8	70.8	- ¹⁾					
	운동강습료	36.0	39.6	38.4	40.8	44.4	43.2	34.8	42.0	
	교양오락강습료	13.2	14.4	12.0	- ¹⁾	-	-	-	-	
	태권도학원	38.4	46.8	50.4	- ¹⁾	-	52.8	55.2	63.6	
	기타 체육학원	19.2	20.4	20.4	- ¹⁾	-	-	-	-	
		소 계	186.0	201.6	206.4	94.8	106.8	160.8	156.0	183.6
		합 계	286.8	302.4	325.2	188.4	208.8	318.0	314.4	354.4

※ 출처: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9~2002」, 「가계동향조사연보 2003~2008」,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의 체육지표 1999~2008」
 ※ 주: 1) 이온음료가 타음료 및 주류에, 교양오락강습료가 기타강습료, 기타체육비가 예체능계 학원비에 포함되어 지표항목에서 제외
 2) 2008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표 9-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년 도	가구교양오락비(A) (연)(원)	교양오락비 비율 (%)	가구스포츠소비(B) (연)(원)	스포츠소비/교양오락비 비율(B/A) (%)
1998	703,200	4.5	207,600	29.5
1999	865,100	4.9	238,800	27.5
2000	1,023,600	5.2	286,800	28.0
2001	1,028,400	4.9	302,400	29.4
2002	1,059,600	4.8	325,200	30.7
2003	1,072,800	4.8	188,400	17.6
2004	1,126,800	4.8	208,800	19.0
2005	1,179,600	4.8	318,000	27.0
2006	1,303,200	4.9	314,400	24.1
2007	1,293,600	4.7	354,400	27.4

※ 출처: 도시가계연보 해당 연도 「도시가계연보 1999~2002」, 「가계동향조사연보 2003~2008」
 ※ A: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교양오락비 지출 × 12
 B: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스포츠소비 품목 합산 총액 × 12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1.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현황

1)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

2008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26조 3,614억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7% 수준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 규모는 총 연간 출하(매출) 규모, 소비시장 규모로 산정하였다.

[표 9-6] 한국·미국·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구분	국가	한국(2008년)	미국(2005년)	일본(2008년)
GDP		1,023조 9천억원	12조 4,872억달러	4조 4,530억달러
스포츠산업		26조 3,614억원	2,130억달러	1,135억달러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57%	1.71%	2.54%
비고		-	레저스포츠 부문 제외	-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계 스포츠관련 소비를 보더라도 그 증가는 1998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스포츠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스포츠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9-7] 연도별 스포츠산업 하위시장시장규모

(단위 : 억원)

대분류	소분류	2005		2006		2007		2008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소계	합계					
스포츠	시설	1,673	7,848	8,095	8,095	5,287	5,287	1,237	1,237					
	건설업	6,175		58,605		59,450								
시설업	시설	48,317	71,395	83,135	83,135	84,820	84,820	94,141	94,141					
	운영업	23,078		24,530		25,370								
소 계		79,243		91,230		90,107		95,378						
스포츠	스포츠	5,880	18,037	6,815	21,454	6,915	21,890	7,148	22,862					
	용품	9,419		11,958		12,210								
용품업	제조업	2,739	9,900	2,681	14,531	2,765	14,990	2,829	15,203					
	스포츠용품	6,707		9,655		9,750								
	유통업	3,193		4876		5,240		15,203						
소 계		27,937		35,985		36,880		38,066						
스포츠	경기업	경륜	17,566	73,241	15,895	73,007	17,735	81,460	16,773	97,863				
		경마	51,548		53,140		59,293		6,869					
		경정	4,127		3,972		4,432		74,221					
		아마추어스포츠	3,899		3,899		5,486		5,486		4,521	4,521	4,665	4,665
		프로 스포츠	2,424		2,731		2,851		2,851		2,912	2,912	3,737	3,737
		팀 스포츠	307											
	스포츠 이벤트	125	125	278	278	310	310	1,147	1,147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대행업	231	421	238	436	266	487	2,125	2,723				
		스포츠에이전트업	113		117		131		551					
		선수양성업	77		81		90		47					
스포츠	정보업	스포츠신문/출판업	2,180	8,911	2,022	14,359	2,256	16,021	1,170	20,035				
		스포츠방송업	531		900		1,004		1,271					
		스포츠 복권 및 복표업	4,573		9,131		10,188		15,408					
		회원권대행판매업	474		667		744		1,136					
		스포츠게임 (인터넷게임)	1,047		1,379		1,539		-					
		음성정보서비스 및 온라인 스포츠정보	106		260		290		1,050					
소 계		89,327		96,417		105,711		130,170						
합 계		196,507		223,632		232,698		263,614						

※ 출처 : 각 업종 내부자료

※ 주 : 1) 2008년도 시장규모는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스포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나타났다. 국내 스포츠산업 중 스포츠시설업은 2008년 기준 9조 5,378억원 규모로 전체 스포츠산업 중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시설건설업은 1,23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운영업은 시설이용 및 강습료와 골프장 이용료를 더해 9조 4,141억원이다. 국내 스포츠용품업은 3조 8,066억원의 규모로 스포츠산업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서비스업은 13조 170억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49.4%로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경기업은 경륜, 경마, 경정 등 경주산업이 9조 7,863억원이며 아마추어스포츠는 4,665억원, 프로스포츠가 3,737억원이다.

2. 스포츠용품업

1)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의류 및 신발은 2008년 기준으로 1조 2,885억원 규모이다. 운동용품의 시장규모는 7,148억원이며 스포츠음료제조업은 2,829억원의 출하 규모를 갖고 있다.

스포츠용품제조업체의 규모는 영세하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의 63.8%가 10~19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의 96% 정도가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용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생산과정의 분업과 전문화가 미비하고 후진국 형태의 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신제품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의 미흡으로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표 9-8] 2009년도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체 종사자수

(단위 : 명, 업체수)

사업체	10 ~ 19		20 ~ 49		50 ~ 99		100 ~ 199		200 ~ 299		300 ~ 499		500명 이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27	64.3	12	28.8	2	4.6	1	2.3	-	0	-	0	-	0	42
놀이터용 장비제조업	10	62.5	4	25.1	1	6.2	1	6.2	-	0	-	0	-	0	16
낚시 및 수렵 용구 제조업	26	50.9	18	35.4	6	11.8	1	1.9	-	0	-	-	-	0	51
기타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4	79.2	5	11.7	3	6.8	1	2.3	-	0	-	0	-	0	43
합 계	97	63.8	39	25.6	12	7.9	4	2.7	-	0	-	0	-	0	152

※ 출처 : 통계청(2009). 2009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편-전국

2)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용품유통업은 2008년 기준 1조 5,203억원으로 스포츠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 운동용구의 수입은 2009년 기준 5억 162만달러이며 수출규모는 9,179만 달러로 4억 983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운동용품 무역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용품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인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제품이 수입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내의 소비를 증가 시켜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시설건설업은 2006년 8,095억원, 2007년 5,287억원, 2008년 1,237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스포츠시설 건설업의 규모는 2006년을 기준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기준에 대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시설운영업은 2003년 5조 623억원으로 스포츠시설업의 88.17%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8조 3,1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9조 4,1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와 골프장 이용료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스포츠시설 이용 및 강습료가 4조 8,317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3,078억원이었고 2006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8,605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4,5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시설이용 및 강습료가 5조 9,450억원, 골프장 이용료가 2조 5,37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리조트형 체육시설 중 2009년도 골프장 내장객수는 약 25,908,986명, 스키장 내장객수는 6,636,529 명에 달한다.

[표 9-9] 주요 리조트형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면적 천㎡)

	골프장	스키장
업체수	339	19
면적	324,602	25,88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1995년의 96개소에서 2009년에는 339개소로 253%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 수는 같은 기간에 800만 명에서 2,590만 명으로 224% 증가하였다. 미국은 1만 4천명, 일본은 5만 2천명당 18홀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만명 당 18홀을 갖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16,940천명인데 반해 퍼블릭 골프장은 8,968천명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홀당 이용객수가 2배 더 많다.

국내 골프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골퍼 1인당 연평균 6~7회 라운딩을 한다는 수치이며 골프인구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에 이어 많은 수준에 있다. 한편 대중골프장 이용객수는 1993년 100만 명, 1997년에는 159만 명, 2000년에는 236만 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33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6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골프장 이용객수는 2009년말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합하여 총 2,590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회원제 골프장은 4,410홀로 홀당 약 3,841명이 이용하였고, 대중골프장은 1,960홀로 홀당 약 4,57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크린 골프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골프인구 약 65%가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6만 명이었던 스크린골프 인구가 2009년에는 약 127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크린 골프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등 초보자들의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골프장을 예약하고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1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구분	합계		회원제		대중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1993	86	6,334,182	69	5,276,663	17	1,057,519
1994	88	7,060,534	72	5,965,151	16	1,095,383
1995	96	8,063,010	79	6,851,311	17	1,211,699
1996	104	8,772,650	82	7,387,806	22	1,384,844
1997	111	9,516,751	87	7,925,654	24	1,591,097
1998	120	8,175,799	92	6,827,235	29	1,348,564
1999	134	10,370,798	107	8,617,665	31	1,753,133
2000	150	12,005,610	107	9,642,953	43	2,362,657
2001	154	12,902,526	110	10,046,055	44	2,856,471
2002	161	14,117,369	113	10,745,795	48	3,371,574
2003	175	15,115,577	122	11,454,576	53	3,661,001
2004	194	16,179,740	136	12,205,437	58	3,974,303
2005	224	17,766,976	147	12,741,012	77	5,025,964
2006	250	19,653,359	157	13,507,219	93	6,146,140
2007	277	22,343,079	175	14,923,213	102	7,419,866
2008	311	23,982,670	183	15,654,098	128	8,328,568
2009	339	25,908,986	193	16,940,101	146	8,968,885

※ 출처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내부자료

또한 레저스포츠시설인 스키장업은 외국인 관광수입을 유발할 스포츠관광의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2008/2009 시즌(2008년 11월 ~2009년 4월)에 국내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26만 8천명으로 전년 24만 2천명에 비해 10%가량 증가하였다.

체육시설(등록,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1989년 25,680개소에서 1998년 48,115개소로 연평균 7.1%의 증가세를 보이다 2001년 들어와서는 41,984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말 현재 총 시설수는 53,851개소로 조사되었다(표 9-11).

[표 9-11] 연도별 주요 신고·등록 체육시설현황

(업체수 : 개소 면적 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	업체수	390	407	417	442	454	236	265	295	332	361
	면적	180,151	176,593	182,094	196,202	212,050	239,504	261,256	293,721	325,829	351,006
체육시설 신고	업체수	43,959	41,577	41,903	43,125	44,320	45,833	42,903	45,505	50,280	53,490
	면적	14,955	15,115	16,061	16,764	17,737	20,259	20,906	22,602	24,545	26,40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 2005년에 등록체육시설이 급감하고 신고체육시설이 급증한 원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업종이 신고업종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
2006년에 신고체육시설이 급감한 원인은 볼링장 등 3개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

4.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은 13조170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49.4%이며,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시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스포츠경기업의 경륜, 경마, 경정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5.2%로 스포츠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스포츠서비스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1) 스포츠경기업

스포츠서비스업 중 스포츠경기업은 경륜, 경마, 경정, 아마추어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이벤트 등이며 그 규모는 9조 7,863억원이다. 이는 전체 스포츠산업의 37.1% 규모이다. 스포츠서비스업은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다. 스포츠서비스업의 성장은 스포츠용품업과 스포츠시설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선도 분야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 스포츠경주업

스포츠서비스업의 주요 업종 경주스포츠 이용자 수는 2006년 2,406만명, 2007년 3,318만명, 2008년에는 3,349만명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상북도 영천에 제4경마장 설립이 확정되면서 경주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표 9-12] 2001~2008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수

(단위 : 만 명)

종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마장 입장객(서울+제주+김해 경마장)	1,628	1,674	1,541	1,618	1,645	2,045	2,080
경륜장 입장객(잠실+창원+금정경륜장)	552	565	572	545	564	905	914
경정장 입장객	45	122	143	191	197	368	355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9), 2009 한국의 체육지표.

나. 프로스포츠

초기의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복싱과 레슬링으로 시작으로 1982년 프로야구와 1983년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출범하면서 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열악한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는 발전을 거듭하였고 1900년대에는 볼링, 농구가 프로화 되었고 2005년도에는 배구가 프로화가 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의 선전과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의 우리나라 축구팀의 선전으로 야구, 축구를 비롯한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국내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합하면 2008년 1,000만명이 넘었으며, 2009년의 프로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축구, 프로배구 등 5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82만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에 팬 및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입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의 매출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13]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단위 :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합 계
2004년	2,637,559	2,429,422	1,051,598	59,316	-	6,595,771
2005년	3,640,690	2,873,351	1,109,793	169,518	101,436 / 159,716	7,894,788 / 7,953,068
2006년	3,240,992	2,448,128	1,104,503	106,999	227,954	7,128,576
2007년	4,410,340	2,746,749	1,160,113	311,934	234,308	8,863,444
2008년	5,636,191	2,945,400	1,191,242	129,835	278,106	10,180,774
2009년	6,347,538	2,811,648	1,228,992	156,780	278,019	10,822,977

※ 프로배구 : 2009년도 / 2009년~2010년 시즌

※ 프로농구(남) : 2008년도(2009년 4월 23일 기준, 이하 동일)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9-14]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수

(단위: 회,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 기 수	경 기 당 평균 관중	경 기 수	경 기 당 평균 관중	경 기 수	경 기 당 평균 관중	경 기 수	경 기 당 평균 관중	경 기 수	경 기 당 평균 관중
2004년	548	4,813	240	10,123	290	3,626	80	687		
2005년	517	7,042	240	11,972	289	3,840	138	1,228	112/191	906/836
2006년	518	6,257	278	8,806	288	3,835	123	869	163	1,398
2007년	517	8,531	254	10,814	291	3,987	267	1,164	187	1,253
2008년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2009년	549	11,562	256	10,983	296	4,152	130	1,206	189	1,47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표 9-15]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단위: 명, %)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수용 규모	좌석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점유율	수용 규모	좌석점유율
2004년	21,934	21.9	42,173	24.0	6,283	57.7	3,776	18.2	-	-
2005년	21,934	32.1	42,173	28.4	6,283	61.3	3,776	32.5	-	-
2006년	20,429	30.6	40,255	21.9	5,899	65.0	3,230	25.6	5,129	16.3
2007년	20,429	41.8	40,574	26.7	6,347	62.8	2,756	38.0	5,129	27.3
2008년	20,429	53.3	40,574	28.7	6,354	64.2	2,756	39.1	5,089	24.6
2009년	20,429	56.6	37,865	29.0	6,354	65.2	2,756	43.8	4,843	30.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2)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등으로 시장규모는 2,723 억원이며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 및 컨설팅업, 스포츠에이전트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겨냥한 해외 선진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전트업에 있어서 관람스포츠의 핵심요소인 우수선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20여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으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2009년 기준 전국적으로 283개 체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스포츠산업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원은 7개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표 9-16]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구 분	대학생 총 수	체육학과 학생	체육계학과	스포츠산업관련학과	
				대 학	대학원
1996	1,266,876	23,777	146	1	-
1997	1,368,461	25,689	172	-	5
1998	1,477,715	28,229	200	3	5
1999	1,587,667	31,555	200	4	7
2000	1,665,398	34,891	216	7	7
2001	1,699,293	38,563	236	8	12
2002	1,771,738	42,957	245	7	17
2003	1,808,539	46,653	267	7	17
2004	1,836,649	44,387	234	7	17
2005	1,859,639	45,745	234	7	17
2006	1,888,436	50,042	295	7	18
2007	1,919,504	53,863	261	6	7
2008	1,943,437	60,882	283	6	7
2009	1,984,043	67,308	283	6	7

※ 출처: 교육부(1995~2009), 교육통계연보

국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나 회장협찬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평균 62%로 나타났다.

경기단체의 수입구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보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7]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회장찬조금	기타찬조금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2000	144	20	190	16	370
2001	100	13	382	142	637
2002	113	122	276	260	771
2003	133	17	367	429	946
2004	148	18	357	256	780
2005	144	19	456	324	943
2006	179	16	938	160	1,293
2007	161	19	948	264	1,392
2008	171	18	1,143	267	1,599
2009	155	15	941	406	1,517

※ 출처 : 대한체육회 (1988~2009), 대한체육회 예산 및 결산서

※ 정부 보조금 제외

스포츠와 관련된 출판업 및 신문 관련업 중 스포츠신문은 과거 5개사에서 발간하였으나 지금은 3개사만이 명맥을 유지한다. 이러한 데는 인터넷의 확산과 무가치의 성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매출액 면에서 보면 과거 전성기의 1/3 규모에 그칠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스포츠를 주 콘텐츠로 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포털에서도 스포츠로 인터넷 유저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표 9-18]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신문명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2006	356	298	427
2007	377	382	413
2008	280	381	179
2009	273	177	208

※ 출처 :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결산된 액수임

3) 스포츠정보업

스포츠정보업은 2조 35억원으로 스포츠서비스업중 15.4%를 점유하여 그 규모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스포츠경기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스포츠신문, 출판과 방송업, 스포츠여행업, 스포츠의학, 스포츠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위성채널,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스포츠 전문 방송채널로 MBC ESPN, SBS 골프, SBS 스포츠, KBS' n Sports가 있으며 군소 스포츠채널이 격투기, 유럽축구, 자동차경주 등 저마다 특화된 스포츠콘텐츠를 주 내용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스포츠는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중계되었지만 케이블TV, 위성TV의 스포츠중계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나 영리면에서는 그리 만족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과거에는 스포츠중계비용이 타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스포츠중계권료의 상승과 시청률의 정체 등은 아직 스포츠채널의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국내 스포츠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 체육산업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다. 체육시설 업체와 용품제조업체 그리고 체육관련 각종 서비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운영되었으며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FIFA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박지성, 김연아, 최경주, 박세리, 김미현, 박찬호 등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도 스포츠산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인력·기술·정보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체육국 내 신설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의 정책적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스포츠산업 정책의 변천

종전까지 스포츠는 여가선용을 위한 소비활동의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측면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력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라는 인식을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함께 첨단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 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가. 1990년 이전의 육성 정책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65년 6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698호)으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이 마련되면서부터다. 동법 제14조의2는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1966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404호)에서는 “운동용구 생산업자에

대한 용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용품업의 육성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설 소요 경비의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 공인 기준에 적합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체육시설업 자체의 육성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국제경기대회 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체육용구와 기자재”로 생산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용구 생산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자금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용자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6개 체육용구생산 업체에 9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문교부, 보사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등에 분산 관리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이 곤란하였던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일원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체육시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는 체육용구의 품질수준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적정한 공급을 목표로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시회 개최 지원, 국산 체육용기구 구매·사용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품질향상 및 표준화 기술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공인 제품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우수체육용구업체 지정 대상과 용자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용품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996년 60개 스포츠시설업체에 51억 8,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처음으로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스포츠를 산업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이 계획은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용품업체에 대한 지원, 우수생활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산업적 지원, 경륜·경정 등 여가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라. 스포츠산업육성대책(2001)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8월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자원의 상품가치 개발, 스포츠서비스업 중점 지원,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정보 기반 구축,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용품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스포츠용품인증제도 시행, 우수체육용품 생산장려 및 사용자지원 확대,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정기 개최
- ②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체육시설 경영 전문인력 양성
- ③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포츠서비스업 집중 육성 :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정보화 지원, 스포츠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 ④ 장기발전과제 : 스포츠산업육성재단 설립, 스포츠산업지원법령 제정

마.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국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2004년 11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동 발표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산업 진흥 추진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조직 설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대상·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확대,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체계 구축
- ②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 IT 활용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국제수준의

- 품질인증제(KISS) 시행 및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 투자유인 및 마케팅 촉진
- ③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 레저스포츠인구 1,000만 대비 제도 완비,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시설확충,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골프장 확충
- ④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프로스포츠 마케팅 역량 제고, 야구돔구장 건설 지원 및 프로경기 단체의 운영여건 개선, 기존 국제대회 육성 및 전략종목 국제대회 유치

바. 200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8)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강국에 걸맞는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화’, ‘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3대 목표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1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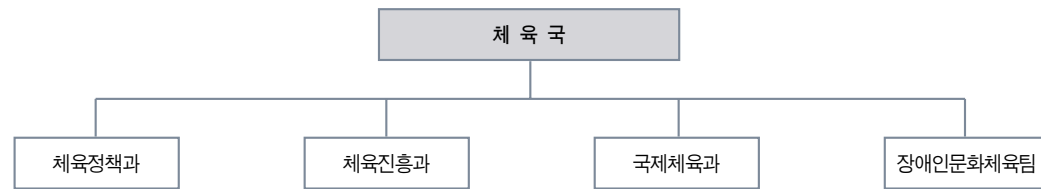
- ①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 : 중소 브랜드 유통망 및 내수 기반 확대, 10대 글로벌브랜드 육성 및 수출 촉진, 인증 지원체계 확립 및 상품화 지원
- ② 스포츠 융합 신서비스 창출 : 미래형 신규 스포츠콘텐츠 기술개발, u-스포츠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활성화, 모태펀드 조성으로 마케팅회사 육성 및 창업 지원
- ③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 프로구단 지역연고제 및 경기장 장기임대 도입, 시장확대를 위한 아시아리그제 등 도입, 프로구단 마케팅 및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④ 지역 스포츠산업 수요창출 및 인프라 구축 : 한류 스포츠 관광상품 육성, 지역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 체육시설 경영 활성화
- ⑤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체계 구축,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관련 조직 설치

가.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설립 추이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4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초 스포츠여가산업과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고 담당업무를 스포츠산업에 한정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개선하였다. 스포츠산업팀은 스포츠

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관련 소비 증대에 대비함과 더불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을 국내 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성장기반을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정부의 대국대과제 시행 방침 아래 체육국의 조직을 5개과에서 4개과로 축소하면서 스포츠 산업 진흥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림 9-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나. 스포츠산업 관련 주요업무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전담할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등 새롭게 제기되는 스포츠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제인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시행,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기반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스포츠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기틀마련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의무규정, 거점조직 설치,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육성관련 시책 등이 규정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산업진흥시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산업의 정책 및 지원대상을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산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책적 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신종 여가스포츠산업도 포함시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여가스포츠는 그 활동 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당 부분의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즐기기에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안전검사를 획득한 질 높고 저렴한 장비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고품질의 국내브랜드를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레저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장비는 국내업체가 유럽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이미지 제고와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하고 있어 향후 신종여가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여가스포츠분야와 신종여가스포츠분야 산업에 걸린 각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과 관련된 레저스포츠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여가체육의 개념정립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래프팅장·활공장 등 신종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레저스포츠 소비자와 관련업체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의 추진하는 등 레저스포츠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설치

가. 스포츠산업연구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1년 9월 30일 기존의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과 시스템개발팀에서 담당하던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스포츠산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업무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의 규정상 업무내용은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하는 것과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를 지원·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학연구원 내 조직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스포츠산업연구실은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관련 업무, R&D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소 설치·운영 중이다.

[표 9-19]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조직구조의 변화

연 도	1999	2000	2001-2002	2003-2009
연구조직 (팀/실)	정책개발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국민체력센터 (5개팀 1센터)	정책연구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4개팀)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정보전산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4개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3개연구실)

나. 스포츠산업본부 신설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내 스포츠산업부를 신설(2005년 2월)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스포츠산업의 신규 영역을 창출하여 산업 규모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틀을 준비하였다. 스포츠산업부의 주요업무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제도 개발과 우수 체육용구, 기자재 생산 및 장려와 용자지원, 체육시설업 용자지원, 스포츠서비스업 용자지원 등 스포츠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며 스포츠박람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 우수 스포츠산업체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한다. 한편 스포츠산업대상 및 스포츠서비스업사업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격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더불어 신규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및 운영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1)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가. 인증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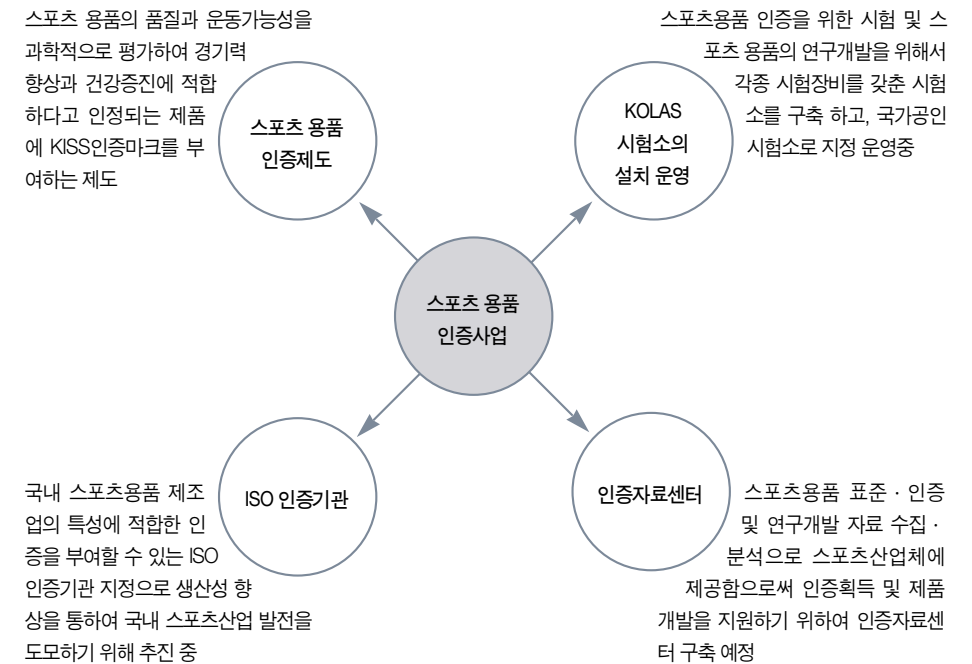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는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에 대하여 품질과 운동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산업, 무역, 금융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국에서는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규제원칙을 준수하면서 표준·인증제도를 자국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표준, 기술,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나.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사업의 구성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은 스포츠용품 인증제도의 도입, 제품의 과학적 시험을 위한 국가공인

(KOLAS) 시험소의 설치 운영, 스포츠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SO 인증기관 지정 운영, 스포츠산업 정보와 자료를 서비스하는 인증자료센터의 설립 운영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사업의 구성도는 (그림 9-3)과 같다.



[그림 9-3] 인증제도 사업구성도

다.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72.2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말까지 학교체육시설 등 75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75종, 2009년말 기준)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1년부터 인증제 운영 전반의 컨설팅, 인증서류, 인증패, 홍보물 제작 등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을 통한 인증사업의 기반 조성,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인증기관 지정과 공인시험·검사업무 등을 시행하였다.

[표 9-20]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72.2	25	10	8.5	7.2	7.5	5	9

[표 9-21]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품 목(총 47개)		
2001	4	○ 동적재료시험기 ○ 정밀측정선반	○ 삼차원측정기	○ 로크웰경도시험기
2002	6	○ 정적재료시험기 ○ 회전굽힘피로시험기	○ 충격시험기 ○ 공기압축측정기	○ 브리넬경도기 ○ 소형장비
2003	12	○ 비틀림시험기 ○ 축하중측정기 ○ 소형장비 및 시험보조기구 등 3개	○ 부하측정시스템 ○ 공기압축현미경	○ 영상분석장비 ○ 온도조절챔버 ○ 항온항습기 2개
2004	10	○ 비커스경도기 ○ 낙하시 충격시험기 ○ 소형시험장비 등 4개	○ 낙하시 반력측정기 ○ 스트레인특정시스템	○ 수평식 충격시험기 ○ 비파괴 검사기
2005	7	○ 마찰시험기 ○ 초정밀 정적재료시험기	○ 난연성시험기 ○ 소형 및 시험보조장비 등 3개	○ 표면분석장비
2006	8	○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 스포츠화 피로시험기 ○ 자전거시험모듈	○ 투사체 역학량측정기 ○ 골프클럽핑팅시스템 ○ 런치모니터	○ 자전거 구조 시험기 ○ 사이클운동량측정기
2007	19	○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 경사형 축구공 발사시험기 ○ 소프트토크측정기 ○ 골프스윙측정기	○ 공압용 콤프레서 ○ 기상관측기 ○ 축구공구름길이측정기 ○ 이동형인조잔디충격시험기 등 19개	○ 표면형상 측정기 ○ 하중편차측정기 ○ 인조잔디회전저항측정기
2008	8	○ 자전거부품충격시험기 ○ 육상트랙성능측정기 ○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 휴대형다기능측정기 ○ 골프공역학측정시스템 ○ 인조잔디감속측정모듈	○ 스포츠기능분석기 ○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2009	1	○ 자전거제동주행시험기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09), 내부자료

또한 2005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마크인 KISS 마크를 복싱관련 3개 업체의 3개 품목에 부여하는것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신신상사, 프로사이클 등 19개업체의 복싱글러브, 자전거 프레임, 인라인스케이트 등 44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였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는 3년간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라. 향후 추진과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용기구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체육용기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가 있어야 한다. 법제도화에는 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관련법의 활용, 단체 내규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화 방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제도 등 유사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용기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험과 검사가 필수적이다. 공인 시험·검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전문기술 요원, 시험장비 뿐만 아니라 시험 환경조건, 시험 결과의 숙련도, 시험 실적, 시험·검사업무의 규정화 등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공인 시험·검사 기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육용기구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규격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표준, 인증 관련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규격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자료를 스포츠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고 필요할 경우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표준, 인증 관련자료 센터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산업체와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산업박람회 개최

가. 개최 목적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용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서울국제스포츠산업전 개최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국내·외 28개국 139개 스포츠용품업체가 참가하여 제1회 서울국제올림픽(스포츠산업) 박람회(International Olympic Fair Seoul 2001)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는 국제스포츠용품전시회, 국제올림픽기념품전시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로 구성되었다.

국제스포츠용품전시회에는 11개국 139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8개국 1,27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서 진행된 스포츠산업 관련 상담건수는 850건에 이르고 그 중 2002년까지 25건(12개 업체) 1,736만 달러(220억원)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는 IOC 문화교육 및 수집가분과위원회의, WFSGI(세계스포츠용품산업연맹) 이사회 및 3개 분과 위원회의, WFSGI 이사회 아시아지역 특별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이론과 실재를 병용한 종합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2003년 박람회에는 11개국 182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부문에 1,479건과 수출부문에 19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5,030백만원과 수출 86,612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박람회의 명칭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으로 개칭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 주체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내용도 내실화를 꾀했다. 2004년 박람회에는 16개국, 190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 3,566건과 수출 418건의 상담과 내수 15,667백만원, 수출 191,923천 달러의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박람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34개 업체와 해외 69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0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9개 부스, 해외업체가 170개 부스를 사용하여 200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006년 박람회에는 2월 23일부터 일정을 앞당겨 2월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212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내수 부문에 4,325건과 수출부문에 45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8,303백만원과 수출 93,350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7년 박람회에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3개 업체와 해외 73개 업체를 포함해 총 216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8개 부스, 해외업체가 142개 부스를 사용하였다.

2008년 박람회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16개 부스, 해외업체가 140개 부스를 사용하였다.

2009년도는 국내 193개와 해외 71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82부스, 해외가 138개 부스로 총 820개 부스를 사용하였다. 박람회의 규모, 참가국, 바이어 내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9-22] 2009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단위 : 곳, 부스)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업 체	부 스	업 체	부 스	
2009년	193	682	71	138	264/820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2009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9-23] 국가별 전시참가업체 현황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스웨덴
업체수	193	20	11	8	4	3
구 분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	태나다	기타	합계
업체수	8	3	4	5	5	264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2009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9-24] 품목별 참가비율

계	피트니스/헬스	아웃도어라이프	스포츠시설	수상/수중스포츠	일반스포츠용품	액티브/익스트림	스파/사우나/아쿠아시설	서비스기타
100%	20%	5%	12%	28%	7%	6%	13%	9%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2009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9-25] 해외바이어 참가현황

계	일본	북미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국	호주	기타
638	213	88	4	143	36	20	91	15	28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2009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9-26] 상담 및 계약실적

구 분	내 수		수 출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천달러)	건수(건)
2004년	15,667	3,566	191,923(220,711백만원)	418
증감(%)	-37.40	141.10	121.50	-120.00%
2005년	32,287	4,567	92,252(106,090백만원)	433
증감(%)	106.10	28.10	-51.90	-3.60%
2006년	28,303	4,325	93,350(백만원)	450
증감(%)	-12.30	-5.30	1.20	3.90%
2007년	26,940	4,129	94,710(백만원)	472
증감(%)	-4.80	-19.70	1.40	4.80%
2008년	25,890	4,216	95,840	480
증감(%)	-4.00	2.10	1.20	1.70%
2009년	25,553	4,325	86,448	468
증감(%)	-1.31	2.10	-9.79	-2.5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9), 2009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다. 스포츠산업박람회 종합 평가

2009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16개국 264개사 820개 부스가 설치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수중스포츠는 증가한 반면 액티브 및 익스트림 스포츠 업체 참여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수해외박람회와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헬스 및 피트니스 부문은 매년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참가업체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박람회의 특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운영인력의 최소화 및 전시대행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여 내실있는 행사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Sporex 박람회는 국내 유명박람회 중 10위안(모터쇼, 경향하우징, IT 전시회 등)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부산시의 벡스포, 문화일보의 아웃도어 익스트림쇼 등 유사 박람회 신설을 유도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단지 박람회 자체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스포츠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면에서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유명 전시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이 사실이며 종목별 전시관의 구성도 미흡한 편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종합브랜드 업체의 참여도 미미한 점, 헬스 및 피트니스 종목에 편중되어 종합전시회로서의 신제품 및 전시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참관객 중 실질구매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아직은 미미한 것 등은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 개선방향

스포츠산업박람회는 일천한 역사로 인해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미약한 면이 있지만 국내 스포츠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박람회라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사 스포츠산업박람회의 통합 또는 동시개최를 통해 박람회 부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신제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전시품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박람회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피트니스, 아웃도어, 인라인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박람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으며 무역 상담을 위한 소음규제,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급 비즈니스 전문 전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박람회의 질적·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구 등과 연계하여 전시를 갖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해외 국가관을 활성화하고 박람회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용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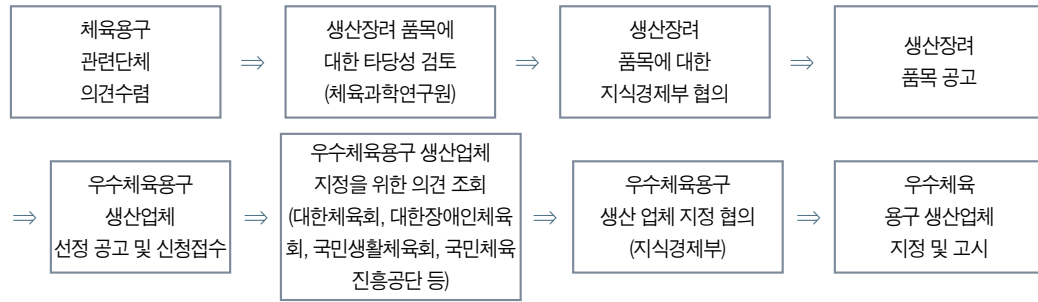
가. 사업 개요

국민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장려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생산장려 품목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용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생산장려 체육용품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기자재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장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는 (그림 9-4)와 같다.



[그림 9-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품 생산업체 지정 절차

2009년 생산장려 품목으로 지정된 체육용품은 모두 546개 품목이며, 우수체육용품 생산업체는 108개 업체이다. 생산장려품목과 우수체육용품 생산업체 현황은 (표 9-27), (표 9-28)과 같다.

[표 9-27] 생산장려체육용품 지정현황

종 목	품 목 (546품목)
검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게이트볼	게이트용구
골볼	공
골프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공수도	경기용글러브, 샷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등), 심판깃발, 심판화
국무도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십,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궁도	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화살통, 각지, 핸들, 날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타바라이저
그라운드골프	공 포스트, 클럽, 공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낚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씌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낚시바늘
농구	농구넷,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휠체어
당구	당구대(포켓, 캐롬 등), 당구큐, 쿠션고무(당구나사지), 당구큐꽂이(스코어보드검), 스코어보드, 공, 초크
동력스포츠	헬멧, 원동기(수쿠터)
등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미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등), 암벽화

종 목	품 목(464품목)
라켓볼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럭비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럼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솔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킥티
레슬링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매트
미식축구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바둑	바둑판, 바둑통, 바둑알, 계시기
바운드볼	배트, 공
바이애슬론	롤로스키(스케이팅), 홀(스케이팅)
배구	배구넷, 배구공(O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공(시각장애인용)
배드민턴	배드민턴넷,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보치아	볼, 작전판, 레이저 빔, 홀통
복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독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 설치대, 펀치볼
볼링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 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독점기, 핀세터, 볼링공 지공기, 볼링화
사격	사격표적지, 전자표적장치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스텝보드자전거, 사이클화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등), 다리퍼기, 에어로빅매트, 홀라후프
세팍타크로	포스트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소프트볼경기화
수영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구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용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라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빙상	스케이트(소프트랙, 스피드, 크랩, 피겨), 헬멧, 장갑, 방한모, 쇼트트랙블레이드
스쿼시	스쿼시화, 라켓, 공
스키	고글, 스노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노보드바인딩, 스노보드부츠, 스노보드 장갑, 알파인 모노스키, 알파인 바이스키, 모노스키용 아웃리거, 절단장애인용 아웃리거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시스템, 스윙분석시스템
스포츠편	검, 방패, 호면
스포츠 IT	운동관리 · 처방 · 운영 · 지도 관련 프로그램
스킨스쿠버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복, 다이빙용 킨 튜브, 다이빙칼
승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장구(안전조끼)
수상스키	투스키, 점프스키, 트릭스키, 웨이크보드

종 목	품 목(546품목)
수상레저스포츠	구명조끼, 구명환
씨름	살바, 팬티, 씨름경기장
아이스하키	프레임, 슬레지(썰매), 블레이드, 퍽
야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헬멧
역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우슈	투로용구(카펫, 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등),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유도	유도복, 매트
유산소운동기구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보행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상·하시연동운동기
육상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럭, 원반,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헤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헤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 착용), 3000SC 이동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털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장장치, 멀리뛰기 구름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상자, 포환 이동레일, 레이싱용 휠체어
인라인롤러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큰(고깔), 퍽 등
윈드서핑	보드, 세일, 붐, 마스트, 타이프 자켓, 헬멧, 하니스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재활 로잉머신, 플라이 에르고미터
정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넷,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족구	족구지주넷(지주, 넷,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조정	경기정, 노, 자세지지의자(장애용)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주행식운동기구	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드브레이크, 바퀴, 핸들)
줄다리기	로프, 매트, 경기화, 보호대(앵커선수용 보호조끼), 안전모(앵커선수용 안전모), 보호대(선수용요대)
체력측정장비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 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 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심박측정기계
체육계측장비	레이저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등)
체육시설	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배드민턴, 체조, 등)
체조	뒹들,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폴린(체조경기 일층),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종 목	품 목(546품목)
축구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번호, 경기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공(시각장애인용), 보호대(시각장애인용)
츄크볼	네트
카누	경기정, 패들(노)
컬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스틱
탁구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스타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버
태권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등), 살보대, 전자호구, 매트
택견	택견수련복(철릭, 대자, 행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심판복(노랑), 택견수련화
테니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경기용휠체어
티볼	배트, 공, 배팅티, 베이스
파크골프	클럽, 공, 신발, 홀컵, 티박스(타잉그라운드), 볼 스탠드, 추첨기(출발추첨기)
패러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이م, 프로미스), 보조낙하산,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펜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휠체어펜싱프레임
풋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프리테니스	공, 라켓, 지주, 넷트
하키	필드하키넷트, 골대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핸들러	라켓
기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댄스스포츠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이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등), 오십견예방운동기, 고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맞춤형칼창, 낙상위험도측정시스템, 균형감각 훈련시스템, 신체보호대

[표 9-28]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지정 업체	지정 품 목
(주)닛소	축구공, 테니스공
동화에스엔티(주)	농구대,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포환, 원반, 평행봉 허들
미진체육산업	농구대
(주)삼익스포츠	양궁활
(주)닛소골프	골프공
수풍산업(주)	수영장용구,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웅은체육산업(주)	허들, 스타팅블럭, 뒹틀, 체조매트, 레슬링매트 캔버스, 높이뛰기 지주, 높이뛰기 매트, 장대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매트
원엔원스포츠	양궁활
주식회사 참피온	탁구대
파트너스교역상사	복싱헤드기어, 복싱컴퓨터채점기, 복싱글러브, 복싱링
(주)캠팀골프	골프공
풍국레포츠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럭, 역도바벨, 철봉, 포환, 헤머,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장대높이뛰기 지주, 높이뛰기 지주, 해머원반그물망, 럭비골대
한국체육산업	역도바벨
한아스포츠	허들, 스타팅블럭, 포환, 헤머, 원반, 높이뛰기 지주, 헤머그물망, 3000SC이동장애통, 멀리뛰기 구름판, 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현대체육산업(주)	매트(체조, 유도, 레슬링용),นอน슬립매트, 다이빙보드,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농구대 투로용),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개선스포츠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김해산업사	야구글러브
신아스포츠산업	농구대, 탁구대
(주)에스피레저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스타트대, 배수그레이트, 안전감시대, 수위조절판, 수영장 자동 청소기
오성체육산업주식회사	농구대
주식회사 키카	축구화, 축구공
(주)에스앤에스케어	자전거에르고미터, 엘립티컬
(주)대정	배구네트, 축구네트, 농구네트, 배드민턴네트, 필드하키네트, 핸드볼네트
(주)비바스포츠	축구공, 셔틀콕
(주)허리우드	포켓당구대, 케놈당구대
태하메카트로닉스	(주)전동식런닝머신
와타엔지니어링	런닝머신
(주)범우티엔씨	นอน슬립매트, 배수그레이트,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로프, 핸드레일
(주)알티뷰텍	전광스코어판
삼성포리머(주)	바닥재
(주)평화산업	탁구공, 탁구라바
클라임코리아(주)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지정 업체	지정 품 목
한일스포렉스	포환, 원반, 스타팅블럭, 높이뛰기 지주
(주)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주)다이나포스	기계식체력단련기구
대우스포츠산업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럭, 장대높이뛰기지주,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드민턴 지주, 핸드볼 골대, 축구골대, 축구임원용 벤치
(주)한국오리온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주)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전광스코어판
(주)홍진HJC	동력스포츠 헬멧
탑드림	댄스스포츠화
(주)모투스	전동식런닝머신, 엘립티컬
삼익전자공업(주)	스코어보드전광판
(주)오투런	체력진단시스템
승경체육산업(주)	기계식체력단련기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지주보호대, 축구 골대
(주)시즈에프엔티	스키장갑
(주)제이슨상사	골프화, 스케이트보드화
디스커버리씨에스(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주)이심기술	스쿠터
(주)어머니골프	골프그립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분석기, 운동관리 처방 운영 지도관련프로그램
(주)이다체육산업	배수그레이트, 수위조절판, 코스로프, 농구대
(주)케이엘에스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주)티에스코리아	전동운동기
(주)재영엠엔씨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하나산업사	골프클럽
승리체육산업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 · 높이뛰기 매트
(주)리임코리아	골프(골프채)
(주)컬처메이커	태권도(신발, 도복, 보호대)
(주)태용	사이클(자전거부품)
(주)이지업	사이클(레저용자전거)
(주)블루파워코리아	골프(골프가방)
N-COREA	바이애슬론(롤러스키 : 프레임/휠)
인피닉스(주)	골프(퍼팅연습기)
(주)휴먼메데텍	전동운동기
(주)대원포티스	헬스용승마용 운동기구(유산소운동기구)
태영산업	런닝머신(유산소운동기구)
(주)INS102	경기복, 스포츠의류
(주)자이로	바퀴(인라인롤러스케이팅)

지정업체	지정품목
맥스SN(주)	야구배트
시원교구	라인마커
하드스포츠	야구공
중앙체육공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구지주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복싱링, 에어로빅메트, 허리틀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들, 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높이뛰기용메트, 정구지주, 족구 지주, 점수판, 매트, 뽀름, 철봉, 평행봉, 이단평행봉, 평균대,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골대, 선수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필드하키골대, 필드하키골대 넷트(하키), 핸드볼골대
가야스포츠	개량활
(주)제일체육공사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농구대, 축구골대, 족구지주넷트
웰텍	체력측정장비
(주)노리텍아이앤씨	체력측정장비
경일산업(주)	야외용체력 단련기구
G,K SAIL	요트세일
동화체육(주)	농구대
소마스포츠	양궁표적지
(주)자원메디칼	체성분석기
(주)디엠피에이치	3차원 골프센서
(주)스카이라인스포츠	야구공
(주)제이케이보드	근력단련보조용구, 에어로빅메트
한별체육산업	농구대, 근력단련기구
이글아이드	기능성 골프화
스포닉스	스포츠 IT(심폐지구력측정용, 무선심박동평가시스템)
(주)테에스메디텍	음파진동운동기
(주)사루스	진동운동기
테크웨이브(주)	RFID TAG
(주)라저스트스포츠	태권도(전자호구)
(주)다트피쉬코리아	스포츠IT(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 자세평가도우미)
신광비독	비독알
광신스포츠	농구(농구대), 근력단련기구(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주)외룡산업	생활체조(줄넘기, 훌라후프)
(주)하림	뉘시(뉘시대)
(주)조인조경	근력단련기구(야외용 체력단련기구)
파마스포츠	테니스(테니스라켓)
(주)구보코포레이션	파크골프클럽
(주)한밭	당구큐
PSV	인라인스케이트
(주)카이로스	기계식체력단련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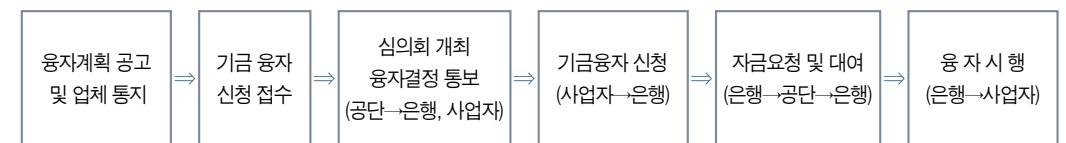
지정업체	지정품목
(주)슬로비	스케이트보드, 퀵보드
제맥스코리아	탁구대
연무산업	활(개량활)
트랑고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송무궁	활(개량활)
코오롱인터스트리(주)	골프채

다.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 융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사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융자 대상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110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이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 자금은 1억원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이율은 2001년 6%에서 2002년과 2004년 5%와 4%로 인하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및 조건은 (표 9-29)과 같다.

[표 9-2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설비자금	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4%
	연구개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 자금	1억원	3년 (거치기간1년)	



※ 융자 취급기관 : 국민은행 외 15개 시중은행

[그림 9-5] 기금융자 시행절차

1991년 6개 업체에 설비투자 6억원, 연구개발 3억 7,900만원 등 총 9억 7,900만원을 처음으로 융자한 이후 2009년까지 189개 업체에 총 172억 7,800만원을 융자하였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연도별 기금융자현황은 (표 9-30)과 같다.

[표 9-30]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계	총 계	189	40,421	176	32,002	111	17,278
	설비투자	68	19,355	59	14,580	29	5,874
	연구개발	87	16,736	75	13,657	53	8,958
	원자재구입	46	4,330	42	3,765	29	2,446
2000	계	19	3,213	19	3,213	10	1,346
	설비투자	5	994	5	994	1	50
	연구개발	7	1,542	7	1,542	4	796
	원자재구입	7	677	7	677	5	500
2001	계	8	2,000	7	1,900	2	525
	설비투자	3	1,100	3	1,100	2	525
	연구개발	3	700	2	600	-	-
	원자재구입	2	200	2	200	-	-
2002	계	7	1,965	7	1,965	6	1,580
	설비투자	4	1,465	4	1,465	3	1,080
	연구개발	2	400	2	400	2	400
	원자재구입	1	100	1	100	1	100
2003	계	8	1,380	8	1,380	8	1,380
	설비투자	1	180	1	180	1	180
	연구개발	4	900	4	900	4	900
	원자재구입	3	300	3	300	3	300
2004	계	10	1,960	10	1,960	8	1,107
	설비투자	2	560	2	560	1	60
	연구개발	4	1,000	4	1,000	3	700
	원자재구입	4	400	4	400	4	347
2005	계	7	1,842	7	1,842	-	-
	설비투자	4	1,339	4	1,339	-	-
	연구개발	2	403	2	403	-	-
	원자재구입	1	100	1	100	-	-

구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06	계	7	2,100	7	2,100	4	1,050
	설비투자	2	1,000	2	1,000	1	500
	연구개발	3	900	3	900	2	450
	원자재구입	2	200	2	200	1	100
2007	계	12	2,038	10	1,638	5	857
	설비투자	2	494	2	494	1	63
	연구개발	5	1,050	4	750	2	600
	원자재구입	5	494	4	394	2	194
2008	계	30	5,841	25	2,599	17	1,488
	설비투자	10	3,162	9	1,219	6	752
	연구개발	12	2,080	10	1,146	6	541
	원자재구입	8	599	6	234	5	195
2009	계	21	4,330	15	3,180	8	1,350
	설비투자	3	1,180	2	880	0	0
	연구개발	12	2,550	8	1,800	5	1,100
	원자재구입	6	600	5	500	3	250

※ 주 : 합계는 1992년부터 2009년 까지의 합계임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가. 목 적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용자 대상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용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의 등록 체육시설(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설치자금 과 개·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가금 대상 시설이었던 수영장(시설설치 및 개·보수), 볼링장, 골프연습장(시설 개·보수)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종합체육시설, 1998년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개·보수 용자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 체력단련장까지 추가하였다. 용자이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용자와 같이 2004년도에 4%로 인하였다.

[표 9-31]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기준

용자대상		용자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체육 시설 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 신규설치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4%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신규설치자		5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금	5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3억원		

시설설치자금은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30억원,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5억원(용자기간 10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등록체육시설 5억원,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3억원(용자기간 5년)을 한도로 용자하고 있다.

다. 용자 현황

1996년 이후 총 931개 업체에서 4,437억 3,8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404개 업체에 1,164억 800만원이 용자되었다. 용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골프연습장으로 172개 업체가 389억 4,500만원이 용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볼링장으로 110개 업체가 106억 400만원이 용자되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는 체력단련장업체에 대한 용자를 개시하여 시설설치에 19개 업체가 73억 1,400만원을 신청하였고 개보수에 15개 업체가 26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설설치에 3개 업체가 7억 8,500만원, 개보수에 6개 업체가 7억 5,500만원을 실제로 시행하였다.

향후 용자산업은 스포츠시설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온 제한을 벗어나 그 대상을 스포츠서비스업체로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고른 분야에 용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9-32]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 : 업체수

업종	년도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계	신청	443,738 (931)	45,460 (272)	95,918 (336)	17,433 (32)	11,438 (60)	123,706 (60)	7,623 (37)	48,000 (19)	7,398 (29)	23,770 (21)	2,270 (6)	360 (2)	7,314 (19)	2,660 (15)	10,137 (25)	600 (2)
	결정	213,294 (774)	23,538 (246)	60,926 (277)	9,825 (26)	7,634 (52)	51,487 (44)	5,565 (29)	24,176 (15)	6,022 (26)	10,350 (15)	1,789 (6)	360 (2)	4,537 (14)	1,196 (8)	5,791 (16)	300 (1)
	시행	116,408 (404)	10,604 (110)	38,945 (172)	3863 (11)	2,850 (20)	24,324 (23)	2,530 (14)	17,607 (13)	3,683 (15)	6,198 (7)	1,250 (4)	- (-)	785 (3)	755 (6)	3,373 (9)	300 (1)
2000	결정	6,780 (7)	-	-	1,480 (3)	-	1,000 (1)	-	4,000 (2)	300 (1)	-	-	-	-	-	-	-
	시행	900 (3)	-	-	500 (1)	-	-	-	100 (1)	300 (1)	-	-	-	-	-	-	-
2001	신청	10,948 (10)	-	-	350 (1)	-	4,000 (4)	-	6,000 (3)	598 (2)	-	-	-	-	-	-	-
	결정	4,948 (6)	-	-	350 (1)	-	2,000 (2)	-	2,000 (1)	598 (2)	-	-	-	-	-	-	-
	시행	998 (4)	-	-	350 (1)	-	-	-	100 (1)	548 (2)	-	-	-	-	-	-	-
2002	신청	27,229 (56)	275 (2)	15,690 (39)	1,030 (3)	1,200 (4)	-	334 (2)	6,000 (2)	1,500 (3)	1,200 (1)	-	-	-	-	-	-
	결정	26,595 (53)	275 (2)	15,190 (38)	930 (2)	1,200 (4)	-	300 (1)	6,000 (2)	1,500 (3)	1,200 (1)	-	-	-	-	-	-
	시행	18,397 (34)	97 (1)	10,560 (27)	-	300 (1)	-	-	5,980 (2)	1,000 (2)	460 (1)	-	-	-	-	-	-
2003	신청	15,933 (27)	788 (3)	6,275 (17)	-	300 (1)	-	300 (1)	7,500 (3)	-	740 (1)	-	90 (1)	-	90 (1)	-	-
	결정	12,753 (26)	788 (3)	6,275 (17)	-	300 (1)	-	300 (1)	4,260 (2)	-	740 (1)	-	90 (1)	-	90 (1)	-	-
	시행	9,910 (15)	420 (1)	3,810 (9)	-	300 (1)	-	300 (1)	4,260 (2)	-	740 (1)	-	-	-	-	-	-
2004	신청	13,700 (24)	-	7,700 (18)	-	500 (2)	1,500 (1)	-	500 (1)	-	3,500 (2)	-	-	-	-	-	-
	결정	9,600 (20)	-	6,900 (16)	-	200 (1)	1,500 (1)	-	500 (1)	-	500 (1)	-	-	-	-	-	-
	시행	5,477 (14)	-	4,967 (12)	-	-	10 (1)	-	500 (1)	-	-	-	-	-	-	-	-

(단위 : 백만원, 개), () : 업체수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빙상/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2005	신청	29,110 (47)	400 (2)	9,260 (23)	500 (1)	510 (2)	6,000 (2)	200 (1)	6,000 (2)	1,000 (2)	2,200 (1)	650 (2)	-	1,820 (5)	570 (4)	-	-
	결정	13,950 (35)	195 (1)	5,295 (21)	300 (1)	350 (2)	1,900 (1)	150 (1)	2,922 (1)	-	1,400 (1)	400 (2)	-	887 (3)	151 (1)	-	-
	시행	8,972 (20)	-	3,950 (14)	-	100 (1)	-	-	2,922 (1)	-	1,400 (1)	400 (2)	-	200 (1)	-	-	-
2006	신청	39,480 (56)	850 (3)	10,170 (27)	1,670 (4)	-	4,000 (2)	-	18,000 (6)	-	900 (2)	500 (1)	-	2,760 (7)	630 (4)	-	-
	결정	15,334 (44)	190 (1)	2,955 (20)	1,430 (4)	-	2,880 (2)	-	4,494 (6)	-	570 (2)	500 (1)	-	2,040 (6)	275 (2)	-	-
	시행	5,671 (20)	30 (1)	1,226 (11)	-	-	-	-	3,745 (5)	-	-	500 (1)	-	85 (1)	85 (1)	-	-
2007	신청	40,591 (56)	300 (1)	10,497 (27)	500 (1)	469 (2)	3,200 (2)	800 (2)	15,000 (5)	-	6,200 (4)	770 (2)	-	1,100 (3)	1,115 (5)	640 (2)	-
	결정	12,137 (45)	162 (1)	1,956 (19)	271 (1)	92 (1)	1,200 (2)	433 (2)	2,044 (4)	-	3,357 (4)	541 (2)	-	862 (3)	579 (4)	640 (2)	-
	시행	8,830 (32)	162 (1)	1,542 (15)	271 (1)	92 (1)	200 (1)	271 (1)	2,033 (4)	-	3,195 (3)	270 (1)	-	135 (1)	162 (1)	497 (2)	-
2008	신청	32,571 (65)	100 (1)	10,680 (27)	500 (1)	-	800 (1)	380 (2)	-	-	10,100 (8)	770 (2)	-	2,114 (5)	1,260 (5)	5,567 (12)	300 (1)
	결정	17,116 (46)	70 (1)	6,596 (20)	350 (1)	-	800 (1)	140 (1)	-	-	3,640 (4)	539 (2)	-	990 (3)	570 (3)	3,121 (9)	300 (1)
	시행	9,394 (25)	70 (1)	4,338 (13)	-	-	-	-	-	-	1,900 (1)	-	-	500 (1)	570 (3)	1,576 (4)	300 (1)
2009	신청	22,953 (52)	600 (2)	9,400 (22)	353 (1)	900 (3)	-	1300 (3)	-	-	4,730 (4)	350 (1)	270 (1)	620 (2)	200 (2)	3,930 (11)	300 (1)
	결정	15,123 (39)	600 (2)	6,300 (17)	353 (1)	600 (2)	-	1,300 (3)	-	-	2,500 (3)	350 (1)	270 (1)	620 (2)	200 (2)	2,030 (5)	-
	시행	7,550 (19)	300 (1)	3,200 (9)	-	300 (1)	-	500 (1)	-	-	1,500 (2)	350 (1)	-	-	100 (1)	1,300 (3)	-

※ 주 : 합계는 1996년부터 2009년 까지의 합계임

2)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국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민간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골프장내 금지 시설물이었던 숙박시설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준조세 폐지 정책에 따라 운동장·체육관·수영장·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부가금을 폐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대중 골프장의 확충을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면적산정 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에는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고, 2006년에는 대중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도 골프장 입지 완화 및 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해외여행 등과 연관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 성격상 위탁관리가 어려운 시설인 전문체육시설 등은 시설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제8장 체육시설 참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및 아시안게임 시설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공연장 등 문화시설,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게임 제공업소 등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의 민간위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사용기간을 3~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사용자 지불도 보증금과 월납입 방식 등으로 완화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표 9-33]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도	규제명	개선내용
1999	신고체육시설업종 일부 자유업종화	탁구장, 롤러스케이팅장 자유업종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제한적 허용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특소세 면제
2000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6년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제도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 폐지 → 회원제골프장은 부과
	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에 수익시설 설치 가능토록 개정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001~2003	골프장의 지역별 총량제한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임야면적의 3% 규제) → 폐지
2005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2006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코스길이 제한 → 폐지 회원제골프장 홀규모 제한 → 폐지
	골프장 및 스키장 세제	대중골프장, 스키장 세제 인하 → 별도 합산 0.8%
2007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층 규모 제한(5층) 폐지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수질오염 총량제도시행지역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완화
2008	골프장시설 규제	수질기준 1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히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사업계획 변경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보유세 → 면제, 체육진흥기금 → 면제 - 보유세 및 취득세 → 경감
2009	시설규제	-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골프장 입지	- 10mm이상 조정지 설치·운영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히거리 7km 밖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II 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 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3)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융자

가. 목적

그간 스포츠산업 내의 다양한 하위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되어온 반면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정부는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용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2006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배경

지금까지 체육산업 용자사업은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만 용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군인 관광스포츠 및 기타 스포츠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스포츠서비스업은 용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됨에 따라 스포츠관련 직·간접적인 소비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 사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되므로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다.

다. 용자대상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사업의 용자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회사 설립 후 만 1년 경과하였으며, 설립 이래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 단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대회조직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공고일 현재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용자규모는 연 40억원이며 10억원 이내의 용자한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용자이율은 연 4%이다.

[표 9-34] 스포츠서비스업체 기금융자기준

용자대상		용자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스포츠 서비스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 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설비자금	10억	10년 (거치기간 4년)	4%
		운전자금	3억	5년 (거치기간 2년)	

라. 융자현황

2009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사업에는 총5개 업체에서 17억 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1개 업체에 150백만원이 융자되었다. 설비투자는 1개의 업체에만 시행되었다.

[표 9-35] 스포츠서비스업 자금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융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18	5,145	16	4,814	9	2,685
	설비투자	6	2,939	5	2,239	3	1,250
	연구개발	12	2,675	11	2,575	6	1,435
2006	계	6	1,280	6	1,280	2	250
	설비투자	2	590	2	590	1	100
	연구개발	4	690	4	690	1	150
2007	계	5	1,285	5	1,285	4	985
	설비투자	-	-	-	-	-	-
	연구개발	5	1,285	5	1,285	4	985
2008	계	2	1,300	2	1,300	2	1,300
	설비투자	1	1,000	1	1,000	1	1,00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2009	계	5	1,749	3	949	1	150
	설비투자	3	1,349	2	649	1	150
	연구개발	2	400	1	300	-	-

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가. 목적

스포츠활동의 가치 재조명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과학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지원대상과제

지원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관,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렴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관,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3년 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개발,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2009년부터 기획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3년 이상의 패키지형 수행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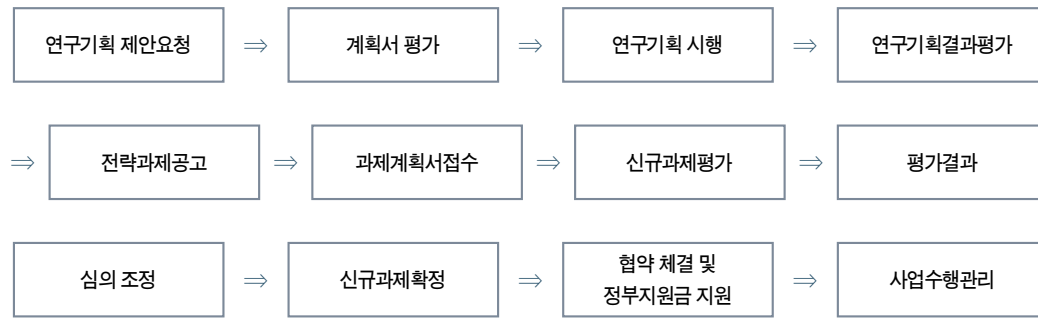
라. 지원현황

2007년 정책과제 2건, 지정과제 4건, 자유과제 6건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지원금 1,737,400천원, 민간지원금 567,700천원으로 총 2,305,1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정책과제 1건, 지정과제 3건, 자유과제 18건으로 총 22건, 지원금은 정부지원금 2,411,600천원, 민간지원금 926,400천원으로 총 3,338,000천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정책과제 3건, 지정과제 7건, 자유과제 13건으로 총 23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원금은 정부에서 5,753,000천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에서 1,760,316천원을 부담하여 총 7,513,316천원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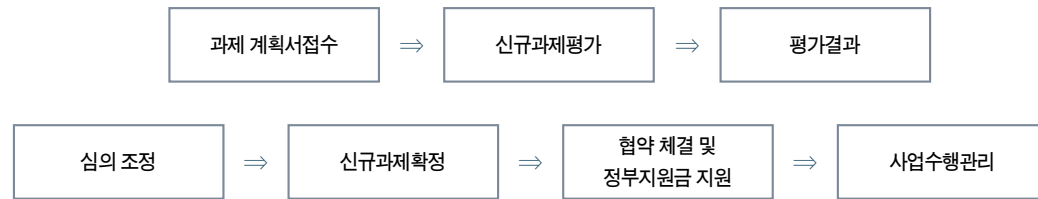
[표 9-36]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2007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737,400	567,700
2008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600	926,400
2009	23건(정책 3건, 지정 7건, 자유 13건)	5,753,000	1,760,316



[그림 9-6] 지정과제(중·장기 과제) 선정 절차



[그림 9-7]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각 분야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전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활용성에 있다. 특히 지역적 이동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각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향

상시켜야 한다. 특히, 체육분야가 공공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스포츠산업에서의 경영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체육활동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사무인력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무능력 구비를 위한 재교육 및 새로운 창업기회 확대에 따른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및 교육과정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00년 8월~2001년 1월)하였으며, 전국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 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2001년 11월, 총 96명의 전국 체육시설 관리 공무원)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09년까지 3,850명을 양성하였다.

2005년도부터는 전문스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미국과 일본의 선진체육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 등도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자들로 하여금 스포츠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 등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스포츠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스포츠산업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 스포츠 전문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표 9-3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스포츠마케터	339	199	198	188	185	209	1,318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219	106	126	92	54	62	659
공공체육시설관리자	146	53	48	39	51	45	382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	16	25	33	20	20	114
특별과정	24	79	-	-	-	-	103
스포츠산업아카데미	-	-	240	373	-	-	613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	-	19	23	22	21	85
프로스포츠 마케팅현장체험학습	-	-	-	-	119	88	207
체육행정 공무원	130	36	46	53	46	-	347
합계	858	489	702	801	497	503	3,850

3)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실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 이후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경영관리자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 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05년도부터는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스포츠마케터 해외연수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관계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업체 직원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9박 10일간 선진 스포츠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 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은 선진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향후 전문 스포츠마케터과정의 전면적인 실시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향

국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교육을 담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교수 인력 선정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재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연계·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정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기법·첨단기술·특허 등 산업정보 DB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첨단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털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스포츠 정보 제공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기기록 조사·가공업, 선수기량 등 평가업, 스포츠판 성향조사업 등을 활성화하며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산업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대행,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산업관련 핵심과제의 중점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 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스포츠산업관련 중점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제 5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1. 스포츠산업 성장의 과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기 힘든 상태다. 이러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 안에서 만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 기인하는 시장적 한계를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은 모두 빈번한 국제 교류와 국제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해외진출 등을 통한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서비스업의 핵심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업 중 스포츠에이전트업은 선수간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선수들의 활동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때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해외 대형 리그의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정보력과 거래력을 바탕으로 영업반경을 확대할 때 상업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에서의 스포츠에이전트업 종사자와 업체는 아직까지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스포츠에이전트업 외에 여타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구체적인 특성 중 하나는 거대한 국제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포츠산업의 핵심 상품인 스포츠경기가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과 같은 거대한 국제경기대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성장 방안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1) 국제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산업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해외시장 확대에서 가져온 것처럼 스포츠산업에서도 국내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순간에 우리의 스포츠산업분야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

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서두르는 일이다.

국제화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는 스포츠 서비스업 분야이며 이는 스포츠마케팅을 핵심에 두고 있다. 선수 계약관계를 도와주며 선수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일들을 책임지는 스포츠에이전트업은 그 범위를 국내 시장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때 그 업종의 시장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스포츠이벤트업도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주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스폰서십을 창출해 내고 해외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들은 국제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하며, 동시에 이러한 국제화는 우리 스포츠산업 시장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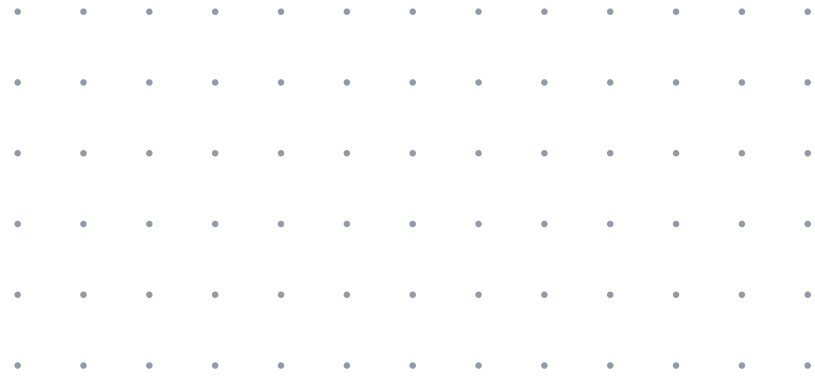
스포츠용품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포츠용품은 내수시장의 소비로만 그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용품업의 해외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품의 생산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해외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외 동종업계의 인력들을 제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제적인 감각과 시장 분석능력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을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전문화

스포츠산업 내의 많은 활동은 점점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스포츠가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을 때 운동 기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현대화 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 융합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주변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복합화 및 융합화는 스포츠와 결합된 각 분야에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국내 스포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조직의 재원확충을 위한 수입원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할 것이며 스포츠조직의 특성에 맞춰 이러한 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자체는 물론 각종 스포츠마케팅 기법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용화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적인 경험과 적용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으며 스포츠산업의 일부 분야에서만 가지고는 전체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될 때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계에서는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에서는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기관은 전문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산학연 모두가 협동하여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제10장 체육전문인력

제1 절 개 관

제2 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제3 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제4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10 장 _ 체육전문인력

제1절 개 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가치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육전문인력의 효과적 양성 및 활용이 국민체육진흥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육전문인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등 체육의 각 하위 분야에서 각 분야의 영역을 구성하는 선수, 지도자, 교사·교수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임용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각 분야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우수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 경기지도자, 선수, 심판 등이 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건강 유지 및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 국제체육은 국가간 체육교류 등 체육외교와 여러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동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제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국제체육기구의 임원 등을 비롯한 체육외교인력을 들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용품제조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스포츠용품제조업 종사자, 시설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체육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체육교사, 체육계학과 학생, 교수 등이 있다. 본 백서에서 체육전문인력은 전문체육분야의 선수·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 2 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1. 선수·코치

1) 등록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종목별 등록 선수수 현황은 (표 10-1)과 같다. 2009년 등록된 선수수는 136,557명으로 2008년 129,242명에 비하여 7,315명(5.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스타선수들의 활약상이 마케팅 활동과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됨으로써 전문운동선수에 대한 관심과 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의 체육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종목별 등록선수수는 축구(23,400명)가 가장 많고, 궁도(12,033명), 태권도(9,610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2008년과 동일한 순위이다. 반면, 루지(6명), 봅슬레이스켈레톤(172명), 수상스키(184명), 바둑(228명), 트라이애슬론(232명), 바이애슬론(248명), 수중(284명), 세팍타크로(290명), 근대5종(449명), 승마(466명), 소프트볼(490명) 등의 종목은 전체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으로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취약종목이기는 하지만 봅슬레이스켈레톤의 경우 등록선수수가 2008년도 38명에서 2009년에는 172명으로 134명(353%)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비인기종목들도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10-1] 종목별 등록선수수

(단위 : 명)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실 업		군		시 도 군청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36,557	105,447	31,110	21,789	7,247	23,602	7,506	20,917	6,590	11,622	2,995	9,833	2,861	402	10	17,288	3,901
육상	6,506	3,926	2,580	1,178	896	1,133	750	984	523	300	146	57	35	22	0	252	230
축구	23,400	21,936	1,464	5,754	397	6,318	382	4,821	356	2,493	173	2,513	154	0	1	37	1
테니스	1,724	1,065	659	369	230	225	145	225	137	152	80	37	29	0	0	57	38
정구	1,639	988	651	402	258	187	149	153	126	113	25	20	23	0	0	113	70
탁구	1,862	905	957	409	384	159	194	151	173	77	99	35	33	6	0	68	74
핸드볼	2,333	1,205	1,128	482	409	258	284	206	227	185	71	30	34	16	0	28	103
역도	1,189	833	356	0	0	373	154	265	108	87	25	10	6	12	0	86	63
복싱	2,478	2,355	123	0	0	845	0	647	28	215	21	538	74	14	0	96	0
빙상	1,433	745	688	285	402	120	103	88	74	74	42	55	22	0	0	123	45
유도	3,943	3,002	941	607	87	965	382	892	275	340	124	92	26	30	0	76	47
체조	2,606	797	1,809	246	519	143	231	124	180	102	93	128	703	9	0	45	83
사이클	813	574	239	0	0	143	80	233	79	49	1	67	27	17	0	65	52
농구	2,655	1,691	964	434	391	460	218	434	193	345	101	0	36	18	0	0	25
배구	2,486	1,551	935	471	363	382	223	326	190	194	72	105	8	15	0	58	79
씨름	1,742	1,742	0	515	0	454	0	356	0	231	0	49	0	0	0	137	0
럭비	1,530	1,517	13	0	0	580	0	473	0	329	0	111	13	24	0	0	0
레슬링	1,856	1,704	152	0	0	821	13	433	65	259	38	43	0	17	0	131	36
수영	3,518	1,996	1,522	888	752	479	398	278	197	129	80	54	25	15	0	153	70
야구	8,255	8,248	7	3,566	6	2,177	1	1,510	0	961	0	0	0	34	0	0	0
스키	1,128	771	357	205	130	165	101	140	58	125	34	134	32	2	0	0	2
승마	466	354	112	1	0	12	11	33	23	37	18	13	4	18	1	240	55
아이스하키	1,658	1,532	126	999	98	266	8	113	0	94	0	60	20	0	0	0	0
하키	1,499	802	697	0	0	293	259	260	256	148	80	24	36	21	0	56	66
검도	5,604	4,714	890	465	61	593	53	508	80	615	180	149	11	0	0	2,384	505
궁도	12,033	10,689	1,344	0	0	2	0	85	32	0	0	86	1	0	0	10,516	1,311
사격	3,664	2,449	1,215	30	12	489	452	374	313	179	136	39	38	38	6	1,300	258
펜싱	1,637	928	709	0	0	362	338	256	187	141	62	46	19	5	0	118	103
태권도	9,610	7,546	2,064	1,346	202	2,322	705	2,506	741	1,207	336	67	7	20	2	78	71
배드민턴	2,147	1,160	987	523	474	225	175	157	144	130	91	29	27	6	0	90	76
조정	602	392	210	0	0	38	46	122	72	162	29	16	9	10	0	44	54
인라인롤러	1,049	714	335	142	98	98	84	83	75	37	14	309	26	0	0	45	38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실 업		군		시 도 군청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요트	500	418	82	35	12	84	18	65	11	80	31	57	4	2	0	95	6
볼링	1,696	938	758	29	16	226	159	242	191	147	86	194	226	0	0	100	80
양궁	1,672	850	822	326	301	186	222	118	148	68	70	97	38	7	0	48	43
카누	671	451	220	0	0	150	88	129	70	79	21	25	8	7	0	61	33
골프	3,502	2,465	1,037	285	170	640	351	1,161	448	368	67	11	1	0	0	0	0
근대5종	449	349	100	21	14	121	40	103	36	45	9	31	1	8	0	20	0
수상스키	184	146	38	15	1	15	5	10	6	23	3	82	23	1	0	0	0
산악	1,338	1,027	311	26	20	15	13	123	32	75	27	788	219	0	0	0	0
보디빌딩	2,043	1,864	179	0	0	0	0	152	0	159	17	1,259	131	4	0	290	31
세팍타크로	290	187	103	0	0	22	3	85	49	51	30	5	11	0	0	24	10
수중	284	184	100	0	0	13	9	52	17	38	26	63	24	0	0	18	24
우슈	1,845	1,455	390	405	122	204	68	277	75	145	23	384	102	0	0	40	0
소프트볼	490	0	490	0	0	0	209	0	141	0	113	0	27	0	0	0	0
복슬레이스켈레톤	172	148	24	0	1	6	5	9	0	17	4	116	14	0	0	0	0
컬링	611	339	272	29	36	87	76	81	64	6	12	10	17	0	0	126	67
트라이애슬론	232	158	74	52	13	18	0	4	5	7	4	74	49	0	0	3	3
바이애슬론	248	148	100	39	33	41	32	29	12	20	4	3	5	4	0	12	14
스쿼시	853	576	277	34	9	23	15	125	82	204	92	152	62	0	0	38	17
당구	679	632	47	2	0	4	2	8	2	2	0	616	43	0	0	0	0
택견	1,598	1,239	359	444	123	251	69	113	48	134	28	297	91	0	0	0	0
공수도	3,025	2,474	551	673	120	323	76	636	119	415	142	427	94	0	0	0	0
댄스스포츠	876	367	509	38	86	36	96	90	115	16	14	170	180	0	0	17	18
루지	6	6	0	0	0	1	0	2	0	2	0	1	0	0	0	0	0
오리엔티어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바둑	228	195	33	13	1	49	11	67	7	11	1	55	13	0	0	0	0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한편,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추이는 (표 10-2)와 같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등록선수수 증가는 주로 학생선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선수수의 변화는 주로 학생선수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의 선발·육성이 체육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학생 선수는 2008년도에 비해 3,798명(15.05%) 증가, 중학생 선수는 1,899명(6.50%) 증가,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940명(3.54%)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생과 일반인 선수는 각각 475명(3.36%), 203명(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

연도	구분	계	초	중	고	대	일 반
2004		114,410	23,385	28,630	26,058	13,500	22,837
2005		112,753	23,921	28,300	26,914	13,125	20,493
2006		116,832	24,102	28,475	27,697	13,764	22,794
2007		132,815	28,373	30,398	29,006	14,503	30,535
2008		129,242	25,232	29,209	26,567	14,142	34,092
2009		136,557	29,030	31,108	27,507	14,617	34,295

※ 대한체육회(각 연도), 내부자료

2) 꿈나무 선수

꿈나무 선수 제도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선수들을 선발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목적은 첫째, 재능 있는 꿈나무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우수선수의 저변을 확대하고, 둘째, 조기에 과학적 훈련을 지원하여 차세대 대표선수로서 양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엘리트체육의 장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꿈나무 선수 양성은 1993년 전국에서 초등학교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후보선수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2002년에는 육상, 수영, 체조의 세 종목으로 분리 육성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의 5종목 2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기존의 5개 종목에서 핸드볼, 탁구, 유도 등 3개 종목이 추가되어 8개 종목으로 증가하였으며, 선발인원도 총 200명에서 300명으로 100명이 증가하였다. 2009년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8개 종목 300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선발된 꿈나무 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하계합숙훈련비로 1인 1일 50,000원을 지급하고,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에 대해 300,000원씩 지급하여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 선수 상해보험(연중)을 가입하며,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지도로서 연중 2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 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 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 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꿈나무 선수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게 된다.

[표 10-3] 꿈나무 선수육성 현황

구 분	종목수	육성 종목 현황	인원(명)
1994	8	육상(125), 수영(95), 체조(60), 양궁(40), 사격(50), 탁구(40), 빙상(40), 배드민턴(40)	490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1996~2001	-	후보선수와 통합·운영	-
2002	3	육상, 수영, 체조	163
2003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4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5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6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7	5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200
2008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00
2009	8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	300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세부종목별 꿈나무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4)와 같다. 꿈나무 선수 최종 선발은 선발정원의 3배수를 해당종목의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받아 경기력, 기초체력, 심리검사의 종합 측정평가를 실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은 학기 중에는 소속팀에서 실시(훈련비 및 지도자 순회 점검·자문 등)하고 동·하계 방학에는 합숙을 하면서 집중훈련과 지도를 받고 있다.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차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표 10-4]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

(단위 : 명)

종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종목	세부종목	최종선발인원
육상	단거리	22	스키	알파인	10
	중·장거리	19		크로스컨트리	10
	도약	21		스키점프	5
	투척	18		스노우보드	5
수영	경영	28	빙상	스피드	12
	다이빙	10		쇼트트랙	12
	싱크로	2		피겨	6
체조	남자기체조	13	핸드볼	남자	15
	여자기체조	15		여자	15
	리듬체조	12	탁구	남자	15
유도	남자	12		여자	15
		여자	8	총계	-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3) 후보 선수

후보 선수 제도는 향후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위주의 선수군을 대상으로 종목별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집중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보 선수 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종목별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둘째, 국가대표 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 선수 결원을 대비하여 상시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 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의 평가,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 대비하여 후보 선수 중 우수 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파견훈련을 통해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2009년에는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 등 총 28개 종목에 1,300명의 후보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후보 선수 선발은 경기력, 체력, 체형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경기단체의 선수선발위원회(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보 선수 관리·운영은 전임지도

자를 배치하여 동하계합숙훈련(종목별 20일 내외)과 국외전지훈련(종목별 15일 이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보 선수의 종목별 정원은 (표 10-5)와 같다.

[표 10-5] 종목별 후보선수

(단위 : 명)

종목	남	여	소계	종목	남	여	소계
양궁	20	20	40	소프트볼	-	17	17
육상	77	58	135	수영	62	56	118
배드민턴	30	30	60	탁구	15	15	30
복싱	30	-	30	태권도	24	24	48
카누	18	8	26	테니스	12	12	24
사이클	25	15	40	배구	18	18	36
펜싱	24	24	48	역도	18	12	30
축구(여)	-	36	36	레슬링	42	8	50
체조	27	33	60	요트	25	4	29
핸드볼	24	24	48	근대5종	10	5	15
하키	24	24	48	빙상	42	36	78
유도	24	24	48	스키	33	16	49
조정	17	13	30	바이애슬론	12	6	18
사격	49	35	84	아이스하키	25	-	25
계	389	344	733	총계	727	573	1,300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4)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국가대표 선수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하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선수이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의 강화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수는 (표 10-6)과 같다. 2009년 현재 국가대표 선수수는 2008년에 비해 1종목이 증가하여 46종목에 1,165명이며 코치수는 173명이다. 2008년에 비해 선수는 158명(15.7%)이 증가한 반면 코치는 2명(1.14%)이 감소하였다.

선수수의 증가에 비해 코치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치수의 변화는 하계종목의 경우 복싱과 사격 코치가 각각 1명씩 증가, 배구가 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6명이 증가한 반면, 핸드볼, 하키, 유도, 레슬링 각각 2명씩 감소, 조정, 요트, 수영 각각 1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 11명이

감소하여 하계 종목 코치는 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계 종목의 경우에는 빙상 2명, 아이스하키와 봅슬레이스켈레톤이 각각 1명씩 증가하고 바이애슬론이 1명 감소하여 3명의 코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등으로 인해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해당 종목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동계종목 코치를 증가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표 10-6]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수

(단위 : 명)

구분	종 목	코치	인 원			계
			선 수			
			남	여	계	
하 계 (39)	양 궁	4	8	8	16	20
	육 상	9	55	25	80	89
	배드민턴	6	24	24	48	54
	야 구	3	24	-	24	27
	농 구	4	12	12	24	28
	당 구	2	10	2	12	14
	볼 링	3	8	8	16	19
	복 싱	3	22	-	22	25
	카 누	3	14	5	19	22
	사이클	4	18	8	26	30
	승 마	3	12	-	12	15
	펜 싱	6	22	22	44	50
	축 구	4	20	18	38	42
	골 프	2	6	6	12	14
	체 조	9	12	18	30	39
	핸 드 볼	4	24	24	48	52
	하 키	4	22	22	44	48
	유 도	4	16	16	32	36
	공수도	2	8	5	13	15
	근대5종	2	4	4	8	10
	조 정	2	6	6	12	14
	력 비	2	29	-	29	31
	요 트	3	20	10	30	33
	세팍타크로	2	12	12	24	26
	사 격	9	43	22	65	74
	소프트볼	2	-	16	16	18
	정 구	2	6	6	12	14
	스쿼시	2	5	5	10	12
	수 영	9	35	19	54	63

구분	종 목	코치	인 원			계
			선 수			
			남	여	계	
하 계 (39)	탁 구	4	10	10	20	24
	태권도	4	16	16	32	36
	테니스	2	8	4	12	14
	철인3종	2	4	4	8	10
	배 구	4	12	12	24	28
	역 도	5	16	14	30	35
	레슬링	6	28	8	36	42
	우 슈	2	6	6	12	17
	인라인스케이트	2	6	6	12	14
	댄스스포츠	2	6	6	12	14
소 계		147	611	410	1,021	1,168
동계 (7)	빙 상	8	17	19	36	44
	스 키	6	22	8	30	36
	아이스하키	4	22	21	43	47
	바이애슬론	3	6	6	12	15
	컬 링	2	5	5	10	12
	루 지	1	3	-	3	4
	봅슬레이	2	10	-	10	12
	스켈레톤	-	-	-	-	-
	소 계		26	85	59	144
합 계		173	696	469	1,165	1,338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2. 심 판

심판은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협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선수출신자 또는 체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09년 양성된 종목별 국내·심판 현황은 (표 10-7)과 같다. 국내 심판수는 총 51,317명으로 태권도(17,668명), 수영(9,292명), 육상(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오리엔티어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수는 총 4,021명으로 태권도(2,572명), 탁구(170명), 사격(1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루지/봅슬레이, 오리엔티어링 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기] 종목별 심판

(단위 : 명)

종 목	국내심판(A)					국제심판(B)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계	5,000	7,595	34,815	3,907	51,317	425	815	2,140	641	4,021
육상	726	588	1,426	-	2,740	-	3	-	-	3
축구	256	36	101	61	454	18	-	-	-	18
테니스(사)	8	25	465	1,837	2,335	-	-	-	6	6
정구	176	607	-	-	783	3	45	27	-	75
탁구(사)	800	190	1,200	-	2,190	-	-	170	-	170
핸드볼(사)	250	300	-	-	550	8	-	-	-	8
역도(사)	98	62	73	-	233	61	70	-	-	131
복싱	-	-	-	185	185	-	-	-	22	22
빙상(사)	5	219	6	4	234	7	39	-	-	46
유도(사)	379	-	-	-	379	20	17	-	-	37
체조(사)	84	56	134	17	291	-	5	34	43	82
사이클(사)	65	83	-	-	148	5	-	-	-	5
농구	146	611	320	-	1,077	-	-	-	79	79
배구	30	102	462	-	594	-	-	-	22	22
씨름	69	37	181	-	287	-	-	-	-	0
력비(사)	5	5	11	-	21	2	5	-	-	7
레슬링	15	8	28	-	51	19	12	32	-	63
수영(사)	204	686	8,402	-	9,292	3	3	10	55	71
야구	-	-	-	21	21	-	-	-	2	2
스키(사)	21	92	427	-	540	4	6	-	-	10
승마(사)	65	-	-	-	65	-	7	6	-	13
아이스하키	-	-	-	51	51	-	11	-	-	11
하키	10	20	30	-	60	-	2	10	8	20
검도(사)	-	200	917	-	1,117	6	-	-	-	6
궁도	161	225	941	-	1,327	-	-	-	-	-
사격(사)	-	-	-	187	187	41	95	-	-	136
펜싱(사)	-	129	79	-	208	1	43	80	-	124
태권도	699	1,993	14,976	-	17,668	151	389	1,729	303	2,572
배드민턴(사)	47	234	273	763	1,317	8	8	3	-	19

(단위 : 명)

종 목	국내심판(A)					국제심판(B)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조정(사)	-	-	-	82	82	-	-	-	7	7
로올러(사)	176	121	333	-	630	1	-	-	-	1
요트	-	5	51	-	56	-	-	-	2	2
블링(사)	-	-	-	-	0	-	-	-	-	-
양궁	97	107	399	-	603	-	-	-	11	11
키누(사)	50	11	46	16	123	5	-	-	-	5
골프(사)	-	-	-	127	127	-	-	-	2	2
근대5종(사)	16	15	19	-	50	4	23	10	-	37
수상스키(사)	11	89	1,026	-	1,126	-	-	-	5	5
산악(사)	24	135	-	-	159	1	-	-	-	1
보디빌딩	233	275	-	-	508	11	18	17	-	46
세팍타크로	14	31	454	-	499	33	-	1	-	34
수중(사)	-	-	405	-	405	7	-	-	-	7
우슈	5	56	287	348	696	-	6	4	12	22
소프트볼	8	9	28	-	45	5	-	-	-	5
루지/봅슬레이	-	-	-	-	-	-	-	-	-	-
컬링	-	-	-	100	100	-	-	-	30	30
트라이애슬론(사)	3	55	628	-	686	-	-	-	-	-
바이애슬론	2	30	20	30	82	-	-	-	1	1
스쿼시	-	23	273	-	296	-	6	-	-	6
당구(준)	-	-	-	10	10	-	-	-	3	3
택견(준,사)	-	35	145	-	180	-	-	-	-	-
공수도(준)	23	61	212	-	296	1	2	7	-	10
댄스스포츠(준)	19	29	37	68	153	-	-	-	28	28
오리엔티어링(준)	-	-	-	-	-	-	-	-	-	-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3. 체육계 대학(원)

1) 전문대학

2009년 전문대학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262개 학과 22,583명이다. 2008년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2009년에는 학과수는 44개가 감소하였으며, 학생수는 510명 감소하였다. 직전년도 기준 2008년과 2009년의 학과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2008년 23.39% 증가, 2009년 14.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과수가 증가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수는 각각 6.61%,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및 구직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체육계 학과와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간의 통폐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과, 댄스스포츠과, 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 태권도과(야간) 등의 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간 시장수요에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유지했던 학과나 소위 시장경쟁이 치열한 인기학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1.15%, 2008년 19.98%, 2009년 19.57%로 나타나 2008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8]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전문대학)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2007>	248	24,727	5,230	경호태권도과	2	125	9
<2008>	306	23,093	4,613	경호태권도전공	1	26	1
<2009>	262	22,583	4,420	경호합기도과	1	85	8
건강관리과	1	191	39	경호행정학과	1	14	-
경찰경호태권도과	1	40	-	골프경기지도과	1	34	4
경찰경호합기도과	1	18	-	골프과	1	51	12
경호과	-	-	-	골프운영지도과	1	7	-
경호무도과	2	266	42	골프지도과	2	47	16
경호무도스포츠과학계열	1	6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1	286	25
경호비서과	1	92	16	관광레저스포츠과	1	159	12
경호스포츠계열	1	6	1	관광레저스포츠전공	1	12	-
경호안전전공	2	220	21	댄스스포츠과	-	-	-
레저스포츠계열	5	533	34	스포츠과학계열	4	667	78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레저스포츠과	27	2,416	463	스포츠과학과	1	20	-
레저스포츠전공	5	390	33	스포츠과학학부	1	359	49
레저스포츠학과	2	23	9	스포츠관광계열	1	173	72
레저스포츠학부	2	258	40	스포츠복지과	2	48	30
레저스포츠과	2	140	30	스포츠산업계열	2	38	6
레크레이션과	2	260	63	스포츠외교과	1	166	15
레포트지도과	1	86	6	승미조련전공	1	17	-
무도경호과	2	74	1	실용댄스과	1	146	66
무도과	2	212	46	실용무용과	1	64	45
무도·스포츠계열	1	29	4	이동놀이지도과	1	79	64
무용&레저스포츠과	2	149	149	이동무용지도자과	1	78	78
무용과	3	194	120	이동스포츠과	1	93	93
무용전공	1	3	-	이동체육과	2	146	146
사회체육계열	6	462	94	예체능공학부	2	169	102
사회체육골프과	2	175	30	요가과	1	55	48
사회체육과	32	4,061	810	운동재활전공	1	53	5
사회체육전공	6	299	22	웰빙건강관리과	4	40	4
사회체육학부	2	161	29	웰빙건강관리전공	1	26	7
생활레저스포츠과	1	31	2	웰빙테라피과	2	53	42
생활스포츠과	6	614	89	유아체육전공	1	17	1
생활체육	2	303	54	이종격투기전공	1	44	-
생활체육계열	3	472	43	자연건강관리과	1	11	7
생활체육계열(무도전공)	2	110	16	체육계열	3	390	71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2	145	17	체육계열레저스포츠전공	-	-	-
생활체육과	18	1,614	193	체육계열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	-	-	-
생활체육무용	1	1	1	체육과	2	286	70
생활체육전공	3	332	21	태권도과	10	790	82
생활체육학과	3	41	17	태권도과(야간)	-	-	-
생활체육학부	4	957	131	태권도외교과	2	268	29
스키스노보드과	1	46	3	태권도전공	2	90	11
스트리트댄스과	1	5	-	태권도체육계열	1	380	33
스포츠건강관리과	5	444	122	택견전공	1	17	6
스포츠건강복지과	2	138	58	해동검도과	1	5	-

※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DB자료

전문대학의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표 10-9)와 같다.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2008년 209명에서 393명으로 88.04%(18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 전체 교수수는 2008년 12,100명에 비해 2.9%(351명) 증가한 12,45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수수가 증가한 것은 학생1인당 교수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체육계학과의 교수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체육계의 학생1인당 교수수가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4년제 대학과의 통폐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체육계학과 교수를 대폭 충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9] 체육계학과 교수수(전문대학)

교수수 설립별	전 체			체 육 계 학 과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12,451	8,675	3,776	393	327	66
국 립	76	55	21	-	-	-
공 립	382	324	58	10	4	6
사 립	11,993	8,296	3,697	383	323	60

※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DB자료

2) 대학교

다음 (표 10-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2008년 511개 학과 66,166명에서 2009년 439개 학과 67,308명으로 1,142명(1.73%)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도의 8,248명(14.24%) 증가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증가폭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통폐합과 함께 학과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 특히 전문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교의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육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인력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수의 비율은 2008년과 비교하여 수나 비율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0-10] 체육계학과 학과수 및 학생수(대학교)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2007>	355	57,918	13,204	경호학전공	3	660	80
<2008>	511	66,166	14,725	골프산업학과	1	74	10
<2009>	439	67,308	14,822	골프시스템학과	1	74	6
건강관리전공	3	295	48	골프지도학과	1	184	18
건강관리학과	2	255	119	골프학과	2	365	52
건강생활학부	1	2	-	국선도건강과학과	1	7	1
건강스포츠전공	1	198	19	국제무도경호학부(경찰경호무도전공)	1	53	6
건강스포츠학과	1	69	9	국제무도경호학부(국제무도교육전공)	1	67	7
경기지도학과	1	227	26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	62	18
경기학과	12	2	1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	32	8
경기지도전공	2	220	44	노인체육복지전공	1	128	112
경기지도학과	1	109	14	댄스교육학과	-	-	-
경기지도학전공	2	136	20	댄스스포츠학과	2	49	32
경찰무도학과	2	486	38	동양무예학과	4	507	63
경호·무도학과	1	184	30	레저건강관리학과	2	135	22
경호경비학과	-	-	-	레저레크리에이션전공	1	1	-
경호무도전공	-	-	-	레저스포츠과	1	16	-
경호무도지도학과	1	257	22	레저스포츠산업학전공	1	90	2
경호비서학과	3	613	92	레저스포츠전공	9	976	135
경호비서학부	1	90	12	레저스포츠학과	11	1592	190
경호비서학전공	1	246	43	레저스포츠학과 국선도전공	-	-	-
경호전공	1	136	34	레저스포츠학부	1	90	25
경호정보전공	1	49	7	레저체육학부	1	2	-
경호학과	3	551	73	레포츠과학부	1	177	11
경호학부	2	568	27	무도경찰학과	1	27	6
무도경찰학전공	1	38	5	생활체육학부	3	434	28
무도경호학과	3	280	26	생활체육학전공	1	1	-
무도체육학과	1	236	38	스포츠건강과학과	1	152	23
무도학과	1	175	12	스포츠건강관리전공	1	206	26
무도학과전공	1	14	2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	-
무도학전공	2	44	2	스포츠건강관리학부	2	445	81
무용공연학과	1	3	-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	-	-
무용과	9	1,061	981	스포츠건강복지학부	1	135	35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무용과(예술대학)	-	-	-	스포츠건강학과	2	251	38
무용·공연학과	1	137	121	스포츠경호비서학전공	1	54	1
무용예술학과	1	129	109	스포츠경호학부	2	85	6
무용예술학전공	1	50	43	스포츠과학과	3	442	51
무용전공	7	479	403	스포츠과학과군	1	24	-
무용학과	21	2,488	2,102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전공	1	166	25
무용학과(예체능대학)	-	-	-	스포츠과학대학 무도학전공	1	46	1
무용학부	1	222	201	스포츠과학대학 무용학전공	1	5	4
무용학전공	4	418	348	스포츠과학대학 사회체육학전공	1	79	-
민속무용학과	1	68	54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부	-	-	-
바둑학과	1	205	30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전공	1	224	38
사회체육과	1	210	15	스포츠과학부	8	2,269	321
사회체육전공	3	575	84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211	36
사회체육학과	30	5760	720	스포츠과학부(사회체육전공)	1	111	14
사회체육학과(인문예술)	1	184	33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333	21
사회체육학부	7	2,019	313	스포츠과학부(스포츠보건전공)	1	77	16
사회체육학전공	7	852	122	스포츠과학전공	2	286	41
산업스포츠학과	1	122	1	스포츠레저복지전공	1	44	5
생활무용예술학과	1	198	173	스포츠레저복지학부	1	6	-
생활무용학과	1	165	142	스포츠레저전공	-	-	-
생활스포츠학부	2	130	21	스포츠레저학과	9	1,109	339
생활체육전공	3	239	39	스포츠레저학부	8	2,088	131
생활체육정보학과	1	255	44	스포츠미디어학과	1	175	38
생활체육지도학과	2	107	25	스포츠복지학부	1	48	9
생활체육지도학과(자연과학대학)	-	-	-	스포츠산업과학부	1	437	71
생활체육학과	14	2,103	447	스포츠의학과	2	508	118
스포츠의학전공	1	278	32	체육무용학부(무용전공)	1	5	-
스포츠지도전공	-	-	-	체육무용학부(체육전공)	1	8	8
스포츠지도학과	2	697	77	체육전공	2	353	78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170	26	체육학과	33	6,529	1,622
스포츠학과	1	24	24	체육학과(예체능대학)	-	-	-
스포츠학전공	1	151	19	체육학부	21	4,978	471
요가명상학과	1	605	514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204	21
요가치유학과	2	22	11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2	213	12

학과명	학과수	합 계		학과명	학과수	합 계	
		계	여자			계	여자
요가학과	1	36	27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276	47
운동건강학과	2	554	124	체육학부 태권도경영학전공	1	121	6
운동기능학과	1	8	1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2	268	29
운동생리정보학과	2	137	33	체육학부(사회체육학전공)	1	356	34
운동처방재활학과	1	123	25	체육학부(운동과학전공)	1	212	24
운동처방학과	3	787	208	체육학부(체육학전공)	1	244	31
운동처방학전공	2	36	8	체육학전공	9	1,426	290
웰빙복지대학 체육학전공	-	-	-	춤, 대중예술학과	-	-	-
유도경기지도학과	1	143	25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102	27
유도학과	1	745	65	태권도전공	2	96	5
유아·시니어스포츠전공	1	143	28	태권도체육학과	-	-	-
체육·레저학과군	1	19	-	태권도학과	23	4,250	577
체육·레포츠학부	1	40	4	태권도학전공	1	73	10
체육경영학과	-	-	-	특수체육학과	4	384	61
체육계열	1	76	12	한국무용전공	1	49	38
체육과학과	1	161	161	한방스포츠의학과	1	256	55
체육과학전공	2	273	42	항공해양스포츠학과	1	162	13
체육대학	1	32	-	해양스포츠학과	1	255	40
체육레포츠학부(레저전공)	1	9	-	해양체육학과	1	159	27
체육레포츠학부(체육학전공)	1	45	-	현대무용전공	1	24	19
체육무용학부(레저스포츠전공)	1	11	-				

※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DB자료

대학교 교수수의 현황은 (표 10-11)과 같다. 대학교 체육계학과 교수수는 2008년 1,094명에서 2009년 1,125명으로 31명(2.83%)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표 10-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 증가에 따라 교수 충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 통폐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학생수나 교수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표 10-11] 체육계학과 교수수(대학교)

설립별	교수수	전 체			체 육 계 학 과		
		계	남	여	계	남	여
대학교	2009	57,977	47,354	10,623	1,125	879	246
	국 립	14,756	12,974	1,782	301	236	65
	공 립	610	610	86	15	11	4
	사 립	42,611	33,957	8,654	809	632	177

※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DB자료

3) 대학원

체육계학과 석사과정(체육교육계열 미포함)은 2008년 196개 학과 3,375명에서 2009년 193개 학과 3,338명으로 학과수는 3개(1.53%) 감소하였고 학생수는 37명(1.10%) 감소하였다. 반면, 박사 과정은 2008년 86개 학과 1,545명에서 2009년 91개 학과 1,551명으로 학과수는 5개(5.81%), 학생 수는 6명(0.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2] 체육계학과 학생수(대학원)

구 분	학 과 명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대학원	건강관리과	1	-
	건강관리전공	1	-
	건강관리학과	2	-
	경찰무도학전공	1	-
	경호무도학과	1	-
	경호스포츠학과	1	-
	경호안전기획학과	-	-
	경호안전학과	1	1
	경호학과	2	1
	골프경영학과	1	-
	골프매니지먼트전공	1	-
	골프학과	2	-
	뇌교육학과	1	1
	레저·스포츠컨설팅전공	1	-
	레저스포츠전공	1	-
	레저스포츠학과	9	2
	레저·스포츠기획전공	1	-
	명상요가학과	-	-
	무도건강산업학과	1	-
	무도산업학과	1	-
	무용·공연학과	1	-
	무용과	-	1
	무용예술학과	2	-
	무용전공	1	-
	무용학과	25	9
	무용학전공	1	-
	민속무용학과	1	1
	바둑학과	1	-
	보건체육학과	-	-
	비만관리학과	14	-
	사회체육학과	18	6
	생활무용예술학과	1	1
	생활스포츠학과	1	1
	생활체육전공	1	-
생활체육학과	3	1	
스포츠레저지도학과	-	-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1) 체육지도자 종류

현행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목적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된다.

경기지도자는 해당 종목 전문체육분야의 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해당 종목 생활체육분야의 코치로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표 10-13] 경기지도자 자격 요건

자격 구분		응시 자격
1급 경기지도자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있는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 있는 자
	일반과정	①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 ③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2급 경기지도자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2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인 자

※ 경기지도관련학과 : 경기지도(학)과, 태권도(학)과, 유도(학)과

구분	학과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원	스포츠건강과학과	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	-
	스포츠건강학과	2	-
	스포츠과학과	5	3
	스포츠과학학과	1	-
	스포츠기록분석트랙	1	-
	스포츠기록분석학과	-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1
	스포츠예술산업학과	1	-
	스포츠지도전공	1	-
	스포츠학과	1	-
	심신통합치유학과	1	1
	야구지도자학과	1	-
	엘리트축구지도자학과	-	-
	요가학과	1	-
	우주기공학과	-	-
	운동건강학과	1	-
	운동과학과	1	-
	운동생리·처방학과	1	-
	운동생리정보학과	1	-
	운동처방과 비만클리닉학과	1	-
	운동치료학과	1	-
	전통무용전공	1	-
	체력관리학과	1	-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1	-
	체육과학과	2	2
	체육전공	1	-
	체육학과	61	55
	체육학부	-	-
	체육학전공	2	-
축구지도자학과	1	-	
태권도전공	1	-	
태권도학과	3	-	
특수체육학과	2	1	
표현예술학과	1	-	
피부비만체형관리학과	1	-	

※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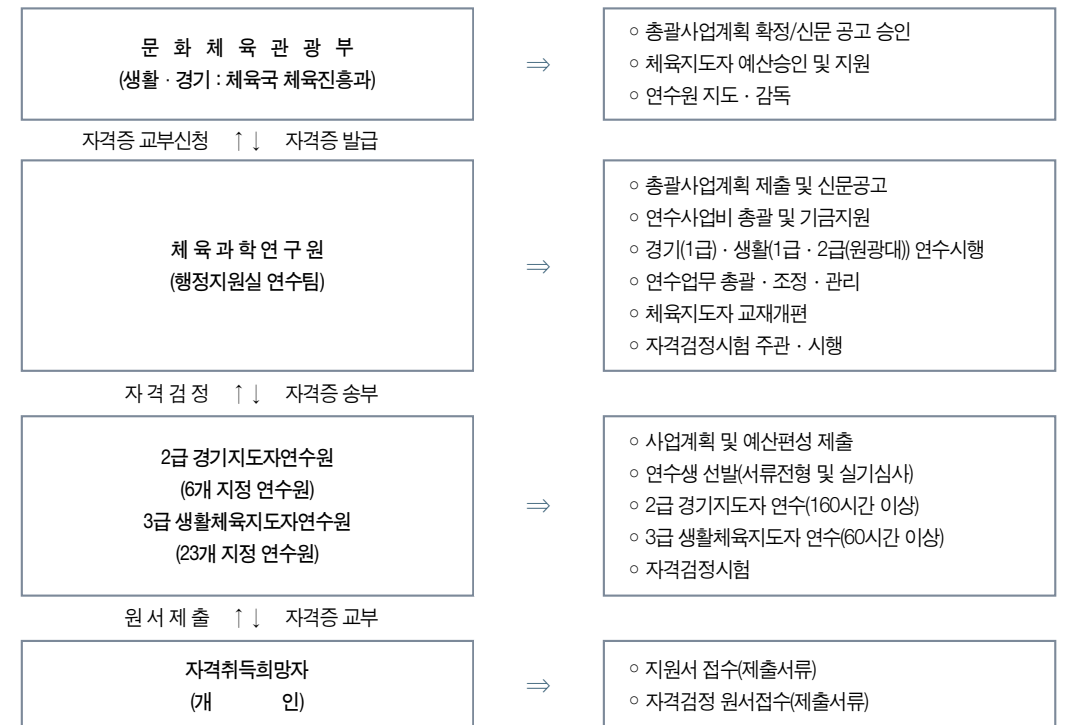
[표 10-14] 생활체육지도자자격요건

자격구분		응시자격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처방)	일반과정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③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특별과정	①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일반과정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③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특별과정	①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일반과정	① 만18세 이상인 자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특별과정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② 자원봉사지도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자원봉사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추가취득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인 자

2)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체육지도자 양성은 체육지도자연수원이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에 공고를 하게 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시험과 연수 등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1급 경기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접수·연수·검정업무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검정업무를 담당하며,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지도·감독 하에 지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자연수원, 급별 지정연수원의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는 (그림 10-1)과 같다.



[그림 10-1]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3) 체육지도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과 경기지도자 연수원으로 구분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과 2급의 연수와 자격검정, 3급의 자격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3급의 연수는 2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표 10-15)와 같다.

[표 10-15]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1 급	체육과학연구원	1995. 5. 3	체육과학연구원	1995. 5. 3
2 급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학교	1991. 10. 17	체육과학연구원	1991. 10. 17
		2008. 12. 17		
3 급 (23개)	서울대	1988. 11. 29	체육과학연구원	1991. 10. 17
	용인대	1988. 11. 29		
	충남대	1988. 11. 29		
	조선대	1988. 11. 29		
	동아대	1988. 11. 29		
	제주대	1990. 9. 24		
	국기원	1990. 2. 23		
	계명대	1992. 2. 20		
	한국프로골프협회	1992. 12. 22		
	전북대	1996. 9. 20		
	강원대	1996. 9. 20		
	충청대학	1997. 10. 23		
	인천대	1997. 10. 23		
	군산대	1998. 1. 21		
	부경대	1998. 1. 21		
	한국국제대	1998. 1. 21		
	공주대	1998. 1. 21		
신라대	2002. 5. 29			
경희대	2002. 5. 29			
건국대	2002. 5. 29			
순천대	2002. 5. 29			
안동대	2003. 7. 1			
연세대	2006. 12. 26			

※ 체육과학연구원(2009). 내부자료

경기지도자는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 경기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6개 기관이 2급 경기지도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16] 경기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구 분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경 기 지 도 자	1 급	체육과학연구원	1989. 11. 1	체육과학연구원	1990. 8. 8
			1983. 8. 31		
	2 급 (6개)	한국체대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충남대 신라대	1983. 12. 1	체육과학연구원	1994. 1. 1
			1992. 5. 22		
			1992. 5. 22		
			1996. 9. 20		
2002. 5. 29					

※ 체육과학연구원(2009). 내부자료

4) 양성 종목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은 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종목으로서 다음과 같다. 경기지도자는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1종목, 2,3급 42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종목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경기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47종목이었으나, 2005년 10월에 당구, 스쿼시, 바이애슬론 종목이 포함되어 총 54종목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2급 41종목, 3급 23종목으로 양성 종목이 각각 달랐으나, 2005년 10월에 2급과 3급을 총 42종목으로 통합하였다.

[표 10-17]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분 야	자 격 종 목	
1급-2급 경기지도자 (50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생활 체육 지도자	1급	운동처방분야
	1급·2급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74년 양성을 시작한 이래 1급은 90년부터 매년 양성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현재 1급 636명, 2급 21,587명이 양성되었다.

[표 10-18]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계	연도	1급	2급	계
1975	17	60	77	1993	38	559	597
1976	0	39	39	1994	35	293	328
1977	0	36	36	1995	18	503	521
1978	0	58	58	1996	20	440	460
1979	22	61	83	1997	10	786	796
1980	27	22	49	1998	28	1,005	1,033
1981	0	92	92	1999	45	852	897
1982	0	250	250	2000	26	767	793
1983	0	372	372	2001	36	848	884
1984	0	519	519	2002	21	736	757
1985	0	499	499	2003	30	827	857
1986	0	571	571	2004	26	1,204	1,230
1987	0	633	633	2005	34	1,084	1,118
1988	0	523	523	2006	58	1,359	1,417
1989	0	295	295	2007	70	1,451	1,521
1990	22	686	708	2008	76	1,368	1,444
1991	14	346	360	2009	56	1,654	1,710
1992	39	652	691	총계	636	21,587	22,355

※ 자료: 체육과학연구원(2009), 경기지도자연수원

2) 종목별 양성 현황

종목별 양성 현황은 1급의 경우, 사격의 58명을 비롯하여, 육상 52명, 수영 48명, 태권도, 골프 3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급의 경우, 태권도 5,523명을 비롯하여, 야구 1,698명, 육상 1,458명, 축구 822명, 수영 8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양성현황은 (표 10-19)과 같다.

[표 10-19]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명)

종목	1급	2급	계	종목	1급	2급	계
검도	2	146	148	십팔반무예	0	0	0
게이트볼	0	0	0	씨름	1	115	116
격투기	0	0	0	아이스하키	14	101	115
골프	37	495	532	야구	7	1698	1705
공권도	0	0	0	양궁	16	382	398
국선도	0	0	0	에어로빅	0	0	0
국술	0	0	0	역도	27	310	337
궁도	5	64	69	연식정구	1	9	10
궁중무술	0	0	0	오리엔티어링	0	0	0
권격도	0	0	0	왕도특수무술	0	0	0
권투	0	0	0	요가	0	0	0
근대5종	11	134	145	요트	17	215	232
농구	10	560	570	우슈	14	199	213
당구	3	92	95	운동처방	0	0	0
도봉술	0	0	0	윈드서핑	0	0	0
라켓볼	0	0	0	유도	14	463	477
럭비	2	46	48	유술	0	0	0
럭비풋볼	0	59	59	육상	52	1,458	1,510
레슬링	27	338	365	육체미	0	0	0
레크리에이션	0	0	0	인라인롤러	8	72	80
로울러스케이팅	0	47	47	정구	7	174	181
루지	1	6	7	조정	9	159	168
리듬체조	0	10	10	체조	27	429	456
바이애슬론	4	13	17	축구	19	822	841
배구	22	657	679	카누	10	168	178
배드민턴	21	382	403	컬링	8	65	73
보디빌딩	7	411	418	킥복싱	0	0	0
복싱	16	408	424	탁구	20	469	489

종목	1급	2급	계	종목	1급	2급	계
볼링	12	396	408	태권도	37	5,523	5,560
봅슬레이스켈레톤	1	1	2	태수도	0	0	0
불무도	0	0	0	테니스	13	676	689
빙상	14	301	315	통일무술	0	0	0
사격	58	594	652	트라이애슬론	7	79	86
사이클	21	280	301	특공무술	0	0	0
산악	11	284	295	펜싱	16	288	304
세팍타크로	4	52	56	하키	24	211	235
소프트볼	7	77	84	한무도	0	0	0
수박도	0	0	0	합기도	0	0	0
수상스키	3	65	68	핸드볼	14	300	314
수영	48	811	859	행글라이딩	0	0	0
수중	2	38	40	화랑도	0	0	0
스쿼시	2	58	60	활기도	0	0	0
스키	20	215	235	활법	0	0	0
승마	15	162	177	회전무술	0	0	0
십팔기	0	0	0	계	768	21,587	22,355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9), 경기지도자연수원

[표 10-20]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연도	1급	2급	3급	계
1974	0	0	0	0	1992	0	244	1,146	1,390
1975	0	0	0	0	1993	0	108	3,153	3,261
1976	0	0	0	0	1994	0	217	3,131	3,348
1977	0	0	0	0	1995	17	193	3,261	3,471
1978	0	0	0	0	1996	21	137	3,777	3,935
1979	0	0	0	0	1997	23	158	4,105	4,286
1980	0	0	0	0	1998	52	401	5,716	6,169
1981	0	0	0	0	1999	48	370	9,944	10,362
1982	0	0	0	0	2000	36	404	5,537	5,977
1983	0	0	0	0	2001	40	481	6,064	6,585
1984	0	0	0	0	2002	48	416	7,054	7,518
1985	0	0	0	0	2003	47	355	6,934	7,336
1986	0	0	0	0	2004	50	610	8,599	9,259
1987	0	783	0	783	2005	65	448	8,550	9,063
1988	0	0	0	0	2006	61	458	10,114	10,633
1989	0	435	2,629	3,064	2007	73	372	10,265	10,710
1990	0	0	2,825	2,825	2008	57	376	10,687	11,120
1991	0	0	4,480	4,480	2009	61	357	8,982	9,400
					계	699	7,323	126,953	134,975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9),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현황은 (표 10-20)과 같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987년 2급 783명이 양성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기준 1급 699명, 2급 7,323명, 3급 126,953명이 양성되었다.

2) 종목별 양성 현황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10-21)과 같다. 2009년 기준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는 89개 종목(실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실적이 없는 궁도, 근대5종,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사격, 소프트볼, 아이스하키, 역도, 켈링,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등 13종목을 제외하면 76개 종목)에서 134,975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양성되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30,458명, 22.57%), 태권도(18,660명, 13.82%), 수영(17,705명, 13.12%), 에어로빅(10,188명, 7.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21]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연도	1급	2급	3급	계
검도	0	10	1,365	1,375	십팔반무예	0	0	11	11
게이트볼	0	93	1,151	1,244	씨름	0	20	156	176
격투기	0	0	105	105	아이스하키	0	0	0	0
골프	0	361	7,934	8,295	야구	0	108	320	428
공권도	0	0	17	17	양궁	0	4	0	4
국선도	0	0	62	62	에어로빅	0	209	9,979	10,188
국술	0	0	69	69	역도	0	0	0	0
궁도	0	0	0	0	연식정구	0	5	3	8
궁중무술	0	0	33	33	오리엔티어링	0	15	47	62
권격도	0	0	49	49	왕도특수무술	0	0	10	10
권투	0	19	928	947	요가	0	0	387	387
근대5종	0	0	0	0	요트	0	3	275	278
농구	0	338	1,619	1,957	우슈	0	23	798	821
당구	0	22	521	543	운동처방	699	0	0	699
도봉술	0	0	8	8	윈드서핑	0	83	105	188
라켓볼	0	7	200	207	유도	0	56	1,927	1,983
럭비	0	1	42	43	유술	0	0	5	5
럭비풋볼	0	14	0	14	육상	0	33	0	33
레슬링	0	23	277	300	육체미	0	0	1,988	1,988
레크리에이션	0	106	288	394	인라인롤러	0	29	350	379
로울러스케이팅	0	64	0	64	정구	0	17	60	77
루지	0	0	0	0	조정	0	4	107	111
리듬체조	0	6	13	19	체조	0	206	788	994
바이애슬론	0	0	0	0	축구	0	412	2,408	2,820
배구	0	233	873	1,106	카누	0	17	157	174
배드민턴	0	396	6,117	6,513	컬링	0	0	0	0
보디빌딩	0	1,169	29,289	30,458	킥복싱	0	0	151	151
복싱	0	3	144	147	탁구	0	195	2,281	2,476
볼링	0	247	5,622	5,869	태권도	0	224	18,436	18,660
봅슬레이스켈레톤	0	0	0	0	태수도	0	0	3	3
불무도	0	0	28	28	테니스	0	534	4,071	4,605
빙상	0	44	807	851	통일무술	0	0	18	18
사격	0	0	0	0	트라이애슬론	0	0	0	0
사이클	0	23	83	106	특공무술	0	0	50	50

연도	1급	2급	3급	계	연도	1급	2급	3급	계
산악	0	26	67	93	펜싱	0	0	0	0
세팍타크로	0	9	9	18	하키	0	0	0	0
소프트볼	0	0	0	0	한무도	0	0	23	23
수박도	0	0	23	23	합기도	0	0	1,677	1,677
수상스키	0	53	82	135	핸드볼	0	11	0	11
수영	0	1,397	16,308	17,705	행글라이딩	0	3	0	3
수중	0	40	83	123	화랑도	0	0	18	18
스쿼시	0	121	2,469	2,590	활기도	0	0	1,018	1,018
스키	0	269	1,056	1,325	활법	0	0	596	596
승마	0	18	932	950	회전무술	0	0	33	33
십팔기	0	0	24	24	계	699	7,323	126,953	134,975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8).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 주 :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처방분야업무 종사자로서 자격종목은 없음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 참여자에 대한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되는데 크게 관계법령에 의거한 민간부문의 의무배치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민간부문의 배치·활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표 10-22)와 같다.

[표 10-22]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1인 이상
	○골프코스 36홀 초과	2인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1인 이상
	○슬로프 10면 초과	2인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1인 이상
	○요트 20척 초과	2인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1인 이상
	○조정 20척 초과	2인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1인 이상
	○카누 20척 초과	2인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인 이상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인 이상
승마장업	○말 20두 이하	1인 이상
	○말 20두 초과	2인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인 이상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	2인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인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인 이상
	○50타석 초과	2인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인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인 이상

※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표 10-23)과 같다.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249명, 2급 1,113명, 3급 23,410명으로 모두 24,77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전체 배치인원은 891명(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급별로는 1급의 경우 189명(315%)의 대폭 증가가 이루어졌고, 3급은 886명(3.9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급은 193명(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소수	지도자배치				
		계	1급	2급	3급	
합계	53,851	24,772	249	1,113	23,410	
등록 체육 시설	소계	361	339	3	44	292
	골프장	339	310	3	33	274
	스키장	20	29	-	-	-
	자동차경주장	2	-	-	-	-
신고 체육 시설	소계	53,490	24,433	246	1,069	23,118
	요트장	13	20	2	14	4
	조정장	-	-	-	-	-
	카누장	-	-	-	-	-
	빙상장	43	111	13	39	59
	승마장	73	88	2	18	68
	종합체육시설	201	1,121	3	86	1,032
	수영장	581	1,075	7	54	1,014
	체육도장	13,112	13,311	167	631	12,513
	볼링장	-	-	-	-	-
	테니스장	-	-	-	-	-
	골프연습장	7,446	2,190	38	126	2,026
	체력단련장	6,128	6,517	14	101	6,402
	에어로빅장	-	-	-	-	-
	당구장	24,568	-	-	-	-
썰매장	124	-	-	-	-	
무도장	64	-	-	-	-	
무도학원	1,137	-	-	-	-	

※ 비고 : 체육시설업종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종목은 기재하지 아니함
 ※ 자료 : 전국 등록 신고체육시설업 현황(2009)

세부적으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361개소에 339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평균 0.9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도 53,490개소에 24,433명을 배치하여 평균 0.46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낮고 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공공부문의 배치·활용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995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50%씩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던 사업에서 2004년부터 국고지원분을 기금이 지원하고 matching fund 방식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2009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배치인원		구분	배치인원	
	현원			현원	
계	1,482		-	-	
서울	182		강원	115	
부산	75		충북	79	
대구	57		충남	83	
인천	52		전북	96	
광주	54		전남	115	
대전	96		경북	124	
울산	50		경남	101	
경기	177		제주	26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2009), 내부자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1,482명이며 이는 전년도 1,197명보다 285명(23.8%)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77명, 경북과 전남이 각각 124명, 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시도는 제주 26명, 다음으로는 울산은 50명, 인천은 52명, 광주가 54명, 대구는 57명, 대전은 9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부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담지도자 현장배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도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방문 활동으로 호응도 및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노인지도자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은 (표 10-25)와 같다.

[표 10-25] 2009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배치인원		구분	배치인원	
	현원			현원	
계	477		-	-	
서울	67		강원	33	
부산	20		충북	31	
대구	21		충남	33	
인천	20		전북	25	
광주	14		전남	50	
대전	14		경북	40	
울산	8		경남	43	
경기	49		제주	9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477명이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132명(38.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이 50명, 경기도가 49명, 경남이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시도는 울산으로 8명, 다음으로는 제주가 9명, 대전과 광주가 14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매일 새벽(06:00~07:00)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일 1시간 이상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아침 광장 에어로빅 및 생활체조 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26] 2009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배치인원	구분	배치인원
계	520	-	-
서울	38	강원	39
부산	36	충북	33
대구	38	충남	33
인천	30	전북	38
광주	26	전남	39
대전	24	경북	38
울산	18	경남	40
경기	36	제주	14

제 4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선수 저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2009년 현재 등록선수수가 전년도에 비해 7,315명(5.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내에서 활약하는 스타선수들의 활약상이 마케팅 활동과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됨으로써 전문운동 선수에 대한 관심과 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의 체육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종목별 등록선수수는 축구(23,400명)가 가장 많고, 궁도(12,033명), 태권도(9,610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2008년과 동일한 순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 운동부 위주의 단편적 선수공급시스템에서 각종 스포츠클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가 공식 선수로 등록·활동할 수 있도록 선수공급시스템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중도포기 또는 탈락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선수의 대회 리그제 전환·시행,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판양성은 선수, 지도자와 더불어 경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심판의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연구나 현황 조사, 국제적 활동 지원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심판 비율이 종목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현저하게 낮은 종목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많은 경기에서 판정 시비나 자질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심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수심판 양성 지원, 국내심판 평가제도 도입, 우수 심판에 대한 포상제도 강화 및 전임심판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심판 육성을 위해서는 심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심판의 양적·질적 양성 노력과 함께 공정한 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체육지도자 양성측면에서는 2009년도부터 자격부여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고양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커리큘럼의 대폭적인 보완과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이루어졌다. 물론 기존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지도자의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등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체육지도자 배치의 경우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양성인원에 비하여 배치된 지도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재조정, 현재 배치기관과 실제 배치인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지도자 미배치 기관·시설에 대해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인센티브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에 배치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배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지도 가능한 보유시설 위주로 그리고 다종목 지도가 가능한 지도자 위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격증 보유종목의 수가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안과 기존 생활체육지도자가 신규 종목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11



제11장 체육정보화

제1절 개 관

제2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제3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11 장 _ 체육정보화

제 1 절 개 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을 고속·고도화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 정착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일괄된 추진전략과 체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총괄적인 정보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일관된 사업추진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정보화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1996년 ‘문화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정보화를 국가사회 정보화에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문화정보화 추진계획은 분야별 10개 세부 정보망을 구성하여 이를 종합문화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함으로써 문화정보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문화정보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청소년·예술·관광 등 각 분야의 시책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에서 정보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종합문화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문화종합정보시스템은 체육정보망을 비롯하여 행정정보망, 문화재정보망, 박물관정보망, 도서관정보망, 미술관정보망, 예술정보망, 관광정보망, 청소년정보망, 월드컵정보망의 10개 세부 정보망으로 구성되고, 총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화정보화 추진사업의 주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관련단체가 참여기관이며, 협조기관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다.

체육정보망은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종합정보시스템 중 체육분야 정보망으로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이 참여하고 있

다. 체육정보망은 기관별 전산장비를 기반으로 내부정보망(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여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 및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문화정보화 추진사업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정보화 추진현황에 따라 제 1단계(~1997년), 제 2단계(1998년~2000년), 제 3단계(2001년~2010년)로 구분하며, 2009년 현재는 제 3단계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단계이다.

제 2 절 체육정보화 추진현황

1. 체육정보화 정책

체육정보화 정책은 1993년 수립된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통해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 체육과학연구원을 주관으로 관련단체 간의 전산망 구축,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정보 자료의 공유 및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육정보전산망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체육정보화가 단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전산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정보화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실질적인 체육정보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1996년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보화를 통한 세계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다양한 문화 창출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영상·관광·문화예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광범위한 파급효과 창출 등에서 문화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정보화의 실체이며 결과물이 될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과 문화정보화 활성화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립,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체육 부문에서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문화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공공성 높은 정보를 우선 개발하며,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의 구축과 영문판 등의 세계판 보급을 통한 정보의 세계화, 참여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체계 확립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재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자원 확보, 조직의 재구성 및 인력 확보, 참여기관 간의 실무추진반 운영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 대상 업무로는 첫째는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른 체육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둘째는 전자사랑방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체육정보 뉴스 서버 운영, 체육정보표준화 및 체육정보망 통합검색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체육정보 유통 기반 조성, 셋째는 경마 실황중계, 재택발권 시스템 구축 등 경륜·경마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대상 업무별로 1단계(~1997)를 기반조성단계, 2단계(1998~2000)를 확산단계, 3단계(2001~2010)를 완성단계로 하는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2 FIFA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국민의 문화의식 확산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기 위해 FIFA 월드컵정보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홍보용 웹 서버 구축과 FIFA 월드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세 개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998년에 수립된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체육정보의 개발과 유통을 국가 체육정책의 주요정책 영역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으로 사회·경제 환경에 근원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체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체육정책 분야에서 체육정보화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업영역은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 체육정보 개발, 체육정보의 확산 등 세 가지이다. 체육정보관리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체육정보화 기반구축, 체육정보의 표준화, 체육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세 가지 사업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정보개발 부문에서는 사업 분야를 체육문화, 경기력 향상, 건강체력, 체육산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 등 8개 분야로 대별하고,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보 확산 부문에서는 사업 분야를 체육정보,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 개발된 체육 정보의 확산 및 유통경로를 다양화·고급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하였다.

2002년에 수립된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수립 당시와는 많이 변화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과 급증하고 있는 문화정보 분야의 수요 확대,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 2년간에 걸쳐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대대적인 체육정보 DB 구축사업은 1차 계획의 단계별 사업계획을 앞당기고 새로운 체육정보화 정책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 체육정보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체육종합정보망 구축, 국민체육진흥DB 구축, 생활체육 정보화, 엘리트체육 정보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된다. 2001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 업무 영역은 줄었지만, 관련기관별 체육정보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체육정보의 생산과 유통, 보급 및 확대 재생산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실질적 의미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체육정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차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체육정보화 관련 계획은 2003년에 수립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체육정보화 부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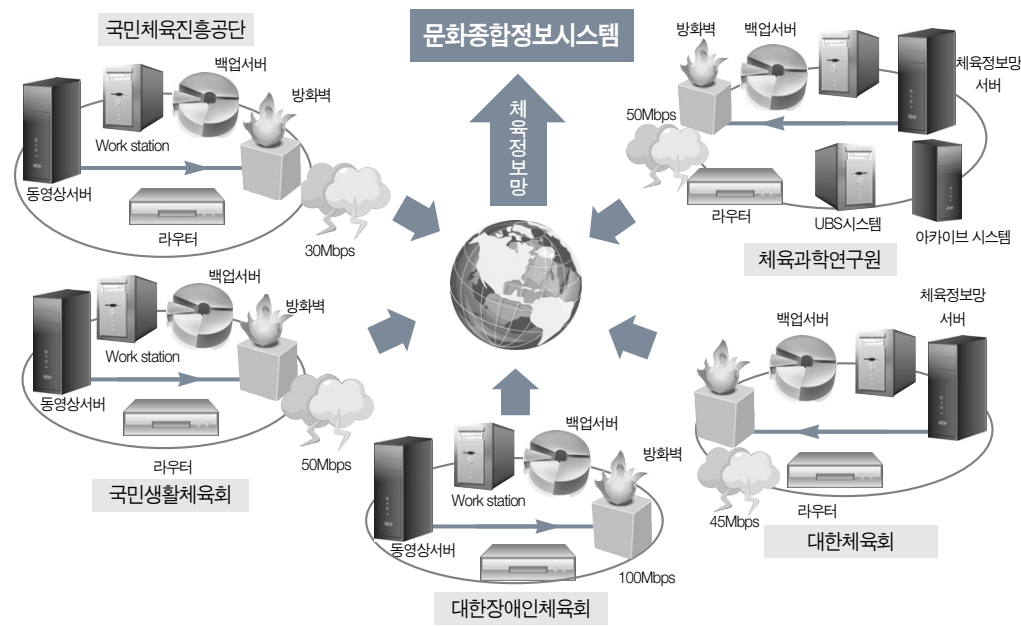
2003년에 수립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체육정보화 부문에서는 '제2차 문화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체육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사이버 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체육정보 전자도서관 구축, 국민체육진흥 관련 정보자료 DB 구축,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체육정보화시스템 및 DB 구축 등 6개 부문으로 세부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체육정보 포털사이트의 구축은 기존의 체육종합정보망을 확대 구축,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콘텐츠화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2. 체육정보화 기반 구축

1) 정보화시스템 구축

체육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연차적으로 전산장비 도입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응용시스템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자료구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정보서비스의 현실화를 위해 각 기관별 내부정보 및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관간 자료 연계시 자료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정보유통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전산장비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림11-1)은 체육기관별 연계된 정보화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11-1] 체육기관별 정보화 구성도

또한 각 기관별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표 11-1) 및 초고속통신망 가입현황(표 11-2), 전산장비 현황(표 11-3), 보안시스템 운영현황(표 11-4)은 다음과 같다.

[표 11-1] 근거리통신망 현황

기 관	구성방식	사 용 프로토콜	서 버 기 종	회 선	용 도
체 육과 학 연구 원	Ehernet	TCP/IP	UNIX Windows	150/25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Ehernet	TCP/IP	UNIX Windows	250/30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대 한 체 육 회	Ehernet	TCP/IP	UNIX Windows	300/350	인터넷정보 서비스 전국체육대회 업무지원, 체육행정업무 지원, 체육단체인트라넷지원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Ehernet	TCP/IP	UNIX Windows	140/25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전국체육대회 업무지원 체육행정업무지원 가맹단체 웹 서비스
국 민 생 활 체 육 회	Ehernet	TCP/IP	UNIX Windows	50/80	인터넷정보 서비스 파일공유, 내부지원

[표 11-2] 초고속통신망 현황

기 관	망 종 류	회 선/ 회선속도	용 도
체 육과 학 연구 원	공 중 망 사 설 망	ATM50M*1, VPN	인터넷 서비스, 기관홈페이지 서비스 및 16개 학회 홈페이지 지원, 공단본부 MIS정보 이용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공 중 망 사 설 망	ATM30M*1, 2M*1, 256k, 56k*1	인터넷서비스, 업무용 인적자원서비스, 운영본부별 MIS 정보 지원, 내부 동영상 서비스, 통합재무 연결용
대 한 체 육 회	공 중 망 사 설 망	ATM45M*1 2M*2	인터넷서비스, 기관홈페이지서비스, MIS 정보 지원, 체육단체인트라넷지원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공 중 망 사 설 망	100M*10 E1*1	인터넷 서비스, MIS정보 이용 기관홈페이지서비스, 가맹단체 웹서비스 파일 및 전산지원, 시도지부 그룹웨어 및 웹메일 지원
국 민 생 활 체 육 회	공 중 망 사 설 망	ATM50M*1	인터넷 서비스, 회원단체 홈페이지 서비스 및 인트라넷 지원, 회원전용 서비스

[표 11-3] 전산장비 현황

기 관	구분	모 델 명	OS 및 버전	사 양		
				CPU	메모리	디스크
체육과학 연구 원	Unix 서버	Sun Enterprise 3000	Solaris 8	250 _{MHz} *2	1GB	18GB
		Sun V880	Solaris 8	900 _{MHz} *4	4GB*2	73G*6
		Sun V880	Solaris 8	900 _{MHz} *4	4GB*2	73G*12
		Sun V890	Solaris 10	2.1GHz*2	16GB	146GB*7
		SE T2000(2식)	Solaris 10	1GHz*1	16GB	146GB*4
		HP rx2660(2식)	HP-UX11i	1.42GHz*2	16GB	146GB*4
		SUN T5120	Solaris 10	1.2GHz*1	8GB	146GB*4
		Linux서버	HP DL320	CentOS5.3	2.12GHz*1	2GB
	Windows 서버	Proliant 5500	Windows 2000	Xeon 500MHz*2	1GB	104GB
		Proliant 3000	Windows 2000	Xeon 500MHz*4	1GB	76GB
Proliant 5500		Windows 2000	Xeon 500MHz*4	1GB	18GB	
HP ML370		Windows 2003	Xeon 3GHz*4	3.8GB	100GB	
HP ML370		Windows 2003	Xeon 3.6GHz*2	2GB	140GB	
국민체육 진흥공단	Linux 서버	Sun V890	Solaris 10	1.8Ghz*4	16GB	580GB
		Sun V890	Solaris 10	1.8Ghz*2	8GB	580GB
		Sun V890	Solaris 10	1.5Ghz*2	8GB	580GB
		Sun V490	Solaris 10	1.5Ghz*2	8GB	290GB
		Sun Ent T5440	Solaris 10	1.2Ghz*2	32GB	290GB
		Sun fire 280R	Solaris 8	900mhz*2	1GB	72GB
		Sun fire 280R	Solaris 8	500mhz*1	5127	2GB
		Sun M5000	Solaris 10	2.1Ghz*4	16GB	580GB
	Windows 서버	HP DL 380	Windows 2003	3.2G	4GB	400GB
		HP DL 380	Windows 2003	3.2G	4GB	400GB
HP DL 370		Windows 2000	2.4G*2	2GB	108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216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72GB	
HP DL 380		Windows 2000	3G*2	2GB	72GB	
HP DL 1400		Windows 2003	2.33G	2GB	1000GB	
HP DL 380	Windows 2003	2.66G*21	2GB	292GB		
대 한 체 육 회	Unix 서버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480	Solaris 8	1.05Ghz*2	4GB	28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8GB	438GB
		SUN Fire-880	Solaris 8	1.2Ghz*2	4GB	438GB

기 관	구분	모 델 명	OS 및 버전	사 양		
				CPU	메모리	디스크
대 한 체 육 회	Unix 서버	SUN Fire-880	Solaris 8	750 _{MHz} × 2	4GB	218GB
		SUN Fire-880	Solaris 8	900 _{MHz} × 2	4GB	438GB
		SUN E-3000	Solaris 7	400 _{MHz} × 2	2GB	66GB
		SUN E-3002	Solaris 8	400 _{MHz} × 2	2GB	180GB
		SUN Ultra I-140	Solaris 2.x	143 _{MHz}	256MB	2.1GB
		SUN Ultra-60	Solaris 8	450 _{MHz}	1GB	36GB
		SUN Fire-V490	Solaris 10	1.8Ghz*2	8GB	292GB
		SUN Fire-V490	Solaris 10	2.1Ghz*2	8GB	292GB
	Windows 서버	eSlim	Windows 2003	2.0Ghz*2	4GB	146GB
		eSlim	Windows 2003	2.0Ghz*2	4GB	146GB
HP DL580G5		Windows 2008	2.4Ghz(Quad)	8GB	146GB	
HP DL580G5		Windows 2008	2.4Ghz(Quad)	8GB	146GB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Windows 서버	HP DL-380G	4Windows 2003	3.0Ghzx2	4GB	588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x2	4GB	441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x2	2GB	364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x2	1GB	146GB
		HP DL-380G4	Windows 2003	3.0Ghzx2	4GB	437GB
		HP DL-380G5	Windows 2003	3.2Ghzx2	4GB	1175GB
		HP ML-350	Windows 2003	2.5Ghzx1	2GB	743GB
		HP DL-120G5	Windows 2003	2.67Ghz	2GB	134GB
	HP DL-380G6	Windows 2003	2.0Ghzx2	4GB	292GB	
	Linux서버	HP DL-380G4	Linux red hat9	3.0Ghzx2	2GB	587GB
IBM X306M		Linux red hat9	3.0Ghz	512M	80GB	
Unix서버	IBM P520	Unix AIX 5.3	4.2Ghz	16GB	300GB	
국민생활 체 육 회	Unix서버	SUN Fire v880	Solaris 8	750 _{MHz} × 2	4GB	216GB
		SUN Enterprises 3500	Solaris 7	400 _{MHz} × 2	2GB	252GB
		SUN Enterprises 3000	Solaris 7	400 _{MHz} × 4	3GB	54GB
		SUN Enterprises 3000	Solaris 7	250 _{MHz} × 2	512MB	18GB
		Sun Ultra 450	Solaris 7	250 _{MHz} × 2	1GB	62GB
		SUN Ultra 60	Solaris 7	450 _{MHz} × 1	1GB	36GB
		IBM 9115	AIX 3	1.9Ghz × 2	8GB	146G × 2
		eSlim(2대)	Linux	2.66Ghz × 2	16GB	500GB × 4
	SUN M4000	Solaris 10	2.15Ghz × 2	16GB	146G × 2	
	Windows 서버	LG-IBM xSeries235	Windows 2003	Xeon 3GHz × 2	2GB	146GB × 3

[표 11-4] 보안시스템 운영현황

기 관	제 작 사	모 델 명	보 안 평가등급	도 입 연 도
체육과학 연 구 원	시큐아이닷컴	NXG2000	CC	2007
	나우콤	스나이퍼 IPS	-	2004
	펜타시큐리티	WAPPLE1000,100	CC	2009
국민체육 진흥공단	시큐아이닷컴	NXG2000	CC	2006
	Secure	SNIPER	-	2003
	윈스테크	websray	CC	2007
	나우콤	스나이퍼 IPS2000	CC	2008
	퓨처시스템	SecuwaySSL 150	CC	2009
대한체육회	웨어밸리	CHAKRA(DB보안)	CC	2009
	안철수연구소	Absolute 1000	CC	2007
대한장애인체육회	어울림정보	시큐어웍스K2000	EAL 3+	2007
	디지털쉽	잉카인터넷 T2010	-	2009
	지란지교소프트	스팸스나이퍼2.96	-	2007
국민생활 체 육 회	어울림정보	시큐어웍스2000	EAL 3+	2006
	지란지교소프트	스팸스나이퍼2.0	-	2006
	LG엔시스	SZ-400	EAL 3+	2004

2) 기관별 홈페이지 서비스

체육과학연구원 등 체육관련 기관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체육정보의 연계와 생산유통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생산 경로를 다양화하여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의 종합체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는 공단 본부, 경주사업본부, 스포츠산업본부, 그리고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의 각 도메인을 구축하여 기관의 소개와 민원 접수 등 주요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및 가맹경기단체의 소개와 대표선수의 정보, 체육인명사전 등 전문체육관련 자료와 동·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진흥과 국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정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종목 등을 소개하고 각종 대내·외 대회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과학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그리고 주요 사업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체육 유관기관 정보망의 포털사이트로서 스포츠코리아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 체육유관기관별 도메인은 (표 11-5)과 같다.

[표 11-5] 체육유관기관 도메인

기 관	도 메 인	비 고
국민체육 진 흥 공 단	http://www.kspo.or.kr http://www.sportsbiz.or.kr http://www.krace.or.kr http://www.ksponco.or.kr http://www.kcycle.or.kr http://www.kboat.or.kr http://www.parktel.co.kr http://www.spoex.com http://www.88olympic.or.kr http://www.somamuseum.org http://www.tourdekorea.or.kr	공 단 본 부 스 포 츠 산 업 본 부 경 주 사 업 본 부 체 육 산 업 경 련 경 정 파 크 텔 스 포 츠 산 업 박 람 회 서 울 올 림 픽 기 념 관 서 울 올 림 픽 미 술 관 뚜 르 드 코 리 아
체 육 과 학 연 구 원	http://www.sports.re.kr/ http://www.sportskorea.net/ http://www.teen-fitness.com/ http://www.insports.or.kr	연 구 원 홈 페 이 지 스 포 츠 코 리 아 청 소 년 체 력 평 가 체 육 지 도 자 연 수 원
대 한 체 육 회	http://www.sports.or.kr/ http://www.sports.or.kr/eng http://sunsuchon.sports.or.kr/ http://national.sports.or.kr/ http://junior.sports.or.kr/ http://winter.sports.or.kr/ http://www.sports.or.kr/intergames/2008_beijing http://www.sports.or.kr/intergames/2010_vancouver/ http://sports-in.sports.or.kr/ http://museum.sports.or.kr/servlets/museum/Index http://ksclib.sports.or.kr http://people.sports.or.kr http://dbsd.sports.or.kr http://run.sports.or.kr	기 관 홈 페 이 지 대한체육회선수촌 홈페이지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홈페이지 전국동계체육대회 홈페이지 베이징 올림픽 홈페이지 밴쿠버 동계 올림픽 홈페이지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한국체육박물관 홈페이지 문헌정보 체육인정보검색 스포츠외교인력DB 올림픽의날달리기대회
대 한 장애인 체육 회	http://www.kosad.or.kr http://www.kosad.or.kr/english http://www.sports.kosad.or.kr http://kpcdb.kosad.or.kr/	기 관 홈 페 이 지 K P C 홈 페 이 지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국 제 인 력 D B 구 축
국 민 생활 체 육 회	http://www.sportal.or.kr http://club.sportal.or.kr	기 관 홈 페 이 지 동호인클럽 등록관리시스템

3) 기관별 콘텐츠 구축

체육유관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후 체육정보 콘텐츠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해 체육문헌정보 및 서울 올림픽 동영상 등의 DB 구축이 이루어졌고, 이를 검색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체육정보검색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 후 제1~3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의거 각 기관별로 체육정보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11-6)과 같다.

[표 11-6] 체육정보화 콘텐츠 구축내역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체 육 과 학 연 구 원	1996	○ 홈페이지 개발
	1997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사랑방 콘텐츠 자료 구축
	1998	○ 문헌정보, 레포트, 체육사랑방 콘텐츠 보완 및 추가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자료 구축
	1999	○ 체육문헌정보 원문 DB 및 이미지 자료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자료(텍스트/이미지) 구축
	2000	○ 스포츠산업 자료(텍스트) 및 대한민국체육사 자료구축 ○ 체육문헌정보 자료(텍스트)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개발
	2001	○ 청소년체력평가시스템 개발
	2002	○ 스포츠산업정보 및 인증정보 시스템 구축 ○ 한국체육지표 검색시스템 개발 및 자료구축
	2003	○ 문헌정보 내부관리시스템 개발 및 원문 자료구축 ○ 홈페이지 재구축 ○ 체육지도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2004	○ 체육관련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16개학회) 구축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경기영상콘텐츠) 구축 ○ 스포츠산업정보 DB 구축 ○ 스포츠 전문인력양성 관리시스템 개발
	2005	○ 사이버(cyber)체력관리시스템 재구축 ○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 원문관리 및 논문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청소년체력인증 및 향상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 ○ 온라인 연구지원 및 연구과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06	○ 국민체력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 경기력진단평가 프로그램 구축
	2007	○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 ○ 연수·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시스템 연계 경기내용분석시스템 개발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체 육 과 학 연 구 원	2008	○ 체육정보망 이용자수조사 및 콘텐츠 구축전략 수립 ○ 스포츠산업/인증정보 시스템 재구축
	2009	○ 스포츠코리아 재구축(1차,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 통합) ○ 16개 체육관련 학회 홈페이지 재구축 ○ 기관홈페이지 재구축(웹접근성 개선)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1997	○ 홈페이지 개발
	1999	○ 서울 올림픽 멀티미디어 정보 자료(동영상/이미지) 구축
	2000	○ 올림픽 이미지 자료 구축
	2004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5	○ 올림픽 동영상 디지털 서비스(VOD)사이트 구축
	2006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 통합 온라인 고객응대(E-cs) 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체력 콜센터 구축
	2007	○ 고객 지향적 홈페이지 재구축
	2008	○ 체육바우처시스템 구축, 계약시스템 구축, 기금지원시스템 구축
	2009	○ CDP 시스템 구축, DW시스템, 고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한체육회
	대 한 체 육 회	1996
1997		○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보완
1998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 자료 구축
1999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0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올림픽, 문헌정보 등) ○ 경기 팀·선수 자료(텍스트) 구축 ○ 경기단체 자료(텍스트) 구축
2001		○ 홈페이지 보완 구축
2002		○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구축(문헌정보 등)
2003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관리 시스템구축 ○ 체육정보시스템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1차 DB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구축(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 경기단체 홈페이지구축 ○ 선수등록 시스템구축
2004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과거자료 구축 ○ 문헌정보자료(체육지) 1차DB 구축 ○ 전국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1차 구축 ○ 역대전국체전자료 2차 DB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하계올림픽대회:아테네)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대한체육회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등록(2004년도) DB구축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보완 구축 ○ 전국동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2차 구축 ○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시스템 WEB환경 구축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 선수등록(2005년도) DB 구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훈련기록DB구축) 보완 구축 ○ 동계중목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전국체육대회 등)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제20회 토리노 동계 올림픽 등) ○ 선수등록(2006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회 토리노 동계U대회 - 제6회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 제24회 방콕 하계U대회 ○ 선수등록(2007년도) 온라인 접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보완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 선수등록(2008년도) 온라인 접수 ○ 국가대표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 국내종합대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국제종합경기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 ○ 홈페이지 보완구축 ○ 관세감면시스템 보완구축 ○ 스포츠인권익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인권포털, 은퇴선수지원포털 ○ 체육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 선수등록신청시스템 보완 구축 ○ 선수등록(2009년도) 온라인접수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제3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재구축/보완 ○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 선수등록시스템 구축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시스템 보완(추가개발) ○ 생활체육프로그램 구축 ○ 2007 IPC정기총회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KPC 영문 홈페이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 동계체전 경기운영시스템 구축 ○ 제전대진시스템 구축 ○ 기맹단체 홈페이지 신규 및 웹기반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8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08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UCC사이버전시관 구축 ○ 생활체육정보센터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공간 구축 ○ KOSAD 홈페이지 재구축 ○ 국제인력 DB구축 ○ 서훈관리시스템 구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회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 29회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09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 생활체육정보센터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용품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구축 ○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국민생활체육회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시스템 보완 구축 ○ 사업실적관리시스템 구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 구축 200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인클럽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도입

3.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종합정보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정보시스템 구축(1996~2010)과 관련하여, 체육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육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책홍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구조는 (그림 11-2)와 같다.



[그림 11-2] 체육종합정보망 구성도

1) 체육과학정보

체육정보망의 체육종합정보서비스 관문으로서 '체육분야 전체'의 웹사이트라는 관점에서 체육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스포츠코리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정보망의 거점기관으로서 체육정보망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구축내용은 (표 11-7)와 같다.

[표 11-7] 체육정보망 주요 구축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형태	
		저장형태	구축량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체조 건강문진 및 체력평가 공공생활체육관 스포츠적성진단절차 및 안내 심폐지구력 등 건강자료실 	TEXT Mpeg Image	6,417KB 1,700초 2,401장
학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분야 문헌자료 체육학회 및 분과학회 학술자료 대한민국체육사 	TEXT	11,510건
스포츠산업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관련업체 스포츠용품몰 	TEXT	2,040건 16,926건
청소년체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용 학생 체력관리 학생용 자가 체력관리 체력증진 및 권장운동 체육교육자료 	TEXT Mpeg Image	5.5MB 1,200초 600장
스포츠적성진단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적성진단절차 개인정보보기 스포츠적성진단 안내 	TEXT	1단계 2단계
체육통계포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체육지표 국민체력 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TEXT	1,983건

체육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체육정보망 활성화 촉진 및 체육관련 포털사이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 콘텐츠 추가 구축과 시스템을 확대·보완하였다. 사업내용은 체육사랑방, 운동과 건강, 전문가상담 시스템의 홈페이지 개편 및 스포츠산업정보에 대한 DB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체육관련학회(16개 학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원문관리 및 논문자료 통합검색의 학술자료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년은 스포츠적성진단시스템, 체육통계포털시스템, 연수·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이용자 현황 분석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2009년에는 다양한 체육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포츠코리아를 재구축하였

다. 특히, 체육유관기관의 콘텐츠수집 및 링크를 통한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등 검색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체육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체육 및 전문가 상담

생활체육은 생활건강체조, 사이버체력관리측정, 스포츠적성진단, 생활체육관, 건강자료실 등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참여유도를 위한 콘텐츠이다.

생활건강체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우리 고유의 가락과 움직임을 현대인들의 생활변화에 맞추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발한 체조로 학교와 직장인 위주로 보급되고 있는 기본체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보급·확대하고 있는 쉬운체조, 앉아서하는체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발한 휠체어체조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체력관리 측정은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성인병이나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력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를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6월 정보화 사업에 의해 국민체육진흥정책 지표 활용의 목적으로 체력평가 전문가 시스템, 체육지식데이터베이스 관리, 국민체력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타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은 2004년에 시스템 재구축과 함께 건강문진 결과문 확대 개발 및 건강자료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사이버 운동처방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체력평가 기준치 보완사업을 통해 국민의 체력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수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2006년에는 일반인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운동처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스포츠적성진단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포츠 적성진단을 통하여 자신의 체력 및 체력수준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활동을 안내하고 나아가 직업적 전문 운동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 평가모형인 간이스포츠적성진단모형의 경우 학교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의 결과만으로도 손쉽게 초·중학생 자녀의 스포츠적성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육상, 수영, 체조와 같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학교체력검사 이외에 체지방률 검사 등이 추가된 2단계 기초스포츠영재발굴모형도 개발되었으며 골(骨)연령, 최대산소섭취량 등 운동생리학적 검사와 집중력 등 운동심리학적 검사가 추가된 3단계 전문 스포츠 영재 발굴 모형까지 개발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영재발굴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활체육관은 2,361개의 공공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생활체육을 손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좌 등의 정보를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자료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함에 있어 참고할 내용을 과학적 운동정보, 운동과 성인병, 유형별 스포츠과학, 체력의 자가진단법, 운동과 영양, 운동상해로 분류하여 구성된 자료실로 운동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문가상담은 체육정책, 운동기술, 스포츠심리, 생활체육, 운동상해, 비만관리, 스포츠경영, 스포츠영양, 스포츠경기, 스포츠산업, 체력운동의 11개 분야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나. 학술정보

체육학술정보는 학회간 학문·정보 교류 증대와 체육학문 발전을 위해 체육과학연구원과 한국체육학회 및 15개 분과학회가 참여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 학술정보 사이트이다. 2004년 5월에 오픈한 체육학술정보시스템은 16개의 체육관련학회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체육관련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종합 정보는 스포츠코리아의 학술정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관련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논문투고 및 논문열람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주요서비스는 16개 학회의 학회소개, 학회소식, 논문투고, 학회지와 학술대회 자료 등 학회자료 열람 등이다. 특히, 2009년에는 웹사이트 전면개편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웹접근성 및 사용편의성을 개선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을 통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 웹사이트에 더이상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체육사는 2000년 10월에 구축하였으며, 1920년~1940년간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체육·스포츠관련 기사를 기초로 한 한국근대체육자료이다.

다. 스포츠산업 정보

스포츠산업 정보망은 1997년에 개설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확대 구축하였다. 또한 2003년도와 2004년에 걸쳐서 홈페이지 리뉴얼과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해 전수 자료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개편내용은 검색기능 확대 및 보완, 응용개발언어 변경, 메일링리스트 발송, 메인 디자인 변경 등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고객센터와 연관된 항목을 강화해 개편하였다. 스포츠산업 정보망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정보, 업체 정보, 스포츠용품 및 시설 정보 등이다. 스포츠산업 정보는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최근 뉴스와 스포츠 산업 자료, 산업체 정보, 스포츠용품 정보, 스포츠시설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정보의 주요내용은 (표 11-8)와 같다.

[표 11-8] 스포츠산업 정보 주요내용 및 DB구축

구분	주요 내용	저장형태	구축건수
스포츠산업 정보	○ 특허, 기술정보	Text, Image	2,714 건
	○ 업체정보		1,518 건
	○ 종목별 운동용품정보		16,926 건
	○ 종목별 운동강좌정보		5,961 건
	○ 종목별 민간 체육 시설정보		2,040 건
	○ 종목별 전문 운동강사정보		400 건
계			29,559 건

라. 스포츠용품 인증사업 정보

인증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업무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및 시험·검사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용품시험검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시험장비 현황을 제공하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이 가능한 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용품 및 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규격을 개발하고 수탁 또는 업체 및 학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과 과정을 알림으로써 스포츠용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은 (표 11-9)과 같다.

[표 11-9]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인증사업 관리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 품질인증 소개 ○ 품질인증 절차 ○ 품질인증 업체 및 품목 현황
	스포츠용품 시험·검사	○ 시험·검사 안내 ○ 시험·검사 절차 ○ 시험·검사 온라인 신청 ○ KOLAS 시험 품목 ○ KOLAS 시험 절차 ○ KOLAS 시험 온라인 신청 ○ 주요 시험장비 현황

구분	분 류	주요 내용
인증사업 관리	스포츠용품 연구개발	○ 규격개발연구 안내 ○ 규격개발연구 실적 ○ 수탁연구개발 안내 ○ 수탁연구개발 실적 ○ 공동연구개발 안내 ○ 공동연구개발 실적
인증지원	고객지원	○ 공지사항, FAQ, Q&A
	회원서비스	○ 회원가입 및 관리

마. 기타 체육과학정보

체육 분야의 학문적인 깊이가 심화되면서 체육통계자료에 대한 사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통계는 단순 체육활동 통계 수준을 넘어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체육과학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민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육 분야 3대 통계로는 한국의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가 있다.

체육통계포털시스템(<http://ssps.sportskorea.net>)은 국민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체육통계자료의 DB화 사업을 통해 체육통계정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통합검색을 통해 체육지표,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의 통계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별·연령별·종목별·국가별 등 생활 속 체육통계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체육통계별 원문서비스, 국민체력기준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통계포털시스템은 현재 스포츠코리아 내 체육통계정보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향후 체육통계의 원시데이터까지 확대 구축되어 파워풀한 국내 유일의 체육관련 전문통계시스템으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또한 타 통계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DB 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11-10] 체육통계포털시스템 구축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통계자료검색	○ 통합검색 제공
생활속 체육통계	○ 지역별, 연령별, 종목별, 국가별 체육통계 제공
체육지표	○ 8개 부문에 총 159개의 국내외 체육지표 제공 - 체육의식, 건강 및 체력,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체육교류, 체육인력, 체육시설, 스포츠 산업, 체육 재정 및 복지 ○ 1995년~2007년 자료 DB 구축
국민체력실태조사	○ 체격, 체력 측정결과 제공 -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수, 피하지방, 체지방율, 50M달리기, 12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윗몸앞으로굽히기 등 ○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년 자료 DB 구축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 4개영역 8개 부문 실태결과 제공 -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체육활동 참여태도, 체육활동 여건의 수준, 체육시설 및 용품의 수준, 직접 참여실태, 간접참여실태, 체육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체육 정책의 대한 인식 ○ 1989, 1994, 1998, 2000, 2003, 2006년 자료 DB 구축

청소년 체력평가 시스템은 그룹별 체력증진 원격지원 시스템으로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력 통계 연구 분석을 통한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체력평가 시스템은 2001년 6월에 회원 기초정보 관리시스템, 청소년체력 평가시스템, 청소년체력 관리 지원시스템, 통계정보 시스템, 기준정보 관리 시스템, 부가서비스 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2002년 1월부터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되었고, 2007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체육비전 1080」계획에 청소년체력증진시스템 이용을 권장하였고, 그 계기로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참여율을 증대시켰다. 본 시스템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격과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교사용 체력관리지도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체력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 요인별로 체력증진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체격·체력 등 통계자료 그리고 교사들이 체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육자료실을 제공하고 있다.

2) 국민체육진흥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기념 사업, 기금지원 사업, 기금조성, 운영 및 용자 사업,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외에 올림픽 관련 기념물품 및 사료정보, 올림픽 시설정보 등 올림픽 소장자료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정보는 1997년에 개설하였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화사업을 통해 올림픽 동영상정보(320분)를 추가 구축하였다. 2001년에는 올림픽 기념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념관 소개, 스포츠 체험관, 서울 올림픽의 경기기록 및 각종 문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 등과 기존 홈페이지에서 지원되었던 한국어·영어 서비스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 기능을 추가 확장하였다. 경륜의 홈페이지는 1999년에 개설한 후 3차에 걸쳐 재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경주, 선수 정보 및 경기 동영상 자료를 2003년부터 구축하였다. 경정 홈페이지는 경정을 소개하는 정보와 선수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서울 올림픽미술관 및 올림픽공원 생태공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올림픽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 정보 및 내용은 (표 11-11)와 같다.

[표 11-11] 국민체육진흥 정보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장형태	구축량
국민체육진흥사업	○ 서울 올림픽 기념 사업 ○ 기금지원 사업 ○ 기금조성 및 운영 사업 ○ 기금 용자 사업 ○ 올림픽 시설 운영사업	html	40건
서울 올림픽 동영상 DB 구축	○ 서울 올림픽 유치 및 대회운영 ○ 서울 올림픽 경기운영 ○ 개·폐회식, 성화봉송 ○ 국가별, 날짜별, 경기장별 주요장면	Mpeg	2,196건
서울 올림픽 문헌 및 사진 DB 구축	○ 올림픽 및 관련자료 서지, 목차 ○ 서울 올림픽 및 서울 아시안게임 사진	JPEG, PDF	46,650건
경륜정보 시스템	○ 경주 및 선수정보 ○ 한국경륜 및 세계 경륜 역사 ○ 경륜 클리닉 등	Mpeg, Text	1,040,000건
경정정보 시스템	○ 경정의 역사 ○ 경정 및 선수정보 등	Mpeg	50건

3) 생활체육 정보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과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1996년에 개설하였고, 2002년 우리나라 고유 정통무예인 택견 동작의 3차원 입체영상(3D)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2003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구기 종목인 족구의 동작을 3차원 입체영상(3D)시뮬레이션을 추가 개발하였다. 아울러 생활체육 관련 각종 영상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 구축하여 서비스하였다. 2004년에는 생활체육 선호 종목인 농구, 배구,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생활체조, 요가, 헬스, 줄넘기 등 8종목을 이용자의 운동수행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 배워보세요'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는 스포츠교육콘텐츠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005년에는 회원단체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45개 회원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2006년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자전거, 배드민턴, 스쿼시,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인라인스케이팅, 국민체조, 워킹/조깅, 요가, 레크댄스, 새천년건강체조 동영상 추가 서비스하였다. 2007년에는 탁구, 테니스, 볼링, 당구, 아쿠아로빅, 스케이팅, 다이어트댄스, 덩더꿍체조 동영상을 개발하여 서비스하였으며, 생활체육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08년에는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포츠클라이밍, 야구, 밸리댄스, 그라운드골프, 스키, 스노보드 동영상을 추가 서비스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하였다. 2009년도에는 궁도, 국학기공, 파크골프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생활체육정보 지원내용은 (표 11-12)와 같다.

[표 11-12] 생활체육 정보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장형태	구축량
생활체육 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직장인 선호종목, 건강하게 사는 길, 프로그램 백과사전, 변형축구프로그램, 레비, 지도서, 가족형 뉴스포츠, 전통민속 뉴스포츠, 볼컬링, 생활체육현장지도자지침서	이미지, 동영상, Text	14종
체육시설물	등록 신고체육 시설, 16개 시·도 체육시설, 체육관련 법령	PDF	22건
생활체육지도자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 정보	이미지, Text	2,943건
생활체육동호회	시·도(시·군·구)에서 활동중인 동호회 정보	Text	47,715건
생활체육디지털 콘텐츠구축	국민체조, 택견, 족구	이미지, 동영상, Text	185건
동영상서비스	생활체육 동영상 교실 및 기타 생활체육관련 동영상	이미지, 동영상, Text	1,408건

4) 전문체육 정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 등 우수선수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문체육정보는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종합체육대회, 학교체육, 선수훈련 및 시설,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지부, 국제체육교류, 국제종합경기대회 등의 정보들이다.

홈페이지는 1996년에 개설되었고, 1997년에 정보화사업을 통해 1,000페이지 분량의 경기단체정보와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영문 홈페이지에 이어 대한체육회선수촌 홈페이지를 추가하였다. 1998년에는 가맹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지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개인 신상관리, 개인별 체육관련 단체 관리, 주소록, 체육인 통계자료, 체육 인명사전 등 데이터베이스 2,500건과 국가대표선수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550건을 추가 구축하였다.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때에는 대회정보, 선수단정보, 경기일정 및 결과, 선수단소식, 응원메시지 등의 메뉴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체육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자료실 소장자료(문헌정보) 1,860권의 서지사항을 DB 구축하였고, 국가대표 선수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추가 구축과 역대 국제종합대회 경기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722,278건, 53개 단체 경기단체별 홈페이지 구축사업, 시도체육회별 홈페이지 구축사업, 경기단체 팀·선수에 대한 130,000건의 자료를 구축 확장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종합경기대회(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운영 시스템을 WEB환경 구축으로 대회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하고, 2005년부터 58개 종목을 단계별로 종목별 대회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국내종합경기대회운영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동계종목 대회운영시스템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7년에도 종목별 대회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중이다. 전문체육정보 지원내용은 (표 11-14)과 같다

[표 11-13] 전문체육 정보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장형태	구축량
국제 종합 경기대회	개최현황,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경기종목 현황, 한국선수 메달획득 현황	이미지, 동영상, Text	291,592건
국내 종합 경기대회	개최현황, 시도별 메달 및 득점현황, 대진현황, 경기종목별 경기결과, 신기록, 다관왕 현황 등	이미지, 동영상, Text	3,085,168건
체육인명사전	신상관리, 개인 및 임원 기본 사항 등	이미지, Text	12,800건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 꿈나무, 지도자 등의 대표 훈련 정보, 각종 대표 확인서 발급 현황, 선수식당 급식자료 등	이미지, Text	348,730건
선수등록	선수정보, 소속이력, 경기실적, 학력, 지도자정보, 각종 통계현황 등	이미지, Text	1,063,383건
문헌정보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입력일	이미지, Text	11,360건

5) 장애인체육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정보와 가맹 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장애인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내대회를 운영·지원하고 국제대회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2007년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 16개의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선수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4회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27회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정보, 경기일정, 경기결과, 선수단 소개 등과 관련한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보완 하였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E-Book, 장애인 생활체육 따라하기 동영상, 생활체육지도자 안내, 생활체육정보센터, 운동처방, 생활체육종목 안내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26종을 구축하였고, 전문체육의 경기종목으로 보치아, 양궁, 시각장애인 게이트볼, 혼성 수족구 경기 등 75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제대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PC 정기총회 총회소개, 회의안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KPC 영문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17개 가맹단체 홈페이지 신규 및 웹기반을 구축하였다.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회소식, 대회동영상 등을 서비스하였고 전국체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전서버를 도입하였다. UCC사이버 전시관, 생활체육정보센터의 커뮤니티 공간등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였다. 전국의 장애인체육관련 국제인력을 위한 DB를 구축하였다.

[표 11-14]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장형태	구축량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조, 야외형 생활체육, E-Book, 장애인생활체육 따라하기 동영상 생활체육지도자 안내, 생활체육정보센터 운동처방, 생활체육종목안내	이미지, 동영상, Text, PDF e-book	23종
생활체육동호회	시·도(시·군·구)에서 활동중인 동호회 정보	이미지, Text	1,052건
전문체육디지털 콘텐츠구축	보치아, 휠체어테니스, 론볼, 수상스키, 스키 좌식배구, 스킨스쿠바, 배드민턴,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댄스스포츠, 휠체어농구, 골볼, 럭비, 사격, 양궁, 탁구, 휠체어펜싱, 호핑축구, 시각장애인 게이트볼, 혼성 수족구 경기, 요가, 웨이트트레이닝, 생활체조	이미지, 동영상, Text, e-book	75건
국내·외 종합 경기대회	국내·외 경기 설명, 일정, 결과정보	이미지, Text	29건
웹진 서비스	장애인체육, 선수 정보 장애인체육소식	이미지, Text	32건
체육단체 정보	시도지부, 가맹단체, 국제기구 정보	이미지, Text	71건
동영상서비스	생활체육 동영상 교실 및 기타 생활체육관련 동영상	이미지, 동영상, Text	75건

제 3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현재 체육 분야의 정보화는 분야별 각 전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DB 구축하고 구축된 DB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구조에서 상호 연계와 공유를 통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정보화 기반구축과 체육정보망의 포털 사이트 확장을 통한 체육관련기관의 정보체계 유통과 대국민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가 수요자를 만나 실용적인 콘텐츠로 창출되어 보다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정보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포털사이트 재구축 및 실용적 콘텐츠 구축

1999년 체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개별 사이트 보완을 통해 체육정보의 확대·보급을 시도하였으나, 체육정보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미비와 체육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부족으로 체육정보망 콘텐츠 일반화 및 체육정보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반면 체육정보 수요는 확대되어 가고 있어 체육정보망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체육정보망에서 서비스될 실용적 콘텐츠 구축이 시급하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많은 체육문헌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였으나, 체계적인 체육전문 학술자료나 유관기관 및 체육학회 저작권 정보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산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전문 전자 도서관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정보사회를 위한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성 있는 체육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체육관련기관의 학술 정보 공유 및 확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콘텐츠 확대·개발이 필요하며, 체육학회, 각 대학 및 대학 학술종합정보망 등의 시스템 공유 및 자료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생활 도처에는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등 수 많은 체육자원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자원의 종류별, 주체별, 지역 수준별 조사 및 전산화를 통해 체육활동 수요자의 참여를 고조시켜야 한다.

끝으로, 사용자의 이용도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체육정보 DB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체육정보 콘텐츠의 재가공 및 유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체육정보화 기반 확대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고속·고품질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화 기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체육정보망의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별 보안체계 및 정보망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개발 및 공유를 통한 연계·연동시스템의 확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체육산업체 및 체육단체, 체육학회, 분과학회간의 연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전문체육정보망은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생활체육정보망 역시 전국 시·도 생활체육회의 전산망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과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정보화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는 체육 관련 기관의 전산기반 확충과 기관별 전문성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다. 또한, 체육단체 및 스포츠산업체 관계자에게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화기기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스포츠지식과 전산지식을 보유하면서 해외정보 수집분석 능력이 뛰어난 스포츠정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

3. 체육정보의 표준화

우리나라 정보화 분야의 표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체육정보관련 표준은 1997년 1차 기초연구 자료의 정규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체육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표준 연구단을 구성하여 규정화된 정보표현 방법과 체육용어의 개념 등에 대해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정보관련 표준화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문사회과학 6개 분야(약 8,000 단어)의 체육용어사전을 개발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전산시스템 구성 및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지침서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체육정보의 표준안 제정과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스포츠산업 정보 확장 및 개발

국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국제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쟁여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경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장·단기의 체계적인 스포츠산업정보망의 포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12월부터 체육정보망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 인증 정보망의 확장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정보망 확장과 개발은 스포츠용품 관련 정보, 인증에 대한 정보, 주요 인증제도 등 인증 사업과 관련된 지식정보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스포츠용품 전문 인증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산업 시스템의 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해 자료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기하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산업정보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정보망은 국제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산업 및 인증 정보의 주요 콘텐츠는 체육용기구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 스포츠산업의 금융지원 및 구매, 광고 등에 관한 정보, 스포츠산업체간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종목별 국내·외 경기연맹과의 제휴에 관한 정보, 체육용기구 인증에 따른 제품의 시험·검사 및 규정에 관한 정보, 체육용기구 인증규격 개발에 관한 정보, 국내외 표준 정보 및 스포츠용품 R&D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의 지식정보도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12

제12장 국제체육

제1 절 국제체육계 동향

제2 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제3 절 국제교류 현황



제 12 장 _ 국 제 체 육

제 1 절 국제체육계 동향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국제체육 활동은 문화·정치·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다방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체육계는 세계 여러 문화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물결 하에 도핑방지과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체육외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으로 국가간·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원으로의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도 국제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제경기 대회 파견과 국내유치개최, 국제회의의 참석 등 많은 국제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1. 국제체육기구 현황

국제체육기구는 전 세계국가가 참가하는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와 대륙별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 그리고 종목별 세계대회 및 대륙별 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구분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동아시아대회협의회(EAGA) 등은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국제적·대륙별·지역별 기구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SF)과 아시아경기연맹(ASF)은 해당 종목에 대한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이다.

국제체육기구 가운데 대표적 기관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회원으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주관하고 조정·감독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체육단체(표 12-1, 표 12-2)이다. 현재 가맹국 205개 국가 중 IOC 위원은 114명이며 이외에 28명의 명예위원과 1명의 영예위원이 있다. 현재 한국은 이견희, 문대성 2명의 IOC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12-1]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인원수(국가수)	국 가	주요 대륙
5명(1개국)	스위스	유럽 1
4명(2개국)	이탈리아, 영국	유럽 2
3명(4개국)	호주, 스웨덴, 러시아, 미국	유럽 2, 북미 1, 오세아니아 1
2명(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쿠바, 모로코, 이집트	유럽 7, 아시아 3, 미주 4, 아프리카 2
1명(57개국) 0명(125개국)	뉴질랜드, 벨기에, 대만, 덴마크, 북한, 인도 외 불리비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외	제 3세계 국가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표 12-2]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대 륙	인 원	구성 비율 (%)	
아 시 아	24	21.0	21.0
오세아니아	5	4.4	
유 럽	47	41.2	
미 주	20	16.7	
아 프 리 카	18	16.7	16.7
합 계	114		100.0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구성하고, 종목별 권위 있는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가를 살펴보면 (표 12-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스가 6개 종목, 캐나다와 스위스가 각각 4개 종목, 이탈리아가 3개 종목, 대한민국, 미국, 스페인, 독일이 각각 2개 종목을 회장국을 맡고 있으며(표 12-3), (표 12-4), 특히 전체 국제 35개 종목별 연맹(협회)중 유럽국가가 18개로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5개로 14.3%를 점유하고 있다.

[표 12-3]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국적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6종목)	육상	Lamine Diack	세네갈 (S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www.iaaf.org
	조정	Denis Oswald	스위스 (SUI)	International Rowing Federation www.worldrowing.com
	배드민턴	Young Joong Kang	대한민국 (KOR)	Badminton World Federation www.internationalbadminton.org
	농구	Bob Elphinston	호주 (AUS)	International Basketball Federation www.fiba.com
	복싱	Ching Kuo Wu	대만 (TPE)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www.aiba.net
	카누	Jose Perunera	스페인 (ESP)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www.canoeicf.com
	사이클	Patrick McQuaid	아일랜드 (IRL)	International Cycling Union www.uci.ch
	펜싱	Alisher Usmanov	러시아 (RUS)	Federation Internationale d' Escrime www.fie.ch
	승마	HRH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요르단 (JOR)	Fede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www.horsesport.org
	축구	Joseph S. Blatter	스위스 (SUI)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ww.fifa.com
	체조	Bruno Grandi	이탈리 (ITA)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 www.fig-gymnastics.com
	역도	Tamas Ajan	헝가리 (HUN)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www.iwf.net
	핸드볼	Hassan Moustafa	이집트 (EGY)	International Handball Federation www.ihf.info
	하키	Leandro Negre	스페인 (ESP)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www.fihockey.org
	유도	Marius VIZER	오스트리아 (AUT)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www.jf.org
	근대5종	Klaus Schormann	독일Union (GER)	Internationale de Pentathlon Moderne www.pentathlon.org
	레슬링	Rapha I Martinetti	스위스 (SU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ed Wrestling Styles www.fila-wrestling.org
	수영	Julio C. Maglione	우루과이 (ULU)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www.fina.org
	태권도	Chung WonChoue	대한민국 (KOR)	World Taekwondo Federation www.wtf.org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6종목)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	이탈리 (ITA)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www.itftennis.com	
	탁구	Adham Sharara	캐나다 (CAN)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www.ittf.com	
	사격	Olegario Vazquez Rana	멕시코 (MEX)	International Shooting Sport Federation www.issf-shooting.org	
	양궁	Ugur Erden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Archery Federation www.archery.org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	스웨덴 (SWE)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www.triathlon.org	
	요트	GoranPettersson	스웨덴 (SWE)	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www.sailing.org	
	배구	Jizhong Wei	중국 (CHN)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www.fivb.ch	
	동계 (7종목)	바이애슬론	Anders Besseberg	노르웨이 (NOR)	International Biathlon Union www.biathlonworld.com
		봅슬레이	Robert H. Storey	캐나다 (CAN)	International Bobsleigh and Tobogganing Federation www.bobsleigh.com
컬링		Lester M. Harrison	캐나다 (CAN)	World Curling Federation www.worldcurling.org	
아이스하키		Rene Fasel	스위스 (SUI)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www.iihf.com	
루지		Josef Fendt	독일 (GER)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 www.fil-luge.org	
빙상		Ottavio Cinqunta	이탈리 (ITA)	International Skating Union www.isu.org	
스키		Gian Franco Kasp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Ski Federation www.fis-ski.com	

※ 2009년 12월말 기준

[표 12-4]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대륙	국가	국가별 회장 수	대륙별 회장 수	대륙별 구성비율(%)
아시아	대한민국	2	5	15.2
	대만	1		
	요르단	1		
	중국	1		
아프리카	세네갈	1	2	6.0
	이집트	1		
유럽	스위스	6	20	60.6
	이탈리아	3		
	독일	2		
	스웨덴	2		
	스페인	2		
	아일랜드	1		
	헝가리	1		
	노르웨이	1		
	러시아	1		
	오스트리아	1		
북미	캐나다	3	3	9.2
중남미	멕시코	1	2	6.0
	우루과이	1		
오세아니아	호주	1	1	3.0
합계		33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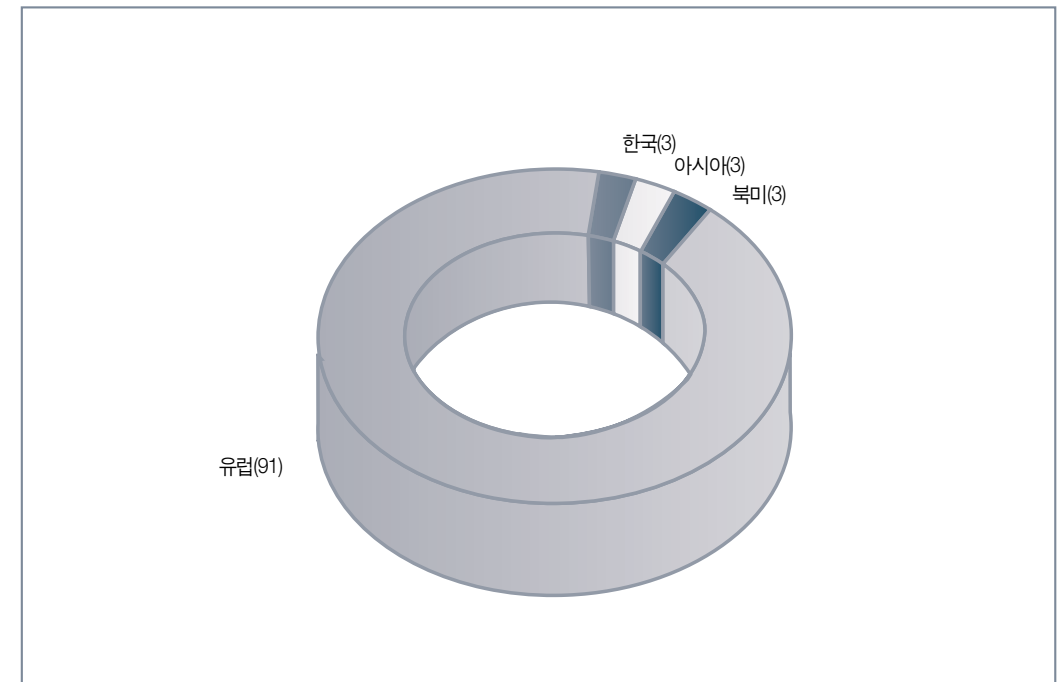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이들 국제경기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태권도(한국 소재), 트라이애슬론, 컬링(캐나다 소재), 배드민턴(말레이시아)를 제외한 29개의 올림픽 정식 종목의 본부가 유럽에 있다(표 12-5). 한국이 회장국으로 있는 태권도는 본부가 서울에 있으며 회장국이지만 배드민턴은 말레이시아에 있으며 캐나다(트라이애슬론)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9개 종목의 본부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스포츠계의 중심은 근대 스포츠의 근원지인 유럽에 있으며, 특히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는 회장국가에 본부를 두는 일부 종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부 소재지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중심의 국제스포츠 역학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표 12-5]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국가	본부 수	종목
스위스	19	조정,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승마, 축구, 체조, 배구, 핸드볼, 하키, 레슬링, 수영, 탁구, 양궁,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영국	3	테니스, 요트, 컬링
대한민국	1	태권도
헝가리	2	역도, 유도
모나코	2	육상, 근대5종
독일	2	루지, 사격
오스트리아	1	바이애슬론
캐나다	1	트라이애슬론
말레이시아	1	배드민턴
이탈리아	1	봅슬레이
합계 (11개국)	33	33종목

※ 출처 :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홈페이지(2009).



[그림 12-1]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또한,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공에 크게 작용하는 국제체육기구 및 국제경기연맹기구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위원수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6]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 활동의 연도별 인원수

국제기구명	연도별 위원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OC(국제올림픽위원회)	11	10	10	9	6	6	4	7	5	
ANOC(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	-	-	-	1	1	1	1	1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1	1	1	1	1	1	1	1	1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4	5	5	5	6	7	6	6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6	6	6	7	6	6	4	6	6	
EAGA(동아시아대회협의)	6	2	2	3	4	3	3	4	4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	-	
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1	1	1	1	3	3	3	3	3	
IANOS(국제체육단체총연합회)	1	1	1	1	1	1	1	1	1	
APOSA(아시아-오세아니아연합회)	-	-	-	-	1	1	1	1	1	
TAFISA(세계사회체육연맹)	-	-	-	-	1	1	4	4	4	
ASFAA(아시아-오세아니아체육연맹)	2	2	2	2	2	2	2	2	2	
소 계	34	29	30	29	31	31	31	38	36	
경기연맹	국제(IF)	65	63	68	79	79	86	90	69	97
	아시아(ASF)	127	122	119	140	142	146	151	189	170
	소 계	192	185	187	219	221	232	241	258	267
계	227	214	218	249	253	263	272	296	303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은 선수의 건강 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고, 약물의 습관성 및 마약 사용으로의 진전,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도핑방지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금지약물 사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혜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도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럽은 1990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도핑방지협정(Anti-Doping Convention: ADC)을 가동시켜왔으며, 국제도핑방지협정(International Anti-Doping Arrangement : IADA) 등 반도핑 관련 여러 기구들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럽 지역의 이런 활동들에 기초하여,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서처럼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국제적 도핑방지 활동의 필요성에서, 경기 외 검사(Out Of Competition Test: OOC)나 적혈구생성촉진인자(erythropoietin : EPO)검사,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반도핑 활동에 세계 각국 정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함으로써, 1999년 IOC와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주도하여 결성하게 되었다. WADA는 국제스포츠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대부분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서명을 받았고 이행 의무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UNESCO에서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41개국이 비준하여 2007년 2월 1일 공식발효하게 되었으며 2008년 5월 11일 이를 재확인하였다.

1) 세계반도핑기구(WADA)

WADA는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WADA는 스포츠 관련 기구와 각국 정부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선수들에게 도핑의 해악을 교육하고, 자기 자신과 스포츠를 속인 선수들을 제재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WADA는 로잔 선언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며 비정부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었다. WADA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엘리트 선수에 대한 경기기한 도핑 검사 실시
- 세계 반도핑 규약 개발 및 이행
- 새로운 적발 방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 지원
- 주요 대회 도핑 통제와 결과 관리 프로그램 감시
- 선수와 코치 그리고 관련 관리자들에 도핑방지 교육 제공
-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설립 촉진

WADA는 이사회(Foundation Board)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그리고 몇 개의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7]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구 분	인 원	합 계	비 고
회장단	의장	1	2 Hon, John FAHEY (2000년 시드니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호주)
	부의장	1	
올림픽운동대표 Olympic Movement Representation	OC 대표	4	18 15명이 IOC 위원
	ANOC 대표	4	
	ASOIF 대표	3	
	SPORTAACCORD 대표	1	
	AIOWF 대표	1	
	IOC 선수분과위 대표	4	
국제장애자올림픽위원회 (IPC) 대표	1		
정부대표 Government Representation	유럽연합	3	18 -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요르단 - -
	유럽회의	2	
	아프리카	3	
	미주	4	
	아시아	4	
	오세아니아	2	
	38		

※ WADA(2008), www.wada-ama.org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WADA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며, 12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WADA의 각국 정부 측을 대표하는 17개 이사국 중 하나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WADA는 17개 이사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WADA의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WADA의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009년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 재정 및 행정위원회(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건강, 의료 및 연구위원회(Health, Medical & Research Committee)
- 선수위원회(Athlete Committee)

WADA는 IOC로부터 처음 2년간의 운영 자금(US\$ 18,300,000)을 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WADA의 운영 자금은 IOC가 중심이 된 올림픽운동 관련기관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으로부터 각각 동일 액수만큼 지원받고 있다. WADA의 2009년 예산은 US\$ 24,905,824이었으며, 이를 Olympic Movement측과 각국 정부 측이 각각 50%씩 부담했다. 세계 각국 정부 측에 청구된 액수는 US\$ 12,452,912이고, 우리나라는 2009년 WADA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US\$ 115,150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US\$ 115,150를 분담하였다.

2) 세계반도핑규약(WADC)

WADA는 도핑에 관련하여 모든 스포츠기구를 동일한 질서 아래 규율하기 위해 세계반도핑 규약을 제정하였다.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반도핑 세계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WADA 이사회가 WADC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승인 및 서명이 추진되어 2009년 기준 205개 NOC와 FIFA를 포함한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표 12-8] WADA 금지약물 목록

분 류	성 분 · 물 질
S1. 동화작용제	1-androstendiol, 1-androstendione, bolandiol, bolasterone, boldenone, calusterone 등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적혈구생성 자극제, 용모성 고나도트로핀 및 황체 형성 호르몬, 인슐린,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
S3. 베타-2 작용제	사용신고를 필요로 하는 흡입 salbutamol 및 salmeterol을 제외한 모든 베타-2 촉진제류
S4.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raloxifene, tamoxifen, clomiphene, cyclofenil 등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이뇨제류, 프로베네시드, 혈장확장제,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S6.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iphenazole, amphetamine, amphetaminil, benfluorex, benzphetamine 등
S7. 마약류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등

분 류	성 분 · 물 질
S8, 카나비노이드	천연 또는 합성 Δ^9 -tetrahydrocannabinol(THC) 및 THC와 유사한 카나비노이드류
S9, 부실피질호르몬	경구 복용, 정맥주사 등 투여하는 모든 부실피질호르몬

※ 자료 : WADA(2009), http://www.wada-ama.org/Documents/World_Anti-Doping_Program/WADP-Prohibited-list/WADA_Prohibited_List_2010_EN.pdf

WADC는 세 가지 수준(levels)으로 이루어져 있다. WADC 본문과 네 가지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 최상의 실행 모형(Models of Best Practices)이며 이 중 WADC 본문과 국제표준은 의무적인 규정들이며 최상의 실행 모형은 권장하는 수준이 된다. 네 가지 국제표준은 각각, 검사에 관한 국제표준, 실험실 승인에 관한 국제표준, 금지목록에 관한 국제표준, 치료적 예외적 허용(TUE: Therapeutic Use Exemption)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3) UNESCO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

WADA는 스위스 지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각국 정부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1990년대 유럽지역 내에서 반도핑의 국제협정(ADC)을 맺어 그의 법적 구속을 받아온 유럽 국가들은, WADC의 국제협약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UNESCO의 세계 체육/스포츠담당 장관 및 고위공직자회의인 MINEPS나, CIGEPS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3년 3월 세계 100여 국이 모인 파리 UNESCO 체육/스포츠담당장관 원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WADC의 국제협약화에 대한 UNESCO의 지원을 주장했고, 이 안건을 UNESCO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2003년 10월 UNESCO 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스포츠 도핑에 관해 국내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4년에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회의들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에 아테네에서 열린 MINEPS IV에서 정치적 타결을 보아 정리되었다. 2005년 1월 협약최종안이 완성되어 각국이 회람과정에 들어갔으며 2005년 10월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11월 UNESCO 반도핑 국제협약은 각국 정부의 비준과정에 들어갔으며 국제 협약은 30번째 비준 완료국의 서류가 UNESCO 사무국에 기탁된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4) 국내 반도핑 활동

2004년 1월 1일부터, 도핑검사소 국제 공인의 권한이 IOC MC(의무위원회)에서 WADA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공인 도핑검사소(WADA Accredited Lab)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이며, 2004년 4월 WADA로부터 스테로이드 검사에 대해 6개월간 효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기보강을 통해 기자재 및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KIST의 자체인력보강을 통해 2004년 11월 다시 전체 공인(full-accreditation)을 획득하였다.

2004년 국내용의 반도핑 교육자료(DVD)가 제작되었고, 전국에 걸쳐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1,851의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시행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며, 경륜과 경정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년도별로 검사건수 횟수와 년도별 양성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표 12-9), (표 12-10) 2009년도에 4,000건에 가깝게 시료가 이루어졌다.

[표 12-9] 도핑컨트롤센터 년도별 시료 현황

분 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분기	65	63	83	113	104	148	241	160	536	717
2/4분기	259	264	257	70	510	672	700	355	475	893
3/4분기	364	102	442	734	376	721	1,181	1,541	1,335	1,090
4/4분기	63	170	1,006	617	698	957	1,457	777	601	1,265
총계(시료)	751	599	1,787	1,534	1,688	2,498	3,579	2,833	2,947	3,965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09).

또한, 2006년 11월 13일에는 도핑검사 및 결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내 최초의 국가도핑방지위원회인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2006년 11월 13일 : 민법 제 32조)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에는 국가의 도핑방지 의무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법정법인으로 재창립되었다. 한국반도핑위원회인 KADA의 활동 내용은 ① 도핑방지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②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집행 ③ 도핑검사결과 관리 및 제재 ④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⑤ 치료목적사용면책(TUE) 허용기준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2007년 6월 재창립 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요약하면 세계반도핑기구(WADA) 회원국 및 국가반도핑기구연합회(ANADO) 가입하였으며,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WADA의 인준을 받았고, 매년 도핑검사관(DCO) 모집을 통하여 2009년 12월 134명의 도핑검사관이 도핑검사에 활동하여 있으며 선수, 지도자, 연맹 임직원 대상의 도핑방지 교육을 연100회 10,000여명씩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관계자들의 도핑인식제고를 위한 반도핑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홍보자료도 140여개 체육단체에 매년 30,0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금지약물검색 사이트 및 도핑검사의 ISO 9001:2008(국제품질인증) 획득과 WADA 국제심포지움 참가 등 각종 국제회의의 참가를 통한 세계반도핑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표 12-10] 도핑방지컨트롤센터년도별 양성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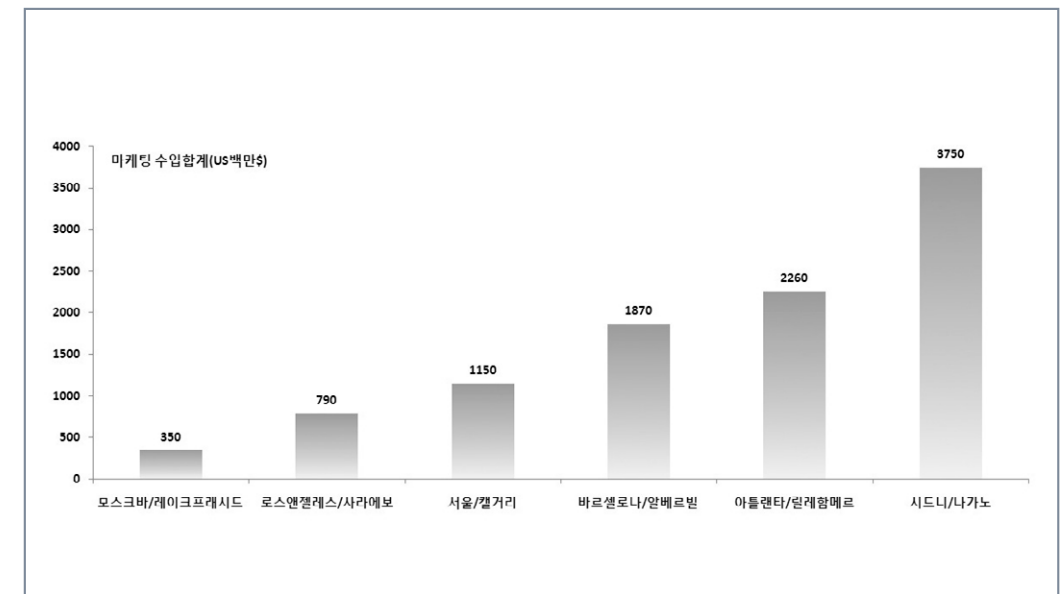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20	10	47	5	29	12	17
경기/비경기	10/10	5/5	43/4	5	26/3	5/2	15/0
종목	- 보디빌딩 15 - 레슬링 3(몽고) - 사이클, 유도 각 1	- 보디빌딩 4 - 복싱 3 - 사이클, 빙상, 육상 1	- 보디빌딩 33 - 사이클, 육상 2 - 역도 3 - 근대 5종, 레슬링, 모터보트, 야구, 양궁, 태권도, 펜싱, 권수영 각 1	- 빙상 1 - 역도 1 - 사이클 1 - 보디빌딩 2	- 보디빌딩 13 - 스케이팅 1 - 역도 4 - 스키 1 - 야구 2 - 레슬링 1 - 사이클 3 - 육상 1 - 수상경기 1 - 유도 1 - 배구 1	- 보디빌딩 8 - 알파인 스키 2 - 장애인 역도 1 - 역도 1	- 보디빌딩 11 - 스쿼시 1 - 궁도 2 - 근대5종 1 - 축구 1 - 장애축구 1
약물	스테로이드 17 흥분제, 이노제 각 2	스테로이드 5 베타길항제 1 항에스트론제 1 이노제 1, 흥분제 1	스테로이드 35 항에스트론제 2 흥분제 3, 이노제 6, 베타차단제 1	이노제 1 흥분제 1 베타길항제 1 근육 강화제 2	근육강화제 31, 베타길항제 2, 이노제 2, 흥분제 4, 부신피질 호르몬 2	S1드로스 타노론 5 S6 캐친 1 시료채취 거부 1 테스테스테론 3 메탄디에논 1 클로르치이징 1	S1테스토스테론 4 S1드로스타노론 1 S1메타스테론 3 시료채취회피 1 S1스타노졸롤 1 인간 용모성 고나도트로핀 2 S6 에페드린 1 S5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 S6메칠에페드린 1 S1 클렌부테롤 1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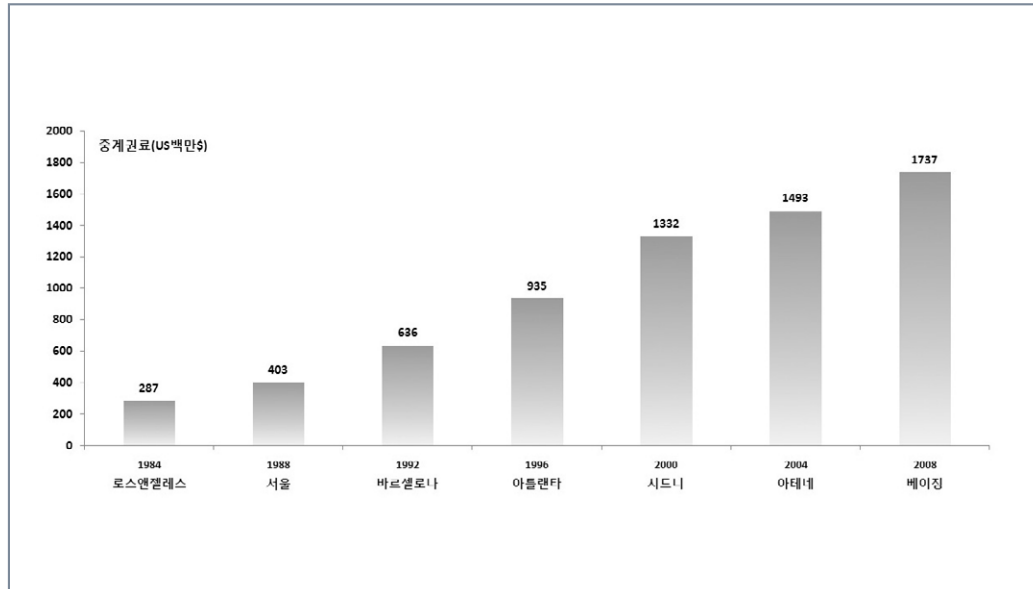
3.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 이벤트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스포츠경기의 상업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특히 TV중계권료 상승과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 증가는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스포츠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인 올림픽의 경우 TV중계권료, 후원금, 라이선스비 등의 마케팅 수입이 1980년 동·하계 올림픽 당시 US\$ 3.5억에서 1998년과 2000년 동·하계 올림픽에서는 US\$ 37.5억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2-2). 마케팅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중계권료는 올림픽의 상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비해 20년이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5.2배나 증가하게 되었다(그림 12-3).



[그림 12-2] 동·하계 올림픽 합산 마케팅수입



[그림 12-3] 하계 올림픽 TV 중계권료

또한 IOC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후원하는 기업의 후원금도 제5기(2001~2004)에는 제1기보다 6.8배가 증가하여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스포츠의 상업화가 크게 전개되고 있다(표 12-11).

[표 12-11]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올림픽 게임	1988 켈거리 1988 서울	1992 알베르빌 1992 바르셀로나	1994 릴레함메르 1996 아틀란타	1998 나가노 2000 시드니	2002 솔트레이크 2004 아테네	2006 토리노 2008 베이징
업체수	9	12	10	11	11	12(토리노 11)
후원금 (US\$백만\$)	96	172	275	550	650	866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제 2 절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1. 스포츠외교 정책과 조직

1) 스포츠외교정책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정책은 문화관광부 제1~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1998~2002)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 에 이어 문화비전(2008~2012)의 주요 과제로 스포츠외교 전문요원 양성과 국가간·국제체육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경기의 효율적 추진과 파견 활성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긍정적 파급효과와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한 중주국으로서의 역량 확대를 시도하고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교류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스포츠반도핑의 국제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표 12-12).

[표 12-1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체육외교 정책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체육외교 역량강화 및 협력 내실화	체육외교 기반 강화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국제체육기구 임원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능동적 참여
	국가·지역 간 체육협력 강화	국가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제3세계국가 체육발전 지원 동북아시아 체육협력 강화
생활체육 국제교류 증대생활	체육 국제회의의 참가 및 민간교류 협력 증대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태권도 공원 조성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지도자 파견
		해외 태권도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초청연수
태권도 시범단 파견 및 용품 지원		
국제경기 대회외 효율적 추진	주요 국제경기대회 적극 유치	2014 동계 올림픽 유치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각종 국제대회의 합리적 유치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 스포츠·관광행사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스포츠반도핑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세계반도핑기구 등과의 교류 활성화

※ 자료 : 문화관광부(2003),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표 12-13] 문화비전(2008~2012)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세계속의 스포츠 한국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강화	대륙별 맞춤형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실시
		태권도공원조성
	태권도 세계화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단 창단
		태권도 용품지원, 시범파견 등 태권도 한류 확산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선진도핑검사 및 관리시스템 확립	
	반도핑 교육 및 홍보확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 조직과 인력

우리나라의 스포츠외교 담당 조직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즉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참가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가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체육교류사업의 추진 및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1982년 체육부 설립 당시 2개과(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에서 스포츠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에 비하면 매우 위축된 것이다.

2009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의 주요 업무는 (표 12-14)와 같다.

[표 12-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체육교류 역량 강화 대책 수립·시행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교류협정체결 및 교류	국제 체육교류 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2022 FIFA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등
남북체육교류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치 및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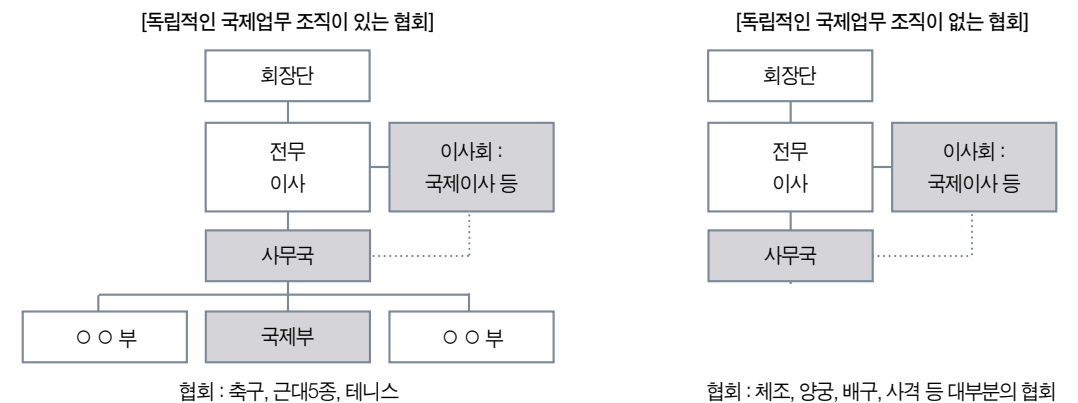
민간부문에서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 등)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국제업무는 대한체육회(KOC)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생활체육팀에서도 국제생활체육 교류 관련 업무(APOSA, IANOSA, TAFISA 등)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표 12-14).

[표 12-15]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 업무

국제교류팀	국제경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C(위원, 분과위원회)관련 업무 ○ 스포츠외교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관련 업무 - 스포츠외교 인력풀 관리, DB 관련 업무 ○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타당성 검토 업무 - 유치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협조 업무 ○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의 유치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 남북체육교류 및 협력 업무 ○ 국제관계특별위원회 운영 ○ 주요국제체육인사 초청 및 의전 업무 ○ 국제스포츠 정보관리 및 국제스포츠 뉴스발간 업무 ○ KOC 영문홈페이지 관련 업무 ○ 올림픽 운동 보급 및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데이런 업무 - 서울 올림픽 기념행사 업무 ○ IOC, ANOC, OCA, GAISF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국제회의의 파견 및 협조 업무 ○ NOC 교류협정 및 후속조치 관련 업무 ○ 종목별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의 관련 업무 ○ 국제체육교류활동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국제활동 - 후진국 체육지원 업무(Vision 2014 포함) ○ 공익요원 및 병역미필자 추천 업무 ○ 국제체육유공자 포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 올림픽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 코리아 하우스 운영 업무 - 청소년 캠프 관련 업무 - 성화봉송(한국내) 관련 업무 - 올림픽 대비 해외전지훈련팀유치 지원 업무 - 올림픽 대비 국제심판 및 임원육성 사원 업무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동계 올림픽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동·하계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동·하계 유니버시아드 관련 업무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실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동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 대회파견 업무 - 예산 및 임원선정 업무 ○ 기타 종합대회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아셈유스게임, 비차아시안게임 등 ○ 올림픽 문화예술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C 올림픽아카데미 개최 - IOA 파견자 선정 및 파견 업무 - 올림픽 미술전, 사진전 등 문화예술 관련 업무 ○ FISU, KUSB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SB 위원관리 업무 - FISU 관련 업무 - 세계대학선수권대회 관련 업무 ○ 올림픽솔리다리티 관련 제반 업무

각 경기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국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국 내에서 외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국제이사의 책임하에 사무국에서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그림 12-4). 특히 후자의 경우 원활하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체육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사업협력부 국제협력팀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완전 통합, NOC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많은 국제경기 업무와 다양한 스포츠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 스포츠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대회조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스포츠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의 경우 대부분 스포츠외교 담당 상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12-4]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운영부분)

2.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가간 스포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가간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이 있다. 1979년 이후 2009년 12월까지 29개 국가와 정부간, 그리고 49개국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이 체결되어 국가간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표 12-15). 특히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27개국 정부와 25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정체결을 이루어 올림픽 개최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간 체육교류협정을 맺은 29개국 및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맺은 49개국 가운데 각각 24개국, 36개국이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소위 'AAA' (Asia, Africa, Central & South America)

국가와 동구권 국가로서, 외교의 다변화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 외교적 관계가 소원한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12-16]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정 부 간	국가올림픽위원회간
1979	-	대만
1980	-	바레인
1983	도미니카	미국, 쿠웨이트, 서독, 영국, 스웨덴
1984	이라크	이태리, 일본, 캐나다, 튀니지
1985	-	코스타리카, 프랑스
1986	-	탄자니아
198	-	7페루
1988	카타르, 이란, 스페인	베냉
1989	폴란드	-
1990	말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멕시코
1991	체코	라오스, 베트남
1992	헝가리, CIS	몽골
1993	태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1994	-	칠레,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호주, 슬로바키아
1995	중국, 베트남	예멘, 오르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카타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카메룬, 레바논
1996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리비아
1997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이보리코스트
1999	몽골, 이디오피아	시리아, 이집트
2001	알제리	-
2002	멕시코	-
2004	수단	-
2005	이집트	-
2006	-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 재체결(이탈리아, 멕시코)
2007	-	알제리, 싱가포르
2008	쿠웨이트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계	29개국	49개 NOC

※ 자료 : 대한체육회(2009). 내부자료
 - 정부간 NOC간 중복체결국(8) : 캐나다, 카타르, 중국, 베트남, 슬로바키아, 몽골, 멕시코, 이집트
 - 호주 : 1993년 10월 28일 체결, 2005년 말 만료

3.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1)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및 KOC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여학연수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매년 10~100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다(표 12-16).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기 여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외교론, 스포츠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참여정부 5개년 계획에서 체육외교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고 교육·양성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을 위해 1~5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12-17]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방안

구 분	추천 대상자	인 원	주관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제1차 5개년계획 (1993~1997)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직원, 경기단체 및 KOC 추천자	년 10명	KOC	6개월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제2차 5개년계획 (1998~2002)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위원, 공무원, 대학생	년 100명	KOC	여학 연수원 교육기간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참여정부 5개년 계획 (2003~2007)	우수 체육인(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년 10명	KOC	1~5년	외국어교육 체육외교 관련 분야 교육

2) 참여정부 스포츠외교인력 강화 방안

스포츠외교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스포츠외교력강화방안」을 세웠다. 스포츠외교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단기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올림픽메달리스트인 전이경 외 2명을 선발하여 2004년부터 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및 미국올림픽위원회 등에 파견하여 실무 연수 및 스포츠 관련인사 교류를 통한 스포츠외교의 근간이 되는 외국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2004년에는 수영 메달리스트인 최윤희 외 2명을 선발하여 미

국 워싱턴대학 등에 파견하였다.

[표 12-18] 스포츠외교인력 강화방안

구분	사업명	대상
단기정책	인력 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중·장기 대책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2005년에는 스포츠외교인력의 관련분야 적재적소 배치, 국제행사유치단 구성, 국제회의의 참석 등 스포츠외교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와 관련하여 초기데이터를 입력, 완료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국가대표출신 및 국제심판, 경기단체 국제담당 직원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외국어 수강(월 평균 135명), 한국외국어대학 어학과정 수강(23명)을 실시하였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김동성 외 8명을 선발하여 2006년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스포츠행정연수 및 어학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표 12-19] 스포츠외교인력 운영실적

년도	구분	프로그램명	실적 및 대상
2003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전이경(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김성철(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조직위) 박명규(미국, 미국 올림픽위원회)
2004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박성수(미국, 미국 올림픽위원회) 김인수(캐나다, 2010 동계 올림픽조직위원회) 최윤희(미국, 워싱턴대학)
2005		스포츠외교인력풀 구성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초기데이터 구축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조인철(미국) 홍진영(미국) 이주형(캐나다) 박용수(영국) 김동문(캐나다) 김동성(미국) 정기영(미국) 임석천(캐나다)

년도	구분	프로그램명	실적 및 대상
2005	어학연수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등 540명 (월 평균 135명)
		한국외대	국가대표출신 및 국제심판, 경기단체 국제담당 직원 등 23명
2006	학위과정		홍은아(영국), 조지현(영국)
	어학연수과정		조인철(미국), 조은희(뉴질랜드) 김윤만(미국) 류지혜(미국)
	국제기구파견		김 용(싱가폴) 박철근(캐나다) 장은경(스위스) 김경옥(미국)
2007	학위과정		김소희(스위스)
	어학연수과정		김광배(미국) 김미정(캐나다) 류혜민(캐나다) 박영숙(미국)
	국제기구파견		황호곤(중국) 백성일(미국) 김선종(벨기에) 여상경(모로코)
2008	학위과정		박상희(영국)
	어학연수과정		김태영(미국) 나경민(캐나다) 옥덕필(뉴질랜드) 한윤수(싱가포르)
	국제기구파견		김영찬(미국) 정성훈(뉴질랜드) 정낙규(스위스) 김정은(스위스)
2009	학위과정		박상희(영국), 홍현숙(스위스)
	어학연수과정		오형근(캐나다) 김민지(미국) 김형철(미국) 홍준표(캐나다)
	국제기구파견		김진환(미국) 박 권(싱가폴) 홍진영(영국)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스포츠외교에 있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특히 IOC위원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14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중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럽이 26개국 47, 미주가 13개국 20명, 그리고 오세아니아주가 3개국 5명, 아프리카가 17개국 18명 그리고 아시아가 21개국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명 이상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는 5개국이며 최다 IOC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로 5명의 IOC 위원이 있다.

[표 12-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하고 있는 위원 현황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비 고
위 원	이건희	1996. 7	올림픽공식후원사 회장
위 원	문대성	2008. 8. 21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진출은 국제 스포츠의 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5여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3명의 위원이 각 분과에 진출하고 있다(표 12-21).

[표 12-21] IOC 산하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분 과 위 원 회	진출 여부	성 명	국 내 직 위
라디오·TV	미진출	-	-
TV인터넷	미진출	-	-
마케팅	미진출	-	-
문화·올림픽교육	미진출	-	-
보도	미진출	-	-
생활체육	진출	최종준	KOC 사무총장
-	-	문대성	KOC 이사
선수	진출	문대성	KOC 이사
법사	미진출	-	-
스포츠와 법	미진출	-	-

분 과 위 원 회	진출 여부	성 명	국 내 직 위
여성스포츠	미진출	-	-
올림픽경기조정 (2004, 2006, 2008, 2010)	미진출	-	-
올림픽기념품수집	미진출	-	-
올림픽술리다리티	미진출	-	-
올림픽 프로그램	미진출	-	-
윤리	미진출	-	-
의무	미진출	-	-
재정	미진출	-	-
올림픽서훈	미진출	-	-
추천	미진출	-	-
국제관계	진출	박용성	KOC 위원장
보상	미진출	-	-
스포츠와 환경	미진출	-	-
총 25개 분과위원회	-		총 3명 진출

※ IOC 홈페이지 (www.olympic.org)

한편 올림픽 정식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진출한 회장단과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은 2개 종목의 회장, 7개 종목의 부회장, 1개 종목의 사무총장, 그리고 8개 종목의 집행위원, 총 15개 종목에 21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표 12-22).

[표 12-22] 국제경기연맹·임원 진출 현황

직 위	종 목	인 원	비 고
회장	태권도, 배드민턴	2명	-
부회장	축구, 양궁,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사이클, 태권도	7명	-
사무총장	태권도	1명	-
집행위원	육상, 빙상, 스키, 하키, 펜싱, 태권도(4), 근대5종, 컬링	11명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합 계	15개 종목	21명	

※ 올림픽정식 종목에 한정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아시아경기연맹에서의 집행부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현재 12개 종목에서 12명이 회장 그리고 17개 종목에서 19명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3절 국제교류 현황

1. 국제종합경기대회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8개 대회로 동계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게임, 아시아무도대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실내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8개 대회의 대회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23] 2009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원(임원/선수)	메달획득	순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18~2.28	중국 하얼빈	12종목	50개국 1,500명	124 (33/91)	금 12 은 7 동 9	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7.1~7.12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2종목	140개국 9,000명	246 (66/180)	금 21 은 11 동 15	3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6.29~7.7	싱가폴	10종목	42개국 2100명	99 (22/77)	금 20 은 17 동 17	2
2009 월드컵게임	7.16~7.26	대만 카오슝	35종목	105개국 3,200명	66 (18/48)	금 6 은 3 동 5	9
제1회 아시아무도대회	8.1~8.9	태국 방콕	9종목	37개국 1,247명	39 (4/35)	금 10 은 6 동 3	3
제1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8.21~8.3	뉴질랜드 퀸즈타운	7종목	38개국 1,500명	50 (12/38)	금 4 은 1 동 2	-
제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10.30~11.8	베트남 하노이	22종목	45개국 4,500	138 (37/101)	금 16 은 14 동 16	6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12.5~12.13	중국 홍콩	22종목	9개국 2,373명	385 (88/297)	금 39 은 45 동 59	3

[표 12-24]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국(인원)	한국 참가 현황		순위
				인원(임원/선수)	메달획득	
1회	1960. 2. 28 ~ 3. 6	프랑스(샤모니)	15개국(145)	불참		-
2회	1962. 3. 6 ~ 3. 12	스위스(빌라스)	22개국(343)	불참		-
3회	1964. 2. 11 ~ 2. 17	체코(슈펜들레류프린)	21개국(404)	불참		-
4회	1966. 2. 5 ~ 2. 13	이탈리아 (코리노세스트리에)	30개국(434)	불참		-
5회	1968. 1. 18 ~ 1. 28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26개국(589)	2종목15(7/8)	-	-
6회	1970. 4. 3 ~ 4. 9	핀란드(로바니에미 외)	23개국(497)	2종목14(8/6)	-	-
7회	1972. 2. 26 ~ 3. 5	미국(레이크플레시드)	16개국(257)	1종목5(2/3)	금1, 은2, 동1	7
8회	1975. 4. 6 ~ 4. 13	이탈리아(리비그노)	15개국(191)	불참		-
9회	1978. 2. 5 ~ 2. 12	체코(슈펜들레류프린)	21개국(347)	불참		-
10회	1981. 2. 23 ~ 3. 4	스페인(하카)	28개국(583)	3종목29(7/22)	-	-
11회	1983. 2. 17 ~ 2. 27	불가리아(소피아)	31개국(812)	3종목32(8/24)	-	-
12회	1985. 2. 16 ~ 2. 24	이탈리아(벨루노)	29개국(844)	3종목47(13/34)	-	-
13회	1987. 2. 21 ~ 2. 28	체코 (스트르브스케플레소)	28개국(941)	2종목52(20/32)	-	-
14회	1989. 3. 2 ~ 3. 12	불가리아(소피아)	32개국(1,079)	3종목64(20/44)	금4, 은3, 동1	4
15회	1991. 3. 2 ~ 3. 10	일본(삿쵸)	34개국(1,073)	3종목69(22/47)	금5, 은2, 동2	3
16회	1993. 2. 5 ~ 2. 14	폴란드(자코파네)	41개국(1,040)	3종목62(20/42)	금5, 은2, 동3	5
17회	1995. 2. 18 ~ 2. 26	스페인(하카)	41개국(1,209)	3종목60(18/42)	금6, 은4, 동4	2
18회	1997. 1. 24 ~ 2. 2	한국(무주·전주)	48개국(1,350)	4종목111(32/79)	금5, 은2, 동5	6
19회	1999. 1. 22 ~ 1. 30	슬로바키아 (포프라드-타트리)	40개국(1,412)	8종목77(13/53)	-	-
20회	2001. 2. 7 ~ 2. 17	폴란드(자코파네)	44개국(2,000)	9종목79(13/54)	금8, 은4, 동3	2
21회	2003. 1. 16 ~ 1. 26	이탈리아(타르비시오)	46개국(1,935)	9종목106(32/74)	금5, 은3, 동4	5
22회	2005. 1. 12 ~ 1. 26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50개국(1,500)	10종목124(36/88)	금10, 은7, 동6	2
23회	2007. 1. 17 ~ 1. 17	이탈리아(토리노)	52개국(2,067)	11종목123(34/89)	금10, 은11, 동9	1
24회	2009. 2. 18 ~ 2. 28	중국(하얼빈)	50개국(1,500)	12종목124(33/91)	금12, 은7, 동9	3

(표 12-24)는 역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이번 중국 하얼빈 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제 24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총 50개국에서 1,500명이 참가하여 12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가 개최된 하얼빈은 한국 팀에게는 매우 역사와 관련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국가독립을 위해 하얼빈 역에서 당시 일본의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다. 이런 역사가 깃든 곳에서 한국 팀은 10종목에 124명의 선수단(임원 33명, 선수 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국 50개국 중 종합 3위를 차지하여 우수한 국제 스포츠경쟁력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의 특징적인 활동은 빙상 외의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특히 스키점프, 스노보드에서의 선전은 향후 한국의 동계 스포츠 경쟁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라고 할 수 있다.

가. 경기장 및 참가자격

2009년 중국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회 의 12종목을 3곳의 도시에서 개최·운영하였다. 개최도시는 하빈, 야부리, 마호에르산으로 이중 하빈은 주로 빙상과 관련된 종목으로 스피드스케이팅을 포함한 5개 종목이 이곳에서 개최·운영되었다. 또한 야부리와 마호에르산에서는 설상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즉 눈을 이용한 경기로 야부리에서는 알파인스키를 포함한 5개 종목이 개최되었으며 마호에르산에서는 스노보드를 포함한 바이애슬론 2종목이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은 유니버시아드대회이기 때문에 적정 연령대의 선수가 참가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참가국의 국민이면서 만 17세에서 28세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어 있다. 즉 1981년 1월 1일~ 199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참가국의 국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또는 교육부가 인정한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나 졸업생 이어야 하며 IOC 및 해당 국제연맹에서 인정하는 아마추어 선수이어야 한다.

[표 12-25] 제 24회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소

도시명	종목
하빈(Barbin)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야부리(Yabuli)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프리스타일스키
마호에르산(Maersahn)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나.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한국 선수단 메달획득 성적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 12, 은 7개, 동 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26]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기록
금	스키점프	K90 단체	김현기, 최용직, 최흥철	1위(726.5)
		K 90	김현기	1위(261.0)
	쇼트트랙	1000m	이승훈	1위(1:28.064)
		3000m	이승훈	1위(05:25.608)
		3000m	최정원	1위(05:26.183)
		500m	장원훈	1위(43.973)
		1500m	이승훈	1위(2:18.011)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모태범	1위(1:10.05)
		1500m	모태범	1위(1:48.25)
		100m	이강석	1위(9.61)
		500m	이상화	종합1위(76.36)
		500m	이강석	1위(69.82)
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체	모태범, 송진수, 여시엽	2위(3:52.09)
		여자 단체	김유림, 이주연, 노선영	2위(3:12.37)
	쇼트트랙	3000m 계주	김혜경, 양신영, 정바라, 이하경	2위(4:22.824)
		3000m	김성일	2위(05:25.775)
		1500m	김성일	2위(2:18.203)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호준	2위(43.8)	
스키점프	K125	김현기	2위(244.7)	
동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이강석	3위(1:10.79)
		1000m	이상화	3위(10.82)
		500m	모태범	종합3위(70.53)
	쇼트트랙	5000m계주	이승훈 외	3위(7:05.141)
		1000m	정바라	3위(1:33.164)
		3000m	윤태식	3위(05:26.187)
		3000m	김혜경	3위(05:28.094)
	스키 점프	1500m	윤태식	3위(2:18.511)
			최흥철	3위(244.3)
		K125	최흥철	3위(244.3)

다.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 대회에서 주최국인 중국이 금 1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대회 제23회 토리노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3위를 차지하여 동계대회 스포츠 경쟁력을 과시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참가국의 상위 입상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27]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국가명	금	은	동
중 국	18	18	12
러시아	18	14	19
대한민국	12	7	9
일 본	9	8	3
스위스	7	3	4
오스트리아	4	3	2
프랑스	2	6	5
폴란드	2	4	8
네덜란드	2	1	1
스웨덴	2	0	0
캐나다	1	4	1
체 코	1	3	5
우크라이나	1	2	4
독 일	1	2	3
이스라엘	1	0	0
핀란드	0	2	2
슬로바키아	0	1	2
이탈리아	0	1	1
노르웨이	0	1	0
벨라루시	0	1	0

(표 12-2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50개국 중 상위 입상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1위, 3위, 4위로 상위 입상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럽에 있는 국가로 아직 동계 스포츠는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스포츠 경쟁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아시아지역에 이는 한국, 일본, 중국이 이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25회 세르비아 베오글라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9년 제25회 유니버시아드대회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세르비아 베오글라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 팀은 12 종목에 246명(임원 66명, 선수 180명)이 참가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표 12-28)은 역대 하계 올림픽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1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구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세르비아 베오글라드 대회에 참가한 참가국과 한국 팀의 참가현황 그리고 종합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12-28]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현황

회수	개최년 월 일	개최지	참가국(인원)	한국 참가 현황		순위
				인원(임원/선수)	메달획득	
1회	1959. 8. 26 ~ 9. 7	이탈리아(토리노)	45개국(1,407)	1종목12(1/11)	-	-
2회	1961. 8. 25 ~ 9. 3	불가리아(소피아)	32개국(1,627)	불참	-	-
3회	1963. 8. 30 ~ 9. 8	브라질(포트알레그레)	27개국(988)	불참	-	-
4회	1965. 8. 20 ~ 8. 30	헝가리(부다페스트)	32개국(2,366)	불참	-	-
5회	1967. 8. 27 ~ 9. 4	일본(동경)	30개국(1,272)	8종목111(31/81)	금1, 은9, 동1	10
6회	1970. 8. 26 ~ 9. 6	이탈리아(토리노)	58개국(2,808)	4종목41(14/27)	동1	23
7회	1973. 8. 15 ~ 8. 25	소련(모스크바)	70개국(3,634)	3종목35(11/24)	동2	23
8회	1975. 9. 18 ~ 9. 21	이탈리아(로마)	38개국(617)	불참(세계대학생육상대회)	-	-
9회	1977. 8. 17 ~ 8. 28	불가리아(소피아)	78개국(4,391)	2종목24(8/16)	동1	22
10회	1979. 9. 2 ~ 9. 13	멕시코(멕시코시티)	94개국(4,381)	5종목60(17/43)	금1, 동1	17
11회	1981. 7. 19 ~ 7. 30	루마니아(부가레스트)	86개국(4,369)	7종목70(20/50)	은1, 동4	20
12회	1983. 7. 1 ~ 7. 12	캐나다(에드먼튼)	73개국(3,471)	8종목81(25/56)	동1	20
13회	1985. 8. 24 ~ 9. 4	일본(고베)	106개국(3,946)	11종목144(37/107)	금3, 동5	12
14회	1987. 7. 8 ~ 7. 19	유고(자그레브)	121개국(5,573)	12종목168(46/122)	은1, 동1	28
15회	1989. 8. 22 ~ 8. 30	서독(뒤스부르크)	79개국(2,619)	3종목28(10/18)	동1	27
16회	1991. 7. 14 ~ 7. 25	영국(셰필드)	101개국(4,622)	11종목151(40/111)	금5, 은1, 동3	6
17회	1993. 7. 8 ~ 7. 18	미국(버팔로)	118개국(5,145)	10종목134(35/99)	금3, 은4, 동4	13
18회	1995. 8. 23 ~ 9. 3	일본(후쿠오카)	162개국(5,740)	12종목204(52/152)	금10, 은7, 동10	5
19회	1997. 8. 19 ~ 8. 31	이탈리아(시칠리)	124개국(5,286)	9종목150(44/106)	금5, 은2, 동3	9
20회	1999. 7. 3 ~ 7. 13	스페인(팜마)	125개국(6,009)	10종목148(43/105)	금5, 은4, 동3	13
21회	2001. 8. 22 ~ 9. 1	중국(북경)	165개국(6,757)	12종목191(49/142)	금3, 은10, 동14	10
22회	2003. 8. 21 ~ 8. 31	대한민국(대구)	174개국(6,643)	13종목379(99/280)	금26, 은11, 동15	3
23회	2005. 8. 11 ~ 8. 21	터키(이즈미르)	131개국(7,805)	13종목198(50/148)	금11, 은14, 동9	7
24회	2007. 8. 8 ~ 8. 18	태국(방콕)	152개국(8,900)	16종목287(66/221)	금15, 은18, 동18	5
25회	2009. 7. 1 ~ 7. 12	세르비아(베오글라드)	-	12종목246(66/180)	금21, 은11, 동15	3

가. 한국 선수단 경기성적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 21, 은 11개, 동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각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29] 베오그라드 하계 U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메달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기록	
금	태권도	품새(단체전)	이기성, 이상목, 지호용	-	
		품새(단체전)	활초롱, 진영, 이한나	-	
		품새(개인전)	이기성	-	
		핀급(남)	천용	-	
		핀급(여)	박효지	-	
		페더급(여)	정진희	-	
		플라이급(남)	문길상	-	
	펜싱	남자폴로레	손영기	-	
		여자사브로	김혜림	-	
	체조	철봉(개인)	김지훈	-	
		마루(개인)	김수면	-	
	유도	-73kg	왕기춘	-	
		남자오픈	김성민	-	
		남자단체	김성민 외	-	
	축구	여자축구	정원정 외	대일본(결승)	
	양궁	리커브	김예슬, 김성훈	-	
		여자리커브	장혜진, 김유미, 김예슬	-	
		남자리커브	김성훈, 박희재, 김재형	-	
		리커브(개인)	김예슬	-	
		컴파운드(개)	석지현	-	
	육상	멀리뛰기	김덕현	-	
	은	태권도	품새(개인)	활초롱	-
			페더급	이순길	-
			밴텀급	김택규	-
			미들급	오혜리	-
		유도	+78kg	이정은	-
			-78kg	정경미	-
-81kg			김민규	-	
여자단체			이정은 외	-	

메달	종목	세부 종목	선수명	기록
은	테니스	혼합복식	김현준, 김소정	-
	양궁	리커브(여)	김유미	-
	수영	평영50m(여)	김달은	-
동	태권도	품새(단체)	이상목, 안진영	-
		월터급(여)	이선형	-
		월터급(남)	백선홍	-
		밴텀급(여)	남진아	-
	체조	개인종합	김수면	-
	펜싱	여자플러레	전희숙, 이혜선, 오혜미	-
		여자사브로	이희라, 김혜림	-
	유도	-90kg	이규원	-
		-70kg	황예슬	-
		-48kg	정정연	-
		여자오픈	김나연	-
	탁구	여자복식	김소리, 서효영	-
	육상	창던지기	박재명	-
	양궁	컴바운드	김동규, 석지현	-
컴바운드		서정희, 권오향, 적지현	-	

제 25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역대 대회에서 참가종목 및 참가선수 인원과 비교한다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역대 대회에서 한국 대구에서 개최된 22회 대회에서도 3위를 했지만 이는 자국과 참가선수가 대규모(379명 참가) 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회의 성적은 역대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베오글라드 하계 U대회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국가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표 12-3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한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금메달에서 27개를 획득하여 종합 우승하였으며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2,3,4위를 차지하였다.

[표 12-30]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종합순위 및 메달획득 분포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1	러시아	27	22	27	76
2	중국	22	21	15	58
3	한국	21	11	15	47
4	일본	20	21	32	73
5	미국	13	13	13	39
6	우크라이나	7	11	13	31
7	대만	7	5	5	17
8	이탈리아	6	14	11	31
9	폴란드	6	10	8	24
10	세르비아	5	5	9	19
21	북한	1	3	4	8

3)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The 1st Asian Youth Games)는 2009년 6월29일부터 7월 7일(9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회원국 즉 45개 OCA 회원국중 42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는 10개 종목(경영, 다이빙, 육상, FBA 33, 비치발리볼, 볼링, 축구, 요트, 사격, 탁구)의 90개 세부 종목이 경기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 일원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임원 700명, 선수 1,400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리 한국선수단은 비치발리볼을 제외한 전 종목에 임원 22명(본부 임원 7명 포함), 선수 77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가) 경기 종목 수와 종목별 대회참가 인원 제한

2010년 IOC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청소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된 이번 대회의 특징은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진행과 함께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대회에 참가

하는 청소년들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총 90개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인원을 남자 50명, 여자 32명으로 제한하였으며 한국팀은 비치발리볼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 남자 47명, 여자 2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표 12-31]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세부 종목수 및 파견인원현황

종목	세부 종목수	종목별 참가제한		파견 인원			
		남	여	남	여	임원	
수영	경영	32	6	6	5	5	2
	다이빙	4	2	2	2	2	1
육상	28	6	6	6	4	2	
FIBA 33	2	4	4	4	4	2	
비치발리볼	2	2	2	0	0	0	
볼링	8	4	4	4	4	2	
축구	1	18	-	18	-	2	
요트	5	2	2	2	1	1	
사격	4	4	4	4	4	2	
탁구	4	2	2	2	2	1	
본부임원	-	-	-	3	4	7	
소계	90	50	32	47	26	22	
계			82		95		

나) 경기 성적 결과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비치발리볼을 제외한 9개 종목에 참가하였다. 2010년 IOC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청소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된 이번 대회의 특징은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이었다. 선수촌 4층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각 국가의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드림 연주, 댄스 경연 등 경기와 훈련에 지친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참가한 선수 간에 우애와 침묵을 다지는 기회의 장을 준비하여 운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 팀은 이 대회에서 금 25, 은 16, 동 1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한국 팀은 금 20, 은 17, 동 1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메달 획득 수에서는 종합 1위인 중국보다 2개의 많은 메달 획득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32] 제 1회 아시아청소년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목	다이빙	경영	육상	농구	볼링	축구	요트	사격	탁구
금		1	11	2	-	3	1	-	2	-
은		1	11	2	-	2	-	-	1	-
총		2	5	-	2	4	-	1	1	2
계		4	27	4	2	9	1	1	4	2

4) 2009 월드게임

제 8회 월드게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35개 경기종목과 관련된 경기연맹과 3,2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6명의 선수단(임원 18명, 선수 48명) 참가하여 종합 9위의 성적으로 거두어 국제 스포츠 경쟁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1981년 7월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대규모 비 올림픽 종목의 스포츠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대회로 'Sports for All'에 한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과 참가국 팀의 성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선수단의 경기성적

총 35개 종목 중 9개 종목에 선수가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이 금 6개, 은 3개, 동 5개로 종합 9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3개의 시범종목에서는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 주었다. 참가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33] 월드게임에서 한국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

종 목		금	은	동	계
대회 종목	보디빌딩	3	-	-	3
	롤러	2	1	2	5
	볼링	1	-	-	1
	수중	-	1	3	4
	산악	-	1	-	-
	계	6	3	5	14
시범	소프트볼	-	-	1	1
	우슈	-	-	2	2
	세팍타크로	-	-	2	2

[표 12-34] 한국 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선수와 세부종목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	기록
금	보디빌딩	70kg	김병수	1 위
		75kg	부창순	1 위
		85kg	이진호	1 위
	롤러	10,000m	우효숙	1 위
		15,000m	우효숙	1 위
볼링	혼합복식	공병희, 계민영	1 위	
은	수중	여자표면	최새롬 외 3명	2 위(2:41)
		계영 400m	-	-
	산악	여자리드	김자인	2 위
롤러	여자500m	인진선	2 위	
동	롤러	남 500m	이명규	3 위
		여 300m	임진선	3 위
		모호흡잠영	이관호	3 위
		50m	-	-
	수중	표면 남 200m	유경현	3 위
표면 여 100m		최새롬	3 위	

나. 참가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총 105개국이 참가한 제 8회 월드컵게임은 러시아가 종합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중국(3위)과 한국(9위)이 10위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각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12-35] 한국 선수단의 종목별 메달 획득 선수와 세부종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1	러시아	18	14	1
2	이탈리아	16	12	13
3	중 국	14	10	5
4	미 국	13	8	5
5	프랑스	11	14	13
6	우크라이나	11	12	10
7	대 만	8	9	7
8	독 일	6	6	10
9	대한민국	6	3	5
10	호 주	5	10	5
11	영 국	4	6	9
12	일 본	4	5	6
13	콜롬비아	4	5	3
14	네덜란드	4	5	2
15	스 위 스	3	4	0
16	브 라 질	3	3	3
17	뉴질랜드	2	4	5
18	벨 기 에	2	4	1
19	슬로바키아	2	3	3
20	핀 란 드	2	3	1
21	스 페 인	2	3	0
22	슬로베니아	2	2	0
23	오스트리아	2	1	2
24	크로아티아	2	0	3
25	헝 가 리	2	0	1
26	몽 골	1	2	1
27	캐 나 다	1	1	2
28	폴 란 드	1	1	2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29	그 리 스	1	1	1
30	루마니아	1	1	0
31	말레이시아	1	0	3
32	태 국	1	0	2
33	베네주엘라	1	0	2
34	보스니아	1	0	1
35	칠 레	1	0	1
36	인도네시아	1	0	1
37	카자흐스탄	1	0	1
38	에스토니아	1	0	0
39	피 지	1	0	0
40	멕시코	1	0	0
41	베 트 남	1	0	0
42	포르투갈	0	2	0
43	이 집 트	0	1	3
44	노르웨이	0	1	2
45	남아프리카	0	1	2
46	아제르바이잔	0	1	1
47	스 웨 덴	0	1	1
48	아르헨티나	0	1	0
49	덴 마 크	0	1	0
50	도미니카	0	1	0
51	홍 콩	0	1	0
52	리쿠아니아	0	1	0
53	카 타 르	0	1	0
54	터 키	0	0	3
55	몬테네그로	0	0	2
56	벨라루스	0	0	1
57	불가리아	0	0	1
58	체 코	0	0	1
59	이스라엘	0	0	1
60	룩셈부르크	0	0	1
61	필 리 핀	0	0	1
62	UAE	0	0	1

5) 제 1회 아시아무도대회

제 1회 아시아무도대회는 200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태국 방콕의 수판부리에서 개최되었으며 9개 종목(유도, 주짓수, 공수도, 킥복싱, 쿠라쉬, 무예, 파낙실랏, 우슈 & 쿡푸, 태권도)에 37개국에서 1,247명의 선수(남자 526명, 여자 284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무도대회 조직위원회(AMAGOC)가 주최하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평의회(OCA)가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4개 종목(태권도, 유도, 공수도, 우슈)에 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10, 은 6, 동 3로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무도의 스포츠 축제로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아시아지역 축제 스포츠로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과 우애를 다지기 위한 의미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표 12-36] 제 1회 아시아무도대회에서의 한국선수단의 참가종목별 경기성적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	기록
금	태권도	남자월터급	이규진	1 위
		남자미들급	황대성	1 위
		여자핀급	김민정	1 위
		여자플라이급	장은숙	1 위
	유 도	남자 -73kg	방귀만	1 위
		남자 -81kg	송대남	1 위
		남자 -90kg	권영우	1 위
		여자 -48kg	정정연	1 위
		여자 -78kg	정경미	1 위
	우 슈	남자 산타-60kg	김준열	1 위
은	태권도	남자핀급	이재봉	2 위
		남자플라이급	이 우리나라	2 위
	유 도	여자 +78kg	김나영	2 위
		여자-70kg	황예슬	2 위
	공수도	남자개인대련 -60kg	이지환	2 위
우 슈	여자산타 -60kg	유현석	2 위	
동	태권도	여자헤비급	오민아	3 위
	유 도	남자 -60kg	김기용	3 위
	우 슈	여자 산타-48kg	최새롬	3 위

6) 제 1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제 1회 환태평양 초청 동계대회는 2009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뉴질랜드 퀸즈랜드의 3곳에서 개최되었다. 총 38개국으로부터 선수 800여명과 임원 700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 한국 팀은 피겨스케이팅 종목으로 포함한 4개 세부종목에 임원 12명, 선수 38명으로 통 50명의 선수단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뉴질랜드 NOC에서는 이번 대회를 매 2년마다 개최하고 북반부가 여름인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하여 환태평양 지역의 동계종목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 경기종목별 대회 일정 및 한국 선수단 구성

뉴질랜드에서 퀸즈랜드 외 3곳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의 각 종목별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의 선수단 구성을 다음과 같다.

[표 12-37]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의 각 종목별 경기일정

종목 및 행사명	08/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회식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전시 스포츠										
폐회식										

[표 12-38]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참가한 한국 선수단 구성

종목명	남자	여자	선수단			
			선수	임원	계	
본부 임원	-	-	4	4	-	
스키	알파인	Super G, GS, 회전		10	2	12
	크로스컨트리	인터벌스타트(15km) 스프린트	인터벌스타트(10km) 스프린트	10	1	11
		인터벌스타트(10km)	인터벌스타트(5km)			
스노보드	스노보드크로스,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4	1	5	
빙상	피겨	노비스, 주니어, 시니어 싱글		6	2	8
컬링	남·여팀		8	2	10	
계			38	12	50	

나. 종목별 대회 장소와 한국 선수단의 경기성적

이번 대회는 뉴질랜드 남섬 남부에 위치한 퀸즈타운과 와나카, 더니든, 나스비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장중 빙상/피겨경기 장소가 국제규격이 아닌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각 종목에서 나타난 한국 팀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표 12-39]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각 종목별 대회장소 및 특성

종목	대회장소	경기장 특성
알파인	퀸즈타운 코르네티크	- 남섬에서 가장유명한 스키장 - 퀸즈타운에서 북동쪽 18km, 해발 1,650m
알파인/ 스노보드	퀸즈타운 리마카블즈	- 퀸즈타운에서 약 24km, 해발 1,935m - 퀸즈타운에서 유명한 스키장
크로스컨트리	와나카 스노우팜	- 뉴질랜드 남섬남부지역 해발 5,000피트 - 퀸즈타운에서 55km 떨어진
스노보드	와나카 카드로나	- 매년 국제대회 개최지 - 퀸즈타운에서 57km 떨어진
빙상/피겨	더니든 링크	- 더니든 남부에 위치 - 30m × 60m 규모
컬링	나스비 마니오토토	- 센트럴 오타고지역 컬링마을 위치

[표 12-40] 한국 선수단의 경기 종목별 경기성적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	기록
금	빙상(피겨)	NOVICE	이동원(남)	138.09점
			박소연(여)	107.43점
		JUNIOR	김민석(남)	153.14점
			김현정(여)	106.12점
은	빙상(피겨)	SENIOR	서민석(남)	111.11점
동	컬링	여자컬링	정은정, 박민아, 김영명, 강유리, 김지숙	3위
			빙상(피겨)	SENIOR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얼음 위에서 열리는 빙상이나 피겨 종목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눈 위에서 경기하는 종목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아직 설상경기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7) 제 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제 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는 2009년 10월 30일 ~ 11월 8일까지 10일간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서 개최되었다. 20개 공식 종목과 시범종목 2개 종목에 총 45개국에서 4,5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2종목에 138명의 선수단(임원 37명, 선수 101명)이 경기에 참가하였으며 종합 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실내아시아경기대회는 종합대회로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대회로 OCA가 주관한다. 2006년 태국 방콕, 2007년 홍콩 마카오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3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2009년 1회 대회로 개최된 아시아무도대회와 통합되어 다음 대회는 2013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것이다.

가. 한국 선수단 경기성적

이번 대회에서의 한국 대표 팀 성적은 금 16, 은 14개, 동 1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를 차지하였으며 각 종목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41] 실내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핀수영	남계영800m	박찬호, 윤영중, 박성하, 유경현	5분44초74	
		남표면400m	윤영중	3분04초44	
		남표면200m	윤영중	1분23초88	
		여표면200m	전아람	1분31초77	
		남표면800m	박찬호	7분34초84	
	볼링	여 개인	손연희	-	
		2인조	전은희, 손현희	-	
		여 4인조	강혜은, 손연희, 황선옥, 전은희	-	
	e-스포츠	스터 크레프트	이영호	-	
		카운터	팀	-	
	당구	3쿠션	조재호	-	
		여 9볼	자유람	-	
	양궁	여 개인	안세진	-	
		남 개인	김영수	-	
		여 단체	정다소미, 유장미, 심미소	-	
		남 단체	성우경, 최건태, 김우진	-	
	은	핀수영	여계영400m	장예슬, 전아람, 최세롬, 김현진	2분43초
			남표면 50m	이관호	16초16
			여표면 400m	전아람	3분20초5
			남표면 400m	유경현	3분7초78
볼링		남 개인	최복음	-	
		남 2인조	최복음, 김태영	-	
에어로빅		남 개인	송종근	-	
		2인조	박연선, 이경호	-	
e-스포츠		스터크레프트	정명훈	-	
양궁		남 개인	김우진	-	
댄스스포츠		삼바	정재호, 윤소연	-	
		비엔이즈 왈츠	이상민, 김혜인	-	
	슬로우폭스트롯	남상욱, 송이나	-		
	킥 스텝	이상민, 김혜인	-		
동	핀수영	여표면 100m	장예슬	39초93	
		여표면 50m	박성아	16초46	
		여표면 50m	장예슬	17초80	
		여표면 200m	최세롬	-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	세팍타크로	팀	팀	-
	에어로빅	여 개인	신현경	-
		3인조	황인찬, 김군택, 조원호	-
	양궁	여 개인	유장미	-
	당구	1 쿠션	김경울	-
	볼링	남 4인조	최복음, 조영선, 김태영, 장동철	-
	수영	여자유 200m	지혜원	2분01초67
		남배영 100m	황경식	54초39
		여 개인혼영	이미림	1분03초87
	댄스스포츠	파소도블레	김성민, 김미선	-
차차차		정재호, 윤소연	-	
왈츠		남상욱, 송이나	-	

(표 12-40)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팀은 45개국에 참가한 이번 제 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16, 은 14, 동 16개로 합계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에 입상하였다. 이 대회에서 특히 핀 수영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 양궁 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 볼링에서 3개 그리고 e-스포츠와 당구에서 각각 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 입상에 기여하였다.

나.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 대회에서의 국가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표 12-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각종 국제 종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표 12-42]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각국기별 종합순위 및 메달획득분포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1	중 국	48	25	19	92
2	베트남	42	30	22	94
3	카자흐스탄	21	16	21	58
4	태 국	19	17	34	70
5	이 란	17	15	13	45
6	한 국	16	14	16	46
7	인 도	6	9	25	40
8	홍 콩	6	9	17	32
9	인도네시아	6	3	13	22
10	우즈베키스탄	5	9	10	24
11	일 본	5	9	9	23
12	사우디아라비아	4	3	2	9
13	라오스	3	8	14	25

이 대회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기종목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성행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종목 이외의 종목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상위에 입상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시아와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종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국가도 입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시아무도대회와 통합되어 다음 대회는 2013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것이다. 이것은 OCA가 아시아지역에 여러 가지 종합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각 국가들의 참가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어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8)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2009년 12월5일 ~ 12월 13일까지 8일간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총 9개국에서 2,37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22개의 경기 종목에서 금 262개, 은 262개, 동 315개로 총 839개의 메달을 두고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금 39개, 은 45개, 동 59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 한국 대표단은 임원 88명, 선수 297명, 총 38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각 종목별 참가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표 12-43]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한 종목별 한국 선수단 규모

구분	임원	선수			계	
		남	여	소계		
본부임원	26	-	-	-	26	
수영	경영	5	11	11	22	27
	다이빙	2	3	2	5	7
육상	6	17	10	27	33	
배드민턴	2	6	6	12	14	
농구	4	12	12	24	28	
볼링	3	5	5	10	13	
당구	2	6	2	8	10	
사이클	2	4	1	5	7	
댄스스포츠	2	5	5	10	12	
축구	2	18	-	18	20	
하키	4	16	16	32	36	
유도	3	6	6	12	15	
조정	2	6	4	10	12	
력비	3	11	-	11	14	
사격	2	3	3	6	8	
스쿼시	2	7	5	12	14	
탁구	2	4	4	8	10	
태권도	3	6	6	12	18	
테니스	2	3	3	6	8	
배구	4	12	12	24	28	
역도	3	6	5	11	14	
윈드서핑	1	4	-	4	5	
우슈	1	6	2	8	9	
합계	88	177	120	297	385	

가. 각 종목별 경기장

이번 홍콩에 개최된 동아시아경기대회는 22개 종목, 세부 종목 262개의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각 종목별 경기장은 다음과 같다.

[표 12-44]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경기장

종목	경기장명	종목	경기장명
육상	첸광오 스포츠그라운드 1	하키	킹스파크
수영	고른공원수영장	사격	홍콩국립사격장
농구	웨스턴파크 스포츠센터	요트	스탠리 워터
볼링	볼링 시티	스쿼시	쇼콰시클럽, 홍콩파크, 아비딘
축구	홍콩스타디움	당구	홍콩국제전시장
조정	심문 조정경기장	탁구	퀸 에라자베스
역도	라이치콕 공원체육관	사이클	홍콩 도로
우슈	웨스턴파크 스포츠센터	태권도	웨이킵메이공원
배드민턴	퀸에라자베스 스타디움	유도	웨이킵메이 스포츠공원
배구	홍통 콜로세움	력비	홍콩국립경기장
테니스	빅토리아 파크	댄스스포츠	홍콩국제전시장

나. 국가별 경기결과

이번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9개국(중국, 북한, 일본, 마카오, 몽골, 대만, 괌) 총 9개국이 참가하여 9일간 개최되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9개 국가의 메달획득 현황이다. 우리나라는 금 39, 은 45, 동 59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표 12-45] 각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계
1	중국	113	73	46	232
2	일본	62	58	70	190
3	한국	39	45	59	143
4	홍콩	26	31	53	110
5	대만	8	34	47	89
6	마카오	8	9	12	29
7	북한	6	8	11	25
8	몽고	0	4	16	20
9	괌	0	0	1	1
계		262	262	315	839

[표 12-46] 각 국가별/종목별 금메달획득 현황

구분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마카오	북한	계
수영	경영	20	19	-	-	1	-	40
	다이빙	10	-	-	-	-	-	10
육상	26	16	2	-	1	-	1	46
배드민턴	3	-	1	1	1	1	-	7
농구	1	-	1	-	-	-	-	2
볼링	-	2	10	-	-	-	-	12
당구	3	1	2	2	-	-	-	8
사이클	2	2	-	3	-	3	-	10
댄스스포츠	6	5	1	-	-	-	-	12
축구	-	-	-	1	-	-	-	1
하키	-	-	2	-	-	-	-	2
유도	3	10	3	1	-	-	-	18
조정	10	2	-	1	-	-	1	13
력비	1	1	-	-	-	-	-	2
사격	1	1	2	-	-	-	-	4
스쿼시	-	-	-	7	-	-	-	7
탁구	4	1	-	2	-	-	-	7
태권도	1	-	13	-	2	-	-	16
테니스	1	1	-	-	3	-	-	5
배구	2	-	-	-	-	-	-	2
윈드서핑	-	1	-	3	-	-	-	4
역도	8	-	2	-	-	1	4	15
우슈	11	-	-	5	-	3	-	19
계	113	62	39	26	8	8	6	262

다. 역대 동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한국 메달획득 결과 및 순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1993년에 제1회 대회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어 2009년까지 5회 대회가 열렸다. 처음 12개 종목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이번 중국 홍콩대회에서는 22개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5번의 동아시아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모두 차지하였으며 현재 동아시아대회 개최국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다.

[표 12-47] 역대 동아시아대회 개최지 및 한국팀 메달획득 현황

회수	개최지	대회기간	개최종목수	한국선수단성적				
				금	은	동	계	순위
1	중국, 상해	1993. 5. 9 - 5. 18	12종목 전시1	23	28	40	91	3위
2	한국, 부산	1997. 5. 10 - 5. 19	14종목 전시1	45	38	51	134	3위
3	일본, 오사카	2001. 5. 19 - 5. 27	15종목 전시2	34	46	32	112	3위
4	중국, 마카오	2005. 10. 29 - 11. 6	16종목	32	48	65	145	3위
5	중국, 홍콩	2009. 12. 5 - 12. 13	22종목	39	45	59	143	3위

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

국가간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실시된 2009년도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 종목 대회) 개최 또는 파견 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전개되었다.

가. 국내 개최 종목별 국제대회

2009년도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종합 국제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세계선수권, 5건의 올림픽제패기념대회 그리고 21건의 종목별 국제대회에 대해 709,32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표 12-48] 2009년도 국내 개최 세계선수권대회

순	사업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2009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9.1 ~ 9.9	울산	63개국 603명
2	제20회 세계 여자 및 제77회 세계 남자역도선수권대회	11.17 ~ 11.29	고양	84개국 900명

[표 12-49] 2009년도 국내 개최 올림픽 제패기념대회

순	사업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올림픽 제패기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13 ~ 1.18	서울	22개국 238명
2	올림픽 제패기념 서울 월드컵 사격대회	4.8 ~ 4.16	경남	28개국 383명
3	올림픽 제패기념 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	5.15 ~ 5.19	서울	16개국 200명
4	제5회 Korea Open 국제태권도대회	8.18 ~ 8.22	인천	51개국 2004명
5	올림픽 제패기념 SK 국제여자핸드볼 그랑프리대회	11.27 ~ 11.29	서울	4개국 87명

[표 12-50] 2009년도 국내 개최 종목별 국제대회

순	사업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규모
1	2009 강릉 세계컬링선수권대회	3.21 ~ 3.29	강릉	12개국 60명
2	2009 HSBC 아시아 5개국 럭비대회	4.25 ~ 5.9	서울	5개국 200명
3	2009 IDSF 국제오픈대회(스탠다드, 리턴종목)	5.3	서울	18개국 900명
4	인천 월드 인라인킥대회	5.24	인천	20개국 10,000명
5	제12회 CMAS 세계수중촬영선수권대회	5.31 ~ 6.5	제주	21개국 200명
6	2009 아시아 근대5종 선수권대회	6.6 ~ 6.14	서울	7개국 93명
7	2009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6.13 ~ 7.12	수원, 전주, 천안	4개국 100명
8	세계드라곤보트선수권대회	7.10 ~ 7.12	울산	15개국 1,077명
9	2009 세계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8.22 ~ 8.30		25개국 200명
10	2009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8.27 ~ 8.31	인천	19개국 100명
11	2009코리아오픈 탁구대회	8.19 ~ 8.23	부천	20개국 150명
12	제8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8.25 ~ 8.30	서울	7개국 350명
13	2009~2010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09. 9 ~ 2010. 3	안양, 고양 춘천 등	3개국(한중일)250명
14	2009 아시아태평양 골프팀 선수권대회	9.15 ~ 9.18	서울	21개국 144명
15	제5회 코리아오픈 국제 공수도선수권대회	9.23 ~ 9.28	부산	15개국 150명
16	09-10 쇼트트랙 월드컵 2차대회	9.24 ~ 9.27	서울	31개국 200명
17	한국아시아 14세 주니어시리즈 테니스대회	9.26 ~ 10.2	서귀포	6개국 64명
18	제4회 국무총리배 아마추어비록선수권대회	10.31 ~ 11.4	전주	16개국 100명
19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10.31 ~ 11.8	서귀포	14개국 128명
20	2009 NH농협 국제정구대회	11.9 ~ 11.15	서울	10개국 250명
21	수원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대회	11.16 ~ 11.22	서울	17개국 124명

나.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파견

각 종목별로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한 이유는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총 25건의 파견 사업이 전개되어 657,648,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종목별로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한 사업명을 (표 12-51)과 같다.

[표 12-51] 2009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단 해외파견 현황

순	사업명	사업명	장소	참가 규모
1	핸드볼	제21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1.16 ~ 2.1	크로아티아
2	테니스	세계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예선	2.3 ~ 6	호주, 퍼스
3	루지	제41차 세계루지선수권대회	2.6 ~ 8	미국 레이크플레시드
4	스키	2008 FIS 세계선수권(알파인, 크로스컨트리)	2.18 ~ 3.1	프랑스, 발디제, 체코, 리버레치
5	빙상	2009 세계쇼트트랙스피드선수권대회	3.1 ~ 9	오스트리아 비엔나
6	아이스하키	2009 세계선수권대회 Div II Group B	4.6 ~ 12	불가리아, 소피아
7	바둑	제30회 세계아미바둑선수권대회	5.25 ~ 6.1	일본 시즈오카현
8	세팍타크로	2009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	7.1 ~ 9	태국, 방콕
9	수영	제13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7.15 ~ 27	이태리, 로마
10	수상스키	2009 IWSF 수상스키 토너먼트세계선수권대회	8.2 ~ 10	캐나다, 켈거리
11	근대5종	2009 근대5종세계선수권대회	8.6 ~ 19	영국, 런던
12	배드민턴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8.7 ~ 18	인도, 하이베라배드
13	육상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8.15 ~ 25	독일, 베를린
14	조정	2009 FISA 세계조정선수권대회	8.16 ~ 9.1	폴란드, 포즈난
15	수중	제1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8.20 ~ 27	러시아
16	유도	2009 세계유도선수권대회	8.23 ~ 9.1	네덜란드, 로테르담
17	검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8.27 ~ 30	브라질 상파울루
18	인라인롤러	2009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8.31 ~ 9.27	중국, 하이닝
19	트라이애슬론	2009 세계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9.9 ~ 13	호주, 골드코스트
20	펜싱	2009 세계펜싱선수권대회	9.27 ~ 10.11	터키, 안탈리아
21	체조	제41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10.12 ~ 18	영국, 런던
22	태권도	제19회(여자1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0.14 ~ 18	덴마크 코펜하겐
23	당구	세계3쿠션 챔피언십	11.11 ~ 15	스위스, 로잔
24	보디빌딩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	11.1 ~ 5	카타르
25	태권도	제4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1.30 ~ 12.2	이집트

다.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국제체육 교류증진사업으로 전개된 2009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건수는 총 31건으로 709,32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각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한 현황은 (표 13-52)와 같다.

[표 12-52] 2009년도 종목별 국제대회 파견 현황

순	사업명	사업명	장소	참가 규모
1	스쿼시	2009 아시아주니어스쿼시선수권대회	1.16~23	인도, 첸나이
2	바이애슬론	2009 월드컵7차대회	3.10~15	캐나다
3	럭비	2009 세계청소년럭비선수권대회	4.17~5.04	케냐, 나이로비
4	우슈	제5회 아시아우슈청소년대회	6.4~10	홍콩, 마카오
5	역도	제15회 세계여자주니어 및 제35회 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6.12~23	루마니아 부카리스트
6	양궁	유스세계양궁선수권대회	7.13~19	미국, 오그던
7	골프	2009 켈러웨이 주니어 세계 골프선수권대회	7.14~17	미국 캘리포니아
8	농구	2009 FIBA 세계U19여자농구선수권대회	7.20~8.4	태국, 방콕
9	보디빌딩	제 43회 아시아남자보디빌딩 선수권대회	7.24~28	인도
10	하키	제6회 여자주니어월드컵대회	8.3~16	미국, 보스턴
11	사이클	2009 아시아주니어사이클선수권대회	8.11~21	인도네시아
12	정구	2009 헝가리안컵 국제정구대회	8.19~24	헝가리, 부다페스트
13	배구	제15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9.3~13	베트남, 하노이
14	야구	제38회 야구월드컵대회	9.7~29	이태리의 6개국
15	댄스스포츠	2009 월드유스라틴챔피언십	9.12~13	중국, 이창
16	레슬링	2009 세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9.21~27	덴마크, 허밍
17	키누	아시아키누선수권대회	9.21~30	이란, 테헤란
18	산악	아시아컵스포르츠클라이밍대회	10.14~19	인도네시아
19	컬링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11.12~19	일본
20	탁구	2009 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11.21~29	콜롬비아
21	소프트볼	아시아주니어소프트볼대회	12.12~18	말레이시아
22	요트	오피미스트아시아선수권대회	12.12~26	말레이시아, 랑카위
23	공수도	이란자민컵국제공수도선수권대회	12.21~27	이란, 테헤란
24	공수도	아시아고주류공수도선수권대회	12.3~7	말레이시아
25	축구	AFC U16 여자선수권대회	10.30~11.15	태국
26	육상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1.8~11.15	중국
27	탁구	월드팀컵대회	10.22~25	오스트리아
28	트라이애슬론	아시아아쿠아슬론대회	10.8~12	인도네시아
29	하키	18세 이하 아시아하키 선수권대회	11.14~22	미얀마
30	스키	대륙컵(FEC) 크로스컨트리대회	12.16~31	일본
31	테니스	16세 이하 주니어테니스대회	11.27~12.18	미국, 플로리다

라. 2009년 국제체육교류 지원

2009년도 국제 스포츠계 흐름과 정보 파악 및 국제 스포츠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회의 14건, 국제연맹 총회 34건과 아시아경기연맹 총회 7건에 대해 파견 사업이 이루어져 총 269,429,000원이 집행되었다.

[표 12-53] 국제기구회의 파견

순	회의명	기간	장소	파견인원
1	MEMOS 2차 모듈	1. 10 ~ 1. 19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
2	OS OCA 동아시아지역포럼	2. 9 ~ 2. 12	대만	1
3	제1차 OCA 스포츠 콩그레스	3. 11 ~ 3. 14	쿠웨이트	5
4	2009 스포츠어코드	3. 23 ~ 3. 27	미국, 덴버	5
5	제8차 IOC 세계스포츠와 환경 컨퍼런스	3. 28 ~ 4. 2	캐나다 밴쿠버	2
6	MEMOS 3차 모듈	4. 18 ~ 4. 27	요르단, 아카바	1
7	제10차 NOA 임직원연수회	5. 6 ~ 5. 13	그리스 아테네	2
8	EAGA 총회	5. 18 ~ 5. 21	홍콩	4
9	제 49차 IOA연수회	6. 10 ~ 6. 24	그리스, 올림피아	3
10	FISU 총회	6. 28 ~ 6. 29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
11	FISU분과위원회(조정, 학술, 의무위원회)	6. 29 ~ 6. 29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3
12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5. 11 ~ 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
13	OCA 총회	7. 1 ~ 7. 10	태국, 방콕	5
14	제13차 올림픽 콩그레스	10. 1 ~ 10. 10	덴마크 코펜하겐	7



제13장
남북체육교류

- 제1 절 개 관
- 제2 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 제3 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 제4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제 13 장 _ 남북체육교류

제 1 절 개 관

1.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의의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체육 분야가 갖는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교류 추진 시 가장 우선시되었던 교류영역이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냉전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상호 협력과 민족적 공동이익 추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더디기만 했던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해 왔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 중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로서 전체의 64.6%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5.2%이고,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각각 1.6%, 8.6%로 나타났다. 15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2006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관광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2006년조사에서는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7%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6%로서 전체의 51.3%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는 응답율은 35.2%,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각각 2.5%, 11.0%이었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중 체육인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서 전체의 6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남북체육교류는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긴 세월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사이에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구체적 내

용을 담은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다.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체육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바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은 특히 스포츠과학 연구 성과의 교환이 중요하다. 저널이나 국제경기동향분석서, 훈련지도서 등 연구 성과의 교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성과물의 교환(도서 주고받기),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기술협력의 예를 들면 훈련방법, 경기의 운용기술, 심리치방, 선수영양관리법 등 선수의 경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원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체육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에는 체육부문 전문인력(지도자와 선수, 교사, 교수, 연구자, 체육단체 관리자 등)교류와 생활체육 부문의 인적 교류가 해당될 수 있다.

넷째로는 남과 북은 체육관련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 등 유관 성과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측의 각종 체육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국제무대의 교환행위가 특히 많은 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의 공동 진출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점은 국제체육교류처럼 다양한 교류방식을 이루어나가되, 본질적으로 교류 목표가 남북 화해협력, 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경험이 있고, 2000년대에는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FIFA와 IOC 등 국제적 스포츠기구가 존재하고, 국제체육 외교의 장에서 남북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올림픽 운동 등 국제 스포츠환경은 평화공존과 화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는 평화·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수월하며 국제적 이목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류는 단순히 서로의 경기력을 과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일체감 조성 및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타 분야가 지닐 수 없는 교류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입장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남북한 공동입장은 시드니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결정적인 이벤트였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개최식과 폐회식에서는 모두 남북한 선수가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하였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입장은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성과를 잘 보여 준다. 공동입장의 경우 세계 각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남북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남북체육교류의 또 다른 성취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을 뿐 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응원단을 별도로 파견하였다. 특히 북한 응원단의 파견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북 접촉 기회가 없던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북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산 아시안게임의 소중한 경험은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도 계승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남한 관광객의 피격사건 발생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되면서 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도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 한국 체육계의 숙원이었던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응원단 파견 또한 무산되었고, 남북 선수단의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9년에는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의 예선전 남북한 경기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어 북한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해서 경기를 치루었다. 한편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체육교류협약차 북한을 방문한 실적외에 남북체육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체육·교류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일은 통일 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좌절된 민족국가의 복원과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민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면 남북 간 체육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과 같은 경기대회가 분단 전부터 해방 직후까지 면면히 유지되던 남북체육교류의 전통을 이어 왔다. 경평전은 1929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간에 축구교류전으로서 당시에는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함흥을 포함한 3대 도시 교류 전에서 나중에는 전국 주요 도시대항전으로까지 발전하여 남북 교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평전에는 축구 이외에 농구경기도 경평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체육교류는 우리민족의 관심과 교류의 필요성

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영역의 교류에 비해 더 긴 교류노력을 역사를 갖고 있다. 남북한 체육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은 1958년부터 나타난다. 남북체육회담제의는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육교류가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포츠는 일반인의 삶 속에 매우 친밀한 소재로 결합되는 일상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2006 독일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 대 스위스전의 TV시청률은 30.1%이고 한국 대 프랑스전은 29.5%로서 시청률 점유율 면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특히 남북교류가 동질적인 민족공동체의식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중성을 지닌 스포츠야말로 민족적 동질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동일한 경기규칙·규정 등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므로 남북 간의 이질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이 없다. 또 신체의 표현 형식에서 이념이 드러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협력은 1990년 서울과 평양 간 축구교류전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합의한 전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례는 체육 내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부분 - 예를 들면 단일팀 파견 시 국기 사용, 국가, 국호 등 어느 정도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는 합의점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 당사자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단체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남북인적교류가 가능한 언론, 문화, 예술 등의 제 분야와 달리 체육 분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을 중재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IOC, OCA,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등의 국제적 중재 기구가 남북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구를 통해 남북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견 조정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관련 국제기구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국제유도연맹의 경우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IOC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1997년 IOC가 북 NOC측에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1998년 9월에는 IOC의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FIFA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축구교류가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라는 FIFA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한 축구교류 및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간 역사적 관계에 비추어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체육교류가 국가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사에서도 적잖게 나타난다. 1972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급변시킨 계기는 평풍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핑퐁외교'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전까지 상대방을 적대시해오면서 어떠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경기는 양국간의 긴장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울 올림픽을 통해 동서 진영 간 정치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1988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걸쳐 8년 동안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로 점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함 공산국들 대부분이 참가함으로써 197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지 12년 만에 동서화합을 이루게 되었다.

체육교류의 정치적 기능으로 볼 때 남북체육교류가 갖는 정치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특히 인적왕래와 정보자료교환을 통해 교류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체육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는 결과적으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으로써 모든 분야의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남북통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기능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경쟁적인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때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통합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남북체육교류는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약화된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동포애를 고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시드니 올림픽에서처럼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해 준다가나 또는 남북 양팀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공평한 응원 등은 민족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것이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 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예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 체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능력을 평가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 정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남북체육교류는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의 반세기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온 까닭에 생활의 양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1차적 과제가 되었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체육인들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대방 체제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단초로 작용하여 점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진되어 갈 것이다.

3) 경제적 기능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 조성에도 일조하여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육교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과 관광이 연계되어 파

급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남북간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행사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이미지와 매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남북체육 교류과정에서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이벤트 관광을 실시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30일 및 5월 28일 개정, 7월 6일자 시행)이다. 동법의 1조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통일원장관의 고시로 발표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09년 7월 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법률적으로 “남과 북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2조 4항)으로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과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동 규정 3조)로 정의되었다. 이중 체육관련 협력사업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범위가 명시되었다.

제3조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 하에 주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국제체육과)은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이다. 통일부의 경우 교류협력국(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고 정부 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두고 있다. 동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 원칙 수립’(동법 6조 1항)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동법 6조 2항)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는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왔고, 2009년도에는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1월 30일 동 법률을 크게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법률은 동법 제 6조, 제 7조, 제 8조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제 10조부터 제 24조까지에 걸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과 개별 사안별 처리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2. 교류 재원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부문 교류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는 체육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사업(2억 5,700만원)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사업(7억 7,500만원)에 지원된 바 있으며,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21억 2,600만원), 남북통일축구경기(1억 5,300만원), 남북태권도시범단교환(1억 8,900만원) 등에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13억 5,600만원), 제주 민족평화축전행사(4억 9,700만원)에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는 2009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사회문화협력 사업 활용에 대한 기준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년 11월 28일 개정)을 장관 고시로 명문화하고 있다. 동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제1조)에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국제체육행사의 단일팀 참가사업이나 국제체육행사 공동 시행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사업이다(제 3조).

한편 동 지침에 의거한 기금지원상의 지원한도(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남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통일부는 동 지침에서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6조)와 기금지원의 중단 등(제7조)를 명시하여 남북협력지원자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활용되었던 공적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 근거는 뚜렷이 명시된 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11호의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역시 남북체육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남북체육교류의 촉진이 정부의 정책사업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체육교류에의 지원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 등에 지원된 바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장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단복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전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북체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교류사업-주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체육 교류가 평평 외교처럼 경색된 남국간 교류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체육단체나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체육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제 3 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회담한 것이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회담 조차 없이 1978년까지 이어져온다. 그리고 1979년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하게 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1988년 서울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접촉하게 된다. 즉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1990년 남북 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체육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표 13-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1. 24 5. 17 7. 26	스위스(로잔) 홍콩 홍콩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결렬, 별도참가)
1979. 2. 27 3. 5 3. 9 3. 12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한국 참가무산)
1984. 4. 9 4. 30 5. 25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북한 불참)
1985. 10. 8~ 9 1986. 1. 8~ 9 6. 10~11 1987. 7. 14~15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협의(결렬, 북한측이 IOC 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9. 3. 9 3. 28 10. 20 11. 16 11. 24 12. 22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제5차 남북체육회담 제6차 남북체육회담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논의(결렬, 별도참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90. 1. 19 1. 29 2. 7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제8차 남북체육회담 제9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 29 1991. 1. 15 1. 30 2. 12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토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대회논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단일팀 구성합의

※ 출처 :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남북체육교류자료집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1989년부터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던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9월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이루게 되었다.

[표 13-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구 분	평 양 대 회	서 울 대 회
방문기간	1990. 10. 9~10. 13	1990. 10. 21~10. 25
방문자	76명(선수단45, 인솔11, 보도20) -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45명, 인솔11, 보도22) -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기일/장소	1990. 10. 11 / 5 1경기장	19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 (2:1)	남한승리 (1:0)

남북체육교류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이후에 침체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체육교류 추진에 관심을 두고, 1994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에는 문화체육부가 ‘남북문화체육교류 세부합의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남북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체육교류는 아니지만 1997년 전국체전에는 북한의 수영 대표선수로 활약했었던 재일동포 선수(이여애)가 재일 동포 선수단의 구성원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제안한 남북체육 회담제안은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체육회담이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남북체육교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나서는 체육교류의 장이 열렸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양시내 8,000여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이 추진하는 평양실내체육관건설 사업은 남북 협력 사업으로, 남한의 건설근로자가 상주하고 건설물자와 장비 등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라고 명명한 남북 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남북녀, 북남남녀가 짝이 되어 치른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7월 3~4일 양일간 남북한 양측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동 대회에 남한에서는 인원이 22명, 자동차 47대가 참가하였다.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81회 부산전국체전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2001년 이전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협력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현황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1991. 4. 24 ~ 5. 6 / 일본 지바현	1991. 6. 14 ~ 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 칭	「코리아」, 「KOREA」	좌 동
단 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 동
단 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 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1991. 3. 26~4. 23)	남·북왕래훈련(1991. 5. 6~5. 21) - 서울 평가전 5. 6~9/70명(잠실) - 평양 평가전 5. 10~16/70명(5·1) - 서울 강화훈련 및 결단식 5. 17~21 72명(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 동
장비조달	단복 북측, 운동복 등 남측	좌 동
귀 국	1991. 5. 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1991. 6. 28(북한), 1991. 6. 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3위	8강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 출처 :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남북체육교류자료집

[표 13-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1990)	평양	1990. 10. 9 ~10. 13	76명(선수단 45, 인솔 11, 보도 20)	남한 :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1990. 10. 21 ~10. 25	78명(선수단 45, 인솔 11, 보도 22)	북한 :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일본 카 오사	1991. 4. 24 ~ 5. 6	총56명(남북 각 28,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포르투갈 리스본	1991. 6. 14 ~ 6. 30	총62명(남북 각 31, 선수 각 9)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1999)	평양	1999. 8. 10 ~ 8. 14	37명(선수단 22, 인솔 15)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1999)	평양	1999. 9. 27 ~10. 1	79명(선수단 42, 현대관계자 31, TV중계요원 6)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1999. 12. 22 ~12. 25	62명(선수단 38, 교예단 14, 위성중계 기술자 2, 아태 관계자 8)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0)	서울, 평양, 금강산	2000. 6. 30 ~ 7. 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불 지급
삼성통일탁구 경기대회(2000)	평양	2000. 7. 26 ~ 7. 30	50명 (선수단 13, 인솔 37)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호주 시드니	2000. 9. 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사용 호칭 : KOREA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2000)	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2000. 10. 1	50명 (주관 : 부산광역시 - 금강산관광총회사)	

※ 출처 : 통일부(각년도). 남북관계 주요 일지(재정리)

3. 2001년~2009년

(1) 남북 체육회담

2001년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은 2월 제2차 통일염원 국제텔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간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3월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고(3월), 제18회 부산 아·태양장애인경기대회에 북한측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9월) 및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11월) 등이 이루어졌다.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공동응원 경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다. 2001년에는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한편 방북을 통한 교류사업으로는 2001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8월 15일에는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에서는 46대 차량과 209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1년은 현대아산에서 건립하고 있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이 계속 시행되었다. 이외에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태권도시범단 교환 행사를 위해서 남한의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미국 뉴욕의 9.11테러사건과 남한에 내려진 비상경제조치로 인해서,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였다. 2001년 3월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북 하였고, 방북 중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측이 준비 상 어려움을 제기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체육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합의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남북 당사자간 체육교류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2002 FIFA 한·일 월드컵의 경우도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논의되면서,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해나갔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은 남북체육 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해였다. 그 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선수단을 이끌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응원단과 함께 참가한 것이다. 역시 같은 해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가 있었고 이후에도 태권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도 실시하는 등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북한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남북은 민간차원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와 같은 대규모 남북체육문화교류사업을 성사시켰다.

이외에도 2003년 물밑에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도 진행되었다. 주요 접촉사례로는 「2004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005년도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준비 등 남북유도 교류협의, 서울-평양 여자축구 교류관련 협의 등이 있다.

2004년은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된 해이다. 아테네 올림픽은 또 다시 남한과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 남북한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아테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방송위원회와 북측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간의 협력사업은 직접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이다. 2004년 8월 한국은 북한주민이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이후 국제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올림픽 중계 북측방송 중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측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통일축구대회에 북측 남·여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 경기대회에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이루어졌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참가는 남북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라 할 만하다.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은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기간동안 회합을 갖고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및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한 남북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7일 북한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체육계간의 협력분위기는 2006년 6월 29일 역시 북한 개성에서 열린 2차 남북체육회담으로 이어졌다. 제2차 회담에서는 북측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의제는 단일팀 선수단의 명칭(코리아), 선수단가(아리랑), 단기(독도 포함 한반도기), 단일팀 선포식 일정 및 훈련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회담의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제3차 남북체육회담과 2007년 2월 개성의 제4차 회담에서도 파견할 단체종목의 선수선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 원칙에 대해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 모두를 단일팀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원칙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5: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서 예선전부터 참가하며 경기출전은 실력위주로 할 것을 안으로 내놓았고 남한은 남북이 각각 예선전에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일방만 획득한 경우는 그 일방을 주축으로 상대방의 우수선수를 포함시키고, 양방이 획득한 경우는 엔트리 2배수의 상비군을 구성하여 경기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자고 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남북단일팀구성을 권고 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 참가방식에 대해 재논의하였다. 북측은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방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5대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 종목별 예선전부터 출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안과 이것이 어려울 경우 엔트리의 두 배수 범위 내에서 남북 5대5 동수로 팀을 구성한 후 평가전 등을 거쳐 우수선수를 최종 선발하여 출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 구성, 공동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접근을 보았다.

선수단 구성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7년 10월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여 경의선 열차를 이용,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6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2월 28일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고,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응원단 규모(지원인원 포함)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남북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며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며 제1차 실무접촉 시 남측이 제안한 응원단 규모에 동의하였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응원단 이용열차 및 열차이용과 관련해서 남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이 문제는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응원단이 개·폐막식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응원종목은 남과 북의 경기 참가종목이 확정된 후에 선정하며, 응원곡, 응원복장, 응원형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입장권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 외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및 응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남북 동시입장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체육회(KOC)는 공동입장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위해 2008년 전반기에만 수차례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특히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체육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되었다.

4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체육회(KOC)와 조선 올림픽위원회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베이징(北京) 올림픽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KOC)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기간 박학선 신임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남측은 베이징 회담장 현지에서도 체육회담을 추진했지만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장이 호텔 식당에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우연히 만나 상견례만 했을 뿐 공동입장의 사전절차인 실무자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스스로 공동입장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지 못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2008년 6월 자크 로게 위원장 명의로 남북한 정상에게 공동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IOC는 베이징 현지에서도 북한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현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월 2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려 왔으니 그 문제는 후에 논의합시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북한선수단 선발대로 도착했던 윤용복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은 “10.4선언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공동입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거부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공동입장이 무산되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화합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 입장순서를 한국은 176번, 북한은 177번째로 정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거부하고 180번째로 입장하였다.

2009년에 들어서도 북한측은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면 대결 태세 진입을 표명하고, 남북간 군통

신선 차단, 육로통행 제한, 남한 근로자 억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2009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체육관련 내용은 없었다.

(2) 남북체육교류

[표 13-5] 2000년~2009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주요 사항)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제2차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1)	금강산	2001. 7. 29~7. 31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지급
태권도시범단 교환(2002)	평양	2002. 9. 14~9. 17	65명(남측35, 북측30)	-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2002. 10. 14~10. 17	62명(남측41, 북측21)	-
남북통일축구경기(2002)	서울	2002. 9. 5~9. 8	리광근 등 49명	-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2002)	부산	2002. 9. 22~10. 15	박명철 등 668명	-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2002)	부산	2002. 10. 8~ 10. 15	장웅 등 7명	-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폐회식 공동입장(2003)	일본 아오모리	2003. 2. 1~2. 8	- 남한 선수단 110명 - 북한 선수단 40명	- 단기 : 한반도기 - 북한 2,30일 밤 전격 제안, 남한 수용으로 성사
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03)	대구	2003. 8. 20~9. 1	전극만 등 524명	- 선수단 197명 -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관(2003)	대구	2003. 8. 17~8. 21	장웅 등 3명	-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축구대회(2003)	평양	2003. 10. 6~10. 7	김운규 등 800여명	-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2003)	제주	2003. 10. 23~10. 28	김영대 등 190명	-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통보로 물의야기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2004)	그리스 아테네	2004. 8. 14~9. 1	- 남한선수단 136명 - 북한선수단 50명	- 단기 : 아리랑 - 단기 : 한반도기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2005)	대구, 전주, 대전	2005. 7. 31~8. 7	북 선수단 65명	-
남북통일축구(2005)	서울	2005. 8. 14~8. 16	남·여 선수단	-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 게임 공동입장(2005)	마카오	2005. 10. 29~11. 6	남북선수단	-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2006. 3. 2~3. 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한 선발팀 혼성경기 - 남북 시범경기	
도하 아시안게임 폐회식 공동입장(2006)	카타르 도하	2006. 2.~12. 15	남북선수단	-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2007.3.20~4.20	북 선수단 23명	- 15~17세 - 전지훈련
		강진	2007.6.1~6.14	북 선수단 34명	- 15세 이하 - 친선 경기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2007.6.23~7.3	남 선수단 26명	-
		평양	2007.11.3~11.14	남 선수단 22명	-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2007.4.6~4.9	북 시범단 48명	- 단장: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2007.4.30	-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 북 대표단 60명 방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	서울 등 8개 도시	2007.8.18~9.9	북 선수단 31명	- 16강 진출 - 2회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	전남 강진	2007.10.13~10.25	북 선수단 22명	-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2007.11.9	남 대표단 145명	- 축구장 시설 현대화사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2008.2.20	-	- 경기결과 1:1	
2008아시아시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3.16~24	북선수단 15명	-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4.26~27	북 선수 17명	- 남자 60Kg 3위 - 여자 48Kg이하 2위, 52Kg이하 1위, 57Kg이하 3위, 63Kg이하 3위,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3.26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서울	2008.6.22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2008남북태권도교류행사	평양	2008.6.28~7.1	(사)ITF태권도협회 남측대표단 60명	- 북한의 시범공연 - 남한사범의 북한선수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2008.6.14~26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 차례 친선 경기	
유소년축구단 교류		2008.10.8~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명	-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09.10	남북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1:1	

※ 출처 : 통일부(각년도) 남북관계 주요 일지에서 재정리.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코리아응원단	중국 베이징	2008.8.10~14	응원단 400여명	- 남북한 팀 경기 응원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2009.2.25~28	동협회 관계자 17명	- 「김경성 체육인초대소」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남북예선전	서울	2009.3.29~4.2	북 선수단 43명	- 경기결과 1:0

[표 12-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년~2009년)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2001	전체	786(9,148)	737(8,805)	3(30)	-	698(8,551)
	체육	44(362)	43(353)	-	1(9)	37(310)
2002	전체	802(13,502)	774(12,979)	5(167)	27(349)	753(12,825)
	체육	38(336)	37(326)	-	1(10)	37(326)
2003	전체	1,060(16,161)	1,028(15,697)	(17)	33(496)	983(15,280)
	체육	19(1,190)	19(1,190)	-	-	19(1,190)
2004	전체	1,532(30,455)	1,497(29,410)	-	-	1,428(26,213)
	체육	6(8)	5(7)	-	-	4(5)
2005	전체	6,475(98,945)	6,494(97,464)	1(32)	7(1,604)	6,086(87,028)
	체육	28(804)	28(804)	-	-	27(799)
2006	전체	11,297(97,343)	11,273(95,251)	3(529)	6(1,50)	12,468(100,838)
	체육	34(266)	32(251)	-	-	34(266)
2007	전체	12,807(111,650)	12,803(109,476)	3(129)	33(2,078)	29,862(158,170)
	체육	68(1,272)	68(1,272)	-	-	65(1,198)
2008	전체	71,099(117,020)	70,987(115,174)	107(357)	3(1,677)	119,884(186,443)
	체육	25(308)	25(308)	-	-	22(272)
2009	전체	93,765(101,934)	92,985(100,810)	27(93)	619(877)	113,083(120,616)
	체육	7(89)	2(23)	-	6(79)	2(23)

※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재작성)

※ 주 :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표 12-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년 8월~2009년 1월)

(단위 :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2001년	전체	1,169(2,332)	1,145(2,283)	17(48)	6(11)	1,211(1,879)
	체육	26(84)	24(80)	-	1(3)	11(27)
2002년	전체	1,485(3,434)	1,453(3,367)	5(10)	12(39)	621(1,981)
	체육	35(194)	34(192)	-	2(3)	24(147)
2003년	전체	1,581(4,169)	1,527(3,991)	13(57)	18(50)	954(1,964)
	체육	24(107)	24(107)	-	-	12(31)
2004년	전체	1,663(6,778)	1,683(6,736)	-	-	1,349(5,385)
	체육	37(167)	34(163)	-	-	31(51)
2005년	전체	1,322(3,518)	1,394(3,590)	-	2(2)	1,172(3,301)
	체육	48(163)	48(163)	-	-	46(136)
2006년	전체	861(2,853)	860(2,852)	-	-	783(2,744)
	체육	24(124)	24(124)	-	-	24(124)
2007년	전체	994(2,448)	986(2,441)	-	-	936(2,474)
	체육	2(2)	2(2)	-	-	2(2)
2008년	전체	681(1,465)	681(1,465)	-	-	689(1,600)
	체육	18(175)	18(175)	-	-	18(175)
2009년	전체	30(129)	26(116)	-	-	26(116)
	체육	1(56)	1(56)	-	-	1(56)

※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표 12-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년~2008년)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2001년	전 체	5(191)	5(191)	-	-	5(191)
	체 육	1(1)	1(1)	-	-	1(1)
2002년	전 체	13(1,120)	13(1,120)	-	-	13(1,052)
	체 육	4(883)	4(883)	-	-	4(765)
2003년	전 체	11(1,023)	11(1,023)	-	-	11(1,023)
	체 육	3(717)	3(717)	-	-	3(717)
2004년	전 체	13(321)	13(321)	-	-	13(321)
	체 육	0(0)	0(0)	-	-	0(0)
2005년	전 체	30(1,313)	30(1,313)	-	-	30(1,313)
	체 육	1(78)	1(78)	-	-	1(78)
2006년	전 체	42(888)	42(888)	-	-	41(870)
	체 육	1(4)	1(4)	-	-	1(4)
2007년	전 체	69(1,052)	69(1,052)	-	-	69(1,044)
	체 육	6(221)	6(221)	-	-	6(213)
2008년	전 체	48(332)	48(332)	-	-	48(332)
	체 육	4(76)	4(76)	-	-	4(76)
2009년	전 체	101(246)	101(246)	-	-	101(246)
	체 육	1(43)	1(43)	-	-	1(43)

※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대북지원, 경수로,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간에 인적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남북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 건수는 119,884건이며 방북한 인원수는 186,443명이다. 체육 관련 방북 사례는 22건이며 방북자수는 272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2-8)에 제시된 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건수는 총 230건이며 방문자수는 6,146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20건이며 방문자수는 1,854명이다. 남북 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은 것은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인적 교류규모가 큰 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것이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 북한선수단 186명, 응원단 303명 등 489명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남한을 방문했으며, 10월에는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개최되어 북한선수 110

명, 참가단 80명 등 총 190명의 북한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행사로 행사준비과정 및 협상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 동안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와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남북만이 참가하는 행사였다는 점과 교류종목이 정식종목 이외에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경기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체육 분야의 경우 북측의 남한 방문은 1건에 불과하며 방문자수는 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외의 2006년 남북체육교류로는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의 남한 방문 및 교환경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북 강원도간에 이루어진 지자체간 남북교류의 일환이었다. 2006년 3월 2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선수단은 총 36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측의 북한 방문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에는 1999년에 착공한 「류경 정주영체육관」이 완공되어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참관, 묘향산·개성단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남한에서 1,000명 규모의 참관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2005년 북한 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6년에는 34건에 26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다음으로 남북한 인적 접촉을 보면 2004년은 상대적으로 체육관련 남북한 인적 접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인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2005년 북한주민 접촉 건수는 총 46건이며 관련된 인원은 136명이다. 2006년은 남북 주민 접촉이 이루어진 건수는 24건으로 남측 관련자는 총 124명이었다.

2005년도 남북 체육교류는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동안 시작된 도하아시안게임과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중국 쑹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05년 11월초 마카오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 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하였으며, 차기 회담은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남북 체육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체육교류협력 사례는 점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협력사업 동향을 보면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2005년 29개 사업자가 추가되면서 총 117개가 되었으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는 2005년 47개가 추가되면서 총 107개가 되었다.

남북 사회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 역시 남북한간의 체육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 행사에서는 남북한의 스포츠 중에서도 엘리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현 단계를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도이다.

베이징의 남북 체육학술교류에서는 남한에서 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 참여하고 북한에서는 조선체육대학교 교수 5명,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등이 참가하였고 중국의 조선족 학자 1인이 참여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5년 8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에서 남한의 한국체육학회,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학교 체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민족체육문화의 회고와 전망」이었다. 동 학술교류 행사에서는 남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에 의해서 총 18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는 남한의 경우 한국체육학회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학회 회장단과 각 분과학회를 대표한 학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평양체육대학교 교수와 기관차체육단 연구원, 체육연구소 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중국거주 조선족 학자로는 연변대학교 체육계열 교수가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축구분야의 남북교류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북체육교류협회(남한)와 4.25체육단(북한)이 남북유소년축구 상호교환경기 개최에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교류 첫 행사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15~17세)이 방한하여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지에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15세 이하 북한 청소년팀 34명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강진에서 한국, 중국, 강진중 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한 청소년팀의 방북도 이어져 6월 23부터 7월 3일까지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이, 그리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2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북한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선수단 31명을 8월 7일 사전 입국시켜 전남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6강 진출에 그쳐 대회 2연속 8강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13일부터 25일에는 북한 청소년 팀 22명이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한국 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한국(2개 팀)을 비롯해 북한,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동티모르 등 7개국 8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4월 30일에는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의 일환으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항전이 개최되어 또 한번의 남북축구대결이 벌어졌으며, 남한팀이 0:1로 북한팀에게 패배하였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사단법인 평화 3000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0억 5천만원이 소요

된 이 사업은 11월에 완결되어 11월 9일 평양에서 '축구장 준공식 및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안상수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남한 대표단 145명이 방북하였고, 준공식이 끝난 후에는 남북 유소년팀간 간에 훈련경기도 열렸다.

축구 이외에 태권도 및 권투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의 초청으로 장용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방한하였다.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한 북한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10월 19일에는 2004년 남북권투대회 개최 이후 여섯 번째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남한의 최신희(24), 손초룡(20) 및 북한의 류영심, 김혜성 간 논타이틀 매치(6R)경기,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등 모두 4차례 남북대결이 벌어졌다. 박상권 WBCF 회장 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를 실험중계한 KBS-N 오수성 사장 등 남북 주요 인사들과 남측 관광객 500여명도 방북하여 개성 시내를 관람한 뒤 남북 복서들의 경기 장면을 관람하였다.

2008년에는 4월 26~2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남자 3명, 여자 4명 등 북한 선수 7명이 출전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선정한 2007년 10대 최우수선수에 뽑힌 김철수,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 동메달리스트 원옥임 등 지명도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지만 북한선수의 남한 방문의 의의를 높였다.

체조분야에서는 남북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남북 체조가 모두 2008년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 좌절된 탓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남측의 조현주, 북측의 홍은정, 차영화 등 여자 선수 세 명이 조 추점 결과 한조에 편성된 것이다. 이들은 베이징 올림픽 예선 경기일인 8일까지 동일시간, 동일 장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남북체육교류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은 체육교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북교류의 중단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2009년 남북체육교류는 2건, 즉 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 하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체육협의회와 월드컵예선전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남북체육교류를 시작할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지난 2009년 6월 남한과 북한의 축구팀이 함께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케 되었다. 남북 축구팀의 동반 본선 진출은 역사적으로 1930 FIFA 우루과이 월드컵 시작 이후 무려 70년만의 일이다. 분단국가가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사례는 1974 FIFA 서독 월드컵 때의 동서독 참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지구 최종예선 B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1위인 한국과 나란히 본선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북한은 국제 체육경기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으나, 축구 등 일부 종목에서만 우

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본선진출이 더 반가운 것은 한국인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민족적인 정서보다는, 최근의 남북관계 및 체육교류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그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북한이, 비록 스포츠에 국한된 일이지만 국제사회 페어플레이의 본 무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제 4 절 과제 및 발전 방안

2008년 축구분야에서는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회,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에서 1회 등 4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던 2008년 2월 20일 중국 충칭 개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는 남북이 1:1로 비겼으며, 3월 26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3차전 1차 대결에서도 0:0으로 다시 비겼다. 이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기에는 재중 한국 교민, 북한 응원단 등이 경기장을 메우고 열띤 응원전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6월 22일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월드컵 3차 예선 2차 남북대결이 치러졌으며, 남북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했다. 이 경기에는 약 5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한 남북은 9월 10일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1차 대결을 벌였으나 이 경기 또한 3월 대회와 마찬가지로 북측이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 제창에 난색을 표명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예선 1차 대결에서 남북은 또다시 1:1로 비겨 2008년 4차례의 남북대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4월 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축구대결이 또다시 펼쳐져 한국이 1:0으로 승리했다.

유소년 축구분야에서도 남북 교류가 지속되었다.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김문수 지사)과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상임위원장 김경성)의 선수단, 임원 등 30여명이 10월 8~15일 남북유소년 축구교류를 위해 방북하였다. 임원진과 함께 방북한 남측의 경수유소년축구클럽과 북측의 4.25 체육단 축구대표팀이 평양에서 남북 유소년 친선경기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방북한 남측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한적한 남포 해변을 방문해 북한 어부들과도 대화하고 모래사장에 한반도 지도를 그리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비록 민간 차원이긴 하나 대규모 응원단이 파견되어 북한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는 등 남북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을 받아 응원단 400명을 모집해 베이징에 파견하였고, 응원단에는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유소년 축구선수, 미전향 장기수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이들은 8월 10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코리아 응원단」의 깃발 아래 10일 한국 남자축구의 대 이탈리아 조별 리그 2차전, 한국 유도 왕기춘 선수, 북측 유도 계순희 선수 등 남북 양쪽 선수단의 주요 경기를 응원하였다.

8월 13일 북한 여자축구 경기에서는 남측 응원단 400여명, 북측 응원단 500여명이 입장하여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비록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주고받기 응원을 펼치지는 못했으나 남측 응원단이 시작한 응원물결에 북측 응원단이 동참하자 남측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경기 종료 이후에도 경기장 밖에서 남북 응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었다.

2008년에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으로 남북체육교류도 위축되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한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 그리고 동시입장이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교류행사로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17명이 참가하여 5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선수단은 남자유도 60Kg이하급에서 3위, 여자유도 48Kg이하급에서 2위, 52Kg이하급에서 1위, 57Kg이하급에서 3위, 63Kg이하급에서 3위를 하였다.

2008년에도 역시 같은 제주도에서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북한 선수단 15명이 방남하였다. 북한 선수단은 2009년도 국가올림픽위원회간 일어나는 국제체육행사에서 단일팀 구성은 없었고, 국내 개최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방남한 사례는 1회에 불과하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북한 축구대표팀이 방남하였다. 이외에 2009년도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체육교류협회 사업으로 동 협회 관계자 17명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성체육인초대소 준공식에 참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교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인적 접촉과 남북한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 여전히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폭은 커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야의 다변화 및 전문화가 이뤄져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체육교류는 전문체육분야 및 생활체육분야의 공동 주관 혹은 공동 참가 대회에만 국한되어 오다가 2005년에는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미 남측의 북한 방문자수 10만명이 넘어섰고 개성 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해져왔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향후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

한편, 남북체육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단체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체육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보다 전문적으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의 역량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응원단 구성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나마 올림픽 응원단이 파견되어 북한 측 경기를 응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 대표팀이 각각 참가하는 국외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로는 2010년 개최되는 2010 FIFA 남

아공 월드컵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여러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대표팀간 접촉할 기회가 있겠지만, FIFA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남북 체육교류 차원에서 주목할 국제체육행사이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북한 축구대표팀이 1966년 이후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한 대회이므로 북한에서도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대구모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동 응원단 구성이 성사된다면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남북이 공동 응원단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 응원단 구성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므로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도 체육부분의 남북교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는 끊임없이 남북 및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원론적인 반복이지만 남북체육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체육교류협력의 탈정치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동안에 남북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고 체육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때마다 체육외적 요소로 인해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남북체육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제도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NOC간 체육협정과 후속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 체육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남북 경제교류협회위원회처럼 체육을 포함한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체육교류의 정례화와 중장기적인 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부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단체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남북체육교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체육단체 및 민간단체가 비정치적으로 주도하되 정부에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후원'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간의 체제차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한체육회(KOC)나 각 경기단체 등 연관성 있는 체육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교류 영역의 확대이다. 종전에 이루어진 통일축구와 남북단일팀구성,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북한 참가 등은 국가대표 선수위주의 엘리트 체육 교류에만 주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국제대회 개최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이외에도 선수단, 팀간 공동 훈련지원이나 남북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과학자, 연구자간 상호교류, 북측에 대한 체육용

품 및 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류 종목과 추진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교류 종목과 관련해서 북한이 민족 고유의 놀이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민족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씨름,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교류로 확대할 경우 한민족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서독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 결연을 맺고 지역 생활체육인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주민간의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류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현재 남북체육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한해서만 교류재원이 지원된다.

체육 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 사업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연구하며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야 한다. 이는 보다 많은 관계자와 단체가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일곱째,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서 남북체육이 상생할 수 있는 현안이 관리되어야 한다. 남북 체육계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협회(ITF)간 산적한 과제인 태권도 통합 과제를 풀어가야 하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올림픽위원회나 국제체육기구에서의 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덟째, 국가 수준의 남북 체육 교류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육 교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남북한 국가대항전과 같은 체제 경쟁과 선전의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 간의 다양한 수준의 교류가 추진된다면 남북 체육교류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육이 과거 수준의 경기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남한 체육계가 지원해 주는 문제도 남북체육교류의 실질적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KOC)나 경기단체들이 남북 공동 훈련기회를 만들고, 스포츠과학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체육과학연구기관간의 교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스포츠과학 정보 교류의 경우 한국의 체육과학연구원과 중국 국립스포츠과학연구소, 일본의 스포츠과학연구소간의 이미 정례화된 국제학술대회라는 교류의 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틀 속에 북한 체육과학연구소를 초청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는 체육전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체육단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사안이다.

[2009 체육백서] 집필진

◆ 책임기획·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 김기홍(체육국장)

◆ 집필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집필 : 김양례
 - 집필위원 : 김권일, 민정미, 박영옥, 성문정, 송명규, 유의동, 유지곤, 윤성원, 이용식, 한태룡
 - 집필보조 : 김찬열, 이지현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감수 : 박위진(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양재완(체육진흥과장)
 - 이선영(국제체육과장)
 - 이종성(장애인문화체육팀장)
 - 김지희(체육정책과 행정사무관)

[2009 체육백서]

발행일 : 2010년 7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제 작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2009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연구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